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치 열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 진적곳의 제차 구성과 의미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은 우

서울 진적곳의 제차 구성과 의미

심 치 열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은 우

인 준 서

이은우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0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서울 진적굿은 만신이 자신이 모시는 몸주신과 기타 서울굿의 제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업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연행하는 굿이다. 무업과 관련된 기념 일이나 길일을 골라 굿의 연행 주체인 만신이 의뢰 주체를 겸하여 이루어진다. 만신은 무속신앙의 사제(司祭)이자 동시에 각별한 신자(信者)이다. 그래서 만신의 굿은 시간적·물질적 편의에 의해 훼손될 여지가 적다. 신굿에는 만신의 고유한 무업사이클이 반영된다. 진적굿은 신굿 중 유일하게 주기적으로 연행되는 굿이다. 그래서 다른 신굿에 비해 접근이 쉽고 완성도가 높아서 만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신굿의 고유한 원리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간 서울 진적굿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성과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에 보고된 자료와, 본 연구자가 참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7명의 만신이 연행한 16개의 서울 진적굿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무속신앙의 사제자인 만신이 갖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보수성을 확보한다. 편의에 따라 제차를 축소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모든 제차를 온전하게 연행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서울굿의 구성원리가 충실하게 반영된다.

서울 진적굿은 준비 과정인 상산돌기에서부터 마무리 제차인 회정맞이에 이르기까지 21개의 제차로 구성된다. 이들 제차는 재수굿을 기본으로 진적굿의 고유한 제차가 덧붙여 구성된다. 재수굿은 서울굿의 대부분의 신격을 아울러서 서울굿의 기본형이라 여겨지는 굿이며 진적굿의 목적과도 공통점이 있다.

서울 진적굿의 고유한 제차는 두 개의 세트에 구성된다.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와 대신말명거리-몸주놀이-애동기자대신말명거리가 그것이다. 전자는 진적굿의 순서를 사전 준비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직렬로 관통한다. 후자는 진적굿의 중간 중간에 병렬적으로 반복된다. 이들 제차는 각각 진적굿의 날줄과 씨줄이 되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진적굿의 날줄은 서울굿에서 만신의 조종으로 송양하는 덕물산을 근간으로 한 상산신앙이 핵심이다. 진적굿의 씨줄은 대신말명으로 대표되는 무조신앙이 중심에 놓인다.

한편 기존의 서울굿에 존재하는 보편적 제차도 진적굿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본향거리의 분할이다.

본향거리를 본향과 조상으로 나누어 두 개의 제차로 확장하고, 신격의 성격과 위계를 고려하여 대안주 전후로 재구성하였다. 본향거리는 대안주 전 지역신의 범주에서 연행하고, 조상거리는 대안주 후 인물신의 범주에서 연행한다. 보편적 제차를 재구성하는 핵심이 상산(대안주)거리와 대신말명거리에 있어 제차의 확장 및 변형에도 불구하고 서울 진적곳은 산만하지 않고 뜻하는 바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1절에서 살핀 진적곳의 고유한 제차를 구성하는 원리와 2절에서 살핀 보편적 제차를 구성하는 원리가 상산신앙과 조상신앙(무조신앙)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신에게 있어 내림곳이 사제자로 태어난 생일의 의미를 갖는다면, 진적곳은 생일을 반복적으로 기념하는 의례이다. 기념의 방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먼저 탄생의 의례인 내림곳을 집약적으로 재연한다. 또한 무업과 긴밀하게 연관된 몸주신과 무조신을 중심으로 서울곳의 주요 신격을 고루 청하여 감사를 표한다. 이를 통해 만신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업의 자산인 영력을 보충할 수 있다. 한편 만신은 무업사회의 구성원이다. 무업사회는 만신, 전악, 단골, 시봉자 등 다양한 주체로 이루어진다. 진적곳은 무업사회의 구성원들의 관계를 환기시켜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키고 유대를 다지는 계기로 기능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방법	5
II. 서울 진적곳의 자료 소개	8
1. 서울 진적곳의 개괄적 검토	8
2. 서울 진적곳의 자료	17
III. 서울 진적곳의 순서와 구성	30
IV. 서울 진적곳의 의미	105
1. 진적곳 구성의 낱줄과 씨줄	105
1) 낱줄 :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	109
2) 씨줄 : 대신말명거리-몸주놀기-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	121
2. 보편적 제차의 재구성	131
3. 내림곳 재연을 통한 만신의 재탄생	137
4. 무업 공동체의식 구현	146
V. 결론	151

참고문헌

ABSTRACT

표목차

[표 1] 서울 진적긱 자료 목록	17
[표 2] 서울 진적긱의 연행 과정	19
[표 3] 서울 진적긱의 제차 구성	105
[표 4] 서울 내림긱의 연행 과정	137

I. 서론

1. 연구 목적

서울 진적굿은 만신이 모시는 몸주신과 기타 제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굿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신이 직접 의뢰와 연행을 겸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재수굿의 보편적인 성격과 신굿의 특수한 성격을 고루 갖추어 서울굿의 본질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진적굿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간의 연구가 서울 진적굿을 상위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였고, 진적굿이 무업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굿이기 때문에 조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울 진적굿의 구조와 의미를 밝히고, 이를 통해 서울 진적굿의 구성원리를 해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 자료와 새로운 현장 자료를 종합한 것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존의 문헌 자료는 서울 진적굿의 비교적 과거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수가 적고,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쳐 굿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 조사한 현장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보충하고자 한다. 굿은 연행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실상을 재구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만신을 제보자로 선정하고 진적굿의 현장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간극을 좁히고자 하였다.

서울 진적굿은 굿의 목적상 재수굿과 신굿이라는 두 갈래의 특성을 갖는다. 서울 진적굿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하나의 굿으로 구현하기 위해 절차와 연행에 있어 특별한 구성 원리를 적용한다. 굿의 특성은 제차의 구성 방식에서 우선적으로 드러난다. 재수굿은 무속의 대표 신격을 고루 갖추어 서울굿의 기본형을 이룬다. 진적굿은 이 같은 서울굿을 기본 구조로 삼고, 여기에 진적굿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제차를 추가 및 확장하여 구성된다.

한편 진적굿은 만신의 신굿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전제적 의미이다. 만신은 사제(司祭)이자 동시에 가장 각별한 신앙을 실현하는 대표 신자(信者)이다. 그래서 만신의 굿은 시간적·물질적 편의에 의해 훼손될 여지가 적다. 같은 굿이라도 만신이 의뢰한 굿은 일반 신도가 의뢰한 굿에 비해 그 원형이 온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진적굿 연구는 서울굿을 구성하는 보편적 원리를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신굿만의 독특한 구성 원리가 있다는 점이다. 무속신앙은 만신을 통해 굿으로 구현된다. 만신은 그 자체로 무속신앙을 대표하는 주체이다. 강신무권의 신굿은 자신의 신을 모시는 단계와 절차에 의해서 내림굿·진적굿·하직굿으로 구성되어 만신의 일생주기(life cycle)을 고스란히 반영한

다. 진적국은 내림곳과 하직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의 장벽이 낮아 대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진적국 연구를 통해 만신이라는 정체성을 구현하는 신국의 고유한 원리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왜 서울 진적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곳의 현주소를 진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곳은 전통의 보전이라는 비호의 시선과, 미신 숭배라는 배척의 시선으로 인식된다. 서울곳은 현재 새남곳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그리고 다수의 마을곳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새남곳은 재수곳과 천도곳을 겸한다. 장대한 규모와 세련된 구성을 갖추어 서울의 개인 곳을 대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같은 규모와 격식 때문에 발표회라는 형식으로 공연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현장에서 연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마을곳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해체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규격화되고 그 의미도 축소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지금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활발하게 곳판이 열린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울곳은 자본의 논리에 함몰되어 효용 가치로 존재한다. 이제 재가집은 신앙 주제라기보다 소비 주제인 고객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울릴 지경이다. 고객의 편의와 기호를 우선에 두면서 곳의 본래의 의미와 구성은 무너지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적국의 의의가 주목된다. 진적국은 구성과 의미에 있어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성면에서는 곳거리를 생략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전통의 곳법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만신은 신과 인간을 잇는 사제이다. 진적국은 만신의 이 같은 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신자로서 무업의 번창을 기원하고, 신께 감사를 올리고, 신앙공동체에 대한 분배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신앙이 갖고 있는 참된 본질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진적국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2. 선행 연구 검토

서울 진적국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1930년대에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1888-1954)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조선무속의 연구』¹⁾에서 '경성과 개성의 무녀가 영력 강화를 위해 덕물산 최영장군에게 진작(進爵)하는 주기적인 무제(巫祭)이며 술과 고기를 올리고 신복을 말리는 형식으로 올린다'라고 진적국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진적국의 명칭과 목적, 방법 등 진적국의 실상을 진단하였고, 1930년대에 이루어진 보고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 단락 남짓의 짧은 서술로 이루어져 그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공저, 『조선무속의 연구』 상·하,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서울 진적긔의 실상을 처음으로 보고 및 연구한 것은 김태곤이다. 김태곤은 저서 『한국무속연구』²⁾을 통해서 긔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무속의 종류를 의뢰 주체에 따라 무신제, 가제, 동제로 나누었는데, 이중 무당 자신의 긔을 무신제(巫神祭)라 하여 따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의 갈래로 강신제(降神祭)와 축신제(祝神祭)를 설정하고 예증하였다. 진적긔의 의뢰 주체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림긔과의 관계에서 유형화하였으며, 진적긔의 제차가 재수긔를 기본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또 꽃맞이긔이라는 이름으로 진적긔의 실상을 거칠게나마 제시하였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같은 만신이 구송한 재수긔 무가의 사설을 『한국무가집 1』 중 「서울지역무가」³⁾ 편에 수록한 것도 중요한 업적이다. 그러나 긔의 거리 설정과 신격이 명확하지 않고, 타지역 긔의 용어를 별도 설명 없이 혼용하고 있다. 또한 진적긔의 목적을 주기적인 영력 강화에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최길성은 같은 해 저서 『한국의 무당』⁴⁾ 중 서울지방의 무속을 다루면서 서울 진적긔를 처음부터 끝까지의 제차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당주무당 외에도 거리를 연행한 만신의 이름을 명시하여 소개하였다. 긔에 참여한 만신은 당주 이지산 외에도 박어진이 있는데, 이들은 오늘날까지 서울긔의 큰무당으로 꼽히는 만신들이어서 의의가 상당하다. 그러나 각 지역의 무속 형태와 무당의 특징을 개관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술된 자료라 진적긔에 대한 연구라고 하기에는 이르다.

이후 조흥윤⁵⁾ 등 여러 학자들이 진적긔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긔에 대한 개론서에서 서울긔의 갈래 중 하나로 진적긔를 소개하며, 천신제와의 비교나, 강신무의 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제 등으로 진적긔의 단면을 서술하는 하는 데 그쳤다.

홍태한은 저서 『서울긔의 양상과 의미』 중 「진적의 의미와 기능」⁶⁾이라는 소논문을 통해 이영희의 진적긔 사례를 보고 및 논의하였다. 진적긔의 대상으로 한 최초의 논문이며, 진적긔를 통해 긔가 갖는 심리적, 연희적 의미를 밝혀 새로운 방향의 논의를 이끌었다. 특히 진적긔의 몸주거리와 단골과의 관계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제보자의 수준과 보고된 사례의 구성에 의문이 들고, 진적긔 본질에 대한 규명이 미약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같은 사례를 『한국의 긔』 중 「서울긔」⁷⁾에서 서울의 다른 긔과 함께 견주어 설명하였다.

『무·긔과 음식 1 -김유감 진적긔·오수복 진적긔·서울새남긔』⁸⁾은 국립문화재연구

2)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3) 김태곤, 『한국무속총서 I 한국무가집 1』,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집문당, 1971.

4) 최길성, 『한국의 무당』, 열화당, 1985.

5) 조흥윤, 『한국의 무(巫)』, 정음사, 1983,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6) 홍태한, 『서울긔의 양상과 의미』, 민속원, 2007.

7) 하효길 외, 『한국의 긔』, 민속원, 2002.

소 주관으로 자료를 보고하였다. 서울 진적곳에 해당하는 자료는 김유감 진적곳 부분이며, 주영하 · 최진아가 공저했다. 김유감 만신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곳의 보유자이며 서울곳의 대표적인 큰무당이다. 김유감 만신의 진적곳의 전체 과정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관찰이 어려운 준비 과정까지 기록한 점은 이 자료의 중요한 장점이다. 그러나 조사의 초점이 상차림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실제 곳의 내용을 전하는 데에 몇 가지 오류가 있고, 논의가 진적곳의 구조나 원리를 밝히는 것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진적곳에 대한 연구는 김헌선의 의해 도약이 이루어졌다. 김헌선은 「서울곳의 다양성과 구조」⁹⁾에서 서울곳의 갈래를 만신이라는 핵심 주체를 기준으로 내림곳과 진적곳으로 나누고 각각의 사례와 의의를 논의하였다. 그간의 연구가 내림곳과 진적곳 전체를 뭉뚱그려 설명했다면, 김헌선은 계면돌기, 종지집기, 청계배웅, 제당돌기, 제당배웅 등 만신의 곳에만 등장하는 핵심 제차를 지목하고 그 기능을 짚었다. 만신이 무업을 마감하며 올리는 곳인 하직곳의 존재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강신무권인 황해도곳과 제주도곳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이것이 한국 무속의 보편적인 원리임을 제시하여 그 의의가 크다. 한편, 진적곳의 거리 운영에 관한 성과에 집중해서 「제당맞이와 회정맞이의 열두거리 연구」¹⁰⁾를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가 서울 진적곳을 이루는 중요한 틀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 밖에도 『한국민속신앙사전』 중 「진적곳」¹¹⁾ 관련 항목을 서술하며 진적곳의 정의와 내용, 의의를 요연하게 개관하였다. 이렇듯 김헌선의 연구는 기존의 진적곳에 대한 모든 성과를 뛰어넘어 진적곳의 핵심을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연구의 시야가 타지역의 곳이나, 만신의 곳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서울 진적곳 자체에 집중한 세부적인 집중과 논의가 부족하다. 작게는 상산 덕물산의 위상과 기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산돌기와 삼산돌기 등으로 명칭을 혼용하거나, 이태말미 삼년시력을 만신의 곳에서만 통용되는 주기로 서술하는 등의 오류가 드러난다. 또 진적곳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 중 하나인 몸주놀기와 대신말명거리를 예외적 거리로 처리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지 않아 진적곳의 핵심이 되는 무조신앙을 간과하였다. 무엇보다 진적곳의 원리를 규명하는데 비중을 두면서 그 실상을 한정적으로 제시하여 논의의 명확한 검증이 어렵다. 곳은 현장예술이다. 때문에 진적곳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적곳의 사례를 비교,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의 일부 논의는 실제 연행된 곳의 사례가 아니라 만신의 제보를 근거로 구성한 가상의 곳이 근거가 되었다. 인

8) 국립문화재연구소, 『무·곳과 음식 1 -김유감 진적곳·오수복 진적곳·서울새남곳』, 2002.

9) 김헌선, 「서울곳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무속학』 제12집, 한국무속학회, 2006.

10) ———, 『서울곳, 거리 거리 열두거리 연구』, 민속원, 2011.

11) ———, 「진적곳」,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6. (* 『한국민속신앙사전』은 출간 이래 꾸준히 증보되고 있는 웹서비스 사전을 인용함을 밝힌다)

위적인 환경에서 구술하는 가상의 곳이 도출한 원리는 명쾌하고 합목적성을 지닌 듯 보인다. 그러나 현장의 곳이 도출해내는 생생한 운영 원리 앞에서는 그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만신이 발화하는 공수와 기타 무가는 이를 수용하는 대상과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성격과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공식화된 사설과 곳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뜻하지 않은 변수들이 만나며 빚어내는 서울 진적곳의 생생한 곳법이 퇴색되었다.

이은우는 「서울 진적곳과 바리공주의 상관성 -대신말명거리를 중심으로」¹²⁾를 통해 서울 진적곳의 대략적인 모습을 개관하고, 진적곳의 주요 제차인 대신말명거리의 성격을 밝혔다. 진적곳의 자료를 정리하고,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대신말명거리를 무조신양과 관련하여 의미를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의대와 도령돌기라는 특별한 연행 방식, 무조신양이라는 공통점에 근거하여 대신말명거리를 서울곳의 대표적인 무조신인 바리공주와 연관하여 논의한 점이 특별하다. 그러나 논의가 특정 거리에 한정되어 있어 진적곳 전반의 성격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 진적곳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료가 누락된 것이 있고, 제차를 논의하는 틀이 성글어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듯 서울 진적곳에 대한 기존의 보고 및 연구 성과는 진적곳을 단독으로 규명한 바가 없고, 연구의 규모에 있어서도 개론서나 소논문 몇 편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간의 연구는 세 가지 갈래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일찍이 아키바 다카시의 보고 이후 강신 무권에서 만신의 영력 보강에 주목한 것이 있다. 둘째는 서울이라는 지역이나 특정 연행자에 주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총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진적곳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여 의미와 기능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 진적곳의 구성원리를 다각도로 규명하고 핵심을 밝힌 성과는 아직 미진하다 하겠다. 본고는 이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출발점으로 삼아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미흡한 점을 수정하여 진적곳의 성격과 구성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진적곳에 대한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그간 진적곳의 실상을 기록한 사례는 5건이 전한다. 제차의 설정과 조사의 범위가 조사자마다 다르고, 이마저도 곳의 진행을 스케치하는 데 그쳐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40여 년의 기간을 거쳐 전하며, 여기에 단편적이지만 1930년대의 관련 기록을 참고하면 약 90여 년의 기간에 이르는 동안의 서울 진적곳의 모습을 제한적으로

12) 이은우, 「서울 진적곳과 바리공주의 상관성 -대신말명거리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 32호, 2014.

나마 살필 수 있다.

여기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11건의 사례를 갖추었다. 11건의 사례는 현장에서 집중적인 관찰과 조사로 구성된 결과물이다. 본 연구자가 곳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DVD 영상물로 녹화 기록되어 서울 진적곳의 현장을 연행요소 전반을 다방면에서 정확하게 살필 수 있다. 곳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설은 녹음, 녹화한 결과물을 본 연구자가 채록한 것을 텍스트로 활용했다. 본 연구자가 새롭게 관찰한 자료가 연구 대상으로 보편성을 확보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전하는 문헌자료와 연행자와 같거나 유사한 만신의 다른 사례를 포함하였다. 또한 서울곳의 큰만신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연행자의 자료를 상당수 확보하였으며 반대로 실력이 미숙한 연행자의 자료도 갖추었다. 그러므로 각각의 사례는 하나의 예증이자 서로의 대립·비교항으로 구실이 가능하여 진적곳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는 텍스트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진적곳의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무가를 위시하여, 무복·무악·무무·무구 등 곳의 연행 요소를 총체적으로 주목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만신의 곳이라는 진적곳의 중요한 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곳이라는 의례의 생산 주체와 수요 주체, 연행 주체와 의뢰 주체 등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다루었다.

객관적인 관찰만으로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진적곳의 핵심을 파헤치는 데 부적절하다. 때문에 부득이 발생하는 자료의 여백과 모순은 본 연구자의 현장 경험과 경륜을 갖춘 만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맥락에 맞게 바로잡았다.

이러한 연구 작업을 거쳐 진적곳을 구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서울 진적곳이라는 개별의 대상을 해명하는 데 유효하고, 나아가 다른 곳과의 비교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우선 서울 진적곳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고, 곳의 목적과 구조를 공유하는 재수곳과 내림곳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 진적곳이 이들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 특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상기한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진적곳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제시한다. 진적곳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어 그간 연구자마다 용어와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여 진적곳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용어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서울 진적곳의 주체, 시기, 목적에 주목하여 갈래적 특성을 개괄하고자 한다. 그리고 논의의 텍스트가 되는 16개의 문헌 및 참관 자료를 소개하고 시기와 연행자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진적곳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진적곳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3장에서는 진적곳이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의 전과정을 구성하는 연행 요소를 연행 순서에 따라 상세히 제시한다. 곳을 연행하는 목적과 특성은 무가 사설을 통해 구체화된다. 3장에서는 진적

굿을 구성하는 제차와 무가 사설을 중심으로 진적굿의 실상을 살핀다. 또한 연행예술인 굿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무복, 무무, 무악, 무가와 같은 연행요소를 고려한다. 이를 통해 진적굿이 다른 굿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자 한다.

4장에서는 서울 진적굿의 의미를 진적굿의 구조와 성격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먼저 구조의 측면에서, 진적굿은 굿의 목적상 재수굿과 신굿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은 굿의 기본 단위인 제차의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진적굿의 구조는 서울굿의 기본 형태라 할 수 있는 재수굿의 보편적 제차를 골격으로, 여기에 진적굿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고유의 제차를 추가하여 구성된다. 1절에서는 진적굿의 고유 제차를 구성하는 방식과 그 의미를 규명한다. 2절에서는 기존의 보편적 제차라 할지라도 진적굿의 특성이 드러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방식과 의미를 밝힌다.

한편 진적굿은 만신이 무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출발점을 되돌아보고 기념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적굿은 내림굿과 함께 논의해야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3절에서는 만신으로의 재탄생을 기리는 진적굿의 의미를 내림굿과 견주어 논의한다. 만신은 무업사회의 대표 주체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제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진적굿은 만신이 모시는 몸주신과 서울굿의 모든 제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례이다. 동시에 신에게 받은 유형과 무형의 자산을 신자와 만신, 악사, 시봉자 등 무업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의례이다. 그래서 진적굿은 만신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반영된다. 4절에서는 이렇게 진적굿을 통해 무속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고 구성원 간에 공동체의식을 다지는 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아울러 본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점검한다.

II. 서울 진적곳의 자료 소개

1. 서울 진적곳의 개괄적 검토

진적곳이란 ‘신에게 술잔을 올리다’라는 의미의 진작(進爵)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당이 곳을 연행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가 되어 곳을 의뢰하는 특별한 형태의 곳을 뜻한다. 무당이 객체가 되어 곳을 의뢰한다는 측면에서는 신곳의 일종이며, 무업의 성취를 기원한다는 목적의 측면에서는 재수곳과 통한다.

곳을 의뢰하는 주체와 연행되는 시기, 그리고 곳을 하는 목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진적곳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진적곳이 가진 개별성은 전체적인 곳의 보편성과 견주어 보았을 때 보다 선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곳이라는 전체에서 진적곳의 위치를 짚어본다.

1) 연행 주체

곳의 목적은 대개 곳을 의뢰하는 주체와 시기의 특성에 따라 드러난다. 때문에 주체와 시기는 곳을 분류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곳을 연행하는 주체는 언제나 무당이지만, 곳을 의뢰하는 주체는 다르다. 그 수에 따라서는 단수일 경우에는 가정곳과 같은 개인곳이 되고, 집단을 이룬 복수일 경우에는 마을곳이나 국행의례와 같은 나라곳이 된다. 나라곳은 조선 건국 이래 유교 의례화되면서 현재는 전승이 거의 끊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을곳의 경우 활발히 전승되는 지역도 일부 남아있다. 그러나 도시화와 함께 마을 공동체의 관념이 균열되면서 많은 곳들이 소멸되고 있다. 명맥이 유지되는 곳도 관제화와 함께 대동소이하게 획일화되거나 일회적인 이벤트처럼 시행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개인곳의 경우 의뢰하는 입장이나 연행하는 입장 모두 더 절실한 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마을곳의 경우보다 비교적 온전한 전승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가제(家祭)나 동제(洞祭)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곳과 마을곳으로 칭한다.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향유층이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한자를 빌린 전자의 명칭은 유교식의 제례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 무속의 의례를 따로 구별하기 위함이다.

개인곳의 경우는 곳을 의뢰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일반인이 곳을 의뢰하는 가정곳과 무당이 스스로 곳을 의뢰하는 신곳으로 나뉜다. 곳을 의뢰하는 주체의 성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당이 의뢰하는 곳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변별점을 확보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곳의 경우 곳을 운영하는 데 있어 곳을 의뢰하는 주체인 재가집의 의지가 짙게 반영된다. 그런데 신앙이 깊고, 전래의 곳법에 익숙한 신도가 차

춤 줄면서 굿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만 급급한 재가집이 늘어난 탓에 가정굿은 제상(祭床)이나 굿의 연행 규모가 축소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잦다. 동자거리처럼 특별한 사설을 습득하지 않아도 연행이 가능하고 재가집이 흥미를 가질 법한 자극적인 굿거리나 공수는 확장시키기도 한다. 홍태한의 지적¹³⁾처럼 과거에는 택일을 하여 굿날을 잡았지만 지금은 재가집의 편의에 맞춰 굿을 진행하고, 얼마나 굿을 빨리 하는지가 무당의 능력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할 만큼 서울굿 전반에서 개인굿의 축소화와 재가집 중심의 굿이 우세해진 실정이다. 그러나 무당이 재가집이 되어 굿을 의뢰하고 행하는 경우에는 사제자이니 만큼 굿법에도 밝고, 신앙이 깊으며, 다른 신도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라도 굿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타 굿에 비해 비교적 온전한 굿의 모습을 갖춘다는 가치를 갖는다.

2) 연행 시기

굿은 연행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제(定期祭)와 임시제(臨時祭)로 나뉜다. 집단이 주체가 되는 경우 정기제는 마을의 당굿이나, 국가의 제천의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임시적으로 연행되는 굿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 거행되며 기우제 등이 이에 속한다. 개인굿 중 가정굿 경우에는 정기제로 천신제와 같은 재수굿이 대표적이며, 임시제는 혼례나 상례 등과 연관된 여담굿이나 천도굿이 대표적이다.

개인굿 중 신굿의 경우에도 이 같은 구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태곤이 강신제라 규정한 범주에 속하는 굿이 여기에 속한다. 신굿의 정기제는 기본적으로 축신제의 목적을 가지며 가정굿의 정기제라고 할 수 있는 재수굿과 비슷한 점이 많다. 특히 정기적으로 올리는 굿은 이용범이 밝힌 바와 같이 무속의 신은 인간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찾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없어도 일정한 시기마다 찾아가 정성을 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도 확보한다¹⁴⁾.

신굿의 임시제는 강신무권에 속하는 무당의 삶의 궤적과 함께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병을 겪으면서 몸에 내린 잡귀 잡신을 쫓아내는 허주굿, 무당으로의 삶을 시작하는 내림굿, 1년 뒤 무업의 성업을 기원하는 소슬굿, 그리고 무업을 은퇴하며 무당으로의 삶을 마감하는 하직굿이 그것이다. 임시제에 속하는 신굿은 무업과 함께 시작하는 무당이라는 새로운 삶의 고비에서 겪는 통과의례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시행도 일회적이어서 더욱 강렬한 체험으로 비추어진다. 강신무권에 속하더라도 서울굿의 경우에는 허주굿이나 소슬굿, 하직굿과 같은 신굿은 자주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림굿이 갖는 위상은 더욱 각별하다. 하지만, 내림굿은 사제자로 입문하는 의미가 강하다. 내

13) 홍태한, 「서울굿의 현재적 양상」, 앞의 책(2007).

14) 이용범,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 -서울 지역 재수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22쪽.

림굿은 대개의 경우 입무 전에 무병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 치러진다.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목적이 부각되고, 공식적인 접신은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모셔지는 신격이 두서없기 십상이다. 내림굿은 무당을 천대시하는 사회적 인식과 신체적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올려진다. 가정굿 역시 천도굿처럼 예기치 못한 불운을 만나 행해지는 임시제에서는 내밀한 개인사가 공개되는 것이라 여겨 외부인의 참여를 꺼리고 은밀히 올려지는 경우가 많다. 일회적·부정적·피동적인 성격으로 인해 참관이 어렵고 접근성도 현저히 낮다. 또한 신이 내려 굿을 의뢰하는 만신은 내림굿의 주인공이지만 실제적인 내림굿의 연행은 대개 신어머니가 주관한다. 입무자는 굿법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무엇보다 의례를 집전하는 원무당과 신어머니(신아버지)-신딸(신아들)이라는 부모-자식이라는 상하의 위계가 뚜렷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적굿과 같은 신굿의 정기제는 굿의 의뢰와 연행 주체가 같아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다. 무당이 집전하는 수많은 굿 중 시간, 장소, 제물, 전약 등 소요 비용의 규모와 짜임의 모든 면에서 선택권이 가장 자유로운 굿이 신굿 중에서도 단연 진적굿이다. 그래서 굿을 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 무업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후 행하는 굿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행되고 연구에 접근도 용이한 편이다.

서울 진적굿이 연행하는 시기는 몇 개의 공통점이 있다. 우선 계절적으로는 봄과 가을을 선호한다. 파종과 수확의 계절이라 자연의 순환 원리를 모방하여 무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감사제(感謝祭)로의 면모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굿을 올리는 만신의 기념일을 우선한다. 만신의 생일이나 내림굿을 했던 날, 신어머니의 생일 등이 그 예이다. 진적굿은 만신의 무업 생애를 기념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또 하나 고려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이태말미 삼년시력'이라는 관용구이다. 형편이 닿으면 진적굿을 몇 번이고 올려도 좋지만, 적어도 이태말미 삼년시력이라 하여 한 해 걸러 한 번은 올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이태말미 삼년시력'이라는 원리는 비단 만신의 진적굿에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이태말미 삼년시력'은 재수굿 무가에서 일종의 관용구처럼 사용된다.

아무 가중에 몇식구 ㉠너희가 옛날부터 산(山)쓰던 집이 ㉡전부텀 너희가 삼년시례 이태말미 하던 집이 어찌라구 여적지 있었는가 앞으로는 삼년시례 이태말미에 굿주와마다 허허렸으랴 꽃다령하라(중략)아무개 가중 몇식구 살아가드라도 ㉢올 일년이 편안하구 석삼년이 편안해서 벼슬 공명 돌을사람 돌아주마¹⁵⁾

이는 서울 재수굿 중 상산거리의 무가의 일부이다. ㉠옛날부터 산을 쓰던 집이라고

1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10책 서울편 중, 1980.

하여 무속신앙의 연원이 있는 재가집임을 밝히면서, ㉠이태말미 삼년시력으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나무란다. ㉡굿의 효험이 굿을 올린 해와 석삼년까지 지속된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태말미 삼년시력은 서울굿에서 만신의 굿과 임집의 굿을 가리지 않고 두루 적용되는 정기제의 연행 시기를 일컫는 구절임을 알 수 있다. 진적굿을 자주 올리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상산에 물고를 받고 제당을 돌아오는 순례의 여정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굿의 신앙체계에서는 굿덕을 입을 수 있는 기한이 3년이라고 관념한다. 또 사제자인 만신이 모범을 보여야 신도들이 이를 따를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서울굿 만신은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진적굿을 올려야 한다고 여긴다.

서울 만신들이 관용구처럼 흔히 하는 말로 “천금새남을 가겠느냐 만신의 진적을 가겠느냐”라는 것이 있다. 새남굿은 수많은 서울굿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굿이다. 그럼에도 ‘만신이 구경을 가든, 청송을 가든간에 진적굿을 가는 편이 더 낫다’라는 뜻이 가졌다. 진적굿은 각별한 공을 들여,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때문에 굿의 시행착오가 줄고 완성도가 높아 새남굿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실속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적굿은 굿을 올리는 주체가 만신인 것도 이유지만, 굿이 일회적이지 않고, 일정한 주기로 반복적으로 연행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서 진적굿을 중점적으로 다룬 성과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3) 연행 목적(명칭)

연행의 목적은 명칭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진적굿에는 다양한 이칭이 있다. 용어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은 비단 진적굿만의 특징은 아니라 대부분의 굿의 특성이기도 하다. 굿이 행해지는 지역권별로 특성이 다르기도 하고 연행이라는 방식으로 전한다는 굿의 특성상 연행자나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진적굿의 이칭 혹은 유사한 명칭으로는 진적, 꽃맞이굿, 단풍맞이굿, 대택굿 외에도 천신굿, 신차렘굿, 햇곡맞이굿, 잎맞이굿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혼용은 굿이 행해지는 지역, 시기, 목적에 저마다의 방점을 두면서 생겼다. 특히 『조선무속의 연구』에서 진적을 “진작(進爵)”이라는 표기와 함께 “무가(巫家)에서 무업(巫業)의 번창을 위해 무신(巫神)에게 제사를 올리는 굿인데, 봄에 하는 것을 <꽃맞이>굿, 가을에 하는 것을 <단풍맞이>굿이라고 한다”¹⁶⁾라는 서술한 이래, 진적굿의 명칭은 꽃맞이와 단풍맞이굿과 동격으로 사용되어 왔다.

서울 지역에서는 진적, 진적굿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택굿은 황해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꽃맞이굿·잎맞이굿·단풍맞이굿·햇곡맞이굿 등의 호칭은 굿이

16)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하), 14쪽.

열리는 시기에 주목한 용어이다. 이 같은 점은 무라야마 지준이 계절적 굿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굿의 종류에서도 확인된다.¹⁷⁾ 2월에 하는 꽃맞이, 3월에 하는 꽃맞이, 4월에 하는 잎맞이, 4월에 하는 화전맞이 등으로 소개하였다. 월령에 맞춰 ‘맞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굿이 열리는 시기, 특히 월령을 일컫는 세시에 주목하는 단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단풍맞이는 계절적으로 구별이 되지만, 봄맞이·꽃맞이·잎맞이라는 호칭은 연구자들 뿐 아니라 굿의 사설에서도 “오늘의 이 정성은 꽃맞이 정성이요 잎맞이 정성으로” 등과 같이 혼용되고 있는데, 본래는 각기 다른 월령에 굿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꽃맞이굿은 삼진날에, 유두, 단오절, 중구일 등의 명절에 날짜를 맞춰 열리는 경우가 많다.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같이 홀수 곧 양수(陽數)가 겹치는 날은 예로부터 중양절(重陽節)이라 부르며 길일로 치는 날이기도 하다.¹⁸⁾ 부정을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일을 잡는 택일은 굿의 정성을 다지는 시작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날짜는 전통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세시풍속을 즐기는 명절이기도 하다. 무속에서는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기도 하다. 횡수(橫數)라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들기 쉬운 나쁜 운수를 막아내는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굿에서는 횡수막이(橫數防)이라 하여 정월에 무당을 찾아가 치르는 행사가 있는데, 현재에도 창부타령에 그 대략의 모습이 전한다. 그 내용은 매달 세시명절에 무당을 통해 떡으로 대표되는 시절음식을 신에게 바치는 방법으로 부정함을 물리치고 행운을 바라는 목적이 드러난다.

실제로 진적굿은 꽃맞이나 잎맞이가 열리는 봄과 단풍맞이나 햇곡맞이가 열리는 가을에 주로 많이 행해진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가을은 농경사회의 전통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진적굿은 계절이 순환하듯 정기적으로 행해진 의례였다는 점도 잘 드러난다.

이들 용어가 지향하는 목적은 천신굿이라는 호칭에서 잘 드러난다. 천신(薦新)의 뜻 그대로 새로운 수확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갖는다. 햇곡맞이굿이나 신차림굿이나 넓게는 꽃맞이·잎맞이의 뜻도 천신굿의 뜻과 다르지 않다. 또한 무속만의 특이점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꽃맞이·잎맞이, 단풍맞이라는 용어가 가진 보편적인 가치로 인해 유교식 제사나, 가정굿·마을굿의 범주에서도 같은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자칫 혼동될 수 있다.

제삿날 이외에 철을 따라 사당이나 선영에 올리는 차례를 지내는 날 …중략… 거의 일반적으로 가묘에 올리는 음식물은 정월 초하룻날 아침·한식·단오·추석의 차례 또는 천신(새로 나

17)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무격』, 최길성·박호원 옮김, 민속원, 2014. 332-333쪽.

18) 최길성은 서울 지방 굿의 예로 1971년 10월 27일(음력 9월 9일) 선바위 국사당에서 행해졌던 굿을 소개하고 있다. 주무 이지산과 남무 최명남, 오도바이 만신 등 세 사람이 행했다는 이 굿은 주무 이지산이 음력 9월 9일 중구일을 맞아 자신의 신굿을 견해 조사자들을 초청했던 굿으로, 예법대로 차례 격식에 맞춰 열린 굿이었다고 기술하였다.(최길성, 앞의 책(1981), 85쪽)

은 곡식이나 과실을 먼저 조상에게 올리는 것)이며, 또한 정월 대보름날·삼월 삼짇날·유두·중양절·동지 등에도 음식물을 올리는 집이 적지 않다. …중략… 《열양세시기》에도 “우리나라 풍속에 기제사(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는 중히 여겨도 시제(時祭)는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오랑캐의 더러운 습관이다”라고 한 것처럼, …중략… 《동국세시기》에 “도시 풍속에 산소에 올라가 제사를 올리는 것은 설날·한식·단오·추석의 네 명절에 행한다.” …중략…

이처럼 아키바 다카시가 『조선민속지』에서 서술했듯¹⁹⁾ 유교 전통 아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의례를 지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키바 다카시는 경성의 봄맞이·꽃맞이·잎맞이를 ‘소위 천신(薦新) 행사에 속하는 것이며 대부분 무당이 행한다’고 설명하면서 가제(家祭)의 대표적인 계절제로 꼽고 있다.²⁰⁾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은 꽃맞이나 단풍맞이가 종교 의식에서 놀이화되는 양상이다.

경성 지방의 꽃맞이·잎맞이, 평양 지방의 소위 꽃놀이 등은 오늘날 봄에 여성들의 유락(遊樂)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것이다.²¹⁾

근래에는 굿에서 반드시 첫 농산물을 바치지 않는데, 이런 점에서 천신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배신양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 말고도 다소 향락적인 유흥을 위하여 행해지기도 한다. 즉, 계절이 바뀔 때 특히 봄이나 가을의 좋은 시기에 가족들이 개최하여 신들을 청하여 하루를 즐기고 굿에서의 무악을 통해 교류와 위안을 얻고자 한다.²²⁾

위 인용문은 무속의 종교의례를 가리키던 꽃맞이와 단풍맞이가 오늘날 유흥적 목적에서 행해지는 꽃놀이와 단풍놀이를 차츰 변화해가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유흥화 현상은 신성의 퇴색이라기보다는 신성의 확장적 계승의 의의도 있다. 하지만 진적굿의 명확한 논의를 위해서는 자칫 혼동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 또한, 진적굿의 날을 잡을 때 보편적인 세시와 더불어 고려하는 조건이 신이 내려 말문이 터진 날이나 내림굿을 한 날처럼 무업에 입문을 하게 된 무당 개인의 생애이다. 꽃맞이굿이나 단풍맞이굿이라는 호칭만으로는 신굿 중 하나라는 진적굿의 특성을 온전히 살리는 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천신굿·천신제라는 명칭도 점검을 요한다. 조흥윤은 천신굿을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굿으로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19) 아키바 다카시, 『조선민속지』,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167-168쪽

20)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 158쪽.

21) 같은 책, 158쪽

22) 무라야마 지준, 최길성·박호원 옮김, 앞의 책, 276쪽.

천신굿이란 글자의 뜻처럼 계절의 새로운 소산을 신령에게 올리는 굿이다. 지역과 계절에 따라서는 꽃맞이굿, 잎맞이굿, 햇곡맞이굿, 신곡맞이굿, 단풍맞이굿 등으로 불린다. 그것이 재수굿과 같은 것이나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난다. 재수굿은 서민들이 주로 하던 굿인 반면, 상류층이나 부유층이 격식을 제대로 갖춰 놀던 것이 천신굿이다. 기록에 전하는 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봄 가을로 특히 가을에 추수가 끝난 뒤 하느님굿(天祭)을 벌여 오거니와, 천신굿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띤다. 천신굿은 한국 무의 가장 기본적인 굿이다. 그 역사적 전통과 농사를 위주로 삼아온 옛 사회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 사실은 충분히 이해된다. 다른 종류의 굿이란 천신굿을 기본으로 삼고 거기다 해당 굿의 특징적인거리를 넣어 편성한 것이다.²³⁾

이처럼 고대의 천제에서부터 비롯된 천신굿의 연원과 재수굿의 한 갈래이며 보다 격식을 갖춘 가장 기본의 굿이라는 의미를 요연하게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진적굿 논의에 있어 천신굿이라는 단어가 갖는 한계를 노출한다. 꽃맞이굿·잎맞이굿·햇곡맞이굿·신곡맞이굿·단풍맞이굿 등이 갖는 개별의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천신굿을 향유층의 경제적·신분적 위계에서 재수굿의 상위에 있는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의 서술을 위시한 그간의 용어들은 재수굿>천신굿>진적굿으로 포함 관계를 적시하지 못하고 천신굿과 진적굿과 같은 굿으로 서술하기 때문이다. 진적굿은 천신굿의 일종이지만, 천신굿이 진적굿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천신굿이 재수굿보다 격식을 갖춘 것은 맞지만 상류층이나 부유층에서 뿐 아니라 무당이 올리는 진적굿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진적굿은 신굿의 한 갈래라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진적굿을 연행한 날짜를 보면, 계절과 관계 없이 신어머니의 생일, 본인의 생일, 신이 내린 날, 최영장군의 탄신일처럼 무당의 무업과 관련한 날을 택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꽃맞이굿·잎맞이굿과 같은 용어로 진적굿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진적이라는 명칭에 대해 살핀다.

진적 또는 진적굿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본디 용어는 진작이다. 의궤류 등에서 보이는 진작(進爵)이라고 하는 것이 변용되면서 잔을 신령에게 올리는 것을 의미하던 것이 신에게 감사의례를 드리는 것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굿에서 실제로 보면 분향노랫가락과 상산노랫가락의 사이에 잔을 드리면서 신에게 절을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 점을 본다면 진작의 본디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진적굿의 원래 의미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가 서로 관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김헌선이 지적했듯²⁴⁾ 서울굿에서는 진적굿과는 별도로 진적이라는

23) 조흥윤,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6쪽.

24) 김헌선, 「제당맞이와 회정맞이의 열두거리 연구」, 앞의 책(2011), 139쪽.

제차가 따로 존재하고, 협의와 광의라는 관계를 갖는다. 초기에 조사된 무속자료에서도 진적이라는 제차는 명확히 관찰된다.

진작 : 기대는 장고를 자비는 제금을 울리고, 악사는 아악을 합주하면 주무(主巫)는 약주(藥酒)를 산마누라에게 올린다. 이윽고 행행곡(幸行曲)·육행곡(陸行曲)·무답곡(舞蹈曲) 순서로 그 합주가 끝나면, 기대는 주신(主神)풀이 산마누라노래가락을 부르고 악사는 반주한다. 이것은 즉의식 시작의 주악(奏樂)이다.²⁵⁾

젠적드림 : 부정거리를 계속하되 구송 없이, 장구 제금 피리 젓대 해금 등 무악으로 모든 신을 좌정시킨다.²⁶⁾

1930~1933년에 조사되어 1937년에 발표된 조선 무속의 연구의 자료와 1971년 연행된 자료에서 소개된 협의의 진적 제차는 오늘의 진적 제차의 연행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굿의 연행 주체는 만신 외에도 전악이 있다. 어떤 악사를 몇 명을 배설했는가에 따라 굿의 규모와 분위기가 좌우된다. 때문에 실력 있는 악사를 잡기 위한 만신의 경쟁도 치열하다. 서울굿 제차의 일부로서 진적은 전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리라는 의미도 갖는다. 서울굿에 쓰이는 대부분의 장단을 모아서 자진한납-염불-반염불-굿거리-허튼타령-당악까지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의 순서로 합주를 한다. 연주하는 동안 만신은 소지(燒紙)나 물을 둘러 굿당의 부정을 가시고 재가집과 굿상에 놓인 초와 향에 불을 켜고 술잔에 술을 따른 후 절을 올린다. 진적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자료에 따라 진적(進炙)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고기를 올린다’는 의미가 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술과 고기는 굿상에 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며, 두 용어 모두 이 같은 제물을 신에게 바쳐 공양한다는 진적굿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그러나 의미면에서는 상통하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광의의 진적은 진적굿이라 호칭을 하고자 한다. 물론 굿의 실제 향유층인 서울굿의 무당들은 ‘진적굿을 하다’라는 표현보다 ‘진적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진적굿이라는 호칭이 다소 인위적일 수 있다는 단점은 있다. 그러나 서울굿 무당들도 ‘만신의 진적’이라는 용어를 따로 두어 거리의 명칭으로의 진적과 굿 명칭으로의 진적을 차이를 두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첫째 서울 진적굿은 굿의 일반적인 분류 기준에 의해 개인굿(⇔마을굿)으로 산 자(⇔망자)를 위한 굿 중에서도 기복을 위한 재수굿(⇔천도굿)에 속하며, 특히 무당이 굿을 의뢰하는 신굿(⇔집굿)으로 굿이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정기제(⇔

25)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 135쪽.

26) 최길성, 앞의 책(1981), 85쪽.

임시제)라는 좌표를 갖는다.²⁷⁾ 둘째 호칭은 서울 진적곳으로 통일한다. 천신곳·햇밀천신곳 등의 용어는 진적곳의 고유의 뜻을 살리지 못해서 곳의 목적을 나타내는 보통명사에 가깝다. 또 신곳이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곳으로도 연행되기 때문에 더더욱 부적합하다. 꽃맞이·잎맞이·단풍맞이 등과 같은 명칭은 곳이 열리는 시기와 천신의 목적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대표성을 갖지 못해 논의의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적합하지 못하다. 또 꽃맞이곳과 같이 서울이 아닌 타지역의 무권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한 놀이로 진행되는 곳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도 단점이다. 진적이라는 호칭은 연원과 목적면에서는 일견 타당하나 서울곳의 보편적인 제차명과 같아 혼동을 야기한다.

한편, 같은 강신무권에 속하는 황해도곳에도 만신의 진적곳이 존재한다. 그러나 황해도곳과 서울곳의 기본적인 연행과 구성의 차이가 있고, 황해도 진적곳의 경우 대탁곳·만수대탁곳 등의 용어를 따로 사용하므로 서울 진적곳이라는 용어는 그 개별성이 유효하다.

이렇듯 선명한 논의를 위해서는 재수곳의 목적과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서울의 신곳을 서울 진적곳이라 부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의에서도 서울 진적곳 혹은 진적곳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7) 이은우, 「서울 진적곳과 바리공주의 상관성 -대신말명거리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 32호, 2014년. 249쪽.

2. 서울 진적곳의 자료

곳은 곳거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서울곳은 ‘거리 거리 열두거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곳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거리의 조합을 갖고, 또한 각 거리는 또다시 하위의 작은 거리들로 구성된다. 진적곳에 대한 논의 역시 거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서울 진적곳 자료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자료1~자료5는 기존에 문헌에 기록된 자료이고, 자료6~자료16는 본 연구자가 조사한 자료이다.²⁸⁾ 일견 자료의 대상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누락이나 변동 등의 가변 조건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더 크다. 또한 몇몇 자료는 문헌 자료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실체를 재구할 수 있었다.

번호	날짜	자료명	장소	조사자	비고
1	1966.04.16	문덕순 진적곳	도원동 전안	김태곤 ²⁹⁾	꽃맞이곳
2	1971.10.27.	이지산 진적곳	인왕산 국사당	최길성 ³⁰⁾	중구일을 맞아 진오기곳을 겸하여 연행
3	2001.12.09.	이영희 진적곳①	퇴계원 전안	홍태한 ³¹⁾	
4	2002.03.10.	김유감 진적곳	왕십리 전안	국립문화재연구소 ³²⁾	
5	2006.04.01.	권옥남 진적곳①	김포 전안	김헌선 ³³⁾	
6	2006.11.07.	강민정 진적곳①	삼선교 전안	직접조사	
7	2007.09.22.	이상순 진적곳①	구산동 전안		문화재보유자 지정 기념 및 최영장군 탄신일
8	2009.04.05.	강민정 진적곳②	삼선교 전안		당주 본인의 생일
9	2009.04.12.	이상순 진적곳②	구산동 전안		
10	2009.07.15.	강민정 진적곳③	구산동 이상순전안		햇밀천신곳
11	2010.11.25.	최금재 진적곳	공릉동 전안		
12	2011.03.24.	이상순 진적곳③	구산동 전안		
13	2011.10.16.	노○○ 진적곳	군자봉 경신곳당		진오기곳을 겸하여 연행
14	2011.11.06.	이상순 진적곳④	구산동 전안		
15	2013.04.22.	권옥남 진적곳②	인왕산 국사당		
16	2013.11.07.	이영희 진적곳②	퇴계원 전안		햇곡맞이곳, 신어머니이자 친어머니의 생일

28) 서울 진적곳 현장 조사는 경기대 김헌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자료의 번호는 연행 시기를 기준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붙였다. 동일한 만신의 자료는 원형 번호로 세분하였다. 진적굿은 만신이 무업에 입문한 것을 기념해 자신이 모시는 제신에게 감사하는 곳이다. 이러한 굿의 특성은 굿이 연행되는 장소와 시간에도 반영된다. 진적굿은 자택 전안에서 연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몸주신을 모시는 신단이 마련된 곳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전안이 아닌 경우 신어머니의 전안에서 굿을 올리거나, 전문 굿당을 이용했다. 진적굿은 만신 본인과 무당 사회의 공동체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신어머니에 대한 예우가 굿에 반영된다. 신어머니의 전안에서 굿을 연행한 자료10이나, 신어머니이자 친어머니의 생일에 맞추어 택일한 자료16이 예시이다. 현실적 제약에 따라 굿당을 따로 잡을 경우에는 무속의 대표적인 성소(聖所)로 알려진 굿당이 특별히 선호된다. 인왕산 국사당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자료13의 안산 경신굿당은 노씨 기자의 전안이 위치한 입지와 군자봉이라는 서울굿의 성소를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하였다.

진적굿의 택일 역시 진적굿의 목적과 연관지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천신(薦新)굿이 행해지는 봄과 가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무업과 관련한 특별한 기념일을 반영하여 택일한다. 자료10과 자료16은 햇밀천신굿, 햇곡맞이굿 등으로 천신굿의 성격을 전면내세웠다. 자료2는 중구일(重九日)이라 하여 길일로 여겨지는 날을 골랐다. 또 자료8, 자료16, 자료7은 본인이나 신어머니의 생일이나 무업에 있어 특별한 성취를 이룬 것을 기념하는 날로 택일하였다. 자료2와 자료13은 만신 자신의 진적굿과 가족의 진오기굿을 겸하여 쫓지달린 굿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각각의 자료를 진적굿의 당주가 되는 만신을 기준으로 살핀다. 특히 기존에 전하는 문헌자료는 원문에 기록된 제차를 우선 그대로 제시한다. 서울 진적굿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 조사자마다 굿을 표기하는 방법이나 용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29) 김태곤, 앞의 책(1981).
 30) 최길성, 앞의 책(1981).
 31) 홍태한, 앞의 책(2007).
 32)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02).
 33) 김현선, 앞의 책(2011).

자료1 1966.04.16	자료2 1971.10.27	자료3 2001.12.09	자료4 2002.03.10	자료5 2006.04.01	자료6 2006.11.07	자료7 2007.09.22	자료8 2009.04.05
문덕순	이지산	이영희	김유감	권옥남1	강민정1	이상순1	강민정2
1.추당물림 2.부정거리 3.가망거리 4.진적 5.칠성거리 6.부군거리 7.신령 8.신장 9.대신 10.호구거리 11.조상거리 12.상산거리 13.별상거리 14.상산대감거리 15.무감 16.말명조상 17.제석거리 18.성주군웅거리 19.창부거리 20.뒷전거리	1.주당물림(박어진) 2.부정거리(최명남) 3.젠적드림 4.가망(최명남) 5.청계배웅(최명남) 6.불사가망(최명남) 7.불사곳 ^[34] 천궁맞이(이지산) 8.불사제석(이지산) 9.불사호구(이지산) 10.불사신장(이지산) 11.천궁창부(이지산) 12.제당맞이(재당배웅)(최명남) 13.금성대군(이지산) 14.강씨부인(이지산) 15.대신할머니(이지산) 16.작두별상(이지산) 17.본향[초가망](최명남) 18.만신말명(최명남) 19.성제님거리(최명남) 20.군웅거리(최명남) 21.신장(최명남) 22.상산마누라(최명남) 23.별상(최명남) 24.상산대감(최명남) 25.성주군웅 26.청계씨[창부씨] 27.뒷전	1.주당물림 2.부정가망청배(이영희) 3.불사거리[천궁맞이] 4.산거리 5.상산거리(별상거리) 6.몸주신장거리(이영희) 7.대감(윤경자) 8.가망(김재수) 9.조상 10.안당제석 11.호구 12.성주 13.대신(김재수) 14.창부(최은정) 15.신령놀리기 16.뒷전	1.물고받기(김유감) 2.주당물림 3.부정거리(유복희) 4.청계배웅(유복희) 5.진적 6.불사거리(원옥희) 7.제당맞이(유복희) 8.본향거리(한부전) 9.상산거리(이성재) 10.전안신장거리 11.군웅대감거리(김충강) 12.조상곳(한부전) 13.제석거리(원옥희) 14.성주거리(이상순) 15.창부거리(이인숙) 16.귀면거리(원옥희) 17.뒷전(원옥희) 18.배웅거리(이상순) 19.소지 20.제물의정리	1.주당물림 2.부정곳 3.가망곳 4.본향노랫가락 5.청계배웅 6.대신몸주놀리기 7.진적 8.천궁불사맞이 9.제당맞이 10.산신도당거리 11.본향바라기 12.가망헤치기 13.대안주드리기 14.대감조상 15.안당제석 16.성주곳 17.애동기자몸주놀리기 18.마당거리 19.회정맞이	0.상산돌기(강민정) 1.주당물림 2.부정 3.가망 4.청계배웅 5.진적1 6.대신말명 7.진적2 8.천궁불사 9.제당맞이 10.산신도당 11.본향 12.관성제군 13.상산 14.별상 15.신장 16.대감 17.조상 18.안당제석 19.창부 20.계면 21.뒷전 22.회정맞이	0.상산돌기(강민정) 1.주당물림 2.부정(이상순) 3.가망(이상순) 4.청계배웅(이길수) 5.진적1 6.대신말명(강민정) 7.천궁불사 8.제당맞이 9.산. 10.본향 11.관성제군 12.상산 13.부인 14.별상 15.대감 16.조상 17.안당제석 18.성주 19.창부 20.계면 21.뒷전 22.회정맞이	0.상산돌기(강민정) 1.주당물림 2.부정(이상순) 3.가망(이상순) 4.청계배웅(이길수) 5.대신말명(강민정) 6.진적2 7.천궁불사(강민정) 8.제당맞이(이상순) 9.본향(이상순) 10.산신도당(이길수) 11.관성제군(강민정) 12.상산 13.별상(강민정) 14.신장(강민정) 15.대감(이길수) 16.무감서기(김씨대주) 17.조상(강민정) 18.안당제석(김경진) 19.성주(조춘희) 20.창부(강민정) 21.계면(강민정) 22.뒷전(이길수) 23.회정맞이(이상순)

자료9 2009.04.12	자료10 2009.07.15	자료11 2010.11.25	자료12 2011.03.24	자료13 2011.10.16	자료14 2011.11.06	자료15 2013.04.22	자료16 2013.11.07
이상순2	강민정3	최금재	이상순3	노○○	이상순4	권옥남2	이영희2
0.상산돌기 (이상순) 1.주당물림 2.부정 (이길수) 3.가망 (이길수) 4.청계배웅 (이길수) 5.진적 6.대신말명 (이상순) 7.진적2 8.천궁불사 (이상순) 9.제당맞이 (이상순) 10.산신도당 (이상순) 11.분향 (이상순) 12.관성제군 (이상순) 13.신장 (이상순) 14.상산 (이상순) 15.부인 (이상순) 16.별상 (이상순) 17.대감1 (이상순) 18.대감2 (강민정) 19.조상 (이상순) 20.안당제석 (김미애) 21.성주 (장미애) 22.애동기자 대신말명1 (조춘희) 23.창부 (이길수) 24.작두신령 (이길수) 25.애동기자 대신말명 2~3(권옥남, 송형숙) 26.계면 (강민정) 27.뒷전 (이길수) 28.회정맞이	0.상산돌기 1.주당물림 2.부정 (이길수) 3.가망 (이길수) 4.청계배웅 (이상순) 5.진적 6.대신말명 (강민정) 7.천궁불사 (강민정) 8.제당맞이 (이상순) 9.산신도당 (이길수) 10.분향 (이상순) 11.관성제군 (강민정) 12.상산 (강민정) 13.별상 (강민정) 14.신장 (강민정) 15.대감 (강민정) 16.무감서기 (김씨대주) 17.조상 (강민정) 18.안당제석 (이상순) 19.성주 (이상순) 20.창부 (강민정) 21.계면 (강민정) 22.뒷전 (이길수) 23.회정맞이 (이길수)	0.상산돌기 (이상순) 1.주당물림 2.부정 (유효숙) 3.청계배웅 (유효숙) 4.대신말명 (최금재) 5.가망 (유효숙) 6.진적 (최금재) 8.산신도당 (한옥경) 9.분향 (유효숙) 10.관성제군 (유효숙) 11.상산 (유효숙) 12.별상 (이상순) 13.신장 (이상순) 14.명성황후 (이상순) 15.별상 (이상순) 16.대감1 (이상순) 17.조상 (이상순) 18.대감2 (이길수) 19.애동기자 대신말명 1~5(조성혜, 이해집,김영 숙,김장섭,김 두남) 20.안당제석 (김미애) 21.성주 (김장섭) 22.창부 (김연희) 23.계면 (강민정) 24.뒷전 (강민정) 25.회정맞이 (이상순)	0.상산돌기 (이상순) 1.주당물림 2.부정 (이길수) 3.가망 (이길수) 4.청계배웅 (이길수) 5.진적 6.대신말명 (이상순) 7.천궁불사 (이상순) 8.제당맞이 (이길수) 9.산신도당 (강민정) 10.분향 (강민정) 11.관성제군 (이상순) 12.신장 (이성재) 13.상산 (이상순) 14.대감 (이길수) 15.별상 (이상순) 16.대감1 (이상순) 17.조상 (이상순) 18.대감2 (이길수) 19.애동기자 대신말명 1~5(조성혜, 이해집,김영 숙,김장섭,김 두남) 20.안당제석 (김미애) 21.성주 (김장섭) 22.창부 (김연희) 23.계면 (강민정) 24.뒷전 (강민정) 25.회정맞이 (이상순)	0.상산돌기 (노씨기자) 1.주당물림 2.부정 3.가망 4.진적 5.청계배웅 6.대신말명 (노씨기자) 7.천궁불사 (김두남) 8.산신도당 (김두남) 9.분향 (이상순) 10.관성제군 (이길수) 11.상산 (이길수) 12.별상 (이길수) 13.신장 (이길수) 14.대감 (이길수) 15.몸주놀이 (노씨기자) 16.애동기자 몸주놀이 (서은희) 17.성주 (김두남) 18.창부 (이길수) 19.계면 (이상순) 20.뒷전 (이상순) 21.조상 (이길수)	1.주당물림 2.부정 (이길수) 3.가망 (이길수) 4.진적 5.대신말명 (이상순) 6.천궁불사 (이상순) 7.산신도당 (김두남) 8.분향 (이길수) 9.관성제군 (이성재) 10.신장 (이성재) 11.상산 (이상순) 12.부인 (이상순) 13.별상 (이상순) 14.대감 (이상순) 15.조상 (이상순) 16.안당제석 (김미애) 17.애동기자 대신말명 1~5 (임종빈,송형 숙,권기자,창 금윤,조성혜) 18.성주 (김미애) 19.창부 (김미애) 20.계면 (김미애) 21.뒷전 (김미애)	0.상산돌기 (권옥남) 1.주당물림 2.부정 (강민정) 3.가망 (강민정) 4.청계배웅 (강민정) 5.진적1 (권옥남) 6.대신말명 (권옥남) 7.진적2 (권옥남) 8.천궁불사 (권옥남) 9.산신도당 (강민정) 10.분향 (이상순) 11.관성제군 (이길수) 12.상산 (이길수) 13.별상 (이길수) 14.신장 (이길수) 15.대감 (이길수) 16.몸주놀이 (권옥남) 17.무감서기 (기주어머니, 기주이모) 18.조상 (권옥남) 19.안당제석 (김두남) 20.성주 (김두남) 21.창부 (권옥남) 22.계면 (이상순) 23.뒷전 (이길수)	1.주당물림 2.부정 (윤경자) 3.가망 (윤경자) 4.진적1 5.대신말명 (이영희) 6.진적2 7.천궁불사 (이영희) 8.산신도당 (윤경자) 9.관성제군 (이영희) 10.상산 (이영희) 11.별상 (이영희) 12.대신말명 (이영희) 13.신장 (윤경자) 14.대감 (윤경자) 15.애동기자 대신말명 1~3 16.안당제석 (○영미) 17.성주 (윤경주) 18.분향·조상 (이영희) 19.창부 (이영희) 20.계면 (이영희) 21.뒷전 (윤경자)

34) []는 원문에 표기된 괄호를 뜻하고, ()는 본 연구자가 덧붙인 내용이다.

(이길수)							
-------	--	--	--	--	--	--	--

자료1은 김태곤이 조사한 문덕순 만신의 진적굿 자료이다. 문덕순은 1966년 당시 76세의 노무(老巫)로, 22세에 신이 내려 서울곳의 큰무당 방울방만신의 신딸로 들어가 굿을 배웠다. 김태곤이 서울 지역의 유형적 대표무라고 소개하여서, 경력과 기량을 갖춘 큰무당임을 알 수 있다³⁵⁾. 김태곤은 문덕순의 진적굿을 황해도식의 명칭인 꽃맞이굿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문씨가 자신의 굿을 ‘무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진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진적굿이라는 용어의 뜻과 용례가 명확하다. 비록 연행자를 구별하지 않고, 제차의 명칭만을 기록한 데 그쳤지만 김태곤의 자료는 서울 진적굿의 실제 연행양상을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는 연행 순서를 21개로 기록하면서 진적굿의 기본 순서를 재수굿에 두고, 여기에 다른 거리가 추가되었으며, 특히 신령거리·대신거리·조상거리가 강조되었다라고 진적굿의 구조에 대한 해명을 시도했다. 신장기뽑기와 대신떡팔기와 같은 진적굿 특유의 잔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리도 간략하게나마 기록하였다.

그러나 굿 전반에 연행되는 거리를 ‘제의 도중 그때 그때 강신하는 신을 맞아들이는 과정’이라 하여 진적굿의 구성을 가변적이고 임의적인 것으로 오독하고 있다. 따라서 제차명에서 짐작할 수 있는 신격구성과, 김태곤이 기록한 재수굿의 과정³⁶⁾ 등을 고려하여 일관되게 재구성하였다. 대표적으로 ‘신령거리’가 그 예이다. 김태곤이 ‘신령거리’로 제시한 거리는 문씨와 그의 가족을 굿상 앞에 앞드려 놓고 삼지창과 월도, 청수(淸水) 등으로 제액(除厄)한다는 설명으로 미루어 청계배웅으로 수정하였다.

자료2는 최길성이 소개한 이지산 만신의 진적굿이다. 1971년 10월 27일(음력 9월 9일) 중구일을 맞아 국사당에서 자신의 신굿을 겸해 조사자들을 초청했던 굿이며, 예법대로 차려 격식에 맞춰 열렸다고 기록하였다. 주무(主巫) 이지산(李芝山, 男 42세) 외에 남무(男巫) 최명남(崔明南, 36세), 그리고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여자 무당 박씨(별명 오토바이, 46세) 등 세 사람의 무당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모두 궁중무속의 전통성이 짙은 굿을 한다는 무당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소개된 이지산과 오토바이 만신 박어진은 이상순의 신아버지와 신어머니이기도 하다. 약사로는 해금에 김창태, 대금에 김장섭, 피리에 이정업 등이 참여했다. 제차별로 연행자를 밝히고 연행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기록하여, 서울 진적굿의 실제 연행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진적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가을 길일에 신굿을 겸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진적굿으로 판단되며 그 세부 제차도 진적굿의 면모를 보인다. 특이한 점은 진오귀굿을 덧붙여 연행한 점이다. 이 같은 형태를 “꽂지 달렸다”라고 표현한다. 자료13 노씨기자의 진적굿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연행되었다.

특이한 점은 부정과 가망 사이에 진적을 올렸다는 점이다. 과거의 일반굿에서 행해졌던 방식이다. 자료2는 진적굿이지만 진오귀를 겸했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과

35) 김태곤, 앞의 책(1971), 9쪽.

36) 김태곤, 앞의 책(1971), 10쪽.

가망 사이에 진적을 올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료3은 흥태한이 소개한 이영희 만신의 진적긋이다. 2001년 12월 9일 퇴계원 이영희 만신의 자택 전안에서 연행되었다. 이영희 만신은 1958년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악사인 아버지와 만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6세에 신이 내린 이후 11세부터 퇴계원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무업을 계속하고 있다. 작골할아버지를 신아버지로 삼고, 친어머니 이옥련과 배밭아주머니 최옥련, 돌다리 만신 권정옥, 김유감 만신 등으로부터 다양한 문서를 익혔다고 한다. 서울긋을 정통으로 배운 무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희 만신이 당주로, 최은정·김재수·윤경자³⁷⁾가 조무로, 악사는 최형근(피리), 최승운(피리), 임기택(대금), 김광수(해금) 등이 참여했다.

흥태한은 자료3을 통해 진적긋의 기능을 만신의 무업을 원본사고와 관련지어 만신의 영력 강화와 한풀이 신명풀이, 신도와외의 관계 재정립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에서 자료를 전하고 있어 세부적인 절차는 간략하게 약술되었다. 연행자의 구별을 두지 않은 절차가 많고, 누락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신 당일 긋의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영희의 다른 진적긋을 참관한 자료16이 있어 함께 논의함으로써 자료2의 공백 부분을 보강할 수 있었다. 자료16 이영희 만신의 진적긋 자료②는 2013년 11월 17일, 같은 장소인 이영희의 자택 퇴계원 도령사에서 이루어졌고, 햇곡맞이긋·계사년 신사대령긋 등으로 호칭되었다. 햇곡맞이긋이라고 천신긋의 목적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긋이 이루어지던 날(음10.15)은 이영희의 친어머니이자 무업을 전수해 준 이옥련의 생일이기도 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었다. 주무 이영희 외 조무로는 윤경자(57년생, 27살부터 무업 시작)와 영미라고 불리우던 애동기자 외 신원을 밝히기를 원치 않은 2명의 애동기자가 참여했다. 악사는 익명을 원하는 피리 서○○, 대금 장○○이 참여했다.

이영희의 진적긋은 자료3에서도 서술됐던 것처럼, 많은 단골들이 긋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였고 이영희 만신도 긋 중간 중간에 단골들을 챙겨 잔치의 느낌이 물씬했다. 진적긋은 제의를 통해 몸주신을 모시면서 동시에 긋 중간 중간에 몸주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도구를 놀려줌으로서 거듭 신을 모신다. 이영희 만신의 진적긋에서는 신복과 말명상자 외에도 방울·명두·목탁·부채 등과 같은 무구를 빠짐없이 소리를 내고 흔들며 각별히 모셨다. 이는 문덕순의 자료에서도 보이는 특징으로 청각적으로 신을 간략하게 위무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주당물림이나 거리로서의 진적과 같이 무악만으로 이루어지는 제차의 구성방식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자료16에서 이영희 만신은 조상거리를 따로 놀지 않고 본향거리에 붙여서 부속 제차로 연행하였다. 자료2에서는 본향거리로 추정되는 가망거리를 김재수가 연행하였고 그 다음에 조상거리를 따로 설정하였지만 연행한 만신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분절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별히 자료16에서는 창부거리에서 창부 줄타기라는 제차를 연행하였다. 이영희 만신

37) 윤경자는 자료3의 기록에서 누락되어 있어 추가한다.

은 7년에 한 번씩 연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줄을 타는 것은 아니지만, 바닥에 줄을 늘어놓고 창부타령에 맞춰 줄을 타는 듯한 모습을 재연하였다.

자료4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소개한 김유감 만신의 진적굿이다. 2002년 3월 10일 왕십리 자택 전안에서 열렸다. 김유감 만신은 1924년 서울생으로 7세에 신이 내려 9세에 내림굿을 하고 13세부터 무업에 입문하였다. 나랏무당으로 활약했던 명무 반승업이 친어머니고, 오빠인 김만용도 악사로 활약하였다. 대감방으로 불릴 정도로 재수굿이 특히 장기이고, 서울새남굿의 초대 기능보유자로 활약했을 정도로 빼어난 실력을 갖추었다.

자료4 김유감 만신의 진적굿은 굿 음식을 소개하는 자료로 출판되었지만, 진적굿을 대상으로 사진과 함께 제차와 굿의 분위기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 굿의 실상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굿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 관찰이 어려운 물고받기를 위시한 전날의 준비 과정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자료적 의미를 갖는다. 몇몇 절차를 임의로 축약해서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받기를 따로 독립된 절차로 설정할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김유감은 새남굿으로 중요문화재보유자로 지정된 만신이었고, 자료 조사의 주체가 국립문화재연구소였기 때문에 촬영과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덕분에 굿 당일과 그 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물고를 받고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굿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굿 음식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설정한 만큼 제차를 다루는 데는 몇 가지 오류가 보인다. 자료4의 원문은 [부정거리-청계배웅-진적]의 순서로 제차를 소개하고 있다. 이용범이 기록한 김유감의 다른 진적굿 자료의 절차³⁸⁾가 있어 비교해보면 김유감은 본격적인 선굿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장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앓은굿 전반을 모두 부정거리라 칭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전부 하나의 제차로 보기는 어렵다. 하위 제차로 보기에선 신격의 차별성이 강하다. 그리고 굿거리를 연행하는 무당이 바뀌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실제 자료4는 청계배웅과 진적은 부정거리에서 따로 떼어 독립적인 절차로 소개하고 있다.

또 거리로서의 진적을 소개하면서 “이 거리에서 김유감에게 신을 내려준 신어머니들이 내리고, 죽은 조상들도 내렸다³⁹⁾”, “진적굿에서의 가망청배는 진적거리가 끝난 뒤에 간단하게 행한다.”⁴⁰⁾라고 하여 진적거리에 대신말명거리와 가망청배를 모두 포함시키는

38) 김유감이 말하는 재수굿과 진적굿(2000.2.13.) 절차

재수굿: 부정(-가망청배-본향노랫가락-진적-상산노랫가락) - 불사거리(12거리) - 도당거리(12거리) - 조상거리(가망청배-가망-본향-말명-조상놀이) - 상산거리 - 별상거리 - 신장거리 - 대감거리 - 안당제석 - 성주거리 - 창부거리(-계면떡 팔기) - 뒷전

진적굿: 부정(-가망청배-본향노랫가락-청계벗기기-진적-상산노랫가락) - 대신할머니 - 불사거리-제당맞이 - 조상거리1(가망청배-가망-본향-말명) - 도당거리 - 상산거리 - 별상거리 - 신장거리 - 대감거리 - 조상거리2(조상놀이) - 성주거리 - 창부거리 - 뒷전 - 회정맞이 (이용범(2001), 앞의 논문, 30쪽)

39)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02), 46쪽.

40) 같은 책, 48쪽.

오류가 있다. 특히 대신말명거리는 진적곳의 핵심과도 같은 거리이며, 진적은 무악으로만 짧은 거리이다. 서로 대단히 다른 구성 방식을 취함에도 이를 진적과 묶어서 표기한 것은 큰 착오이다. 가망거리를 진적, 즉 대신말명거리 뒤에 연행하였다는 기록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김유감 만신이 직접 밝힌 곳의 순서⁴¹⁾와 맞지 않는다. 김유감 만신은 오히려 이전에 일반 가정을 위한 재수곳이 부정-진적-가망-불사거리로 이어진다고 한 바 있다⁴²⁾. 이 같은 착오가 당일 곳 운영에서 비롯된 것인지, 기록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김유감의 진적곳은 [부정-가망-청계배웅-진적-대신말명-천궁불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외 산신도당거리가 누락되었다. 이 점 역시 당일 곳 진행의 착오인지, 기록의 착오인지 알 수 없다.

자료5는 김헌선이 소개한 권옥남 만신의 진적곳 자료이다. 2006년 4월 1일 경기도 김포 자택 전안에서 연행되었다. 권옥남은 2013년 당시 54세로 1979년 10·26사태 하루 전 신이 내려 청와대로 뛰었다는 이래 30여 년간 무업에 종사한 기자이다. 김포에 거주하며, 이상순 만신의 신딸이다.

김헌선은 자료5를 대상으로 제당맞이-회정맞이를 중심으로 진적곳의 기능과 의의를 살피고, 서울곳 거리 구성의 핵심 원리가 진적곳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당일 연행된 권옥남의 진적곳 제차도 비교적 소상하게 제시하여 진적곳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소개된 제차를 살피면 창부거리와 계면거리가 없다. 이날 곳에서 생략된 것인지, 기록에서 누락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의문이다.

자료5를 직접 참관하지 못했지만, 2013년에 연행된 자료15 권옥남 만신의 진적곳^②를 참관할 수 있어서 이해를 보충할 수 있었다. 자료15는 2013년 4월 22일(음3.13) 인왕산 국사당에서 피리2, 대금, 해금, 북 등 5명의 전악을 배치했다. 권옥남 만신의 진적곳은 당주의 실력이 미숙하여 신어머니 이상순 만신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안주 거리는 이길수 만신이 관성제군-상산-신장-대감의 순서로 연행하였다. 본래 대안주는 상산-별상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신의 범주와 위계를 고려하여, 관성제군-신장-상산-별상-대감의 순서로 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길수 만신은 이상순 만신보다 연배가 높고 무업 경력이 비슷한 동료 만신이어서 굳이 이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

자료6, 자료8, 자료10은 강민정 만신의 진적곳이다. 자료6은 2006년 11월 7일 삼선교 자택 전안에서 이루어졌다. 자료8은 2009년 4월 5일 삼선교 자택 전안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은 강민정 만신의 생일이기도 하다. 진적곳이 무당에게 각별한 기념의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10은 2009년 7월 15일에 햇밀천신굿이라는 이름으로 구산동 이상순 만신 전안에서 진행되었다. 햇밀천신굿은 음력 6월달에 올리는 세시의례 중 하나이다. 강민정은 1962년 경상도 출생으로, 14세 무렵 신이 내렸는데 외할버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외할버지는 일찍부터 신가물이 있었지만 일제의 무속탄압으로 무

41) 김유감이 말하는 재수곳과 진적곳(2000.2.13.) 절차(각주 38번 참조)

42) 이 같은 사실은 이용범의 앞의 책 38쪽에 김유감 만신의 제보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한편 『조선무속의 연구』에 경성 지역의 천신굿의 실상을 소개한 자료에서도 부정-진적-가망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 김유감 만신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이 되지 못하고 스님이 되었다. 그렇지만 부처를 모시는 한편 굿을 하는 등 돌이켜보면 박수와 다르지 않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후 몸이 아프고 영험한 소리를 하는 등 신병을 앓다가 18세에 의사의 권유로 내림굿을 한 이후 무업에 종사 중이다. 이상순의 신딸 중 가장 적극적으로 무업에 임하고 있어 진적굿을 올릴 때도 제차를 꼼꼼히 구성하고, 본인이 직접 많은 거리를 직접 연행한다. 강민정의 진적굿에는 대안주거리를 연행한 뒤 대주 무감서기라는 자리를 따로 두는 특징이 있다. 가족들의 신명풀이라는 일반적인 측면의 의미도 있지만, 당주인 강민정 만신의 남편이 악사로 전직하였기 때문이다. 대주 김씨도 무업과 인연을 맺으면서 진적굿을 더욱 각별하게 진행한다.

이상순 만신의 진적굿 자료는 모두 4개로, 각각 자료7, 자료9, 자료12, 자료14에 해당한다. 모두 은평구 구산동 자택 전안에서 이루어졌다. 연행 날짜는 자료7은 2007년 9월 22일, 자료9는 2009년 4월 12일, 자료12는 2011년 3월 24일, 자료14는 2011년 11월 6일이었다. 이상순 만신은 진적굿 날을 잡을 때 어느 달이 되었든 선보름에 해야 좋다고 한다. 중순 이후는 기우는 달이라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같은 이치로 봄에 신이 내린 만신이 잘 불린다고도 한다⁴³⁾. 만신의 무업 발전을 자연이 옹호하고 기우는 이치와 같은 궤도에 놓인 것으로 여기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상순은 자료7을 제외한 나머지 굿은 보름 이전으로 택일했다. 그러나 자료7은 이상순 만신이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최영장군의 탄신일에 맞추어 특별히 날짜를 골랐다. 최영장군은 서울굿에서 만신의 조종으로 각별하게 모셔지는 신이다.

이상순 만신은 1950년 서울 생으로 15세 되던 해 삼월삼진날 신이 내렸다. 내림굿은 평안도 무당이었던 양어머니에게 받았는데, 이때 한양대신이 들어왔다. 이후 서울굿을 마음에 두고 영천의 신박수와 옥순이, 짱구박수 이흥기, 오토바이 만신 박어진, 노들순자 최순자, 이지산, 송인동 돼지엄마, 콩나물 박수 등 이름 높은 서울 만신을 두루 거치며 깊이 있는 문서와 기예를 학습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몸주신으로는 작두신장과 대신 할머니, 명성왕후를 모시고 있다.⁴⁴⁾ 현재 서울새남굿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이다. 가지고 있는 문서와 기예 모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서울굿 만신 중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본인의 자부심도 상당하여 이상순 만신의 진적굿 자료의 대부분은 규모와 절차를 갖추어 연행되었다.⁴⁵⁾

모든 자료가 저마다의 개성이 있지만, 특히 자료9와 자료12가 주목할 만하다. 2009년

43) 2011년 9월 25일, 인왕산 국사당 이상순 인터뷰

44) 이용범, 「이상순」, 『한국민속신앙사전』, 2016.

45) 굿의 규모는 악사의 편성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상순 만신의 진적굿은 대개의 경우 피리 한영서, 대금 김재용, 해금 허무길 등 삼전악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한영서는 이상순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악사로 남이장군대제의 보유자이다. 김재용은 서울굿 악사로 이름이 높았던 김점석의 아들로 이상순 만신과 선대부터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허무길도 서울·경기도 굿 악사를 다수 배출한 가계의 일원이다. 최고의 기량을 갖춘 악사와 굿을 연행한다는 것은 큰 무당의 자존심과도 같이 여겨진다. 또 악사와 만신은 무업사회의 일원으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는다. 이상순의 진적굿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식이 잘 드러난다.

봄에 연행된 자료9는 몸주신거리를 운영하는 방법이 특별하다. 일반적으로 진적굿에서 몸주신을 노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대신말명의 범주에 몰아서 놀거나, 필요에 따라 따로 거리를 두고 당주가 직접 연행한다. 이상순 만신은 진적굿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모시는 몸주신을 서울굿법에 맞추어 거리를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명성황후와 작두신령이다. 명성황후는 이상순 만신의 몸주신 중 하나이고, 이상순 만신은 나랏만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어 진적굿에서 장엄한 궁중 의대를 갖추어 따로 모셔진다. 명성황후와 같이 서울굿법에 맞는 신격은 유사한 주요 제차에 포함시켜서 당주가 직접 연행하였다. 작두신령은 서울굿법에 맞지 않는 신이므로 굿 뒷부분에 거리를 따로 두어 다른 만신에게 연행하게 하였다. 진적굿 때는 만신이 모시는 모든 신을 골고루 모셔야 하기 때문에, 거리로 모시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복이라도 꺼내어 놀려야 한다는 관념을 갖는다. 때문에 신복 상자를 모두 꺼내 신복을 쳐들고 호명하는 약소한 방식으로나마 신을 모신다.

2011년 봄에 연행된 자료14는 비교적 소규모로 굿이 구성되어 다른 이상순 만신의 자료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 날 당주 이상순 만신이 건강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모든 구성이 단출했다. 굿의 준비 과정인 상산돌기를 행하지 못해서, 청계벗기기와 제당맞이, 회정맞이가 모두 탈락하였다. 굿거리도 평소와 달리 최소한으로 맡아서 연행했다. 때문에 이 날 이상순이 연행했던 대신말명, 천궁불사, 상산(-별상), 조상거리는 당주와 밀접하게 연관된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날 굿은 이상순 만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규모를 줄이고 약식으로 굿을 운영하였다.

이 날 당주 이상순 만신이 건강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모든 구성이 단출했다. 굿의 준비 과정인 상산돌기를 행하지 못해서, 청계벗기기와 제당맞이, 회정맞이거리가 모두 탈락하였다. 상산과 별상을 이상순이 연행한 뒤 관성제군과 신장을 연행했던 이성재가 사술을 세웠는데 이 역시 이상순 만신의 컨디션 난조로 인한 것이었다. 굿거리도 최소한으로 연행했다. 때문에 이 날 이상순이 연행했던 대신말명, 천궁불사, 상산(-별상), 조상 거리는 당주 무당이 담당하는 필수적인 거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11은 최금재 만신의 진적굿이다. 2010년 11월 25일 노원구 공릉동 자택 전안에서 연행하였다. 최금재 만신은 당시 52세로, 7~8년의 무업 경력을 가진 애동기자이다. 이날 굿은 당주 외에 유효숙(당시 53세), 한옥경(당시 42세), 김화성(39세) 만신이 참여했고, 악사는 피리(양화영), 대금(최승운) 양재가 구성이었다. 당주가 경력이 길지 않고, 이북굿으로 무업을 시작해서 서울굿법에 익숙하지 않았다. 서울굿으로 전향했지만, 몸주신을 놀 때는 이북식으로 굿을 했다. 당주는 불사, 조상, 상산 등의 거리를 맡았고, 실질적인 굿 운영은 신어머니 유효숙 만신이 주도하였다.

자료13은 노○○ 만신(당시 55세)의 진적굿이다. 전안은 부평에 위치하지만, 이 날 굿은 안산 군자봉에 위치한 경신굿당에서 2011년 10월 16일에 연행되었다. 당주 외 이상순, 이길수, 김두남이 청송 무당으로, 조무로 서은희가 참여했다. 악사는 한 명(피리/김재용)이 참여해서 단출하게 구성되었다. 진적굿을 당주 어머니의 진오귀굿과 겸해서 풍지달린 굿으로 진행했다. 자료2 이지산 만신의 진적굿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상순은 이날 인터뷰에서 ‘본래 진적은 잔치라 진오귀처럼 굿은 일과 성격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굿을 따로 하지 않고 하나로 겸하는 것은 성의가 줄어 정성도 퇴색한다. 그러나 재가집(당주)의 형편에 맞추어 부득이 이 같은 형태로 굿이 진행되었다’고 했다. 드물기는 하지만 아주 없는 경우는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날 굿은 전반적으로 약식으로 치러졌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당주가 애동기자이고 황해도굿에서 서울굿으로 전향한지 얼마 안 되어서 실력이 미숙했다. 이 점은 자료11 최금재 만신의 진적굿과 상황이 같아 비교가 가능하다. 또, 진적굿을 마치고 진오귀굿을 하나 더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차를 생략하지 않고 고루 다 놀았지만, 굿을 짧게 단축해서 진행했다. 청계배웅은 만수반이 등을 생략하고 청계벗기기 위주로 진행했다. 계면거리도 창부거리 뒤에 계면 떡 타령을 한 구절을 덧붙이는 것으로 연행됐다. 조상거리가 누락되어 뒷전이 끝난 뒤 진오귀굿 시작 전에 삽입되었다.

굿은 청송 온 큰무당 이길수와 이상순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당주는 불사, 조상, 상산 등의 거리는 당주가 맡았다. 그러나 당주무당이 황해도굿으로 무업을 시작했다가 서울굿으로 전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서가 깊지 못하고 굿 전반에 미숙하여 청송만신인 이길수와 이상순이 나누어 맡았다. 만신말명도 공수 없이 당악에 맞춰 뛰고 절을 하는 정도로 치러졌다. 자료11 최금재 만신의 진적굿과 마찬가지로, 선무당이 당주를 위해 대안주 뒤에 따로 몸주를 놀리는 자리를 마련되었다. 홍철릭과 도사할아버지 의대라며 옥색 동달이를 입고 연행했다. 애동 기자라 문서나 법식은 몰라도 진적이니까 원하는 신복을 입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령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격려가 잇따랐다. 그러면서도 굿이 진행되는 틈틈이 단골들에게 속 시원한 공수를 해줘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당주 만신 외에 진적굿의 또 다른 주체가 단골들이고, 이들과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 진적굿의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9명의 만신의 16개의 진적굿 사례를 살핀 결과, 자료 간에 제차 구성과 진행 순서의 같고 다름을 간단히 해명하고자 한다. 16개의 자료는 모두 서울굿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 재수굿을 근간으로 진적굿의 특수한 절차가 덧붙였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대신말명거리는 모든 진적굿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대신말명거리는 대신할머니를 중심으로 당주와 무업으로 인연을 맺은 선대 무당의 넋을 함께 노는 거리이다. 대신할머니가 무조신이자 몸주신이기 때문에 만신의 진적굿에서 이를 각별하게 논다⁴⁶⁾. 경우에 따라 대신을 중심으로 몸주놀기를 따로 추가하기도 한다. 특히 권옥남, 최금재, 노○○ 처럼 애동기자의 진적굿일 경우 실력이 미숙한 당주에게 몸주놀기를 따로 마련해줌으로서 굿법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으면서 만신의 신명을 풀 수 있게끔 하였다.

대신말명거리를 연행하는 순서는 1960-70년대의 자료와 2000년대 이후의 자료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기의 자료에서는 본향거리 앞에 연행하고, 최근의 자료는 굿의 초반에

46) 원문의 제차에 드러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설명을 부기한다. 자료2 이지산 만신의 진적굿에서는 13.금성대군~16.작두별상까지의 제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지산 만신은 이태조와 그의 부인 강씨, 금성대군, 작두별상들을 몸주신으로 모신다는 기록이 최길성의 같은 책에 있다. 자료4 김유감 만신의 진적굿에서는 제차 진적에 대신말명거리를 포함시켜 기록하고 있다.

진적을 올리고 선거리로 이행하는 첫 순서에 연행하는 경향이 관찰된다.⁴⁷⁾

둘째, 청계배웅거리가 이영희 만신의 진적곳 자료⁴⁸⁾(자료3,자료16)와, 이상순 만신의 일부 자료(자료14)를 제외한 모든 자료에서 드러난다⁴⁹⁾. 이상순의 경우 2011년 진적곳에서만 평소와 달리 청계배웅을 생략했다. 이날 곳을 준비하는 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산돌기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계배웅과 상산돌기의 긴밀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제당맞이는 이지산, 김유감, 권옥남, 강민정, 이상순의 자료에서는 보이지만, 문덕순, 이영희, 최금재, 노씨기자의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최금재와 노씨기자는 애동기자의 곳이라 곳법에 밝지 못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만신의 진적곳에서는 제당맞이를 연행하지 않는데 청계배웅을 생략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추정된다. 문덕순 만신의 자료에서는 제차의 구별과 명칭이 선명하지 않아 제당맞이를 연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자료1 문덕순(1966년) : 칠성 - 부군 - 신령(청계배웅) - 신장 - 대신

자료2 이지산(1971년) : 천궁불사 - 제당맞이 - 대신말명

비슷한 시기에 연행된 두 자료를 비교하고, 서울곳의 곳법을 고려한다면, 문덕순 자료 중 칠성거리는 천궁불사거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령거리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청계배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부군거리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 김태곤이 기록한 부군거리라는 명칭으로 미루어 산신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지산 만신의 자료는 천궁불사거리 뒤에 제당맞이거리를 연행하고 몸주와 대신을 놓았다. 문덕순 만신의 자료 중 신장은 무구(武具)로 재액을 쫓는다는 점에서 앞에 있는 청계배웅의 일부로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문덕순이 모시는 몸주신으로 대신의 일부로

47) 최근 자료 중 예외가 되는 자료가 두 개 있어 부기한다. 자료5 권옥남 만신의 진적곳에서 청계배웅을 연행하고 난 뒤 진적을 올리기 이전에 대신말명거리를 연행하고 있다. 권옥남 만신은 애동기자여서 신어머니가 곳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본 연구자가 참관한 다른 권옥남 만신의 자료와, 권옥남의 신어머니인 이상순 만신의 자료에서는 진적 뒤에 대신말명을 연행하고 있다. 따라서 관찰자의 오기(誤記)이거나, 곳 운영 중 실수로 추정된다. 자료11 최금재 만신의 진적곳에서는 신어머니가 청계배웅을 연행하는 중간에, 최금재 만신이 급작스럽게 도무하여 대신말명거리를 연행하기 시작했다. 현관에서는 청계배웅이, 전안 앞에서는 대신말명거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애동기자인 최금재 만신의 성급함에서 비롯된 실수로 보인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최근의 자료에서 대신말명거리는 진적 뒤에 연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48) 이영희 만신은 청계배웅, 제당맞이를 연행하지 않았으며, 본향과 조상도 하나의 거리로 묶어서 연행하였다. 이상순⁴⁾ 자료처럼 상산돌기를 하지 않아서 일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무업 경력이 오래 되고 단골에게도 신망이 높은 큰무당이지만, 진적곳은 대신말명과 몸주놀이 위주로 진행되어 위에 서술한 내용과 관련된 서울 진적곳의 곳법은 계승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49) 자료1 문덕순 만신의 진적곳에서는 ‘신령거리’ 중 “재액의 의미로 삼지창과 언월도, 청수 등으로 등과 목을 찍는다” 하는 내용이 있어 청계배웅을 표현하였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덕순의 부군거리는 신의 성격과 거리의 순서 상 제당맞이로도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서울곳에서 조상거리는 본향거리에 붙여서 연행하지만, 진적곳에서는 조상거리를 따로 분화시켜 본향과 조상을 두 번에 걸쳐 연행하는 특징이 보인다. 이영희 만신의 진적곳을 제외하면, 모든 자료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포착된다. 연행하는 순서는 대안주거리를 기준으로 대안주 이전에 본향거리를 연행하고, 대안주 이후에 조상거리를 연행한다.⁵⁰⁾

각각의 자료는 원무당의 기량과 특성에 따라 몇몇 제차의 운영에 차이가 드러난다. 논의의 압축적인 진행을 위해 이 같은 진적곳의 특성이 고루 반영된 하나의 자료를 선택해 중심에 두고자 한다. 자료9 이상순 만신의 진적곳②이 그것이다. 이상순 만신은 문서와 기예 등 모든 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서울곳 만신 중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순 만신은 진적곳에서 적극적으로 거리를 맡아 연행한다. 또한 서울곳법에 밝아 선명한 논리와 기억에 근거한 제보를 전해 자료의 여백 없이 곳의 맥락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상순 만신의 진적곳 자료는 4편 외에도 청송으로 참여한 자료가 다수 있어 자료의 비교가 가능하다. 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소화할 수 있는 기량과 체력을 가진 만신은 많지 않다. 또 설혹 이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진적곳은 무당사회의 잔치라 선후배, 동료 만신들이 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모이는데, 당주는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크고 작은 곳거리를 맡기게 된다.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될뿐더러, 거리를 논 것에 대한 보수와 별비를 챙길 수 있게끔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또 청계배웅거리처럼 반드시 당주가 아닌 다른 만신이 거리를 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만신의 진적곳 자료를 깊이 살피기 위해서는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들 자료 중 진적곳의 주요 제차를 빠짐없이 연행하고, 연행자의 기량이 탁월하고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구성에 있어 오류가 거의 없는 이상순의 만신의 진적곳④(자료9)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50) 자료13 노○○ 만신의 진적곳에서는 실수로 조상거리가 누락된 것을 뒷전 중에 알게 되어 급히 덧붙였다.

Ⅲ. 서울 진적긋의 순서와 구성

진적긋은 만신의 긋이며, 정기제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때문에 제차를 연행함에 있어 생략과 탈락을 최소화함으로써 형식과 의미를 강화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진적긋 자료를 근거로 최선본으로 판단되는 2009년 4월 12일 이상순 만신의 진적긋을 중심으로 진적긋의 순서와 연행 과정을 제시한다. 필요시 다른 자료와 견주어 진적긋의 실상을 살피고자 한다.

자료 9에서 연행된 서울 진적긋의 제차 순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0. 상산돌기⁵¹⁾ - 이상순
1. 주당물림
2. 부정거리 - 이길수
3. 가망거리 - 이길수
4. 청계배웅 - 이길수/이상순
- 5-1. 진적1
6. 대신말명거리 - 이상순
- 5-2. 진적2⁵²⁾
7. 천궁불사맞이 - 이상순
8. 제당맞이 - 이상순
9. 산신도당거리 - 이상순
10. 본향거리 - 이상순
11. 대안주거리
 - 1) 관성제군거리 - 이상순
 - 2) 신장거리 - 이상순
 - 3) 상산거리 - 이상순
 - 4) 부인거리 - 이상순
 - 5) 별상거리 - 이상순
 - 6) 대감거리 - 이상순/강민정
12. 조상거리 - 이상순
13. 안당제석거리 - 김미애
14. 성주거리 - 장미애
- 15-1.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1 - 조춘희

51) 진적긋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는 사전 과정이라 0번으로 설정한다.

52) 진적1에서 미처 부르지 못한 상산노랫가락을 대신말명거리 이후에 연행한 것이라 따로 번호를 두지 않는다.

16. 창부거리 - 이길수
17. 몸주놀이(작두신령) - 이길수
- 15-2.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2~3 - 권옥남, 송형숙⁵³⁾
18. 계면거리 - 강민정
19. 뒷전거리 - 이길수
20. 회정맞이 - 이길수

서울 재수곳에서 모셔지는 모든 신이 위계에 따라 빠짐없이 모두 모셔지고 있어 보편성을 가지며, 동시에 진적곳에서만 모셔지는 특별한 거리로 특수성을 확보하여 진적곳 하나만을 보아도 한국무속신의 기본적인 구성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⁵⁴⁾

서울곳은 곳거리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연행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서울곳은 무악, 무무, 무복, 무구, 무가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종합예술이다. 또 이들 요소는 오랜 시간 동안 긴밀하게 결합되어 전승되었다. 때문에 각각의 갈래를 떼어낼 수 없기도 하다. 예컨대 당악은 서울곳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악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무당이 도무를 위해 위아래로 뛰었다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무무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악은 서울곳의 거리를 분절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서울 진적곳의 실상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악의 연행 주체는 무당과 악사이다. 무당은 무가를 구송하면서 동시에 제금과 장구를 연주한다. 제금과 장구는 타악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루기 쉽다. 제금은 특히 다루기 쉬워 애동기자들이 무악 장단을 배우는 기본 악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기대라 하여 장구를 전담하는 무당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기대는 장구 외에도 만수받이나 노랫가락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신이 내리지 않고 기술만을 습득하여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⁵⁵⁾ 현재 기대는 사라졌지만 장구는 악기임에도 악사의 개입 없이 무당만이 다룬다는 점은 여전하다.

서울곳에서 장구와 제금은 악기의 예술성과 무구의 주술성을 동시에 갖는다. 무당만이 다루며 때로는 원무당이 거리를 연행하는 중간에서 직접 연주하기 때문이다. 무당이 장구를 치며 연행하는 말미거리나 부정거리·가망거리, 제금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산을 주며 연행하는 불사거리와 안당제석거리 중 천왕중거리가 그 예이다. 기대가 있을 당시에도 만수받이와 노랫가락은 부르더라도 말미나 부정청배는 연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무악에서 예술의 영역과 주술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복은 강신한 신격의 신체이고 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다. 신복은 신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특별하지만, 무속의 신은 희로애락을 느끼는 인간적 신이기 때문에 신의 의복은 인간들이 착용하는 의복을 기반으로 표현된다.⁵⁶⁾

53) 15번 제차의 애동신말명거리가 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이라 따로 제차의 번호를 두지 않는다.

54) 김현선, 앞의 글(2006), 70쪽.

55) 2007년 7월 7일 왕십리 수풀당 김옥님 만신 인터뷰

56) 유효순, 『한국의 무속 복식 연구- 서울곳 무복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4.

서울굿은 특별히 더 화려하고 다양한 복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신복은 대개의 경우 의관(衣冠)이 쌍을 이룬다. 무당은 신격에 합당한 의복을 신복으로 갖추어 예를 갖춘다. 천존신, 불사신(佛師神) 계열의 신은 흰색을 주색으로 가사 장삼과 같은 의복으로 표현된다. 신장이나 별상처럼 재액을 막아주는 신격은 싸움을 하는 무관의 구군복을 기본으로 한다. 또 한편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산신, 성주신, 장군신은 구군복보다 위상이 높은 철릭을 착용하여 신의 위계를 달리 표현한다. 창부신의 울긋불긋한 색동 소매는 광대신의 면모를 상징한다. 여성 신격인 호구신, 부인신, 말명신은 여성의 의복을 활용하여 상징한다. 호구신과 부인신은 각기 호구치마나 부인보라 불리는 면사포를 써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등장한다. 사대부 여성이 행했던 내외의 풍습을 반영하고, 천연두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진 호구신은 천연두의 흔적인 흉터를 가리기 위해 붉은 치마로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목할 점은 일종의 재앙신인 호구신을 정성스럽게 위무하면 재복을 내리는데, 이 과정을 너울을 썼다가 벗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의복이 신의 외형을 가시화하는 장치로 쓰이는 것에서 나아가 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무구의 차원에서도 기능한다.

대상은 기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굿 역시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일찍이 아키바 다카시는 무무에 주목한 바 있다. 무무의 유무에 따라 춤추는 무당을 무당(巫)과 춤추지 않는 무당(覡)으로 나누고, 춤추는 무당이 추는 춤을 강신무(降神舞), 완무(緩舞) 등으로 구별하여 논의하였다. 무무라는 무속의 세부 요소를 살펴서 무당의 정체성과 강신무와 세습무의 특성을 유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키바는 무무를 외형적이고 본질적인 표준⁵⁷⁾이라고 말했다. 무악, 무복, 무구, 무가 등의 연행 요소는 모두 굿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외형적이고 본질적인 기준이 된다. 굿이 종합예술이고, 따라서 인간이 가진 다양한 감각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무무와 무복은 굿을 이해하는 시각적인 지표가 된다. 무악은 청각적인 기준이 된다. 무구는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복합적인 지표가 된다. 음악이나 무용, 의상 전공자가 아님에도 세부적인 연행 요소를 함께 살피는 이유는 각각의 구성 요소는 나무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서울굿이라는 숲을 대유(代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연행 요소를 서울 진적굿의 실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 목적을 두고 살피고자 한다.

[O] 상산돌기

진적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장만하거나 무구를 손질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 외에 특별히 공을 들여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서울굿에서 만신의 조정으로 여겨지는 최영장군에게 제물과 기도를 올리며 굿을 허락받는 과정이 그것이다. 이를 특별히 ‘상산(上山)돌기’ ‘삼산(三山)돌기’ 혹은 ‘상산(上山)에 물고 받기’ 등으로 부른다.

상산돌기는 많은 명산 중에서도 무산(巫山)으로 이름 높은 덕물산을 다녀오는 행위를

57) 아키바 다카시, 「조선 무의 분류」, 『춤추는 무당과 춤추지 않는 무당』, 심우성·박해순 역, 한울, 2000, 111쪽.

가리키며, 일종의 성지 순례의 과정을 의미한다. 상산돌기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드물다. 장순범은 상산돌기를 삼산돌기로 규정하고, 삼산돌기를 내림곳과 관련하여 해명하고자 하였다.⁵⁸⁾ 삼산을 세 곳의 산으로 파악하고 “입무하려는 자의 본향산과 배우자 본향산, 스승의 본향산을 순례하거나 명산 중에서 세 곳을 정하여 순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산을 도는 것이 아니라 입무하는 자의 신명을 정확히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풀이하였다. 본향과 관련한 조상신앙의 한 갈래로 보는 관점은 타당하다. 실제로 만신이 진적곳을 위시해 중요한 곳을 치르기 전에 본향과 관련된 산을 다녀오는 경우도 많다. 강민정 만신도 진적을 준비하기 전 고향인 진주 명산을 다녀왔다고 한 바 있고, 노씨기자도 진적곳 전에 친정 고향인 경상도 산을 다녀왔다고 구술한 바 있다. 그러나, 상산돌기를 내림곳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덕물산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부족하다. 내림곳은 입무자가 곳의 수혜를 누리는 객체가 되기 때문에, 곳을 집전하는 주체가 되는 신어머니, 곧 스승의 본향산을 함께 도는 과정이 바탕이 될 수 있지만, 전체 만신의 곳에서 스승의 본향산이나 배우자의 본향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또 삼산돌기라는 호칭은 고서 등에 무속신앙과 무관한 뜻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많아 지나치게 일반적이다. 3회라는 산행의 물리적 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물산으로 대표되는 성소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산돌기라 칭하는 것이 적합하다.

덕물산은 특별히 최영장군의 사당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상산마누라가 최영장군의 이칭이듯 덕물산은 별도의 수식 없이 상산(上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서울 만신들이 만신의 조종(祖宗)으로 덕물산 최영장군을 꼽는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삼산돌기보다는 상산돌기가 그 신앙의 핵심을 보다 잘 드러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진적곳을 하려면 개성 덕물산에 있는 최영장군의 당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인사를 드려야 한다. 봄과 가을에 햇과와 햇곡이 나올 때 천신의 의미로 진적곳을 올리기도 하지만, ‘이태말미 삼년시력’이라는 말처럼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덕물산을 다녀와서 진적곳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상산돌기는 진적곳의 사전 제차이지만 아래와 같이 진적곳 곳곳에 무가의 형태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신의 신산은 못 갔지만 선바위 반산을 들어다가 고향산천 팔도명산을 들어다가
진적맞이는 회적자량을 대우하니 반거라 즐거라 각국임신 만신말명 대한성수⁵⁹⁾

산을 갔다왔어요. 옛날에는 산 갔다 왔다고 그러면 선바위 갔다오는 게 산 갔다오는 거고.
그전에는 개성 덕물산 갔다오는 게 산 갔다온 거라⁶⁰⁾

58) 장순범, 「허주곳과 삼산돌기를 통한 입무과정 재인식」, 『한국무속학』 제16집, 한국무속학회, 2008.

59) 자료8 강민정 만신 진적곳, 2009년 4월 5일, 강민정 자택 전안, 이상순 연행 부정거리 중

60) 자료10 강민정 만신 진적곳, 2009년 7월 15일, 이상순 전안, 이상순 인터뷰 중

산에 친산을 돌아다가 사위삼당을 돌아다가 들어숙배는 내숙배에
검은산 둘러치고 백두산 옆에 끼고 석바위 석다듬고 금잔디 내리밭어
오늘은 신산은 못 갔어도 삼당사연은 제당을 들어다가 선바위 신령님 모셔다가
이씨에 신어머니 전안에 천신령 화의하자는 정성이고 만신령 화의하는 정성이고⁶¹⁾

신산, 친산⁶²⁾ 혹은 그냥 '산'이라고만 칭해져도 덕물산을 의미할 정도로 최영장군과 덕물산이 서울곳에서 갖는 위상은 상당하다. 진적곳 전에는 상산 덕물산을 반드시 포함해서 그 외 수영반장, 선바위, 금성당, 수풀당 등 사위삼당과 국내제당을 두루 돌아와야 한다고 관념하였다. 현재는 분단으로 인해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인왕산 선바위에 있는 국사당을 다녀오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서울곳의 이름 높은 만신 중 한 명인 왕십리 아기씨당의 당주 김옥렴 만신은 생전에 어머니⁶³⁾께서 '선바위 반장 들어서 덕물산을 땡겨와야지, 선바위만 땡겨온 진적은 진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기억한 바 있다.⁶⁴⁾ 김유감은 진적곳 자료에서 과거 신촌역에서 경의선을 타고 개성 덕물산에 직접 가서 물고를 받은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3일 이상이 소요되는 험난한 여정 때문에 지금보다 진적곳의 의미가 더 컸다고 여겼다.

국사당은 본래 목멱산(남산)에 위치했지만, 일제 때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국사당에 들러 정성을 들이고 당주에게 흰 종이에 도장을 받아온다. 이런 행위를 '(상산에) 물고 받다'라고 한다. 이렇게 받은 물고지(紙)는 접어서 무구로 사용한다. 그런데 인왕산 국사당에서 물고를 받는 행위는 진적곳 외 다른 서울곳에서도 이루어진다. 진적곳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산 이외에도 다른 제당과 성소를 고루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물고 받기'라고 칭하는 것보다는 상산돌기라고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주당물림

곳의 시작에 앞서 주당살 혹은 추당살 이라고도 불리는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의식이다. 주당살을 맞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제장 밖으로 나가게 한 뒤 평복(일상복) 차림의 무당이 장구와 제금을 쳐서 주당살을 물린다. 설혹 무당일지라도 주당살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장구와 제금을 치지 않는 무당은 월도, 삼지창, 신장기와 같은 무구를 붙잡아 방비한다.

『조선무속의 연구』⁶⁵⁾에 따르면 주당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신은 역사별군웅이기 때문에 무신(武神)의 의복인 홍철릭을 걸어두는 것으로 설명한다. 주당살을 피하기 위해 잡는 월도, 삼지창, 신장기 등의 무구도 무신(武神)의 위력을 상징하는 도구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역사별군웅은 상산군웅으로 병기되어 있다.

61) 자료10 강민정 만신 진적곳, 2009년 7월 15일, 이상순 전안, 이길수 연행 부정거리 중

62) 분향과 같은 靑山의 의미이기도 하고, 신산(神山)의 와음이기도 하다.

63) 이뿐이 김묘순 만신

64) 2009년7월7일 왕십리 아기씨당 김옥렴 인터뷰

65)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하), 135쪽.

무악은 굿거리 장단을 천천히 시작하여 당악 장단으로 빠르게 마무리된다. 굿거리 장단과 당악 장단은 서울굿에서 가장 많이 등장되는 대표적인 무악이다. 굿거리 장단은 대개 신을 청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당악은 무당이 도무하는 강신을 알리고, 한 제차가 마무리 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서울굿 만신이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무악이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본 무악이다. 때문에 주당물림의 무악은 장단과 길이가 짧고 형식은 간단하지만, 신을 청배해서 모시고 돌려보내는 완결된 구성을 갖춘다.

무악의 연행 주체는 무당과 악사이다. 일견 무악은 악사의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당은 무가를 구송하면서 동시에 제금과 장구를 맡아 연주한다. 제금과 장구는 타악기여서 선율을 연주하는 다른 악기에 비해 다루기 쉽다. 또한 연주 방식도 장구와 제금은 다른 악기와 차별성을 갖는다. 다른 악기는 무당이 거리를 연행할 때 반주의 개념으로 연주하지만, 그러나 장구와 제금은 거리를 연행하는 무당이 직접 다룬다.

무악은 예술의 영역과 주술의 영역이 공존하며, 서울굿의 장구와 제금은 무당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이자 무구로 그 두 개의 영역을 공유하는 임을 알 수 있다. 주당물림은 길이나 형식이 매우 간단하고, 거리의 기능도 후에 이어지는 부정거리와 비슷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리이다. 그러나 주당물림은 이처럼 무가의 구송 없이 무복과 무구, 무악으로 굿의 주술성과 예술성을 갖추어 보여주는 특별한 거리라는 특징을 갖는다.

[2] 부정거리

부정거리는 굿판을 정확하고 신을 청배하는 제차이다. 부정거리의 구성은 당일 연행될 굿의 순서와 목적을 요약하는 개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부정 거리는 굿의 내용을 하나로 꿰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선배 만신이 진행한다. 부정거리의 세부 제차는 모시는 <신격 호명 + 축원>으로 이루어진다.

서울 재수굿의 부정거리는 연구자나 연행자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광의로는 <부정청배-선부정물림-가망청배-본향노랫가락-진적-상산노랫가락>까지를, 협의로는 부정청배에서 선부정물림까지를 일컫는다.⁶⁶⁾ 광의로는 형식면에서 앞은굿 전반을 의미한다. 제장을 정확하고 모든 신격을 청배함으로 본격적인 굿의 준비를 완료하는 과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진적굿에서는 부정거리에 속하는 부속 절차들이 분절되어 서로 다르게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보다 정교한 논의를 위해서 협의의 부정거리를 우선한다.

흔히 협의의 부정거리를 <부정청배-선부정물림>으로 설정하지만, 이 과정은 <부정청배-부정풀이-부정노랫가락-선부정물림>으로 세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청배로 신을 청신해서 노랫가락 등으로 오신의 과정을 거친 뒤 별도의 송신으로 완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갖추었기 때문에 독립된 제차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부정청배는 악사의 반주 없이 평복 차림의 무당이 혼자 장구를 치면서 ‘영정가망에 부정가망’으로 구송을 시작한다. 평복은 무당의 기본 옷차림으로 보통 흰색이나 물색 저

66) 이명숙, 「서울 재수굿의 부정거리 연구」,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고리와 남색 계열의 치마를 가리킨다. 그러나 진적곳은 잔치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연노랑이나 연두색과 같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화사한 색상의 의복을 입기도 한다.

부정거리의 세부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8 2009년 4월 5일 강민정 진적곳에서 이상순이 연행하였다.

1. 각종 부정을 열명 및 축원

따라든 부정에 묻어든 영정에 열부정 뜯부정 서러운 부정을 다 짓혀 주소사

2. 날짜, 장소, 재가집 소개

햇상년 년으로는 기축년 해원이요 달삭과 존으로 3월은 만도화에 날농사 초열흘날 공사
웁고 거주와 지점은 서울 성북구 ○○○에 살어를 갑니다. 김씨 가중 강씨에 기자가 사
지집사 신에 상방 김씨에 남고지기 살아가나 상남은 ○○생올습니다. ○○○살 김○○
이 여식자손 ○○○살 김○○이 ○○동 지점에 살아가나, 여식자손 ○○생에 ○○○○
살 김○○이 각골에 타향객지에 사웁니다.

3. 굿을 하는 목적과 이유

여남정성 아니오라 강씨에 기자가 꽃이 피어 만발하고 잎이 피어 대봉하니 그만 있기
죄만하니 원천강에 날을 골라 주역에 시를 잡아 상미상에 끝을 골라 인꼬리 징꼬리 상
짐은 채룡에 마다리 머다리 검은 머리 숙배 사퇴 붉은 화상 앞에 다령하여 (중략) 신의
친산은 못갔지만 오늘은 선바위 반산을 들어다가 고향산천 팔도명산을 들어다가 진적맞
이는 회적자랑을 대우하니 반거라 즐거라 각국임신 만신말명 대한성수 좋아라 (중략) 강
씨에 애동기자 원몸일신 건강하고 은불리듯 금불리듯 장안가득 불러주고 이름나고 명나
게 도와주고 가는 재수 선을 치고 오는 사망 생기고 역만 장안 팔만 가구 안신당에 징
채 고리채가 놀 새 없고 빛신당에 신복 벗어 놀 새 없고 부자 장자 거부 일부 양반단골
판사단골 재상단골 잡아주고 무꾸리 점사가 쇠뿔으로 그린듯이 쪽집게로 집은듯이 장안
가득 불러주고 세계가득 불리어 업신령 복신령 되시고 신씨에 신아버지 모셔놓고 여러
신령님 모셔놓고 상전이 뚜렷하고 문서가 분명해 …(가족 축원)…강씨에 기자가 은불리
듯 금불리듯 선생기자 후생기자 여러 기자 인연지고 상덕 물어 주소사 신사덕 후관덕
입혀주고 천궁맞이는 일월맞이를 받으시고 전안에 진적맞이를 받으시고 만조상을 대우
하고 대감님을 우촌하니 상덕물어 주소사

4. 호구 : 재수발원, 부귀축원, 부정 제거

은불리듯 금불리듯 도와주고 장안 가득 불러주고 세계 가득 불러주고 일부되고 거부되
게 도와주고 갑부되게 도와주고 땅문서집문서 빌딩문서 잡아주고 아들딸 삼남매 높이되
고 귀히 돼서 후분 좋게 도와주고 상급내려 도와주고 꿈자리 몽사 험한일 악한일 짓혀주
고 상덕물어주소사

5. 불사-제석 : 수명발원 재수축원

부모자손 수명장수하고…자른 명 길게 잇고 긴 명 서려담고 동방석에 태를 매고 무쇠목
숨에 쇠끈달고 김씨대주 성공하게 도와주고 한마음 한뜻되고 장유수 물결같이 오복팔복
에 무량대복 점지해주소사

6. 산신 : 진적굿 축원

큰명기 도와주고 태산같이 받으시고 열동갑 백동갑 만동갑 천동갑 상급내려 영검주고
그염주고 대신발에 무꾸리 점사가 쇠뿔으로 그린 듯이 족집게로 집은 듯이 화경같이 생
겨주고 있는 단골 달아두고 새단골 잡혀서 장안 가득 불러주고 양반단골 판사단골 재상
단골 밤이 되면 사경글력 낮이 되면 진오기 새남글력 생겨주고 상덕물어주소사

7. 도당 : 재수발원

관재수 귀절수 막아주고 불안한 맘 답답한 맘 젖혀주고 웃음열락하게만 도와주고 자손
창성에 이 터에서 놀고 불고 빌딩 사계 도와주고 상덕물어주소사

8. 말명-대신-조상 : 진적굿 축원

여러 기자 대신할머니 인화의 신화의 받으시고 (중략) 친정아버지 조상님 도사가 되셨으
니 선관되고 명기주고 잘 불리게 도와주고 부처님 계자돼서 승화제천 산하여 주시고
(중략) 석달이 편안하고 삼년이 곱게 나고 진적덕 입히어 은불리듯 금불리듯 장안가득
세계가득 잘 불리게 도와주고 상덕물어주소사

9. 관성제군-최영장군-작두신령-신장 : 진적굿 축원

외날작두는 올라타고 쌍날작두는 높이 타고 은산에 북바라고 명기주고 서기주고 관재구
설수 젖혀주고 (중략) 상덕물어주소사

10. 창부-광대-청계 : 진적굿 축원

다섯 식구 (온갖) 흥수 막아주고 안으로 인사냥 밖으로 천식물 다 젖혀주소사 (온갖) 직
성 막아내고 춘하추동 사시절 원여름 찬여름 곱게 나게 도와주고 오뉴월 세 삼복 곱게
나게 점지해 주소사. 창부씨 광대씨가 은불리고 금불리듯 점지해주소사 새남글력 사경
글력 기도글력 생겨주고 안신당에 징채 고리채 놀 새 없고 박신당에 신복 벗어 놀 새
없이 점지해주소사

11. 텃대감-맹인-서낭-영산-상문

안아다 준 듯이 벌어주고 져다가 준 듯이 벌어주고 이 터에서 천년지덕 만년유택 점지
해주소사 부모자손 한맘 한뜻되고 웃음에 열락하게 점지해주소사...(각종 눈병을)젖혀주
고 화경같이 도와주고 명경같이 도와주고...사고없이 도와주고...열서낭 뜯서낭 다 젖혀
주고...영산들이 고평배 불러가고 쓰린 가슴 멈추고 대수대명 받아다가 인사냥 천식물
다 젖혀주소사...상문 인사냥 천식물 다 젖혀 주소사

12. 마무리

안산은 여덩에 빛산은 열셋...모이신 영정과 부정일량은 물리어 주시고 개활이 영정

13. 부정풀이

영정가망 놀아나오 부정가망 놀아나오...

14. 선부정물림

15. 부정노랫가락

이 같은 순서와 구성은 다른 서울굿의 부정거리와 큰 차이가 없다.⁶⁷⁾ 주목할 점은 세
부 제차의 축원 내용이다. 부정거리의 축원의 내용은 짧지만, 신격의 고유한 특성을 명

확하게 나타낸다. 예컨대 제석신격은 수명을 관장하므로 수명발원을 내용으로 한다. 이들 축원의 내용 중 부귀·재수와 같은 일반적인 축원과 구별되는 진적긋의 효용과 관련된 특별한 사실은 밑줄을 쳐서 표시했다. 부정거리의 초반 3번 제차에서는 긋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알리는 부분이므로 응당 그 내용도 상세하게 기술된다. 계절제, 천신제의 성격과 상산돌기의 과정을 알리고, 영력 강화와 무업 번창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영력 강화와 무업 번창은 진적긋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다. 이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 A. “무꾸리 점사가 쇠뿔으로 그린 듯이 족집게로 집은 듯이”
- B. “안신당에 신복 벗어 놀 새 없고 밧신당에 징채 고리채 설 새 없이”
- C. “밤이 되면 사경글력 낮이 되면 진오기새남글력 생겨주고”
- D. “있는 단골 달아두고 새 단골 째혀서”

등의 구절이며, 일반 재수긋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고유한 표현이다. 안신당과 밧(밖)신당이라는 표현은 두 개의 당으로 지어졌다는 덕물산 최영장군당의 모습과 관련 있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무당을 찾으면 먼저 무꾸리라 하여 점을 친다. 아직 긋의 기예를 익히지 못한 애동 기자의 경우 점사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큰무당이 되면 점사만 치는 무당은 점바치라 하여 낮추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점괘가 용하고’ ‘영한 소리를 하는’ 것은 무당이 갖춰야 하는 기본 자질인 것은 자명하다. “무꾸리 점사가 쇠뿔으로 그린 듯이 족집게로 집은 듯이”라는 구절은 이를 뜻한다.

점사의 결과와 필요에 따라 작은 규모의 제의인 치성을 올리거나 큰 규모의 제의인 긋을 올린다. 치성을 드릴 때는 약사 없이 무당이 혼자 치른다. 때문에 최소한의 무악으로 얹어둔 징을 치거나, 고리짜를 굽으며 연행을 한다. 따라서 “징채 고리채 설 새 없이”라는 구절은 치성의 성업을 발원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서울긋은 신복으로 신격을 가시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신복 벗어 놀 새 없고”라는 구절은 신복을 벗어서 정리해 놓을 사이도 없이 많은 긋을 떼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또 A와 B 구절이 결합하여 나란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무당이 치르는 일군의 무업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

안당사경치기와 진오기긋 새남긋과 같은 서울긋의 굽직한 긋을 연행할 수 있는 문서를 읽힌 큰무당이 되게 해달라는 바람은 각각의 긋이 연행되는 시간과 함께 “글력을 생겨주다”라는 구절로 표현된다. 그 외에도 “얹은글력 선글력”이라 하여 얹은긋과 선긋이라는 서울긋의 전후반의 큰 구성을 나타내는 표현도 사용된다.

단골은 요즘은 자주 거래하는 곳이나 손님을 일컫는 말로 두루 쓰인다. 그러나 본래 단골의 뜻은 무속에 기원을 둔 말이다. 특히 서울긋에서는 사제자인 무당과 신도 관계

67) 성주 등의 제차가 생략되기도 했지만 제차가 생략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편의상 몇몇 부정은 생략, 축소되어 연행한다.

를 맺는 이를 지칭한다. 무업의 주체가 무당이라면 객체는 단골로 이들은 무업을 이루는 양대 축이다. “있는 단골 달아두고 새 단골 잡혀서”이라는 구절은 진적굿을 통해 무업의 객체가 되는 단골의 수가 늘어나 무업이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서울 재수굿에서도 사업을 하는 재가집에게 단골이 늘기를 바라는 축원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단골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따졌을 때, 신도의 증가를 기원하는 진적굿이 근원에 가깝고 재수굿은 단어의 의미 확대에 따른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거리나 자료에서 등장하는 “묵은 단골 깎아놓고 새 단골 잡아주고”나 “문이 미고(메이고) 골이 차게 단골 늘게 도와주마” 등의 구절은 목적은 같다.

이와 같은 구절이 등장하거나, 그 밖에 진적굿의 목적이 명시된 제차는 산신신앙과 무조신앙의 대상으로 집약된다. 이들 중 [산신], [창부-광대]거리는 상대적으로 축원의 강도가 적극적이고 분량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말명-대신-부정], [관성제군-상산-작두신령-신장]거리는 소극적이고 간접적이다⁶⁸⁾.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을 나누는 것에는 진적굿의 고유한 상용구가 등장하는가도 기준이 된다. 형식과 내용에서 대구를 갖춘 구절은 뚜렷한 정형성(定型性)을 갖고 전승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구절은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창부는 상대적으로 하위 신격임에도 분량이 상당하고, 무업 성취를 기원하는 사설이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부정 창부거리에서 열명되는 창부, 광대 신격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모두 무업과 관련된 무조신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말명-대신-조상], [관성제군-상산-작두신령-신장]거리는 앞서의 산신, 창부 두 거리에 비해 진적굿 관련 축원이 미약하게 등장한다. 굿의 말미에서 진적굿과 관련한 축원이 서술된다. 각기 친정조상과 작두신령이라는 신격이 부각되었다. 생전에 무업을 겸한 승려로 살았던 친정 조상이 해당 진적굿의 기주인 강민정 만신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선관은 『조선무속고』에 의하면 상류층 여자가 무당이 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한편, 조상은 부정거리 후 가망청배에서도 따로 등장한다. 작두신령(작두장군)도 강민정 만신의 몸주신 중 하나로 이상순 만신을 만나 서울굿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기 전에는 작두를 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진적굿에서만 간혹 작두를 타며 모신다. 신 딸의 내력을 잘 알고, 신어머니인 이상순 만신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정거리에서 별도로 축원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청배와 가망 청배는 굿에 참여하는 무당 중 비교적 기량이 뛰어난 무당 한 명이 맡는다. 그날 진행될 굿의 순서와 목적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부정거리는 당일 진행되는 굿의 모든 제차에 등장하는 모든 부정을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굿을 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굿을 의뢰한 기주를 소개하고, 이어서 거리마다 신격을 말한다. 그리고 굿을 하는 이유와 이루어져야 할 바를 압축하여 기원하는 축원 덕담이 이어진다. 장구를 흘리듯 치는 것과 끊어서 치는 것으로 나뉘는 장단으로

68) 보통은 부정 산신, 부정 말명, 부정 창부, 부정 뒷전 등으로 거리를 명칭하지만, 상세한 논의를 위해 대표 신격을 펼쳐서 제시하였다.

도 분절이 되지만, 각각의 축원은 대개 ‘시위들 하소사’라는 구절로 모시는 신격을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상덕물어주소사 전안진적 천신전물 기도왕래영정’이라는 사설로 분절된다. ‘부정들이랑 물리어 주시면 대활이 영정’의 사설로 부정 청배가 끝나면, 휘몰이 장단에 치면서 ‘영정가망 놀아나오 부정가망 놀아나오’로 시작하는 부정풀이를 구송한다. 부정풀이가 시작되면 조무가 제금으로 장단을 맞추고, 또 다른 조무가 맑은 물이나 고춧가루물, 잿물, 소지 등으로 제장을 둘러낸다. 이 같은 조무의 동작을 선부정물림이라고 한다. 원무는 조무들의 선부정물림이 이루어지는 동안 부정풀이를 마치고 이어서 ‘사외야 서천 명월이 하외 본 듯’이라는 부정노랫가락을 짧게 1장 부른 뒤 ‘귀히 뵈소사’로 시작하는 축원을 한다.

[3] 가망거리

가망거리는 부정거리에 이은 앉은곳의 연속이다. 평복을 한 무당이 별도의 무구나 의대 없이 앉은 채로 장구를 치며 구송한다. 가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다. 2009년 4월 5일 강민정 진적곳에서 이상순이 연행한 가망거리의 사설을 중심으로 실상을 파악한다.

1. 가망 청배

초가망 이가망 삼가망 조라전물가망
 걷는 말 채를 붙여 닫는 말 석을 잡고 돌아오시다

2. 각종 가망의 열명

국외다 제당가망 사위로 삼당가망
 동바른 불사가망 사부로 칠성가망
 양위양산 분향가망
 도당가망은 산신가망 사해로 용신가망
 육천은 전안가망 산조비 조상가망
 소천왕 소분향 육전안 육분향
 성 준 분향에 씨 준 조상 마누라 수위에서

3. 곳을 하는 과정과 목적

이 정성은 원천강 날을 골라 각국임신 만신말명
 인꼬리 짐꼬리 상짐은 채롱에 분향 본산을 들어다가
 검은산 둘러치고 백두산 옆에 끼고 임진강 대동수에
 세월이 분분해서 신의 신산은 못갔으니
 선산에 감발하고 장군님 안전에
 금잔디 들여밧고 은잔디 내밧아
 은산되고 금산되고 명산되고 복산돼서 명기주고 서기주고

4. 불사. 칠성. 미륵. 중 : 수명발원, 명기 축원
 천궁불사 일월불사 사해로 용신불사
 동두서두남두북두 일곱칠성
 억만미력(미륵)은 팔만신선 구만불사님 수위에서
 전안불사 석가여래는 시준불사 약사여래 전임 불사님
 중불사 성(僧)불사 옥천대사 무악대사 양명대사 서산상명
 이 정성 천궁맞이 받으시고 명기주고 서기주고
 열여섯 상님이 수명장수하고 말잘하고 글잘하고 천재수재되고
 아들 길러 효자충신 딸을 길러서 의주부인
 업신령되시고 복신령되셔서 상덕물어주소사

5. 부인, 호구, 말명, 제장 : 명기 축원
 사해로 용신부인
 천궁호구는 일월호구 성신호구 사해로는 용신호구
 천궁말명 일월말명 사해에 용신말명
 천궁제장 일월제장 사해로 용신제장
 물명기 산명기 천존명기 일월명기 도와주고
 오늘은 천궁맞이덕 입히어주소사

6. 창부 : 재수 축원
 천궁창부는 일월창부 사해로 용신창부
 가는 재수 선을 치고 오는 재수는 생겨주고
 먹고 남고 쓰고 남게 오복팔복 무량대복 다 생겨주소사

7. 제석 : 축원
 대음제석은 쟈(지은)제석 재불재천 천지건곤안에 안당은 삼신제석
 이 정성 진적맞이 회적자랑 만반히 받으시고 진적덕 회적덕 입히어 주소사

8. 산신도당 : 축원
 우청룡 좌백호 좌청룡 우백호 청룡백호는 나린 줄기
 이고량산 남도당 여도당 샷갓봉 신령님
 사대문 안에는 방 불이고 오부에 이름나고
 흔히 먹고 널리 쓰고 문이 메고 골이 차게 접지해 주소사

9. 마무리
 내외에 제산은 공수하시다

전안진적 전물기도 왕래가망
마누라 정성덕 황국덕 입히어 주시고
지를 상덕을 입히소서

10. 진적가망노랫가락

가망거리는 부정거리와 기능과 형식, 내용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굿의 전반에서 당일 진행되는 굿에 모셔지는 신격을 고루 청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의대와 무구 없이 평복 차림으로, 반주 없는 무당의 구송으로 진행되는 앉은굿의 방식으로 연행된다. 내용면에서는 당일 진행될 굿의 전반을 <신격 호명 + 축원>의 방식으로 개관한다.

가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다. 김헌선과 홍태한이 가망의 뜻과 기능에 특히 주목했다⁶⁹⁾. 가망은 가망청배에서만 불려지는 것은 아니고 재수굿에서 본향거리와 조상거리에서도 등장하는데, 근원의 의미를 가지며, 본향-조상과 관련된 신격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성 준 본향에 씨 준 조상’이라는 무가의 구절처럼 본향과 조상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또한 본향은 ‘양위양산 본향가망’이라 하여 산신 신앙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키바 다카시는 덕물산 도당굿을 견학한 기록을 남기며 여기에는 덕물산 정상에 본향신의 신체로 숭배되는 성수(聖樹)가 있으며, 본향 신앙이 덕물산신 신앙의 원본이 된다고 서술한 바 있다⁷⁰⁾. 최영장군당이 위치한 덕물산을 포함하여, 본향 나무라 불리는 성수를 섬기는 신앙은 다른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드러난다. 진적굿을 준비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사설에서 밀줄 친 것처럼 ‘신산(神山)인 덕물산을 들르지는 못했지만 선산에 감발하고 본향 본산을 들었다’는 구절은 본향은 그야말로 근본이 깃든 고향이 되는 곳이며 조상신앙과 산신신앙이 맞닿는 곳이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거리거리 열두거리라는 서울굿의 관용구처럼 가망거리에서도 서울굿의 주요 신격이 위계를 갖고 고루 모셔진다. 가망 신격과 그 외 불사, 칠성, 미륵, 부인, 호구, 말명, 제장, 창부, 제석, 산신도당 등이 청배되었다. 가망거리의 구체적인 기능은 부정청배에서 모셔진 여러 신들을 가망청배를 통해 굿판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특히 가망청배에서는 부정청배에서 청배되지 않은 조상신을 모시는 기능을 한다.

가망청배는 내용면에서 신격의 열명과 축원으로 이루어진다.

‘내우에 재상은 공수하시다 전안진적 전물기도 왕래가망 마누라 정성덕 황국덕 입히어 주시고 상덕 입히어 주소사’라고 가망청배를 마치면 악사 반주에 맞추어 가망노랫가락을 부른다. 가망노랫가락의 내용은 진적굿의 성격에 맞게 변형된다. 예컨대 안당사경 가망노랫가락은 “백사천리 소하오/사경가망이 산에 올라”, “사경가망 오시는 길에/가야금 줄로 다리 놓소”를 진적 가망노랫가락에서는 “백사천리 소하오/진적가망이 산에 올

69) 김헌선, 「‘맞이’로 다시 보는 우리 신화」, 『경기어문학』 10집, 경기어문학회, 2005; 홍태한, 「가망청배에서 가망의 의미」, 앞의 책(2007).

70)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 203-212쪽.

라”, “진적가망 오시는 길에/가야금 줄로 다리 놓소”로 변경한다.

[4] 청계배웅

진적굿을 비롯한 만신의 굿에는 청계배웅이라는 거리가 연행된다. 청계배웅거리의 주신은 청계, 청겨, 청계씨, 청겨씨 등으로 불리는 신격이다. 보통 무가 사설에서 ‘따라든 청계’, ‘묻어든 청계’라고 표현된다. 뜻하지 않게 동반되어 등장하는 부정적인 신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청계는 일반적으로 정신병을 일으키는 잡귀이자, 창부의 죽은 녀이기도 하다.

청계배웅은 일반적으로 부정을 물리고 가망을 청배하면서 신을 모시는 과정 뒤에 행하여진다. 청계를 물린 후에야 신께 술잔을 올리며 인사를 드리는 진적 제차가 행해진다. 무당이 의뢰하여 무당이 행하는 곳이니만큼 일반 재가집의 굿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적·금전적 측면에서의 간섭이 적어 굿의 밀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굿의 밀도는 연행에 있어 반복을 빼먹지 않고 행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청계배웅은 부정을 물리는 부정거리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정거리로 가셔진 깨끗한 공간에 가망 청배로 청했지만 이때 높은 위계의 선신(善神)들 틈에 낮은 위계의 악신(惡神)인 청계가 따라붙은 것을 다시 물리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 연행된 청계배웅거리의 세부 제차를 살핀다.⁷¹⁾

1. 청계배웅거리

1.1. 청계만수받이 [청쾌자, 평복, 부채]

1.2. 굿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1.3. 당악 - 청계벗기기 - 청계공수

신격 : 사외삼당챙겨 국내제당챙겨 그염상산챙겨 말오리서낭챙겨

내용 : 청계공수를 하면서 강씨기자와 김씨대주를 밖을 향해 앉히고 산을 다녀올 때 사용했던 보자기, 앞치마 씌워놓고 조밥을 양쪽으로 끼얹는다. 떡·밥·나물·술·복어 던지고, 소지종이를 불사르고 물을 뿜어 청계를 벗기고 축원한다.

3. 청계대감거리 : 당악 - 청계대감공수 - 청계광대타령 - 당악- 청계대감마무리공수

신격 : 사외삼당챙겨, 국내제당챙겨, 웃당챙겨, 아랫당챙겨, 안산챙겨, 밧산챙겨, 한우물챙겨, 석우물챙겨, 챙겨씨, 광대씨, 수양반장 전할챙겨

내용 : 굿 준비하는 정성(상산돌기) 치하, 명기발원, 가족 재수 축원

4. 청계걸립거리 : 당악 - 청계걸립쳐들기 [평복, 부채]

신격 : 사외삼당걸립, 국내제당걸립, 그염상산걸립, 말오리서낭걸립

내용 : 명기발원, 무업번성발원, 신어머니 조언

5. 청계서낭거리 : 당악 - 청계서낭쳐들기 [평복, 부채]

신격 : 사외삼당서낭 국내제당서낭 말오리서낭 용신서낭 뗏목서낭 임진강나루터서낭

71) 2009년 7월 15일 강민정 진적굿, 이상순 연행.

내용 : 회정길 재수발원, 무업번성발원, 신어머니 조연

6. 청계영산거리 : 당악 - 청계영산쳐들기 [평복, 부채]

신격 : 남영산, 여영산, 임진강나루터 양씨만신말명 박씨만신말명

내용 : 재수부귀축원, 자손학업축원,

7. 청계수비치기 : 휘몰이 - 청계수비치기 [평복, 부채]

신격 : 사외삼당수비, 국내제당수비,

내용 : 회정길 재수축원

진적곳의 청계배웅은 청계벗기기를 포함한 하나의 독립된 제차로 존재한다. 청계거리를 중심으로 청계대감과 뒷전에 해당하는 청계결립, 청계서낭, 청계영산, 청계수비 등의 절차를 고루 갖는다. 연행방식도 만수받이와 굿거리장단, 당악, 타령이 고루 쓰였다.

진적곳에서의 청계신은 따라들고 물어든 존재인 점은 같다. 그런데 청계가 등장하는 근거가 명확하다. 신산은 못 갔지만 삼당을 들고 제당을 도는 과정에서 따라들고 물어든 존재이다. 즉 상산돌기를 할 때 함께 온 신격인 셈이다. 실제 청계배웅거리의 공수에서 상산과 제당을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되어 상세히 서술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진적곳의 청계신은 퇴치의 대상이 아니라 모셔지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재수곳의 청계는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잡신'으로 관념한다. 그러나 진적곳의 청계는 상산신앙과 관련된 선신으로 기능한다. 진적곳의 청계신은 굿을 올리는 정성을 받아 재수를 열고 상덕을 물어 재가집을 도와주는 존재로 다루어진다.

아래는 청계배웅거리 중 만수받이의 사설이다. 청계배웅거리에서 모셔지는 신격이 고루 등장하여 신격의 특징을 가늠케 한다.

아 ! 챙겨

①만신목주 설명도(서울明圖)라 대신챙겨

②안산챙겨 밧산챙겨 그염으로 상산챙겨 윗당챙겨 아랫당챙겨

한우물챙겨 섯우물챙겨 수양반장 전혈챙겨 말오리는 서낭챙겨 놓고나서

③양화도는 금성당챙겨 선바위는 국사당챙겨 구파발은 정전챙겨 왕십리는 수풀당챙겨 물 건너는 화주당챙겨 동관왕은 정전챙겨

팔도명산 산신챙겨 사해로는 용신챙겨 놓고나서

④애동기자 선산에 감발하고 인꼬리는 짐꼬리요 원천강에 날을 골라 주역에는 시를 잡아 이 정성을 다령할제 사위삼당 들어다가

⑤6월이라 유두맞이 윤5월은 윤달이요 윤달에는 운맞이정성 색달정성 받으시고

강씨기자 말문 열고 글문을 열고 장안가득 불리시고 선생기자 후생기자 시주서고 꺾납(關納)을 해서 선산에는 감발하고 장군님 전에 이 정성을 다령할 제

따라온 챙겨 물어온 챙겨

신의 상방 김씨에도 창부씨가 앞을 서고 뒤를 서서 이 정성을 다령하니

은산되고 금산돼서 은불리듯 금불리듯 도와주고
 진주 OO⁷²⁾ 마흔여덟 상녀여식 이녀여식 상남자손 명산되고 복산되게 도와주고
따라온 쟁겨 묻어온 쟁겨 놓고나서 오시던 길로 회정해서 상덕몰어 천신덕요
 햇밀천신 참외천신 사과진상 받으시고 별상금내려 벼슬 들고 부귀공명 자손창성 접지하고 놀
 구나오
 아 쟁겨

만수받이의 형식으로 청신(淸神)을 하는데 청배의 내용이 상세하다. 청배되는 청계 신격은 ①~③으로 세 종류이다. 서울곳의 만수받이는 ①처럼 먼저 무조신에 해당하는 대신 신격을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무당이 신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듯, 신의 세계에서 서도 만신의 몸주이자 조상격인 대신 신격을 통해서 거리의 개별 신격을 모실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②에서 호명되는 신격은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신격이다. 상산돌기의 여정에 등장하는 실제 지명이 제시되어 있고 청계가 이곳에서 청배되었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덕물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서울곳에서 중요하게 숭배되는 주요 신당이다. 상산돌기가 덕물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속의 성소를 두루 참배하는 제당 돌기의 여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팔도명산 산신쟁겨 사해로는 용신쟁겨’라는 구절을 통해 산신신앙이 우물이나 고개, 강, 바다 등의 자연지물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임이 확인된다.

④는 진적곳의 준비 과정이다. 생기복덕한 날로 택일을 하고, 상산돌기를 한다. 선산에 감발을 하다는 표현을 통해 산기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무당의 참배는 당에 도착해서 제물을 올리고 치성과 고사를 드리는 형식이다.

⑤는 진적곳의 목적이 드러난다. 재가집 가족의 안녕은 물론이고, ‘말문 열고 글문 열고’, ‘선생기자 후생기자 시주서고 꺾납해서’라는 구절을 통해 무업 번성을 특별히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신인 강씨 기주 뿐 아니라 악사로 전직한 김씨 대주의 안녕을 창부씨를 통해 기원하고 있다. 이런 특징은 청계대감거리에서도 보인다.

(김씨 대주에게) 사지집사 남고지기가 내가 창부씨로 맨들었어. 네 조화로 만든게 아니야. 여기 상전에서 맨들어놨지. 지가 저절로 저절로 된게 아니다. (중략) 창부씨로 이름 나게 도와주마. 허OO이한테다가 다시 가서 절 하고 더 배워라. 얼마나 살는지 죽기 전에 더 배워. 선생은 하나지 둘이 아니야.

(강씨 기주에게) 애 많이 쓰고 힘 많이 들었으니 말문에 실수 없고 쇠뿔으로 그린 듯이 족집게로 집은 듯이 도와주고 안신당에 징채 고리채 놀 새 없고 밧신당에 신복 벗어 걸 새 없고 앉은 글력 선 글력 밤이 되면 사경글력 생겨주고 천신 글력 생겨주고 낮이 되면 진오기새남글력

72) 고향 지명

생겨주고 대한글력 생겨주마.

서울곳에서 대감 신격은 예능과 재담이 강조되는 흥겨운 분위기에서 놀아진다. 청계 대감거리도 마찬가지다. 타령과 재담으로 흥을 돋운다. 공수도 다양해서 관용적 구절을 활용한 보편적인 내용의 축원과 개별적인 내용의 축원이 동시에 등장한다. 하위의 신격 일수록 후자의 공수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전자는 밑줄 친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영력 강화와 무업 번성이라는 진적곳의 고유의 목적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알리고 있다. 후자는 김씨 대주에게 내리는 공수가 예이다. 청계배웅거리는 당주무당이 연행하지 못한다. 상산을 돌아 청계가 묻어든 것이 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승이자 조상인 신어머니가 거리를 주관한다. 신어머니는 기주인 당주무당의 처지를 세세히 알고 막역하다. 청계신은 비교적 하위 신격이라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신어머니의 입장에서 허물없이 나무라고 조언한다.

사위삼당걸립 국내제당걸립 그염상산걸립 말오리서낭걸립이라
앞은글력 선글력 양반단골 판사당골 재상단골 생겨주고 도와주고

초하룻날은 금을 쥐도 나가지 말어. 초하룻날은 재수를 다 떠나지고 남에 집에 갔다 퍼부어 주는 거야. 무당은 초하룻날은 남의 청송 안 가는 거야. 어머니네가 초하룻날 해도, 12시 넘어서 12시까지 집에 있어야 해. 해뜰 때까지는. 단골 축원해주고 집을 지키고 정전에 있어야지. 네가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위의 인용문은 청계걸립거리의 공수이다. 상산을 중심으로 한 청배신격을 간단히 호명하고, 이어서 밑줄 친 부분처럼 관용적 표현을 통해 무업의 번창을 축원한다. 진적곳 고유의 목적이 드러난다. 이어서는 신어머니이자 스승의 입장에서 무업과 관련된 조언을 공수의 형식을 빌려 당주무당에게 전했다.

남영산 여영산이야 임진강 나루터에 양씨만신말명 박씨만신말명
물에 빠져 수살영산이야 (중략)
쓰린 가슴 멈추게 하고 신문 열어 도와줄게
장안 가득 불러주고 집터가 금터되고 은터되고
집 값만 해도 얼마 올랐니. 부자가 되고 장자가 됐지 거부가 되고. 거기 개발 돼. 개발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된다. 개발 돼서 큰 부자 시켜줄게. (중략)
아들이 성적 많이 올라가게 해줄 거야. 내 별상금이야. (중략) 아들이 없는 팔자야. 네가. 근데 네 정성으로 생겨서 조금 늦공부가 터진다. (중략)

따라온 수비 물어온 수비
사위삼당수비 국내제당수비야
상짐은 채롱에 오시던 길로 회정해 가서서

은산되고 금산되고 명산되고 복산되게 받들어주고
남의 수비 남으로 가고 서의 수비 서로 가고 북의 수비 북으로 가고
오시던 길로 회정해가서 은산되고 금산되게 상덕물어 도와주시자

위의 인용문은 청계영산거리와 청계수비거리의 사설 일부이다. 영산과 수비는 부정과 뒷전에 등장하는 잡귀잡신이다. 상위신은 신격을 청배할 때 좌정하거나 관장하는 영역으로 열명되지만, 영산은 사인(死因)으로 열명된다. 위계가 낮을수록 다른 곳에서는 축소, 생략되기도 하지만 진적곳에서는 빼놓지 않고 연행한다. 이들 거리에서도 공식적인 내용의 사설보다는 개인적인 내용의 사설이 많았는데, 내용은 절실하게 굿날을 잡은 기주를 칭찬하고, 이 곳으로 자식이 학업 성취하고 집터에 재물이 들어온다는 덕담이었다. 이는 굿을 의뢰한 기주에게 내리는 공수이면서 동시에 굿판에 모인 단골들을 향한 교사이기도 하다. 진적곳은 만신이 거느린 단골들이 두루 구경을 오는 잔치이다. 무속신앙의 사제자인 무당이 스승을 졸라 간절한 원을 세워 굿을 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집 값이 올라 부자가 되고, 자식의 학업이 일취월장한다는 굿덕을 입게 될 것이라는 공수를 듣는 모습은 단골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신앙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수비는 최하위 잡귀잡신이기 때문에 ‘쳐내는’ 대상이다. 하지만 청계배웅에서 모셔진 청계신격은 영산이나 수비라 할지라도 회정시켜 돌려보내야하는 대상이고 상덕을 물어주길 기원하는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상산돌기, 청계배웅, 제당맞이, 회정맞이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공수는 제당맞이, 회정맞이에도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청계배웅거리의 제물은 수수팥떡 세 접시, 산자, 나물, 술 등으로 간략하고, 의대와 무구도 청괘자와 방울부채로 단순하다. 청계가 하위 신격이고 퇴치의 대상으로 여겨져 비록 상차림과 무복은 간소하지만, 위에 제차에서 보이듯 서울 진적곳에 있어 청계배웅 거리는 위계에 따른 부속 신격이 다수 존재하고, 청배 방식도 만수받이와 굿거리와 당악이 골고루 사용되며, 위무방식도 타령이 따로 있어 하나의 독립된 거리로 손색이 없는 구성을 갖는다. 진적곳에서 청계배웅이 각별한 이유는 무엇보다 상산신앙과 관련이 있다. 청계배웅의 거의 모든 거리에 상산돌기와 제당맞이의 여정이 등장하였다. 청계는 덕물산 위시한 명산과 제당을 돌면서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온 신격이며, 무업사회의 동료인 약사의 조상과도 같은 신이므로 비록 위계는 낮지만 특별한 대우를 해야하는 존재이다.

[5] 진적

진적은 전악의 합주와 무당의 상산노랫가락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재가집은 굿상에 절을 올린다. 무당은 평복 차림으로 앉은 채 진행한다. 진적이라는 명칭은 제사나 잔치에서 임금 등에게 술잔을 올리는 것을 일컫는 진작(進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에 따라서는 ‘고기를 올린다’라는 의미에서 진적(進炙)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술과 고기는 잔칫상이나 제사상에 올리는 대표적 음식

이므로 두 가지 명칭이 뜻하는 바는 다르지 않다. 서울굿에서 진적 제차 중 주목할 점은 굿을 의뢰한 재가집의 등장이다. 재가집은 굿의 주체이다. 재가집이 굿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굿은 열리지 못한다. 그런데 정작 굿이 시작하고 나서는 연행의 주체인 무당에게 비중이 밀린다. 무당이 전하는 신의 공수를 받는 객체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적거리에서는 재가집이 초와 향에 불을 켜고 술잔을 채우며 절을 올린다. 진적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굿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신을 청하는 후에 무당과 재가집이 처음으로 인사를 올리는 제차이다. 따라서 진작(진적)이라는 명칭은 거리로서의 진적과 굿으로의 진적 모두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전악이 서울굿에 쓰이는 장단을 고루 모아서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의 순서대로 연주한 뒤 상산노랫가락을 부른다.

0. 무복 : 평복

1. 무악 : 염불-반염불-굿거리-허튼타령-당악-휘몰이-상산노랫가락

2. 초,향,술을 올리고 절한다.

앞은굿의 한 갈래로 이어서 진행된다. 그래서 부정과 가망을 담당했던 주무가 그대로 평복 차림에 앉은 상태에서 장구를 치며 진행한다. 이때 조무는 재가집과 함께 굿상에 놓인 초와 향에 불을 켜고 술잔에 술을 따른 후 절을 올린다. 진적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굿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신을 청하는 후에 무당과 재가집이 처음으로 인사를 올리는 제차이다.

마지막에 불리는 상산노랫가락을 제외한다면, 진적거리는 특별히 구송하는 무가나 무무, 무복 없이 악사들의 무악만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전체 길이도 5분 이내의 짧막하다. 그래서 그간 상산노랫가락으로 연구되는 경우는 있어도 거리로서는 그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제차를 기록할 때도 생략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진적거리가 연행되는 순서를 함께 고려해서 의미를 살피면 간단하지 않다. 무무의 유무로 기준으로 살피면 서울굿은 앞은굿과 선굿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은굿은 굿의 전반부에 무복 없이 평복으로 행해진다. 선굿은 굿의 후반부에 무복을 갖추고 행해진다. 그 경계에 진적이 위치한다. 앞은굿은 굿청을 정갈히 물리고 제신을 초청하는 준비행사로 기능하고 선굿은 신격마다 거리를 나누어 모시는 본격적인 행사이다. 진적은 앞은굿과 선굿의 경계에 위치하여 전반부와 중반부를 나누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서울굿에 등장하는 모든 장단을 이어서 짧게 연주한다. 마치 본 상영 이전에 맛보는 짧고 응축된 예고편이자 요약편의 기능도 수행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진적은 재가집과 제장에 모셔진 신격이 감응하는 거리이다. 앞서 서술하였듯 재가집이 굿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공수를 받는 객체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굿의 연행자는 무당이지만, 재가집은 굿을 의뢰자로 그날 굿을 있게끔 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적거리는 재가집이 굿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거리라고도 할 수 있다.

진적을 마치며 무당은 노랫가락을 부른다. 무당이 가진 기량이나 여건에 따라서 여러 수의 가락을 이어서 부르기도 하는 이 노랫가락은 상산노랫가락이다. 진적곳에서 급작스레 선곳인 대신말명거리로 진입한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후에 따로 상산노랫가락을 부르는 것으로 앞은곳을 마무리를 한다. 서울곳에서 전반부와 중반부가 나뉘는 중요한 장면에 상산노랫가락이 등장하는 것은 서울곳에서 상산 최영장군의 위치가 각별하다는 것을 보이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적거리는 서울 진적곳에서 특히 주목해야 한다. 위에 서술한 부분은 서울곳 전반에서 진적거리가 차지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진적곳에서만 드러나는 진적거리의 의미가 따로 있어 주목을 요한다. 첫째, 진적거리는 가정곳과 무당곳(신곳)을 차이를 드러내는 지표의 기능을 한다. 서울곳의 초기 기록인 『조선무속의 연구』 하권에서 경성 지방의 천신곳의 제차를 아래⁷³⁾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주당물림, 곳 진적의 행사] - [제1거리 부정] - [진작] - [제2거리 가망] - [제3거리 산마누라] - [제4거리 별성] - [제5거리 대감] - [제6거리 제석] - [제7거리 천왕] - [제8거리 호귀] - [제9거리 군웅] - [제10거리 창부] - [제11거리 말명] - [제12거리 뒷전]

주당물림과 진적을 따로 거리로 세지는 않았지만, 그 실상을 생략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진적에 대한 설명을 보면

진작: 기대는 장고를 자비는 제금을 울리고, 악사는 아악을 합주하면 주무는 약주를 산마누라에게 올린다. 이윽고 행행곡·육행곡·무답곡 순서로 그 합주가 끝나면, 기대는 주신풀이 산마누라 노래가락을 부르고 악사는 반주한다. 이것은 즉 의식 시작의 주악(奏樂)이다.

라고 되어 있어 오늘날의 진적거리의 순서와 형태, 의미가 과거와 다르지 않게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밑줄 친 부분이다. 앞은곳에 해당하는 제차의 순서가 부정-진적-가망으로 되어 있어 오늘날 서울곳의 부정-가망-진적의 순서와 다르다. 같은 책에서 성주맞이를 소개하면서도⁷⁴⁾ 부정-진작-가망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경성의 입무곳을 소개한 부분이다.

부정한 허주를 막고 청정한 신령을 맞아들여 몸주로 삼는 행사를 입무곳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세 지방의 입무곳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중략) 경성에서 있었던 그것을 서술해 보면, (중략) 신어머니가 보통의 곳에 의한 부정·가망·진작의 세 거리를 행하고 (하락)⁷⁵⁾

73)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 135-142쪽.

74) 같은 책, 161쪽.

75) 같은 책, 65-66쪽.

경성의 입무굿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부정-가망-진작의 순서로 제차가 진행되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서술을 종합하면, 과거에는 일반 가정굿은 부정-진적-가망의 순서로 진행하고 입무굿과 같은 신굿은 부정-가망-진적의 순서로 진행되어 일반굿과 신굿이 서로 차이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추론은 김유감 만신이 ‘무당을 위한 진적굿에서는 가망청배를 먼저 하고 진적을 드렸는데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일반 가정의 재수굿 부정거리가 모두 만신의 진적굿 부정거리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증언한 것⁷⁶⁾에서도 확인된다. 이렇듯 진적거리의 순서가 부정 뒤에 오는가, 가망 뒤에 오는가에 따라 가정굿과 신굿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서울 진적굿의 진적거리는 대신말명거리로 이행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기능한다. 대부분의 진적굿에서 진적거리는 두 개의 거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진적거리에서 무악이 당악을 연주할 때 무당이 갑자기 일어나 손뼉을 치고 뛰며 바로 대신말명거리로 이행한다. 그리고 대신말명거리가 끝난 뒤에 상산노랫가락을 부르고 못다한 진적거리를 마무리를 한다.⁷⁷⁾ 이는 당악장단이 무악이면서 동시에 도무춤인 무무라는 점에 기인해서 내림굿을 재연하는 진적굿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진적거리는 서울굿은 전반은 앞은굿, 후반은 선굿으로 진행되는데 그 갈리는 기점에 위치함으로, 부정을 가시고 신을 청배하는 기능을 수행한 앞은굿의 내용을 만신의 행위로 요약한다. 또 앞으로 진행될 선굿에서 등장하는 무무(巫舞)와 무악(巫樂)을 전악의 반주로 요약한다. 그리고 상산노랫가락으로 마무리함으로 서울굿을 주관하는 대표신격이 상산 최영장군임을 간접적으로 공지한다. 특히 진적굿의 진적거리는 가정굿과 다른 신굿의 특별한 연행 순서를 보여주는 예가 되며, 내림굿을 재연하며 대신말명거리로 이행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의미를 갖는다.

[6] 대신말명거리

대신의 성격은 복합적이다. 특히 서울 진적굿에서 대신은 무조신이면서 몸주신을 대표하는 신격으로도 기능한다. 강신무에게 몸주신은 영력의 주체가 되는 신으로, 굿을 할 때 잠깐씩 실려서 공수를 주는 신과는 달리 무당이 평소에도 자신의 개인 신당에 모시는 신을 말한다.⁷⁸⁾ 때문에 몸주신은 만신이 내림굿을 하고 무업을 시작했던 순간부터 함께한다. 신격의 위계를 떠나 각별하게 모셔진다. 내림굿을 한 날이 만신의 삶을 시작한 생일이라면, 진적굿은 만신으로 살면서 별이는 생일잔치의 의미를 갖는다. 무업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함께 한 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리는 진적굿에서 몸주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몸주신 개개의 신격은 만신 개인마다 다르고 범주도 다양하다. 몸주신을 대표하는 신격은 대신할머니이다. 그래서 진적굿에서는 대신말명거리를 진적거리 바로 다음에 붙여서 연행한다. 대신할아버지라는 호칭도 있어서 남성신격도 존재하는 것까지

76) 이용범, 앞의 논문(2001), 36쪽.

77) 자료 10과 자료 12처럼 거리 분절 없이 빠르게 대신말명거리로 이행해서 이후 상산노랫가락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산노랫가락을 덧붙여서 진적거리를 마무리했다.

78) 변지선, 「몸주신」,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6.

만, 실제로는 여성신격이 우세한 무속의 특징상 대개는 여성인 대신할머니로 모셔진다. 때로는 만신말명거리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다음으로 진적곳의 대신말명거리의 구체적인 연행 양상을 살핀다.

1. 앞서 진적거리 중 당악이 울리자 손뼉을 치며 도무[조상의대, 창부의대, 대신의대, 방울, 부채] - 대신말명공수1
신격 : 명두대신 작두대신 이복할머니 천하대신 지하대신 벼락대신 불사대신, 명씨할머니, 명두대신, 이복할머니
2. 당악 - 대신말명공수2 [은하몽두리, 방울, 부채]
신격 : 오도바이할머니, 영득이네, 도서방할머니, 열두대신할머니,
3. 당악 - 대신말명공수3 [은하몽두리 여러 벌 겹쳐서 입음, 방울, 부채]
신격 : 이용규, 짱구박수할아버지, 아리랑고개할머니, 분홍저고리할머니, 종암동이봉순, 왕십리김유감, 문화재대신할머니, 신박수할아버지
4. 당악 - 허튼타령 - 당악 - 대신말명공수4 [조상의대 여러 벌 들고]
신격 : 도서방할머니, 종암동이봉순, 분홍저고리할아버지, 오도방이할머니, 아리랑고개할머니
5. 대신타령 : 전악과 신딸, 단골들에게 호가를 나누어줌
6. 당악 - 대신떡타령 [대신떡과 호가를 나누어주며]
7. 당악 - 대신말명공수5 [은하몽두리와 조상의대 여러 벌 겹쳐 입고]
신격 : 분홍저고리할아버지
8. 당악 - 대신말명공수6
신격 : 태산부군 김점석, 노들순자 상임이, 소천집, 수유리할머니, 양씨할머니
9. 대신창부타령 : [늦게 온 단골들에게 호가를 나눠주며]
10. 당악 - 대신말명공수7
신격 : 상진엄마, 상임이네, 지전집, 수유동 돼지엄마. 도당대신, 산신대신, 서오능대신
18. 당악 - 마무리

휴지가 없이 진행되는 대신말명거리의 도입부를 특히 주목해야 한다. 대신말명거리는 앞서 진적거리에서 절을 올리자마자 당악 장단에 맞춰 바로 펄쩍 일어나 손뼉을 치며 몽두리 가져오라고 이르며 시작한다. 이는 내림굿을 재연하는 것으로, 진적곳의 의의를 드러내는 중요한 특징이다. 내림굿에서 입무하려는 예비 만신이 신이 내려 당악 장단에 맞춰 손뼉을 치며 펄쩍 펄쩍 뛰어오르면 내림굿을 이끄는 만신이 어느 신이 드셨냐고 묻고 거기에 대답하는 절차를 통해 신이 내렸는지의 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자신에 몸에 실린 신의 이름을 호명하며 처음으로 공수를 내리는 것을 ‘말문이 열린다’거나 ‘손뼉을 쳤다’라는 관용구로 표현한다. 진적거리를 연행하다말고 손뼉을 치며 뛰어오르는 대신말명거리의 도입부는 내림굿에서 신이 내리는 최초의 장면을 재연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부정을 물리는 역할을 청계배웅거리를 제외하면, 본격적인 선곳의 첫 거리로 연행되면서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무당의 정체성을 되새김한다.

대신말명거리에서 모셔졌던 신격은 워낙 수가 많아 사용된 무복만도 십 여벌이 넘는다. 무복의 종류는 은하몽두리, 색동소매녹색접수, 치마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이다. 이들 중 색동소매녹색접수는 부인의대로 양어머니이자 신어머니인 명씨할머니⁷⁹⁾를 위해 따로 마련한 것이라 예외적이다. 나머지는 각각 대신의대와 조상의대로 압축되어 대신거리 신격의 특성을 보여준다. 무업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신격의 의대이기 때문이다.

①신차림 정성에 자차림 정성. 애동은 내 기자가 원천강 날을 골라 주역에 시를 받아 인꼬리 징꼬리 상짐은 채롱에. 새남 보유자는 장군님이 시켜줬지 성제님이 시켜줬나 장군님이 시켜줬지. 그랬더니 해마다 남묘는 잘가면서 장군님한테는 마지 못해 죽지 못해서 가고. 국태민안 시 화현풍하고 내 기자 명기주고 서기주마. 단골마다 다 잘되게 해주마 신딸들마다 다 잘되게 해주마.

②태산부군이야. 김점석씨야. 우리 이상순이가 그런 똑같은 무당이 아니야. 한영서씨는 저렇게 건강하고 쩡쩡하고 이쁘고 선비 같고. 세상에 나만 죽어 억울하고. 나 죽기 전에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달라고 은하엄마가 절까지 했어. 내가 악사들 친구를 다 데리고 왔수 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놀구. (아들에게) 오냐 잘해라 생각해도 불쌍해 가엽고도 불쌍해. 안 되는걸 하려니 얼마나 애를 쓰나. 그래도 어떡하우 끼고 돌아야지. 잼이는 선생이 끼고돌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만신은 신어머니가 안 끼고 돌면 외톨이야.

③잼이들, 만신의 진적은 전악이 잘 잡춰야해. 양지머리 하나 가져가서 썰어다 돌려. 만신의 진적을 가려느냐 천근새남을 가려느냐. 그런데 힘이 들어. 갖춰서 하려니까. 마음 같아서는 돈도 한 3백만 원씩 주고 싶은데 가을 봄 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주나. 그저 이해들을 하시고. 내 기자가 명기가 있으면 자꾸 말아가지고 벌어들일게. 만반진수 잘 차려서 잘 대답해.

④서울서 서울엄마를 상대를 할라면 계산에 단수가 높고 잼이들을 꼭 부르라고 하니까 이것도 속상하고 그래도 인연은 못 끊겠고. 진적은 지 혼자 해먹었는지 오란 말도 안해. 니가 어떻게 안 오고 배기냐. 너 그런 말 할 적에 내 기자가 눈물이 펴펴 쏟아졌다. 그런 소리가 어딴냐. 너 내 기자야. 내가 신에 대해서 이기라고 했지 인간으로 싸우라 그랬니. 그러니까 천리를 굶어도 나를 따라야 한다. 만리를 굶어도 나를 따라야 한다.

①은 첫 번째 내린 공수의 내용 중 일부이다. 상산돌기의 과정을 묘사한 구절과 더불어 무업을 통해 문화재라는 큰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이 최영장군의 덕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산 덕물산을 들르지는 못하더라도 선바위 국사당을 자주 찾지 않는 것을 나무

79) 대신말명거리에 등장하는 상세한 신격은 4장 1절 <진적굿 구성의 씨줄과 날줄>에서 다루도록 한다.

란다. 서울곳 만신의 조종이 최영장군이라는 신앙이 잘 드러난다.

공수의 대상은 굿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굿을 올리는 기주이자 무당인 이상순 본인을 위한 축원은 물론이고, 신딸을 위시하여 동료나 후배 만신과 전악, 단골에게 고루 고루 공수를 내린다. 대신말명거리에 등장하는 신격이 복합적이므로 공수의 종류도 다양하다. ①번처럼 관용구를 사용한 보편적인 내용의 공수도 있지만, ②, ③번처럼 개별적인 내용의 공수도 많다.

②번 공수를 내리는 김점석은 작고한 서울곳의 일류 악사이다. 같이 활동했던 동료 악사에게 제일 먼저 공수를 건네고, 당시 굿판에서 악사를 담당하고 있는 아들에게 공수를 내린다. 망자의 탄식과 부러움, 자식에게 내리는 축원과 당부로 내용도 다채롭고 자유롭다. ③은 대신말명거리를 빌려 악사들에게 미안함과 감사를 전하고 있다.

④신딸에게 내린 공수이다. 대신말명거리에 의탁해서 신딸에게 그간의 서운했던 감정을 기탄없이 토로하고 나무란 뒤, 신어머니와 신딸의 돈독한 관계를 환기하고 있다. 단골들이 만신에게 무꾸리나 굿을 의뢰하러 찾으면 돈이 들지만, 이날 굿구경 온 단골들에게는 반대로 만신이 이들을 배부르고 흥겹게 대접하고 영험한 공수를 내려준다. 다른 곳에서는 술과 떡을 받으며 ‘인정을 건다’하여 무당에게 별비를 건넨다.

⑤(도서방 할머니에게 인정을 걸려하자 막으며) 돈은 뭐. 오늘은 돈을 받아가는 날이지 (오도바이 할머니에게 인정을 걸려하자 막으며) 오도바이 할머니가 너를 쥐야지. 내가 뭐를 주고 받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도바이 할머니가 너를 쥐야지.

⑥할아버지 오셨다. 너희 삼형제 잘 되게. ○○는 왜 안왔어? 너 커피장사 잘 되게 해주고,

⑦이사 가. 그 터 운이 다됐어.

그러나 진적곳은 ⑤번 공수처럼 단골들에게 돈을 받기를 마다한다. 오히려 반대로 굿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호가를 주고 재수떡을 나누어준다. 평소 단골에게 돈을 받고 내리는 축원과 영험한 공수도 진적곳에서만큼은 대가 없이 베풀다. ⑥번과 ⑦번 공수가 이를 보여준다. 굿판 뒤에서 준비를 돕고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시봉(侍奉)자도 따로 불러서 공수를 주고 떡과 호가를 챙겨준다. 굿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눈을 흘기던 참관 연구자와 학생들에게도 빠지지 않고 덕담을 나누고 호가와 떡을 나눠준다. 끈침이라 하여 천을 따로 준비했다가, 굿의 후반부 상산과 별상거리를 놓고 난 후에 굿판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끊어서 나누어주기도 한다. 사제자와 신도의 관계의 역전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역지사지의 화합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특성은 비단 대신말명거리만의 것은 아니며 진적곳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다.

신격이 높거나 비중이 클수록 음식과 상이 단독으로 준비되고, 신격이 낮거나 비중이 작을수록 따로 상을 두지 않고 시루나 특정 음식 일부로 축소된다. 대신거리에는 대신상이 둥근상에 따로 차려진다. 제물은 소찬(素饌), 육찬(肉饌) 등을 가리지 않고 굿을 위

해 준비한 모든 음식을 올린다. 이때 열두대신 할머니의 몫이라 하여 술이나 떡 등의 음식은 12그릇을 준비한다. 대신상은 대신말명거리가 끝나는 대로 허물어 새참으로 나누어 먹는다. 이를 겨느리새참이라 하여 특별히 부르는데, 진적곳의 풍성함을 잘 보여준다. 서울곳에서는 ‘천금새남을 가려느냐 만신의 진적을 가려느냐?’라는 관용구가 있다. 새남곳은 서울곳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곳이다. 그런 새남곳보다 만신의 진적이 볼거리 먹을거리가 더 알차고 풍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일종의 수사의문문이다. 진적곳에서는 겨느리새참 외에도 곳 중간 중간에 식사와 간식을 쉬지 않고 돌린다. 배불리 잘 먹이는 것이 대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잡귀잡신을 뒷전에서 풀어먹이는 것도 곳이 갖는 이 같은 속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대신상에는 국수를 진설하는 점이 이채롭다. 12그릇을 준비하거나 한 그릇에 12개의 숟가락을 꽂아서 배치한다. 국수는 대표적인 잔치 음식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음식이다. 진적상의 국수는 진적곳이 갖는 의미를 잘 드러낸다.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한 대신말명 신격의 위상을 함축적으로 상징한다. 또 진적곳이 곳판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풍요하고 경사스러운 잔치라는 의미도 보여준다. 진적곳은 신에게 올리는 제의인 동시에 인간에게 베푸는 성대한 잔치이기 때문이다.

[7] 천궁불사거리

천궁불사거리라는 명칭처럼 부처, 천왕, 중과 같은 불교 계열의 신격이 다수 등장한다. 때문에 젓상에는 차와 소찬(素饌)이 주로 올라가고, 무복도 흰색 의대가 많다. 창부나 대신이라 할지라도 천궁에 소속된 신격이므로 공통적으로 흰색이나 물색을 주색(主色)으로 짓는다. 그 밖에도 옥황이나 칠성, 용왕, 신장과 같은 도교적 신격도 함께 모셔진다.

천궁불사거리의 실제 연행 모습은 아래와 같다.

1. 천궁불사거리

1.1. 천궁불사만수밭이 [흰고깔, 흰색장삼, 흥띠, 흥치마]

: 천궁불사맛이의 주요 신격 호명, 자손 수명재수밭일

1.2. 곳거리

1.3. 당악 - 천궁불사공수

신격 : 천궁불사 일월불사 성신불사 사해용신불사

내용 : 곳 올리는 정성 고하기, 국태민안 축원

2. 천궁칠성거리

2.1. 당악 - 천궁칠성공수

신격 : 동두칠성 남두칠성 서두칠성 북두칠성 삼태육성 칠월성군

내용 : 자손 수명 밭일 국태민안 축원

3. 천궁불사거리
 - 3.1. 당악 - 천궁불사공수

신격 : 부리불사 처사불사 세존불사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사 증불사 승불사 처사불사
조상불사 전안불사

내용 : 명기발원, 단골축원

4. 천궁천왕중거리
 - 3.1. 당악 - 천궁천왕중공수 [바라를 치며]
 - 3.2. 천궁천왕중타령-염불축원

신격 : 천궁천왕 일월천왕 금천왕 은천왕 옥천대사 무악대사 양명대사 서산대사 성진대사

내용 : 시주묘사, 축원

- 5.1. 천궁불사노랫가락
- 5.2. 휘몰이 : 밤대추로 명산복산주기

6. 천궁부인거리
 - 6.1. 천궁부인 천궁호구만수받이 [홍색면사포, 홍치마, 색동소매녹색원삼]

: 호구, 부인 신격 호명, 국태민안 발원
 - 6.1. 당악 - 천궁부인공수

신격 : 일월부인 성신부인 사해용신부인

내용 : 굿 올리는 정성 응감, 국태민안 축원

7. 천궁호구거리
 - 7.1. 당악 - 천궁호구공수

신격 : 천궁호구, 일월호구, 성신호구, 용신호구

내용 : 외양묘사, 신딸들 축원, 수명발원, 꿈자리 답답함 제거

8. 천궁말명거리
 - 8.1. 당악 - 천궁말명공수 [붉은장식흰색몽두리]

신격 : 천궁말명 일월말명 천신대신 천궁제장 일월제장 사해용신제장

내용 : 단골 신딸 축원

9. 천궁신장거리 [전립, 분홍소매물색섭수, 물색괘자, 오색신장기]
 - 9.1. 허튼타령
 - 9.2. 당악 - 천궁신장공수
 - 9.3. 천궁신장타령

신격 : 천궁신장 일월신장 성신신장 사해용신신장 불도신장

내용 : 외양묘사, 신장기 뽑기, 신말 단골 개별공수, 명기발원

10. 천궁대감거리 [전립, 색동소매물색섭수]

10.1. 당악 - 천궁대감공수

10.2. 천궁대감타령

신격 : 천궁대감 일월대감 성신대감 사해용신대감 불사대감

내용 : 명기발원, 재수발원

11. 천궁창부거리 [흰색한삼색동소매물색동달이]

11.1. 당악 - 천궁창부공수

11.2. 천궁창부타령

신격 : 천궁창부 일월창부 성신창부 사해용신창부

내용 : 강신묘사, 재수발원, 명기발원, 신말 단골 개별공수

12. 당악 - 천궁뒤틀전 - 휘몰이 [평복]

신격 : 청궁걸립 일월걸립 성신걸립, 천궁서낭 일월서낭 성신서낭 사해용신서낭, 천궁영산, 일월영산, 천궁수비

천궁불사거리리는 천궁불사맛이라고 부른다. 독립된 곳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서울곳 열두 거리의 모습을 고루 담고 있다. 등장하는 신격과 무복, 무악 등 단독 제차로 가장 큰 규모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자료에서 진적곳을 올리는 당주무당이 직접 연행했다. 일반 재수곳에서도 천궁불사거리리는 곳을 댄 무당이 직접 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높은 신격을 모시는 것이며, 굿하는 사람의 상덕을 물어주어야 하므로 당주가 정성스럽게 하기 때문이다.⁸⁰⁾ 재수곳에서 불사거리리는 부정, 가망, 진적의 얇은곳을 진행하고 난 뒤, 선곳으로 처음 이행하는 거리이다. 때문에 굿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리라 남다른 정성을 담기 마련이다. 또 천궁불사거리리에서 당주무당이 재가집에게 내리는 공수를 통해 청송 온 무당들은 재가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천궁불사거리리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모셔지는 신격과 형식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1~5번까지의 전반부에서는 천궁불사, 천궁칠성, 천궁불사, 천궁천왕중을 연행했다. 천궁불사거리리라는 명칭처럼 부처, 천왕, 중과 같은 불교 계열의 신격이 다수 등장했다. 옥황이나 천궁칠성, 천궁용왕, 천궁신장과 같은 천신(天神) 계열이나 도교적 신격도 함께 모셔진다. 이들 신을 자연신에서 인물신의 위계 순서로 차례로 모신다. 그 후 노랫가락을 부르고 밤대추산을 주어 신의 응감을 재가집에게 확인시킨 후 마무리한다. 불사거리리에서는 밤과 대추로 산을 내린다. 자손의 수명과 안녕을 기원하는 신격의 기능이

80) 김현선·김형근, 「서울곳 <대안주거리>의 문화사적 의의 연구-신의 복합화와 가무악회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7권, 한국민속학회, 2008, 276쪽.

드러난다. 음식도 넓은 의미에서 무구의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서울곳에서는 의대를 제외한 무구와 제물 등을 기명이라는 명칭으로 특별히 부른다. 굿을 보조하는 시봉자가 비록 굿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들도 굿의 연행 주체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율(棗栗)은 자손을 상징하는 음식이어서 유교식 제사를 드릴 때도 빼놓지 않고 올린다. 폐백을 드릴 때도 밤과 대추를 던져 자손을 점쳐보고 축원하는 것도 의미가 같다.

6번부터 다시 만수반이로 청배를 시작해서 후반부에는 천궁부인, 천궁호구, 천궁대신, 천궁신장, 천궁대감, 천궁창부, 천궁뒗전(천궁걸립, 천궁영산, 천궁수비)거리를 연행하였다. 6~12번 거리까지 후반부에 모셔지는 신격은 인물신과 잡귀잡신이다. 우주신이라 할 수 있는 전반부에 비해 하위 신격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후반부의 거리에서는 노랫가락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타령의 방식이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타령의 내용은 대개 신의 외양이나 거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신장, 대감, 창부는 재복을 내려주는 신격이다. 신연우가 논의했듯⁸¹⁾ 신의 말로 신의 위엄을 보이고 동시에 복을 약속하기 위해 신 자신이 부르는 노래인 타령이 자주 등장한다.

신격에 따라 공수의 내용도 차이가 있다. 아래는 1. 천궁불사거리의 공수이다.

①하늘천존에 천궁불사 아니시냐

일월불사는 성신불사 아니시냐

사해에 용신불사라

해돋아 일광불사 달이돋아 월광불사 일광월광에 연일광

팔만미륵 팔만신선 구만불사 아니시냐

하늘천존에 천신기도를 대고 하니

맘에 정성에 뜻에 정성 적으면 정성이고 많으면 호사니

내 기자가 가진 재물이 적어서 약소하게 하고 소하게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태산같이 받으시고 잘되고 대한민국이 태평하고 만백성이 무고하게 받들어주시자

①은 천궁불사맛이의 첫 번째 공수이다. 천궁불사공수로 만수반이와 굿거리로 청배한 후 시작했다. 공수는 신격 확인과 축원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신격 확인은 천궁불사거리의 신격을 호명하고 ‘-아니시냐’라며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축원은 굿을 하는 정성을 잘 받았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관용구를 꾸러지는 보편적인 내용의 사설이 많다.

1. 천궁불사거리 中 대한민국이 태평하고 만백성이 무고하게 받들어주시자.

81) 신연우, 「서울곳의 타령·만수반이·노랫가락의 관계」,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2. 천궁칠성거리 中 대한민국이 칼같은 내우년에 불같은 세월에 이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시고 팔도에서 열심히 살아서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고 부강이 되게 받들어 주시자,
6. 천궁부인거리 中 국태민안하고 시화현풍하게 상덕물어주소사, 외국으로 수출도 잘 되고 이대통령 건강하시고 만백성이 건강코 갖은 명 갖은 복은 점지해주시자,
7. 천궁신장거리 中 대한민국 장마도 지지말고 가뭄도 들덜말고 풍년만 들어라

이처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이 등장하는 것은 천궁불사 신격의 위계가 높다는 것이 큰 이유이고, 국가에서 문화재로 인정받은 나라굿 만신이라는 자부심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

개별적인 내용의 공수도 다수 등장한다.

②하늘천존은 봉황천존 천궁대감 일월대감님 성신창부씨 용신창부
 일직성 월직성 금직성 토직성 화직성 목직성이야
 계도직성(計都直星)에 제웅직성에 수사난 직성을 다 짓혀다 의주 압록강에 소멸하고
 천중세월에 인증수요 춘만건곤이 복만가라 시시개문은 만복래요
 안과태평하고 가화만당하고
 열동갑 백동갑 생겨주고 만동갑도 생겨주고
 무정세월아 묵어 가질 말아라 장안에 호걸이 다 늙는다
 천궁창부씨가 이렇게 놀고 명살홍수 다 짓혀주마 우왕좌왕도 짓혀주마
 (단골1에게) 한자리 해먹겠어 우리 대주 내년엔 좋다. 좋다
 (단골2에게) 바짝해 너 잘 되겠어'
 (단골3에게) 술 좀 조금 먹어. 원 풀어서 주고 고집 좀 부리지 말고 그저 네네 그래 재목이
 어
 (신딸1에게) 너는 올지 같지를 하지 말어
 원풀어주고 생겨주마
 내가 천궁창부씨다

②번은 천궁창부거리 중 천궁창부타령의 무가이다. 재복신인 신장, 대감, 창부거리에는 타령이나 재담을 뽑내거나 굿판에 참여한 신딸이나 단골에게 개별의 공수가 내리는 경우가 잦다. 서울굿의 타령은 해당 신격의 외모나 의대, 제물을 묘사·열거하는 사설로 이루어진다. 목청이 좋고 문서가 깊은 만신은 한참을 부르며 흥을 돋우고 재주를 뽐낼 수 있다. 그런데 이날 굿의 경우 타령의 사설이 짧고 중간 중간 끊겼다. 대신에 ②번 천궁창부타령 중 밑줄 친 부분처럼 굿판에 모인 많은 단골과 신딸 한 명 한 명에게 공수와 덕담을 주는 데 집중했다.

특히 대신과 창부는 무조신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무업을 잇는 후손격인 만신의 진적 굿에서는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③천궁말명 일월말명 천신대신이다

백성없는 임금이 어딴느냐 신하없는 임금이 어딴나 단골 없는 만신을 뿔에다 쓰겠소
내가 천당골 만당골 천 기자 만 기자 다 옳은 길로 도와주고 일등 가게 도와주고
104호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다들 잘된다 원 풀어 도와주마
중국대신도 왔다 애기대신도 오고 도령대신도 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신대신 할머니가 천존명기 도와주고 녹수명기 도와주고
천궁제장 일월제장 사해로 용신제장에서 내가 길같이 잘되게 도와주시자

③은 천궁말명거리의 공수이다. 말명, 제장, 대신이 함께 모셔져서 신격의 유사성을 알 수 있다. 중국대신, 애기대신, 도령대신은 이날 곳에 따라온 중국 출신 무당, 애동기자, 박수 등에게 축원을 내리면서 호명한 신격이다. 공수 내용은 일반적인 재수 발원과 다르다. 공수를 받는 대상이 만신으로 설정되었고, 축원의 내용도 만신의 진적곳에 어울리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만신과 단골의 관계를 임금과 신하, 임금과 백성의 관계와 비교하였다. 사제자인 만신이 신도인 단골의 삶을 이끌지만, 신도가 없으면 사제자도 없으니 단골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 들어있다.

같은 맥락에서 3.천궁불사거리의 공수도 눈여겨보직하다.

④어구짜

부리불사 신의 불사 상단에 처사불사 석가여래 세존불사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과
과천은 관악산에 연불암 연주대에 약사여래 나린 불사 아니시라
중불사 승불사 처사불사 아니시리
이씨편에 조상불사 한씨편에 명씨편에 조상불사 아니시냐 육천은 전안불사

약소하고 소하지만 태산같이 받으시고

내기자야 명기주고 서기주고 자손마다 효자 나고 충신 나고

수영자들 단골집 우환도 견어주고

최씨가중 너 대주 살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 거기 가서 약 아직 안 먹어서 그래

약 먹고 날이 길고 끈이 길어도 살려는 준다

너 김씨가중 애쓰지 마라 이 굷하고 너 좋은 일 난다

오냐 백씨가중에 너 오늘 이씨 가중에 원 풀어 도와주고 한 풀어 도와주고

너희 모두 단골마다 처소마다 여기 왔다만 가도 덕을 볼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라 신령님의 굷이 아니냐

불사님 수위에서 상덕물어 도와주시자

③번은 천궁불사공수이다. 높거나 중요한 신격일수록 여러 번 거듭 공수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1번과 3번 모두 천궁불사거리인데 1번 거리에서는 천신 계열의 성향이 강하고, 3번 거리는 불사 계열의 성향이 강한 신들이 모셔졌다.

우선 신격을 호명하고 ‘-아니시리’라는 말로 확인하였다. 이후 밑줄 친 부분처럼 신의 축원을 전했다. 우선 당주에게 명기를 약속하고, 자손과 함께 수영자와 단골집을 보편적 공수로 축원했다. 이후 각각의 단골에게 개별적인 공수를 내리며 축원했다. 불사는 불교 계열의 신이지만, 부리불사 조상불사와 같이 조상신의 영역과 공유하는 부분을 갖는다. 조상은 신의 위계로는 높지 않지만 가장 가깝고 각별하게 모셔지는 신이다. 그래서 공수의 내용도 특별해지는 것이다. 당주의 조상으로 무당의 명기를 발원하여주고, 자손과 더불어 자손처럼 여기는 단골들을 함께 축원하였다. 꼭 수영자라 이름붙이지 않더라도, 무당이 신도를 자식처럼 여기고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제당맞이

제당맞이와 회정맞이는 일반 재가집의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수한 거리이다. 과거에는 일반 집에서도 제당맞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는 산신도당거리 등으로 합쳐지는 등 거의 실전하였다. 또 진적곳에서의 제당맞이는 일반곳에서 제당맞이와는 다르게 그 의미와 연행이 특별하다. 내림곳과 진적곳은 만신의 신곳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예컨대 청계배웅을 뚜렷한 하나의 독립 제차로 확장 구성하고, 곳의 첫머리에 배치하는 특성이 그렇다. 그런데, 제당맞이와 회정맞이는 진적곳에서만 행해진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다수의 자료에서 관찰되고, 『조선 무속의 연구』⁸²⁾에서 주신(主神) 최영장군에게 진작하는 행사로 회정곳을 본 적이 있다는 서술이 있어서 보편적인 곳거리로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당거리 [흑갓, 흥치마, 흥철릭, 물고지]
 - 1.1. 곳거리 - 제당바라기
 - : 물고지를 들어 사방을 쳐들며 제당신을 청배한다.
 - 1.2. 곳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 1.3. 곳거리 - 제당도령돌기
 - : 제당상을 중심으로 제당도령돌기 춤으로 2바퀴 돈다.
 - 1.4. 곳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 1.5. 당약 - 제당공수1
 - 신격 : 사위삼당 궁외제당
 - 내용 : 곳 올리는 정성 고하기, 명기발원
 - 1.6. 당약 - 제당공수2
 - 신격 : 그염상산, 개성덕물산, 시흥반장, 양화도금성, 선바위국사당, 팔도명산, 사해용궁, 동해바다, 대관령고개, 물건너화주당, 왕십리수풀당, 사산명산, 동관왕남관왕
 - 내용 : 곳 올리는 정성 고하기, 가족축원, 명기발원
 - 1.7. 당약 - 제당공수3 [왼손은 삼지창과 물고지를 모아서 들고, 오른손은 월도 들고]

82)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 250쪽.

신격 : 상산 장군

내용 : 명기발원, 자손장성

1.8. 당약

1.9. 제당노랫가락 - 명잔복잔내리기

2. 제당호구거리

2.1. 당약 - 제당호구 공수 [홍치마 부채로 받쳐 머리에 쓰고, 평복, 방울]

신격 : 사외삼당호구, 궁외제당호구, 그염상산호구, 윗당미륵호구, 아랫당부인호구, 한우물 씻우물 물마누라 용태주 용신호구, 시흥반장 전철호구, 양화도 금성왕신 대신호구, 선바위 국사당 대전호구, 왕십리 수풀당 애기씨 형제호구, 두 도련님 서자호구 열네애기 당자호구, 진퍼리 살군당 당마누라 당애기씨, 물건너 화주당 매당왕신 산할호구, 사해용신호구 팔도명산 산신호구

내용 : (호구치마 벗고) 무업축원, 건강축원, 가족축원

3. 제당말명거리

3.1. 당약 - 제당말명 공수 [평복,방울,부채]

신격 : 사외삼당말명, 궁미제당말명, 그염상산말명, 임진강나루터 만신말명

내용 : 무업축원, 신어머니 가르침

4. 제당대감거리

4.1. 당약 - 제당대감 공수 [병거지,평복,청괘자,부채]

4.2. 제당대감타령 - 명잔복잔내리기

4.3. 당약 - 마무리

신격 : 사위삼당대감, 궁외제당대감, 그염상산대감, 말오리서낭대감, 산대감, 들대감, 안산대감, 밖산대감, 아랫당대감 한우물대감, 씻우물대감, 시흥반장 전할대감, 양화도 금성왕신대감, 선바위대감

내용 : 무업축원, 재수발원, 다른 신말 축원

5. 제당걸립거리

5.1. 당약 - 제당걸립쳐들기

신격 : 사위삼당걸립, 궁외제당걸립, 그염상산걸립, 말오리서낭걸립

내용 : 재수발원, 가르침과 당부

6. 제당서낭거리

6.1. 당약 - 제당서낭쳐들기

신격 : 그염상산서낭, 동두길지 우수재미내미 서낭, 남두길지 노인성서낭, 서두길지 무악재사신서낭, 북두길지 삼청동서낭, 선바위 국사당서낭, 개성 덕물산 주저리서낭

내용 : 무업축원, 재수발원.

7. 제당영산거리

7.1. 당약 - 제당영산쳐들기

신격 : 사위삼당영산, 궁외제당영산, 그염상산영산, 임진강나루터 안씨만신말명,
박씨만신말명

내용 : 재수발원

7.2. 당약 - 마무리

제당맞이는 위의 세부 제차 소개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당 신격 외에도 제당호구, 제당말명, 제당제장, 제당대감, 제당걸립, 제당서낭, 제당말명, 제당영산 등으로 다양한 신격이 일정한 위계 하에 배치된다.

세부 제차는 세 개의 구성을 갖는다. 먼저 제당거리로 제당맞이의 핵심 신격을 연행한다. 둘째, 제당호구·제당말명·제당대감거리를 제당맞이의 부속거리로 연행하고, 셋째 제당뒗전거리로 마무리된다. 이 같은 구성은 서울곳의 거리거리 열두거리의 특성을 보여주는 예이며, 천궁불사맞이나 산신도당거리처럼 규모가 큰 거리의 구성방식이다.

제당신격은 제당바라기, 제당도령돌기, 들어숙배나숙배의 세 가지 방식으로 청배된다. 제당바라기는 물고지를 들고 사방을 바라보고 반절하며 신을 모시는 과정이다. 이 같은 사방청배의 방식은 제당맞이 외에 본향거리의 '본향바라기'와 산신도당거리의 '산바라기'가 있다. 제당맞이, 본향거리, 산신도당거리 모두 영역신의 하나로, 특별히 산이라는 공간을 신성의 근간으로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때문에 무구도 물고지와 본향지라 하여 상산에서 물고를 받아 온 종이로 제작한 무구를 사용한다는 점도 같다. 같은 영역신이라도 천신은 사방청배를 하지 않고, 물고지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

귀히 볍소사

㉠사위삼당에서 오시고 국내제당에서 오시고

㉡진적맞이 받으시고 회정맞이 받으시고 상덕물어줍소사

㉢숙양숙배를 들어다가 이 정성을 대우하니 상덕물어주소사

위의 인용문은 제당바라기의 사설이다. 제당신이 ㉠사방에 고루 위치하며, ㉡회정맞이의 신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진적곳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제당을 고루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복식은 신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제당맞이의 무복과 무구는 산신도당거리와 유사하다. 두 거리 모두 흑갓을 쓰고, 홍철릭을 입는다. 무구로는 물고지를 기본으로 들고, 필요시 월도와 창검을 든다는 점이 같다. 홍철릭과 흑갓은 장군님의대, 즉 상산 최영장군을 상징하는 무복이다. 물고지는 본래 최영장군신이 모셔진 상산 덕물산에 참배를 다녀온 증표로 도장을 받아온 종이를 의미한다. 현재는 인왕산 국사당에서 상산을

대신하여 물고를 받는다. 하지만 상산신앙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라는 의미는 같다. 언월도와 삼지창은 무구(武具)의 일종으로 장군신의 위엄을 보여주는 무구(巫具)로 사용된다. 제당맞이, 산신도당거리 외에 대안주거리에서 장군신격을 연행할 때 사용한다. 월도와 창검의 조합이 세부 신격의 차이를 갖는데, 이중 월도와 창검을 동시에 드는 신격은 상산장군이다. 이렇듯 무복과 무구(巫具)를 살펴보면 제당맞이의 제당신은 산신신앙, 그중에서도 상산신앙을 핵심으로 공유하는 신격임이 드러난다.

세월이 분분해서 임진강은 못 건너가고 선바위 반산을 들어다가 오늘 제당맞이 대우하니 (중략) 서울새남굿 104호는 장군님의 뿌리다. 성제님은 아랑곳도 없다. 장군님이 나를 팔고서 104호를 만들어놓고 관성제군은 해마다 가서 제를 올리고 나한테는 그냥 시누이 본 듯하고.(하략)⁸³⁾

위의 인용문은 제당맞이의 공수 중 일부이다. 공수는 강신한 후 신이 내리는 말이다. 최영장군을 일인칭 '나'로 설정되어 있어 제당맞이의 핵심 신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서울굿의 뿌리가 최영임을 밝히고, 덕물산에 상산 물고를 받는 과정과 정성을 중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상산에는 신장대감이 안계셔
사위삼당대감 국내에 제당대감 그염 상산대감
말오리 서낭대감 오셨다.
산지조정 곤륜산 수지조정 황하수고 만신의 조정은 덕물산이 조정이야.
덕물산에는 신장님이 안 계셔 대감만 계시지.
아 최영장군님이 신장인데 신장대감이 또 있냐?

위의 내용은 4.제당대감거리의 공수 내용 중 일부이다. 제당맞이에 제당신장이 없고 제당대감거리만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산신도당거리와 다른 차이점이다. 산신도당거리는 신장거리와 대감거리를 모두 부속 거리로 갖는다. 제당신격은 산신도당신격과 유사하다. 그러나 산신도당신격이 자연물로의 산신 그 자체를 모시는 산악신앙에 가깝다면, 제당신격은 덕물산을 중심에 둔 상산 최영신앙을 우위에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좀더 세밀하게 살피고자 한다.

그염은 상산에서 오셨구나
개성은 덕물산에서 오시고
시흥반장에서도 오시고 양화도 금성에서도 오셨네
검은산 둘러치고 백두산 옆에 끼고

83) 2009년 4월 12일 이상순 진적굿 제당맞이 제당공수1 중

임진강 대동수에 용의 허리를 건너
 세월이 분분해서 신의 친산은 못갔지만
 선바위 국사당에 반산을 들어다가 이 정성을 대우하니 (중략)
 팔도명산에서도 오시고 사해용궁에서도 오셨다
 동해바다에서도 오시고 대관령 고개에서도 오시고
 물건너 화주당에서도 오셨구나 왕십리 수풀당에서도 오시고
 사산명산에서 오시고 동관왕 남관왕에서도 오셨구나
 산을 따라 물을 따라 산 너머 물 건너서
 이 정성을 대우하니 (중략) 잘 불러주고 이름나게 도와주고
 명 나서 장안가득 불러주마

위의 인용문은 제당공수²의 일부이다. 제당신은 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산, 바다, 강이 등장한다. 무엇보다 특별한 곳당의 이름이 거명된다. 오늘날 무속의 사제자를 의미하는 무당은 본래 무당(巫堂)이라는 뜻 그대로 제의가 이루어지는 신당에서 비롯되었다. 무속에서 굿이 열리는 제장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당맞이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덧붙는다. 본래 진적굿을 할 때는 천장에 당을 매고 당떡을 올린다. 당떡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 병거지떡과 장구떡은 각기 병거지와 장구를 닮은 모양이다. 장구는 제금과 더불어 무당의 악기이다. 악사는 연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병거지는 신장, 대감, 별상신이 두루 쓰는 무복이다. 병거지와 장구 모두 무당과 각별한 의미가 있는 기명이다. 현재는 공간이 협소하고 못을 치기가 어렵다는 제약으로 당을 매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왕십리 수풀당의 김옥렴 만신도 상산을 들고 와서 당을 매고서야 진적을 하는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⁸⁴⁾ 또 이상순은 비록 당을 매지는 못해도 높은 가구 위라든가 전안 내 기물을 이용해 당떡을 배설한다. 따라서 사위삼당이란 표현은 산천에 있는 제당신과 굿판에 모셔진 제당신을 공통되게 가리킨다. 삼산을 돌 때 제당을 함께 돌아 청한 신격을 굿판에 당을 매는 것으로서 좌정시키는 목적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제당맞이의 목적은 특별한 연행 방식으로 보인다. 제당도령돌기가 그것이다. 제당맞이에서 제당신을 청배하는 방식으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당도령돌기이다. 도령돌기는 서울굿의 특별한 무무 중 하나로 도령춤이라고도 한다. 도령돌기는 본래 탑을 중심으로 승려와 신도가 줄을 지어 경내를 도는 불교의식에서 유래하였다. 사찰에서 행하던 도량(道場)돌기가 무속화하면서 도령돌기로 굳어진 것이다. 서울굿에서 도령돌기는 진오기굿과 새남굿의 도령거리에서 등장한다. 도령거리는 별도의 무가 없이 무악에 맞춰 오로지 도령돌기라는 무무로만 연행된다. 도령돌기의 종류는 밖도령, 안도령, 손도령(한삼도령), 나비도령, 부채도령, 칼도령 등이 있다. 먼저 밖도령과 안도령은 춤을 추는 동선을 기준으로 한 호칭이다. 밖도령은 연지당에서 출발하여 대상을

84) 2008년 6월 29일 자택 인터뷰 중

거쳐 대설문 주변을 도는 동선으로 이루어진다. 안도령은 대상을 중심으로 돌면서 춘다. 그 외 명칭은 춤사위의 형상과 손에 든 무구를 기준으로 이름 붙여졌다. 나비도령은 춤사위가 나비가 나는 듯한 형상을 묘사했다는 의미의 명칭이다. 손도령은 맨손으로 추기도 하지만, 냇을 손으로 받쳐 안고 도는 형상을 담는다 하여 손도령이라 한다. 부채도령은 바리공주가 냇을 떠서 안고 엮고 도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칼도령은 대신칼을 열쇠삼아 열두 지옥문을 파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반주가 되는 무악의 차이도 있다. 나비도령과 손도령은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돌고, 부채도령은 별상 장단에 맞추어 돈다. 칼도령은 당악에 맞춰 돈다. 세부의 연행 요소는 전체의 의미를 고려할 때 그 의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국 천도굿의 도령돌기는 천도의 주체인 바리공주가 망자를 저승에서 꺼내 천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무무의 형식으로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제당도령돌기의 무무적인 측면은 다른 도령춤처럼 장단, 동선과 무구, 춤사위의 형상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당도령춤은 굿거리 장단에 맞춰 연행된다. 굿거리 장단은 신격을 청배하는 기능을 가진 대표적인 서울굿 무악이다. 제당도령돌기 앞뒤에 위치한 제당바라기와 들어숙배나숙배도 모두 굿거리 장단에 맞춰 연행된다. 무무적인 측면은 다른 도령춤처럼 장단, 동선과 무구, 춤사위의 형상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당도령은 양손에 물고지를 들고 춘다. 도령돌기는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된다. 제당도령도 제당상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바퀴 돌면서 진행한다.

진오귀굿의 도령돌기는 바리공주가 망자를 천도하는 여정을 무무로 압축한다. 김형근⁸⁵⁾은 바리공주를 구송하는 말미와 이를 예술적으로 행연(行演)으로 구체화한 것이 도령돌기라며, 그렇기 때문에 신화와 의례가 결합된 소중한 예라고 도령돌기의 의의를 밝힌 바 있다. 제당도령돌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돌기’라는 용어는 필연적으로 여정을 함축한다. 제당맞이는 상산돌기라는 여정을 전제한다. 상산과 무속의 성지를 돌아오는 여정을 제당돌기라는 춤으로 압축 제시하고, 뒤이어 장소와 신격의 호명의 방식으로 무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진적굿에서 제당도령돌기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9] 산신도당거리

산신도당거리에서는 명산대천에서 거주 지점에 이르는 모든 산신을 기본으로 하는 영역신을 모시는 거리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용왕 및 부군신, 도당신을 함께 모신다. 흥철릭과 흑갓을 의대로 갖추고 신격에 따라 월도와 창검, 물고지를 무구로 사용한다. 산신도당거리는 거리 거리 열두거리라는 서울굿 법칙에 따라 영역신 외에도 산신도당호구·산신도당말명·산신도당신장·산신도당대감·산신도당창부·산신도당걸립·산신도당서낭·산신도당영산·산신도당수비 등 인물신과 잡귀잡신까지 서울굿의 주요 신격을 순서에 따라 고루 모신다. 앞서 연행하는 천궁불사거리와 비교된다. 두 거리 모두 독립된 곳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열두거리로 구성되고, 자연 지역을 기반으로 신격이

85) 김형근, 「서울 새남굿 도령돌기의 의미와 위상」, 『한국무속학』, 제24집, 한국무속학회, 2012.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연행된 제차를 소개한다.

1. 산신도당거리 [흑갓, 흥치마, 흥철릭]

1.1. 굿거리 : 산바라기 [분향지, 부채, 방울]

1.2. 굿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분향지]

1.3. 당악 - 산신공수 [분향지]

신격 : 낙산재, 인왕산, 북악산, 남산, 한강수, 갈현동,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금강산, 태백산, 계룡산, 지리산, 삼각산, 북한산,

내용 : 굿하는 정성 치하, 산불·인사냥막고, 명기발원

1.4. 당악 - 용왕공수 [분향지]

신격 : 동해용왕, 남해용왕, 서해용왕, 북의용왕, 중앙용왕

내용 : 상덕기원

1.5. 당악 - 도당공수 [언월도, 월도, 창]

신격 : 갈현동서오능, 도당산신부군, 명륜동신령, 샷갓봉신령, 백련사산신, 남부군, 여부군, 홍수부군, 도부군, 남군웅, 여군웅, 도당군웅, 산신군웅, 감찰군웅, 제찰군웅, 춘천산신

내용 : 화재·도둑·벌레 막고, 효자충신 발원, 자손재수기원

1.6. 사슬세우기 : 산신사슬세우기[월도 빈사슬], 도당사슬세우기[삼지창, 돼지사슬]

1.7. 산신도당노랫가락, 명잔복잔내리기

2. 산신호구거리

2.1. 당악 - 산신호구공수[흥치마 머리에 쓰고 방울, 부채]

2.2. (호구치마벗고) 산신호구공수

신격 : 도당호구, 산신호구, 부군호구, 부리호구, 삼신호구, 성주호구, 지신호구, 패장호구, 도당살롱부군호구

내용 : 요물·하리방지·몽사 방지, 무업번성기원 단골기원

3. 산신말명거리 [평복, 방울, 부채]

3.1. 당악- 산신말명공수

신격 : 도당말명, 산신말명, 도당재장, 산신재장, 부군재장

내용 : 상덕기원

4. 산신신장거리 [전립, 흥소매녹색섬수, 청쾌자, 오방신장기]

4.1. 허튼타령

4.2. 당악 - 산신신장공수 - 산신신장타령(신장기 뽑기)

신격 : 오방신장, 도당신장, 살롱신장, 부군신장,

내용 : 재수기원, 신딸·단골 개별공수

5. 산신대감거리

5.1. 산신대감타령-공수

신격 : 도당대감, 산신대감, 부군대감, 진적대감, 녕굴대감, 지신대감

내용 : 국태민안, 무업변성기원

6. 산신창부거리 [색동소매분홍원삼, 부채]

6.1. 당악 - 산신창부공수

6.2. 산신창부타령

신격 : 도당창부, 산신창부, 부군창부, 산창부, 들창부,

내용 : 재수발원, 무업변성기원

7. 산신도당뒤틀전거리 [평복, 부채, 복어]

신격 : 산신, 도당, 부군, 서오능, 산, 들

7.1. 당악 - 산신도당걸립쳐들기

7.2. 당악 - 산신도당서낭쳐들기

7.3. 당악 - 산신도당영산쳐들기

7.4. 휘몰이 - 산신도당수비치기

산바라기라 하여 물고지, 또는 산지라고 부르는 종이를 이용해 사방청배를 하는 방식으로 신을 모셨다. 산과 관련된 신을 모시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앞서 서술한 바 있다. 첫 번째 거리는 주요 신격이라 할 수 있는 산신도당거리이다. 산신, 용신, 도당신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3. 산(산신), 1.4. 물(바다), 1.5. 마을(도당)을 관장하는 신격이다. 공간을 기반으로 신격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어구짜

청룡좌백호라

좌청룡 우백호 아니시나

청룡백호 나린줄기 아니시리

우청룡은 인왕산이고 좌청룡은 낙산재라.

복악은 활산 아니시라

남산은 천년산이고

흘리주어 한강수는 만년수 아니시리

복악은 수산 아니시리

삼십육관 오부장내

나랏님 터전에 은평구 갈현동 아니시나

이 정성을 대우하니 구엽고 반가시다

함경도 백두산에 산신님 아니시리
평양은 묘향산에 산신령이 오셨다
(후략)

산신공수의 첫 부분이다. 신격을 확인할 때 함경도 + 백두산처럼 지역과 전국의 명산 대천을 함께 호명한다. 전국의 산신을 청배한다. 그러나 중심이 되는 것은 원무당의 전안이 있는 이 곳이므로 갈현동을 중심으로 사설을 구성하였음이 드러난다.

산신도당거리이지만 바다신을 한 거리에 두었다. 산신도당거리가 산과 도당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을 관장하는 지역신의 전반을 모시는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해바다 용장군 남해바다 황용왕 아니시나
서해바다 용장군 아니시라 북에 바다는 흑용왕 아니시리
중왕은 황룡왕에서
밀물에 오르시고 썰물에 내리시나
승어도 천 마리 잉어도 천 마리
수많은 송사리 때 많은 군쟁이 방생을 받으시고 상덕 물어주마

위의 인용문은 용왕공수의 내용이다. 서울은 바다를 면하고 있지 않고, 원무당의 일가도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방위를 기준으로 오방용왕이라 하여 추상적인 형태로 신격으로 모셔졌다. 신격은 높지만, 원무당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짧게 모셔졌다. 그래서 방위를 기준으로 오방용왕이라 하여 추상적인 형태로 신격으로 모셔졌다.

어구짜
너 갈현동 지점에 이고랑산
오냐 서오능 신령님 오셨다
어느 이고랑산은 도당산신은 부군님 아니시리
어느 명륜동 신령님 아니시라
오냐 삿갓봉 신령님 아니시나
백련사 산신님 아니시리
삼산신에서 오냐 내기자를 이토수에 얹혀놓고
이름나게 도왔구나 명나게 도왔구나 (중략)
춘천 지점에서 왔다갔다 상남이 올지라도
그저 이런 이 말이 없고 저런 이 탈이 없고
근수 채고 만기 채서(중략)
상덕 물어주마

도당공수의 내용이다. 도당신은 마을의 수호신이다. 산신보다 관장 영역이 좁고, 거주자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구체적인 지역을 호명되고 그곳의 도당신이 축원을 내린다. 거리가 시작되면서 처음 호명한 신격이 현 거주지와 구 거주지의 도당신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들이 근무지인 춘천 지접 도당신을 직접 들어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제차를 마무리하면서 사슬을 세우고 명잔복잔을 내려 신이 내려 응감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철릭을 입고, 무구(武具)를 기명으로 하고, 통돼지를 사슬로 세우는 모습에서 산신도당신이 장군신의 면모를 갖추어 의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신거리 이후에는 호구와 말명, 신장과 대감, 창부, 뒷전을 고루 놀아 열두거리의 구성을 갖추었다.

[10] 본향거리

본향은 근원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신격이다. 그러나 산신거리에 뒤이어 연행되고, '양위양산 본향가망'이라는 무가의 사설이 있어 산신 신앙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 준 본향에 씨 준 조상'이라는 사설과, 본향-가망-말명-대신말명으로 구성되는 세부 제차를 고려하면 조상 신앙과의 연관성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향은 조상과 재가집을 연결해주는 근원이 매개이자 근원이 되는 신격으로 보인다.

본향은 조상과 재가집을 연결해주는 초석이 된다. 조상신앙은 재가집과 직결되어 가장 각별하게 모셔지는 신앙이다. 가정곳에서는 본향에 이어 조상거리를 함께 연행한다. 그러나 진적곳에서는 본향과 조상을 분리해서 거듭 연행하는 특징이 있다.

먼저 세부 제차를 살핀다.

1. 본향거리

1.1. 굿거리 : 본향바라기 [남치마, 녹색접수, 방울, 부채, 본향지]

1.2. 들어숙배나숙배 거성[남치마, 녹색접수, 본향지]

1.3. 당악 - 본향공수

신격 : 소천왕 소본향, 육천왕 육본향, 성주신 본향, 씨주신 본향

내용 : 굿하는 정성 치하, 무업번창 기원, 신딸에게 무업 조연

2. 본향가망거리 [남치마, 녹색접수, 본향지]

2.1. 당악

2.2. 본향가망공수

신격 : 초가망, 이가망, 삼가망, 전물가망, 사위삼당가망, 국내제당가망, 상산가망,

내용 : 가망이 청배되는 모습, 신딸에게 무업 조연

3. 본향말명거리 [남치마, 녹색접수, 본향지, 방울, 부채]

3.1. 당악

3.2. 본향말명공수

신격 : 사위삼당말명, 국내제당말명, 상산말명, 불사말명, 칠성말명, 본향말명, 각국임신
만신말명 대한성수, 만조비조상

내용 : 상산돌기 제당맞이 과정, 명기발원, 무업번창축원

4. 본향대신말명거리 [큰머리, 은하몽두리, 방울, 부채]

4.1. 허튼타령

4.2. 당악 - 허튼타령

4.3. 본향대신말명공수

4.4. 본향대신말명타령

신격 : 새남대신할머니, 나랏대신할머니, 벼락대신할머니, 정승대신할머니, 심박수 명렬이,
인천할아버지, 원당(?)⁸⁶, 김포할아버지

5. (본향거리 마무리)

5.1. 당악

5.2. 본향노랫가락

5.3. 휘몰이 : 산주는 노랫가락

5.4. 밤대추로 본향산 주기

본향거리는 굿거리 장단에 맞춰 두 번 청배한다. 먼저 사방을 향해 본향지를 쳐들고 본향바라기를 한 후 본향상으로 이동해서 들어숙배나숙배와 거성을 하는 방식이다. 전자를 산바라기라 한다. 무구를 사용하는 형태를 보면 본향지를 들 때와 방울과 부채를 들 때가 명확하게 나뉜다. 신격에 따라 무구의 사용이 다르고, 본향지는 장소로의 본향과 관련된 신격에 사용하고, 방울과 부채는 조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육천왕 육본향 아니시나

소천왕 소본향 아니시리

성주신 본향에 씨주신 본향 아니시리

②초가망 이가망 삼가망 조라도 전물가망

말게 받아 오신 가망 소게 받아 오신 가망

말게는 소게씨요 조선 마평에 굴레 등석에

걷는 말에 채를 붙여 달는 말에 석을 잡고

86) 원당에서도 오셨다라고만 호칭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문맥상 대신말명으로 추정이 가능해 곳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돌아오시다 국내제당가망 사위삼당가망

③사위삼당말명 국내제당말명 그염상산말명
동방은 불사말명 사부칠성말명
양산에 본향말명 각국임신 열두나라 각국임신
만신말명 대한성수들이 다 오셨다.
만조비 조상이 각골 임신네들 다오셨어
오를 반도 열두 반 내릴 반도 아홉 반
나비 얹은 꽃반 새얹은 잎반에
상산을 들어다가 사위삼당을 모시고 국내제당을 매고
삼당을 매서 숙설을 재벌하고 이 정성 대우하니
내 기자 새로 새 명기 주셔서
장안가득 불려주고 세계 가득 불려주마

①②③은 각각 본향, 가망, 말명의 공수 중 일부이다. 공수를 통해 각각의 신격과 역할이 잘 드러난다. ①본향은 뼈와 살을 주고, 성과 씨를 주는 신이다. 또 양위양산 본향이라는 말이 있어 본향이 조상신과 산신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가망은 초가망 이가망 삼가망이라 하여 가망청배, 본향거리, 조상거리에 거듭 청배되는 신격이다. 서울곳의 관용구 중에 “상산에 물고받고 본향에 쇠를 놓아”라는 말이 있다. 가망을 헤쳐 청배하려면 상산을 들고 제당을 돌아야 함이 공수를 통해 확인된다. 이렇게 청배된 가망은 말과 소를 타고 고향에 임한다. 가망신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탈 것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가망신이 인물신과 관련 있고, 육신이 없어 신주나 망자의 옷처럼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혼백의 개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말명은 조상의 녀이다. 조상과 소통하는 신격이라 방울과 부채를 함께 들었다. 상산에 물고를 받고 제당을 돌아와 고향에 당을 매어야 곶을 할 수 있다는 관념을 공수로 드러냈다. 아울러 진적곳에서 본향거리를 연행하는 이유가 새로운 명기를 주어 무업의 번성을 빌기 위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본향-가망-말명은 본향거리에서 세트르 움직이는 신격이다. 때문에 개별의 공수도 간간히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고정적인 공수가 중심이 된다.

말명의 뒤를 이어 대신말명거리를 연행하였다. 대신의대인 은하몽두리를 입고 방울과 부채를 들었는데 큰머리와 대신갈이 무복과 무구에 추가되었다. 큰머리를 쓰고 대신갈을 들거나 뒷목깃에 꽂는 대신은 새남대신을 뜻한다. 새남곳이 서울곳을 대표하는 곳이고 본인이 새남곳 문화재만신이라는 자부심과 망자와 가족을 고루 위무하는 새남곳의 목적이 본향대신말명거리의 목적과 다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대신말명 신격이 들어왔는데 신격의 갈래는 앞서 연행한 대신말명거리와 다르지 않다. 보편적 무조신이라 할 수 있는 대신과, 생전에 무업에 종사했고 이상순과 인연을 맺었던 망자의 녀이 개인적 무조신으로 강신했다. 공수의 내용도 각각 나누어진다. 전자는 무업의 번창

을 비는 공식적인 구절로 이루어진 보편적 내용의 공수를 전했다. 후자는 신딸들 개인과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무업관련자에게 당부와 염려를 비치는 개별적인 내용의 공수를 내렸다.

이어서 본향거리를 마무리 하면서 본향노랫가락과 산을 주는 노랫가락 1장을 부른 뒤 밤과대추로 산을 주어 본향신이 응감해 굿덕을 입었음을 확인했다. 산을 주는 기명으로 는 밤과 대추를 사용했다. 본향거리가 후손의 안녕과 관계되었기 때문이다.

임집의 재수굿이나 진오귀굿에서는 본향거리 뒤에 조상거리를 붙여서 연행한다. 본향을 찾는 이유는 응당 조상과 만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본향노랫가락을 부르고 본향산을 내리는 과정도 조상거리가 끝난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신의 진적굿에서는 본향을 놓고 대안주를 논 다음에 조상을 따로 논다. 이유는 대안주의 상산과 대감이 무조신의 본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1] 대안주거리

대안주는 장군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온갈비에서 거리명이 기인하였다. 관성제군거리, 신장거리, 상산(장군)거리, 별상거리, 대감거리라는 굿직한 5개의 거리를 묶어 통칭하는데 상산, 별상, 대감거리가 핵심이 된다. 이렇게 굿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거리, 대거리라고도 불린다. 장군신격을 모시므로 특히 육찬을 중심으로 제물을 준비한다. 다른 거리에서는 쓰이지 않는 장중한 반념불 장단에 맞추어 대안주를 짚는 행위를 반드시 재연한다. 반념불 장단은 상산장단이라고도 하여 대안주의 핵심 신격이 상산마누라임을 알려준다. 또, 음식이 신격의 특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대안주라고 불리는 소갈비, 소머리, 우족, 돼지족 등을 신께 바치고 이를 월도와 창검에 세워 응감을 확인한다. 신복도 무관의 복색인 철릭, 전복, 껌자와 병거지, 흑갓 등을 기본으로 하고, 신의 신분과 성격에 맞게 색상과 종류를 달리해서 입는다. 높은 신분을 가진 인물신들이므로 관복과 더불어 큰머리나 술띠와 같은 화려한 궁중복식도 다양하게 활용한다. 무구 역시 장군신격을 상징하는 삼지창과 언월도를 사용한다.

대안주거리의 구성 원리는 김헌선·김형근⁸⁷⁾이 외래신앙과 고유신앙의 결합, 전내고지기와 청승만신이라는 연행 집단의 결합을 근거로 이미 해명한 바 있다. 외래신앙이자 전내고지기가 주로 모시던 관성제군-신장거리와 고유신앙이자 만신이 주로 모시던 상산-별상-대감이 신격의 유사성을 근거로 대안주라는 하나의 거리로 합쳐진 것임을 밝혔다.

(1) 관성제군거리

관성제군거리는 관우와 제갈공명이나 오호대장군 등의 외래 신격을 함께 모신다. 이날 연행된 관성제군거리의 실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87) 김헌선·김형근, 앞의 논문.

[금관, 황철릭, 남치마, 오방신장기, 언월도]

1. 반념불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빈소매를 들고]
2. 굿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신장기, 언월도]
3. 허튼타령 : 대안주 짝기
4. 당악 - 관성제군 공수
내용 : 굿하는 정성 치하, 명기 발원, 국태민안
5. 당악 - 와룡선생, 오호대장 공수
내용 : 명기 발원

관우는 후한 말의 인물로, 삼국지연의를 통해 뛰어난 무공과 충성심을 널리 알려 후일 관성제군이라는 신격으로 추존되어 숭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 중 명나라 파병을 계기로 관우신앙이 전파되었다. 고종대에 이르러 무속신앙의 신격으로 자리 잡았다. 오호대장, 제갈공명, 신장 등의 신격과 함께 전내(殿內)신으로 모셔진다.

무가에서 불리는 주요 사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관성제군은 한수정 할아버지 (...) 관운장 아니시냐
- ㉡악자를 물려주고 선자를 구해주고
- ㉢대한민국 국태민안하고 시화현풍하게 도와주고
- ㉣내 기자 새 명기 주시고

- ㉦오호대장은 제갈공명 아니시냐
- ㉧내 기자 명기 주고 서기 주고 앉은 방울 떼굴르고 선 방울 소슬굴러
- ㉨+㉩상통천문 하달지리하게 도와주거든

황철릭과 금관이라는 의대와 삼지창과 언월도라는 기명은 관성제군거리에서 모셔지는 신격이 무장(武將)임을 보여준다. 특히 황색은 황제의 색상이어서 이들 신격이 중국에서 유래하였음을 한눈에 보여준다.

먼저 ㉦신격을 호명함으로써 강신한 신격을 확인한다. 신격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이칭을 거듭 호명하기도 하고, 복수의 신이 내린 경우에는 함께 열거한다.

신의 내력과 특징은 응당 신이 가진 권능과 대응된다. 관우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맹한 무장의 면모를 지녔기 때문에 신격화 되었고 특히 호국신으로 숭앙되었다. ㉡은 관우신의 특징을 가졌고, 때문에 무당은 ㉢과 같은 축원을 관우에게 기대한다. ㉢은 관용구처럼 흔히 사용되는 보편적인 축원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관성제군의 호국신으로의 면모를 드러낸다. 또 원무당인 이상순이 문화재로 지정된 나랏만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거듭 구송하는 축원이기도 하다. ㉣은 진적곳의 특수한 목적성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관성제군거리의 부속 거리로 등장하는 와룡선생 공수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갈공명도 관우와 유사한 신격을 갖기 때문에 하나의 거리로 묶인다. 그리고 제갈

공명이 가진 신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락이 진적곳을 올리는 만신에게 명기로 이어지기를 축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신장거리

신장신은 도교계열의 장군신으로 특히 오방신장이라 하여 동서남북, 중앙을 막아준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신복은 무관의 복색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무구로는 오방기 혹은 장군기라고 불리는 오색(五色)의 깃발을 사용한다. 무당은 사람들에게 이를 뽑게 하여 색깔에 따른 간단한 점괘를 내리기도 한다. 이 날 곳의 구체적인 실상은 다음과 같다.

[전립, 청치마, 홍소매녹색협수, 청색전복, 청색전대, 오방신장기, 언월도]

1. 당악 - 허튼타령 : 들어숙배나숙배로 거성 [전립 들고]
2. 당악 - 허튼타령 : 들어숙배나숙배로 거성 [오방신장기, 옷자락 들고]
3. 당악 - 신장공수 - 신장타령 [신장기 뽑기]

신격 : 천궁신장, 전안신장, 천하신장, 지하신장, 오방신장, 육갑신장, 청제신장, 홍제신장, 백제신장, 흑제신장, 의술신장

내용 : 신딸 꾸지람, 국태민안, 명기 발원, 당주 위로, 재수 발원

4. 당악- 마무리

신장은 재수와 재복을 내려준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방위와 공간과 관련된 신장 외에 또 다양한 범주를 관할하는 신장신이 모셔졌다.

신의 위계로 본다면 관성제군거리 다음에 상산거리, 별상거리, 그리고 신장거리로 이어지겠지만 신장은 상산거리에 앞서 관성제군거리 바로 다음 순서에 이어서 연행한다. 신장신도 관성제군처럼 도교에서 비롯한 외래 신격이고 특히 관성제군의 부속 군졸이라고 관념하는 신앙의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산과 별상은 둘 모두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높은 신분의 실존인물이라는 뚜렷한 공통점을 갖는다. 때문에 대안주거리는 신격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관성제군-신장-상산-별상의 순서로 연행하였다. 또한 앞서 김현선·김형근⁸⁸⁾이 밝힌 바와 같이 관성제군과 신장을 중심으로 노는 전내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상산-별상과의 거리를 구별되기 때문이다.

(3) 상산거리(장군거리)

상산거리는 장군거리라고도 불린다. 거리에서 모시는 주요 신격은 최영, 임경업, 신립, 한라산 여장군 등과 같은 장군신이다. 상산거리라 부르는 이유는 이들 장군신 중 최영을 가장 우위에 두기 때문이다. 서울곳에서 모셔지는 신격 중 위계가 높은 신은 천신이나 불교 관련 신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모셔지는 신격을 말하자면 단연 최영장군을 꼽을 수 있다. 서울곳 만신들은 입을 모아 그를 '만신의 조종(祖宗)'이

88) 김현선·김형근, 앞의 논문, 271쪽.

라 일컫는다. 어떤 굿이건 종류를 막론하고 서울굿이 진행되는 모든 제장(祭場)에는 최영장군을 상징하는 무복인 홍철릭을 따로 걸어둔다. 또 서울굿에서 상산노랫가락의 특별한 운용 양상에서도 상산 최영장군에 대한 특별한 신앙심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굿에서 상산노랫가락은 두 번 등장한다. 대안주 중간과, 진적을 올린 뒤가 그것이다. 우선, 대안주거리에서 불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안주거리에 최영을 모시는 상산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산거리 연행의 실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호수갓(빗갓), 큰머리, 청치마, 청철릭, 병부주머니, 흥띠, 부채, 월도, 창검]

1. 반냄불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호수갓-소맷자락 들고]
2. 굿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술띠 들고] - 언월도 창검 마주치기
3. 허튼타령 : 대안주 짚기
4. 당악 - [월도와 창검을 마주치고] 상산공수
내용 : 국태민안, 상산돌기 및 굿하는 정성 치하, 자손축원, 단골 축원
5. 당악 - [월도와 창검을 마주치고] 장군공수
신격 : 임경업장군, 한라산여장군, 평산 신장군, 장장군, 조장군
내용 : 국태민안, 단골 축원, 재수 발원, 수명 발원
6. 명잔복잔 내리기
7. 당악 - 마무리

반냄불 장단에 맞추어 의대와 무구를 활용하여 거성을 하고, 대안주를 짚어 제물을 흠향하는 것은 상산거리와 관성제군거리만의 특징이다. 반냄불 장단은 상산장단이라고도 호칭된다. 청배하는 무악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이다. 무악의 명칭을 대응하는 신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는 상산장단(반냄불), 별상장단(허튼타령)이 있다. 이들 중 별상장단은 반드시 별상거리가 아니더라도 서울굿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흥태한은 상산거리와 별상거리에서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⁸⁹⁾ 그러나 그 외 세부 제차를 포함한 모든 신장거리에서 일관되게 사용되고, 대감거리와 본향거리, 조상거리에서도 등장한다. 상산·별상·신장·대감은 대안주로 묶을 수 있지만 본향과 조상은 신격의 결이 다르다. 때문에 별상 장단은 때로는 허튼타령이라는 명칭이 더 타당해보일 만큼 신격과 장단의 결합이 느슨하다. 하지만 반냄불 장단은 관성제군과 상산장군을 청배할 때만 등장하고, 그 청배 방식도 무복을 중심으로 특별하게 이루어진다. 관성제군이 상산에 비해 신격은 높다. 그러나 관성제군을 전안에 모시지 않는 만신은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대안주거리의 진정한 중심은 상산 최영인 셈이다. 때문에 반냄불 장단을 상산장단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 상산 신앙이 서울굿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89) 흥태한, 앞의 책(2007), 237쪽.

의대는 강신한 신격의 신체이고 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다. 신복은 신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특별하지만, 무속의 신은 희로애락을 느끼는 인간적 신이기 때문에 신의 의복은 인간들이 착용하는 의복을 기반으로 표현된다.⁹⁰⁾ 서울굿은 특별히 더 화려하고 다양한 복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신의 의대는 의관(衣冠)이 쌍을 이룬다. 무당은 신격에 합당한 의복을 신복으로 갖추어 예를 갖춘다. 창부신의 울긋불긋한 색동 소매는 광대신의 면모를 상징하고, 천존신, 불사신(佛師神) 계열의 신은 흰색을 주색으로 가사 장삼과 같은 의복으로 표현된다. 신장이나 별상처럼 재액을 막아주는 신격은 싸움을 하는 무관의 구군복을 기본으로 한다. 대안주에 등장하는 신격은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무복도 이를 충실히 재현하고자 상당한 공을 들인다. 상산거리에서는 큰머리에 호수갓을 겹쳐 쓰고, 청철릭을 입고 병부주머니를 두르고 흥띠를 맨다.

상산거리는 대안주의 핵심 절차이다. 관성제군은 대안주의 첫 번째로 연행되지만 본래 전내가 모시던 신격이어서 무당에 따라서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신을 모신 후에는 신의 응감을 확인하는 절차가 붙는다. 대안주거리에서는 상산과 별상을 연행한 후 사슬세우기라는 제차로 신의 응감을 확인한다. 첫 번째 사슬은 장군사슬이라 하여 빈 사슬로 언월도만을 세우고, 이후 별상, 신장, 대감의 몫으로 삼지창에 소머리, 소갈비, 우족 등의 안주를 차례로 올려서 세운다. 그리고 명잔과 복잔을 돌리며 신의 응감한 직접적인 결과물을 나눈다. 이 과정에서 만신은 상산노랫가락을 부른다. 노랫가락은 비교적 위계가 높은 신격을 모시는 거리에서 사용하는 무악이며, 거리의 마지막에 불리워지며 신의 청배와 응감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첫 번째 사슬로 장군사슬을 세우고, 마무리로 상산노랫가락을 부른다는 점은 제차의 운영 순서를 통해 대안주거리의 중심이 상산 최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어구짜

마누라 수위라

육천은 전안에 이씨에도 내만신아

①안산은 여덟이고 밧산은 열셋이라

일국지명산에 제불지대천 아니시리

선덕물마누라 후덕물마누라 그염은 상산에 송악은 상대에

눅수하신 최영장군 뉘아니라 하시리

②앉아 삼천리 서서 구만리

명경지척을 유리같이 굽으시니

검은 땅에 희나 백성은 어느 백성을 두어라 하랴.

위의 인용문은 상산 공수 중 첫 부분이다. ‘눅수하신 최영장군’이라 하여 최영장군의

90) 유효순, 「서울굿 무복」, 『한국민속신앙사전』, 2016.

신성함을 두 가지로 서술하고 있다. 먼저 ①과 같이 상산 덕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상산 돌기의 과정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②는 최영의 지략을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영험한 능력으로 전한다.

어구짜
만고충신에 임장군 아니시냐
제주 한라산에 여장군 마누라
황해도 평산에 신장군 아니시랴
장장군은 조장군 아니시리

위의 인용문은 장군 공수 첫 부분이다. 상산거리는 최영을 중심으로 한 상산 공수 외에도 다른 장군을 중심으로 한 장군 공수가 내려진다. 장군 공수에 등장하는 신격은 두 가지이다. 한라산은 덕물산과 마찬가지로 명산을 숭앙하는 산신신앙을 보여준다. 둘째는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로의 장군신과 삼국지연의에 전하는 명장이다. 임경업, 신숭겸·신립, 장비, 조자룡 등은 모두 충신이자 용맹을 떨친 장수로의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이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높은 지위의 인물을 신으로 대우하는 서울곳의 독특한 신관을 보여준다. 대안주 중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을 모시는 관성제군거리와, 상산거리, 별상거리의 신격은 모두 이같은 신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상산 최영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상층의 실존 인물이라는 점과, 덕물산을 근간으로 한 산신신앙과, 뛰어난 지략 등으로 대안주거리의 중심이자 서울곳의 조정으로 모셔진다.

(4) 부인거리(명성황후거리)

상산거리가 끝난 후 부인거리를 덧붙여 연행하였다. 부인거리는 관우의 부인인 정전부인을 모시는 거리이다. 실제 연행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허튼타령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떠구지, 어여머리, 자색면사포(부인보), 흥치마, 궁중대례복(적의, 원삼, 당의)]
2. 당약 - 공수 - 당약
신격 : 정전부인, 명성황후
내용 : 정성 치하, 국태민안, 재수 발원

관우의 부인을 정전부인이라 하여 함께 모시는 것은, 신을 부부의 모습으로 대응시키는 서울곳의 보편적 양상이다. 그러나 명성황후를 이렇게 전면에 모신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상순 만신이 몸주신 중 하나로 명성황후를 모시기 때문에 함께 붙여 연행했다. 여성, 비극적 죽음, 호국신앙, 실존 인물이라는 신격의 키워드를 고려하여 대안주거리 중 상산 뒤 별상 앞 순서로 편입시킨 듯하다. 무복도 부인보다는 명성황후에 집중하여 조선시대 여성 궁중 대례복을 화려하게 갖추고 자색 면사포를 쓴 채 공수를 내렸

다. 공수는 길지 않고 간략한 축원을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충신이자 장군신인 관성제군의 성격이 그대로 이어져 국태민안을 빌었다.

그러나 몸주신으로 선덕여왕을 모시는 이영희 경우나, 금성대군을 모시는 이지산의 경우 모두 앞서 대신말명거리에서 연행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진적곳에서 몸주신은 대개 곳의 도입부에서 모셔진다. 진적을 드린 후 연행하는 대신말명거리가 그것이다. 필요시 따로 거리를 두어 거듭 연행하기도 한다. 이날도 이상순 만신이 창부거리가 끝난 후 창부거리를 연행했던 이길수 만신에게 작두신령을 따로 놀아달라고 부탁해 거리가 추가된 바 있다.

곳거리를 이렇게 예외적으로 진행한 이유는 추측건대, 새남곳과 본인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나라곳 만신이라는 자부심이 더 강해져 국모 명성황후를 성대히 모시는 것이 나라곳 만신으로의 책무라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몸주신이며 비교적 상위 신격이라 할지라도 작두신령을 장군신이나, 대감신의 일환으로 대안주에 편입시키지는 않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공수의 내용도 몸주신으로 모실 때와 대안주에서 모실 때가 달랐다. 명성황후거리가 비록 예외적이거나, 이를 통해 곳의 거리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만신의 신관이 적극적으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5) 별상거리

서울곳의 별상거리는 역울한 죽음을 가진 대안주 신격 중에서도 특히 왕실과 관련된 인물인 사도세자, 광해군 등을 모신다. 무관의 대례복이자 갑주 안에 입었던 구군복을 의대로 갖추어 장군신의 면모도 함께 보인다. 이 날 곳의 연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허튼타령 - 취타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큰머리, 홍소매노란삽수, 흑색전대, 전립을 들고 거성한 후 착용]
2. 당악 - 별상공수1 [끈침, 삼지창, 부채]
신격 : 이씨별상 홍씨별상 사신별상 김포별상 뒤주대왕
내용 : 굿하는 정성 치하, 제물(안주·술) 정성 묘사, 명기발원, 국태민안
3. 당악 - 별상공수2 [부채, 삼지창]
내용 : 굿하는 정성 치하, 상산돌기 및 제당맞이 여정, 행동묘사, 동료만신 꾸지람, 무업 변성 축원, 자손 축원.
4. 당악 - 마무리
5. 사슬세우기
 - 5.1. 언월도 빈 사슬 세우기 : 장군님 축원 및 응감 확인
 - 5.2. 삼지창 소머리 사슬 세우기 : 별상 축원 및 응감 확인
 - 5.3. 삼지창 우족 사슬 세우기 : 신장·대감 축원 및 응감 확인
 - 5.4. 상산노랫가락 [기대와 함께]

이 날 별상거리에서는 이상순 만신이 전악에게 따로 부탁하여 취타를 연주하게 하여

춤을 추었다. 취타는 궁중음악의 일종이어서 무악도 신격과 제차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끈침이라는 특별한 기명이 등장하는 것도 진적긋의 독특한 점이다. 끈침은 목면 천(縵)을 말아 놓은 것이다. 대안주상에 올려두었다가 별상거리가 끝나고 사슬을 세운 뒤 굿판에 있던 사람들에게 고루 끊어서 나누어 준다. 이러한 과정의 연원은 서울굿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무속의 연구』에 소개된 서울굿 무가 상산거리의 공수⁹¹⁾ 중 “삼색예단에 흥독기 통비단에 양목예단의 끈침담침에 만만이 대령하였는야”라 하여 끈침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다. 또 경성의 천신긋을 소개하면서 별상거리 뒤에 “대감상 앞에 올려놓은 흰 목면[군침이라 한다]을 주무가 한 발[팔을 벌려 오른손 가운데손가락 끝에서 왼손 가운데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남짓 잘라서, 굿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⁹²⁾ 주요신인 상산에게 각종 직물을 바치고, 이를 굿판이 끝난 후 나누어 갖는 행위이다. 이 같은 전통이 오랜 연원을 가졌으며, 과거에는 만신의 진적긋 외에 임집의 천신긋의 자리에서도 통용되던 과정이었으나 현재는 실전되고 전통의 계승의식이 강한 진적긋에서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상거리는 상산거리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연행된다.

어구자

만인지상에 뉘 아니라 하시랴

안산에 일월 명두 받으시고 빛산은 솟을 명두 받으시고

용산에 자겨하시교

사대문에 드는 천은 마누라 천이 아니시리

위의 인용문은 별상공수의 일부이다. 상산과 왕십리 수풀당 등 제당을 돌아오는 과정이 간략하게나마 사설에 제시되어 있다. 별상거리가 끝난 뒤 대안주 사슬을 세우고 노랫가락을 부르며 명잔복잔을 내린다. 이상순 만신은 “관성제군님은 신장님하고 같이 노시는 거구, 상산의 최영장군님은 별상하고 같이 노시는 거야”라는 말로 신의 위계를 정리한다. 관성제군·신장·최영장군·별상 신격은 모두 장군신으로 월도와 삼지창 같은 무구(武具)를 기명으로 쓴다. 복색도 무장(武將)의 면모를 드러내는 의대를 입는다. 유사한 신격은 식성을 공유해서, 이들은 육찬과 사슬을 받는 대안주거리에서 모셔진다. 관성제군과 신장은 같은 도교 계열의 신격으로 묶이고, 상산 최영은 같은 인물신인 별상과 묶이지만 그 위계가 더 높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별상거리에서 모셔지는 신격은 사도세자, 단종 등으로 생전의 지위가 최영보다 오히려 높다. 이 같은 모순은 최영장군이 갖는 산신의 면모에 기인하는 것이다. 무속의 영산으로 숭앙되던 덕물산이 갖는 위상이 최영장군에게도 투영되었기 때문에 별상보다 상위에 놓인다.

91)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상), 60쪽.

92)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위의 책(하), 138쪽.

(6) 대감거리

대감은 서울곳에서 인간의 재복이나 가내 평안을 담당하는 신격이다. 신의 위계상으로는 높지 않지만 보편적인 재복과 두루 연관되는 신격이니만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하위 신격을 갖는다. 그만큼 대감거리는 길고 흥겹게 돌아진다. 대감거리의 실제 연행 모습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1. 허튼타령 : 들어숙배나숙배, 명잔복잔내리기 [전립, 흥소매녹색접수, 청쾌자, 청색전대, 우족]

1.2. 당악 : 우족을 손에 들고 복일구기

1.3. 허튼타령 : 명잔복잔내리기, 옷자락으로 복일구기

1.4. 당악 - 대감공수1 - 대감타령

신격 : 상산대감, 전안대감, 별상대감, 신장대감, 제장대감, 의술대감, 천신대감

내용 : 굿하는 정성, 굿덕 자랑, 조정·치장·약주·안주·떡·단골 축원

2.1. 당악 - 대감공수2 - 대감타령 [전립, 홍철릭]

신격 : 나랏대감, 군웅대감, 영의정대감, 좌의정대감, 우의정대감, 의술대감, 대신대감

내용 : 대감 열거, 굿덕 자랑, 거동묘사, 국태민안 축원

2.2. 당악 - 마무리 (만신 교체 : 이상순 → 강민정)

3.1. 당악 [전립, 평복, 청쾌자, 청띠, 부채, 술잔, 우족]

3.2. 허튼타령 : 우족 놀리기

3.3. 당악 - 대감공수3

신격 : 몸주대감, 직성대감, 대신대감, 살룡대감, 남대감, 여대감

내용 : 수명축원, 재수발원, 무업발원,

4.1. 당악 - [머리에 떡시루 이고, 밖에 나가 막걸리·소금을 두루 뿌리며] 대감공수 4

4.2. 허튼타령 : 떡시루 놀리며 복 일으키기 [전립, 평복, 청쾌자, 부채]

4.3. 당악 - 마무리 공수 - 대감타령

신격 : 텃대감, 업대감, 도깨비대감, 화주대감, 시주대감, 무인대감, 성주대감, 지신대감, 지접대감, 목신대감

내용 : 외양묘사, 교통사고방지, 재수발원

5.1. 당악 - 복어와 부채와 복을 일으키기 - 대감공수5 - 타령 [평복, 청쾌자, 복어]

신격 : 천신대감, 성주대감, 지신대감, 지접대감, 목신대감, 서낭대감

내용 : 화재방지기원, 국태민안

5.2. 당악 - 마무리

이날 대감거리는 대감의 신격에 따라 5개의 제차로 높아졌다. 제차마다 연행되는 세부 신격에는 차이가 있다. 공수에서 호명되는 이름이 다르고, 의대와 기명이 달라 신격이 서로 구별된다. 연행방식은 당악-공수-타령을 기본으로 구성되고, 때때로 흥을 돋우기 위해 허튼타령에 맞춰 춤을 추었다. 한 거리도 빠짐없이 타령이 불려서 흥을 돋우었다. 타령의 내용은 각 신격의 조정과 종류를 짚어보기도 하고, 대감신의 외양과 먹는 약주·떡·안주를 묘사하거나 재수와 무업번성을 축원하는 등 다양했다.

직업과 관련된 축원을 바랄 때는 업대감이라는 보편적인 대감을 호명하지만, 때로는 판사대감, 의술대감, 영업대감, 정육점대감 등 구체적으로 재가집의 직업과 관련된 대감을 설정하여 놀기도 한다. 이중 몸주대감은 말 그대로 사람의 몸에 깃든 주된 신을 일컫는다. 몸주대감은 일반 재수굿에서도 놀아지지만, 특히 만신에게는 각별하다. 강신무에게 몸주신은 영력의 주체가 되는 신으로, 굿을 할 때 잠깐씩 실려서 공수를 주는 신과는 달리 무당이 평소에도 자신의 개인 신당에 모시는 신을 말한다. 때문에 몸주신은 만신이 내림굿을 하고 무업을 시작했던 순간부터 함께한 신격이다. 내림굿을 한 날이 만신의 삶을 시작한 생일이라면, 진적굿은 만신으로 살면서 별이는 생일 기념 잔치나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몸주신은 신격의 위계를 떠나 각별하게 모셔질 수밖에 없다. 몸주대감은 몸주신을 대표하는 대감신이므로 진적굿 대감거리에서 따로 한 거리를 내어 모시게 된다. 이 날 굿에서도 대감거리를 이어서 연행하게 된 강민정 만신이 텃대감만 놀지를 묻자 이상순이 ‘만신말명 대신대감 이씨기자 몸주대감 아들 몸주대감 며느리 몸주대감을 따로 놀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12] 조상거리

조상거리는 재가집과 혈연으로 맺어진 영혼을 모시는 거리이다. 때문에 재가집에게는 다른 어떤 거리보다도 각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날 조상거리의 연행 실상은 다음과 같다.

1. 말명거리1 [청치마, 방울, 부채]

1.1. 만수받이

1.2. 당악 - 말명공수

신격 : 사위삼당말명, 국내제당말명, 그염상산말명, 전안말명, 할아버지신령, 할머니신령

2. 시가 조상거리 [조상의대]

2.1. 당악 - 시할아버지 영실

2.2. 당악 - 시아버지 영실

2.3. 당악 - 시어머니 영실

2.4. 당악 - 허튼타령 - 당악 - 남편 영실

2.5. 당악 - 시누이1 내외 영실

2.6. 당악 - 시누이2 영실

- 2.7. 당약 - 시아주버니 영실
- 3. 조상말명거리2 [청치마, 방울, 부채]
 - 3.1. 당약 - 조상말명공수
- 4. 친정양가(養家)조상거리 [조상의대]
 - 4.1. 당약 - 양아버지 영실
 - 4.2. 당약 - 조카 영실
 - 4.3. 당약 - 형부 영실
 - 4.4. 당약 - 이복형제 영실
 - 4.4. 당약 - 이복자매 영실
- 5. 친정생가(生家)조상거리 [조상의대]
 - 5.1. 당약 - 친정조부모 영실
 - 5.2. 당약 - 친정부모 영실
 - 5.3. 당약 - 친정 외조부모 영실
- 6. 대신말명거리 [청치마, 방울, 부채, 조상의대]
 - 6.1. 당약 - 대신말명공수
- 7. 조상말명거리3 [청치마, 방울, 부 채]
 - 7.1. 당약 - 청춘귀, 소년귀, 원혼귀, 한한귀, 남말명, 여말명 쳐들기

조상거리는 만수받이로 청배하는데, 조상과 자손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말명과 대신말명을 쳐들면서 시작한다. 말명은 넓게는 죽은 자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고, 좁게는 죽은 조상의 넋을 뜻한다. 대신말명은 무조신의 하나로 무당이 죽어 된 신으로 여겨진다. 대신말명, 즉 무당이 조상과 재가집을 연결해주는 고리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조상은 진오귀굿을 받거나 4대 이상의 선조인 경우에 조상신으로 좌정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조상신으로 모셔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가도 공수가 아니라 영실이라 호칭한다.

무복 역시 두 종류로 나뉜다. 말명을 연행할 때는 청치마 평복에, 방울과 부채를 무구로 든다. 조상을 연행할 때는 조상의대를 입는다. 조상의대는 흰색과 물색, 분홍색, 옥색 등 엷은 색으로 짓는 치마,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등의 일상복이다. 모시는 조상의 수만큼 따로 옷을 지어 의대를 신체로 여긴다는 서울굿의 관념이 재확인 된다.

조상의 내력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진적굿을 올리는 당주무당이 직접 연행한다. 시댁 조상을 먼저 놓고 친정 조상을 나중에 놓았다. 다만, 이상순의 경우 개인적인 연유로 친정조상을 생가(生家)와 양가(養家)로 두 번 놓았다. 친정 생가와 양가 조상

사이에는 말명거리를 따로 연행하지 않아서 둘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곳을 시작할 때와 시대와 친정이 갈릴 때, 곳이 끝날 때 세 차례에 걸쳐 말명거리를 연행되었다.

첫 번째로 연행된 조상말명거리의 공수는 다음과 같다.

어구짜

㉠사위삼당 국내제당말명 그염 상산말명

육천에 전안말명

선대 달아 할아버지신령 할머니신령 청해이씨네

산정같이 오시고 사우같이 나오셔

앉은 자리 그늘 없고 선 자리 자취없고

신령님 앞에 와서 만반진수를 차려놓고 이렇게 받으시니

내가 땡겨가고 쉬어가서

한 잔 술에 미망하고 열 잔 술에 진배받고

그저 자손들 후대만사 편안하게 도와주고

땡겨가시고 쉬어가셔서

상덕물어 도와주소사

세 번째로 연행된 조상말명거리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청춘귀 소년귀 원혼귀 한한귀

한 잔 술에 희망하고 열 잔 술에 진배받고

땡겨가고 쉬어가서

남말명 여말명 청춘귀 소년귀 원주집주 말명

이차저차 가던 말명

땡겨가시고 쉬어가시더라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같은 말명 신격이지만 차이가 있음이 명확하다. 곳의 처음에 내린 공수 ㉠은 살아있는 가족과 죽은 조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상산돌기와 제당맛이를 거쳐 전안의 대신말명을 통해야 가능하다는 관념이 드러나 있다. 또 재가집이자 당주무당인 이상순의 본을 밝히며 조상을 모시고 있다. 또 대신말명거리를 조상말명거리 중간에 따로 두었다. 이상순의 친정 조상이 대신말명으로 모셔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의 공수 ㉡은 조상말명의 범주에서도 조상거리에 초대받지 못한 잡귀잡신에 해당하는 신격이 있어 이들에게도 술을 나누어 대접하는 것을 보여준다. 조상상의 술잔을 들어 바깥을 향해 끼얹으면서 연행한다. 서울곳은 거리가 끝나면 산을 주거나 사슬을 세우거나 술이나 떡을 나누며 신의 응감을 확인하고 재가집과 공유한다.

위와 같이 제차를 살핀 결과, 말명이 조상거리를 이끄는 중심 신격이며 산만해질 수

있는 조상거리의 갈래를 규합하는 기준의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또 만수받이로 상위신부터 청배하여 잡귀잡신을 대접하여 물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울곳 운영의 원리가 반영된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적곳의 조상거리의 무가 내용을 살핀다. 가장 큰 특징은 무업과 관련한 녀과 영실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영실을 건네는 대상도 재가집에 국한되지 않는다. 굿판에 자리한 동료 만신과 전악, 단골들을 두루 아우른다. 시가조상거리의 공수에는 이상순이 시집 와서 무당이라 겪었던 서러움이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무당을 안 했다면 얼마나 좋아. 처녀무당소리도 안 듣고. 아유 무척 좋아했어. 허여멀겅고 아주 잘생겼고. 그래서 우린 땡잡았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어찌면 무당을 얻었수. 시장을 같이 가는데 서울 처녀 무당을 만났다고. 어떤 바느질하는 한복하는 여자가 만나가지구. 그래서 알았지 무당이라고. 점을 보러 자꾸 오는데 점만 보면 굿을 맡어. 동네 무당한테 가가지구 나는 굿을 맡았으니까 같이 합시다. 그들이 죄다 데리고 와. 그러다 신랑한테 들켰어. 그래서 눈은 당산 같은데 매를 흠뻑 맞고 이래고 서울로 도망을 가고 은하를 업고. 애기 난지 얼마 안 된 것도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래 죽었지, 신별로.

<2.5. 시가조상거리 시누남편 공수 중>

내가 우짜를 놓고 시누노릇을 하고. 무당을 얻었다고 그래서 염병할 하필이면 무당을 얻었나 구박을 했더니. 구박을 한다고 또 그냥 우리 동생이. 마누라라면 벌벌 떨어요

<2.6. 시가조상거리 시누이2 공수 중>

시집살이의 고단함은 비단 무당이 아니더라도 모든 기준이 겪는 공통적인 서러움이다. 여기에 무당이라는 직업이 가진 특수함 때문에 그 서러움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가장 긴 시간 동안 연행한 망자는 고인이 된 남편이다.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각별할 수밖에 없다. 망자인 남편의 입을 빌려 이상순 만신은 먼저 가족인 자녀에게 영실을 했고, 뒤이어 굿판에 모인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고루 영실을 했다.

(단골에게) 나. 은하 아빠. 나 왔어요, 아줌마. 아유 기가 막혀.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 했소. (단골: 그렇게 사시려고 애를 썼는데) 은하엄마가 무당에 미쳐서 나한테다가 도를 덜 닦아서 솔직한 말로. 그저 무당에 미쳐서 그저 공부하는데다 열심을 매고 영감이 죽어도. 나는 죽을라고 숨을 모으는데도 옷방에서 황제풀이를 외우고 있어.

(신딸에게) 은하엄마는 한 번 실망을 주면 민지를 얹아 절대로. 실망 주지 말고 뒤를 잘 받들면 당신이 복을 받을 것어요. 신딸이면 다 신딸인가. 신의 인연지고 시운져서 여기를 와서 너를 만났구나.

(동료 만신 이○○에게)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아들보고 이○○가 많이 도와줘서 이 진적을 한다고 얘기를 합디다.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남의 신세를 갚고 죽어야지 안 갚고 죽으며는 되겠

소. 그저 잘 되시고 더 잘 되시고. 의리 가지고는 천하를 안 바꾼다는 거요. 의리를 버리며는 금수만도 못한 것이니. (중략) ○○이네에게 은하엄마 구박 좀 하지 말라 그래. 그건 당신 손에 달렸으니.

(약사 한○○에게) 한○○씨가 세상에, 은하엄마가 대수술을 받았는데 백만 원을 갖다 줬어. 지금 이중에 피리 부는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하우. 국물도 없지. 은하엄마가 다 가심에 갖고 있어. 내가 살아서 그 은혜를 다 갚아야지

(황○○에게)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무인을 인정을 해줘서 오늘 보유자가 되어서. 은하엄마가 죽은 혼이라도 당신을 도와줄 거야. 의리가지고 사는 은하엄마지. 이렇게 바쁘신데 올라오셔서 너무 고맙소 내가 살아서 그 은혜를 다 갚아야지.

단골, 신딸, 동료, 약사, 연구자에게 건넨 영실의 일부이다. 표면적으로는 망자 자신을 '나'라고 칭하지만, 실제 내용은 모두 곳을 여행하는 이상순 본인이 주어임이 알 수 있다. 평소 이상순이 이들에게 갖고 있던 고마움과 서운함을 망자의 입을 빌어 토로하는 셈이다.

친정조상을 놀리면서 양부모를 따로 모셨는데, 양어머니 명씨는 이상순의 신어머니이기도 해서 더욱 각별하다. 친정생가조상에 앞서 양가조상을 먼저 여행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양가조상거리에서는 무업의 징조인 신가물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등장했다.

4.1. 양아버지 : 한씨 아버지. 양아버지야. 내가 무감을 서면 저거 작두옷을 입고 갑옷 투구를 쓰고 원뿔지를 툅툅 세우고.

4.4. 이복형제 : 명씨 할머니 아들이야. 폐병에 죽었어. 신 안 모신다고 신별로. 와리바시 공장에 갔는데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는데 등허리를 누가 탁쳤어.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피가 통으로 쏟아졌어. 그래서 죽었어. 얼마나 불쌍해. 가엽고.

친정생가조상거리에서는 무업에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을 망자의 입으로 전하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인연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의 영실이 주를 이뤘다.

5.1. 친정생가조부모 영실

뿌리 없는 낭구가 어딴고 가지 없는 잎이 어딴겠소.

생가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께 뼈를 빌고 어머니께 살을 빌어 이 세상을 탄생해서.

생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새남해드리고 탁 터지고 잘 불리는 거야. 조상을 잘 위해니까는. 내가 염치없고. 시국이 동난리를 만나서 인민군들한테. 금호동 자두밭에서 일렬로 세워놓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한꺼번에 따르륵 하고 싸죽였어. 우리가 다 죽고 은하엄마 하나만 살았어. 영금영금 기어나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데려다가 났는데. 명씨할머니가 고사지내러 갔다가 그런 애가 있다고 그래서 업어다가 길렀죠. 우리는 총 맞아서 인민군들한테 총을 맞아 이렇게 죽어서 불쌍하고 가엽고. 세상에 예효 보잘 것도 없는 우리 은하엄마를 이렇게 도와주

셔서 고맙습니다.

무당이 하두 억울해서 은하엄마가 밤잠을 안자고 기도도 많이하고. 그제 연필든 사람 공책든 사람은 무조건 가서 매달리는 거야. 태상노군이 이력서 써주고 그래서 성공했지. 조박사가 고맙지. 심우성씨도 고맙고. 허규씨가 고맙고.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비유한 공식적인 내용의 영실로 시작하지만, 이내 개인적인 내력으로 바뀐다. 역시 친정조부모의 입을 빌었지만 발화의 주체는 만신 본인임을 알 수 있다.

이용범은 위의 논문에서 조상은 후손이 무당이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대신을 비롯한 무당의 몸주신이 조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무당의 몸주신으로 들어오는 신이 많은 경우 무당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자(死者)이기 때문에 무당의 몸주신은 신격화된 조상이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신말명의 의대인 노란 몽두리의 색상과 조상을 상징하는 신장기의 노란색, 방울의 노란 끈이 대신과 조상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⁹³⁾ 진적곳의 조상거리에서 이같은 몸주신과 조상간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대신말명으로 몸주신을 일차로 연행할 때에도 신어머니와 무업동료들이 조상신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뒤이어 조상거리에서도 무업과 관련한 무가와 조상이 등장하여 다시 한 번 연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상거리를 연행하는 순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일반 임집의 곳에서 조상거리는 본향거리에 포함되어 하나로 연행된다. 본향-가망-말명-대신말명-조상의 순서이다. 그러나 진적곳에서는 본향거리에서 조상거리를 분리해서 두 개의 거리로 연행한다. 조상거리를 따로 두고, 대안주를 사이에 두고 본향과 조상을 갈라서 논다는 주목할 점이다. 이는 김유감 만신이 일반 재수국과 진적곳의 차이를 갈라서 말한 것에도 드러나 진적곳의 보편적인 특징임이 확인된다.⁹⁴⁾

[13] 안당제석거리

제석신은 수명과 출산을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장수를 기원하는 명실을 제상에 함께 올리고 자손을 의미하는 대추와 밤으로 산을 내린다. 불사 계열의 신격이므로 육찬과 술을 즐기지 않고 소찬을 제물로 받는다. 흰색의 장삼과 가사, 고깔과 같은 승복을 의대로 착용한다는 점, 무구인 바라를 치며 타령을 부른다는 점도 신격의 특성을 보여주는 연행 요소들이다. 안당호구를 덧붙여 논다는 점 등 안당제석거리는 천궁불사거리와 여러모로 유사하다. 그러나 제장과 규모, 신의 성격에서 차이를 갖는다. 안당제석은 자신의 성격이 강해서 안방에 굿상을 차리고 연행한다. 이에 비해 천궁불사거리의 제석신은 천신의 성격이 강해서 대청이나 마당에서 열두거리의 맞이곳 중 하나로 연행된다. 실제 연행된 예는 다음과 같다.⁹⁵⁾

93) 이용범, 앞의 논문, 122-125쪽

94) 각주 38번 참고

95) 2009.07.15. 강민정 진적곳 중 이상순 연행

1. 안당제석거리 [고깔, 장삼, 부채, 방울]

1.1. 만수받이

1.2. 굿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1.3. 당악 - 안당제석공수

신격 : 대음제석 잔제석 천진곤건 일월용왕, 불사제석, 일광제석, 월광제석, 백항아리 용왕제석바가지 년출제석, 석자세치 고깔제석, 삼신천왕시준제석,

1.4. 당악 - 안당제석천왕공수 [바라]

1.5. 당악 - 안당제석천왕타령

1.6. 안당제석노랫가락

1.7. 산주는 노래 - 명산복산주기(대추, 밤)

2. 안당호구거리

2.1. 만수받이 [방울, 부채]

2.2. 당악 - 안당호구공수1 [홍치마 쓰고] - 안당호구공수2[홍치마 벗고]

2.3. 당악 - 마무리

이상순이 연행한 안당제석거리의 실상이다. 안당제석과 성주거리는 보통 청송기자 중경력이 많지 않은 만신이 연행하는데, 이 날은 이상순 만신이 자청하였다. 신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수받이를 따로 연행해서 안당제석거리와 안당호구거리를 청배하였다.

김씨에도 내 가중 아니시리 (중략)

아들애기 길러지다 백항아리 용왕제석

따님애기 길러지다 바가지 년출제석 (중략)

안당에 삼신천왕은 시준제석

연골 뺏골은 십이골 일천마디 골육을 점지하신 삼신천왕 시준제석

육천은 전안 삼제석마누라 수위에서

이 정성 받으시고 상덕물어 도와주시마

안당제석 공수 중 일부이다. 안당은 안주인 기주의 공간으로 오늘날 안방으로 대신한다. 제석신은 불사계열의 무복과 무구를 입지만 현재는 가신신앙의 일부로 모셔지는 점이 수를 통해 잘 드러난다. 과거 제석신앙은 항아리에 햇곡을 넣은 제석단지로 모시거나, 바가지에 곡물이나 한지, 실타래 등을 넣은 형태로 모셔졌다. 때에 따라 고깔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기명은 안당제석상에 제물로 올려지고 밑줄 친 공수에서 백항아리 제석이나 바가지 년출제석 등의 구절로 확인된다. 삼신천왕 시준제석이라 하여 삼신신앙과 불사신앙이 결합된 모습도 확인된다. 세존제석의 와음으로 호명되는 신격의 이름은 불사계열이지만 그 내용은 순산과 자손을 돌보는 신으로 알려진 삼신의 기능과 다

르지 않기 때문이다. 안당제석거리에서는 가종의 수명을 발원하고 자손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수가 내려졌다. 마무리 방식으로 노랫가락을 부르고 조율산을 주었다.

[14] 성주거리

안당제석거리 다음에 연행되는 성주거리도 가족의 재복을 관장하는 가신을 위한 거리이다. 특히 성주신은 성주군웅이라 하여 한 집안의 액과 살을 물리치는 장군신의 모습⁹⁶⁾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무복으로는 빗갓에 홍철릭이 사용된다. 무구로는 부채, 북어, 소지를 쓴다. 북어는 흰쌀과 더불어 성주상에 제물로도 올라간다. 성주, 성주군웅, 성주왕신, 화적장군 신격을 함께 연행한다.

1. 성주거리 [빗갓, 홍철릭, 소지, 북어, 부채]
 - 1.1. 성주만수받이
 - 1.2. 굿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 1.3. 당악 - 성주공수
 - 1.4. 당악 - 성주왕신, 명잔복잔내리기
 - 1.5. 당악 - 화적장군 공수
 - 1.6. 성주노랫가락 - 소지사르기
 - 1.7. 당악 - 마무리

위는 실제 연행된 모습이다.⁹⁷⁾ 만수받이로 청배하고 노랫가락과 산주기로 마무리되었다. 성주는 대들보에 위치하여 집안을 수호하는 가신이다. 특히 대주와 관련이 깊은 신격이다.

육천은 전안에 신령님 안전 아시니리
강씨에도 애동은 내 기자야
김씨는 신의 상방은 사지집사 남고지기 창부씨 아니시나
상남은 자손에 열여섯 아니시리
상녀 여식은 스물은 여섯 중녀 여식은 스물 넷
부모자손 아니시라
천년지덕 만년유택하여 도와줄게

위의 인용문은 성주거리의 공수이다. 가족의 안녕을 빌어주고 있다. 가신의 면모가 확인 된다.

굴뚝으로 화적장군 팔만은 조왕 아니시리

96) 이용범, 「군웅」,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0.

97) 2009.07.15. 강민정 진적굿 중 이상순 연행

전기에 누전 없고 가스에 폭발 없고 (중략)
가위도둑 실도둑 좀도둑 짓혀주고
밤 일곱 시 불 밝히고 낮 일곱시 물 맑혀
물과 불이 수화천명 (중략)
갖은 명 갖은 복으로 도와주시고

성주거리에서는 화덕장군을 모신다. 이상은 화덕장군공수의 일부이다. 화덕장군은 굴뚝에 있다고 여겨지는 신격이며 부뚜막에 있다는 조왕신을 함께 모시는 것이 보인다. 조왕신은 맑은 물을 떠서 모신다. 굴뚝과 부뚜막은 불을 다루는 공간이다. 때문에 화재를 입지 않도록 돌보아 준다는 권능을 보인다. 거리를 마무리할 때 노랫가락을 부르며 소지를 사르는 것도 이 같은 신의 성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

진적곳에서 대신말명거리는 당주무당의 신말, 제자 등 애동기자들이 대신을 중심으로 몸주를 놀리는 자리이다. 특별히 연행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다수 반복되어 연행된다. 대신말명거리를 반복하여 연행하는 것은 진적곳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날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는 3명의 애동기자가 각각 맡아서 연행하였다.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의 세부 제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굿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은하동무리, 방울, 부채]
2. 당악 - 대신공수
신격 : 천하대신, 지하대신, 벼락대신, 열두대신
내용 : 진적 축원
3. 대신타령
4. 당악 - 마무리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의 주신은 대신할머니로 연행된다. 무복과 무구로는 당주무당이 연행하는 대신말명거리와 같다. 노랑몽두리와 방울·부채를 사용한다. 당악에 맞춰 도무한 후 천하대신할머니, 지하대신할머니, 벼락대신할머니 등을 호명하고 짧게 몇 마디 축원을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문서나 기예가 부족한 대신 당악에 맞추어 펄쩍펄쩍 뛰는 무무(巫舞)로 중심으로 연행한다. 거리가 짧아 보통 여러 차례 거듭 진행된다.

[16] 창부거리

창부는 재주 높은 광대가 죽어서 된다는 광대신을 일컫는다. 창부는 피리를 불며 줄을 타고 있는 광대를 그린 선바위 국사당의 무신도가 보여주듯 예능을 담당하던 신이다. 또한 창부타령의 내용처럼 열두 달에 드는 횡액을 막아주는 주술적인 역할을 겸하는 신이다. 혹은 무당의 남편이 죽어서 된 신이라고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부인이 무당

을 하고, 남편이 약사를 하면서 부부가 함께 무업에 종사하는 세습무권과 연관된 해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곳 만신 중에서도 만신의 남편이 약사나 관련 업종으로 전직하여 부부가 모두 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굳이 혼인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약사를 귀하게 대해주는 것은 서울곳 만신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자질이다⁹⁸⁾. 만신이 거리를 맡아 연행을 하면 그 대가로 일종의 임금을 받게 된다. 공식적으로 배당된 임금은 석배라 하고, 그 외에도 부수적인 수입으로 재가집과 단골이 바치는 호가가 있다. 이상순 등 큰만신은 이렇게 걷은 호가를 약사들에게 주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진적곳에서는 대신말명거리와 조상거리에서 함께 곳을 다니던 선대 약사의 녀을 함께 놀기도 한다. 상기했듯이 대신말명거리는 몸주신이자 무조신을 모시는 거리이고, 조상거리는 재가집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신을 모시는 거리이다. 약사도 무당의 조상이자 나아가 무조신의 하나로까지 대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적곳의 실제 연행된 양상을 살핀다.

1. 곳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청치마,색동소매진홍색동달이,방울,부채]
2. 당약 - 창부공수
 - 신격 : 사외사외삼당창부 국외제당창부 그염상산창부 안산창부 박산광대, 창부씨, 광대씨, 몸주창부 직성창부 전안창부
 - 내용 : 삼재팔난 막아주고 재수발원, 곳하는 정성 치하.
3. 창부타령
 - 내용 : 외양묘사, 재수발원, 홍수막이, 직성풀이
4. 당약 : 마무리

이날 창부거리는 이길수가 연행하였다. 본래는 창부의대를 입고 만수받이로 시작하지만 생략되었다. 창부거리 외에 천궁불사맛이와 산신도당거리에서 하위 제차로 창부거리가 등장한다. 의대는 동달이에 색동소매와 한삼을 기본으로 해서 광대 신격의 외양을 표현하였다. 몸통(길)의 색상이 다르다. 창부거리는 분홍색을 기본으로 하고, 천궁창부는 물색, 산신도당 창부는 진분홍색(자색)으로 색상을 달리하여 신격이 다름을 표현한다. 진적곳에서는 창부의대를 입지는 않았지만, 대신말명거리에서 대신창부타령이 불려졌다. 창부라 할 수 있는 약사들의 죽은 녀이 실렸기 때문이다.

만수받이와 공수에서 상산돌기, 제당맞이, 청계배웅, 대신말명과 관련된 창부들이 고루 모셔졌다. 하위의 인물신격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앞서 서술했듯 상산 덕물산 최영사당에 청계당이라고 해서 청계씨와 광대씨를 모신 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창부씨는 공간신으로의 무조신과 인물신으로의 무조신 양쪽의 거점을 고루 갖게 된다. 창부거리는 창부타령이 특히 중요하다. 창부타령으로 곳판의 흥을 돋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을 뜯어보면 창부신의 주술적인 면모가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이상순 만

98) 김헌선, 앞의 책(2006).

신이 2011년 자택에서 본연구자에게 천신국의 청계타령으로 제시한 문서이다. 연행 자료에 비해 현장성은 떨어지지만, 진적국의 창부타령과 내용이 다르지 않아 창부타령의 면모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광대가 올라왔나
전라도 하고는 남원광대 경상도는 안동광대요,
경기도라 송파광대.
외줄 위에서 놀던 광대 쌍줄 위에서 놀던 광대,
어른광대는 단소를 불고 부인광대는 피리를 불고
아이광대는 옥저를 분다.
옥저소리가 더욱이 좋다, 피리소리도 더욱이 좋다.
십리경의 젓대소리 비천에도 형상이요,
오리경의 피리소리 오토지신이 감동하고
계곡성의 해금소리 열성조의 가락이요.
창부씨 광대씨 거동을 보니 주산위걸로만 감았구나.
절구통 바지에 밀통 저고리 고양이나무 속버선에 명구삼성 겹버선에
진사만사 허리띠에 벌통행전에 올망졸망은 싹지꾸리요,
분홍갑사 두루마기에다 쾌자 전복을 걸드리고
초립을 쓰고 아미타구치 미투리에 장창을 박고
굽창을 박고 매부리징에 자징을 박고
의일마일은 당사끈에 서부령 섭정말 금장단패
신대 부채 손에다 들고 가진 풍류가 더욱이 좋다.

창부의 기원은 탈춤을 추던 광대신이며, 창부의 음악과 춤이 시공을 초월해 감응함을 밝히고 있다. 창부의 외양과 치장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창부의대와 기명이 분홍색삽수와 부채임이 드러난다.

산지 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 조종은 황해수라,
능지 조종은 건원릉이요 문 조종은 남대문이요,
다리의 조종은 노들다리요 개천의 조종은 청계천이요,
늪은이 조종은 태상노군이요 아이의 조종은 강림도령이요,
양반의 조종은 운현대감이요 만신의 조종은 덕물산이라.
팔도명산 돌아보니,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 잇고
평안도라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 잇고
황해도라 구월산은 세류강이 둘러 잇고
강원도라 금강산은 소양강이 둘러 잇고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 잇고
 충청도라 계룡산은 공주 금강이 둘러 잇고
 전라도라 지리산은 백마강이 둘러 잇고
 경기도라 삼각산은 임진강이 둘러 잇고
 한양성내를 올라올 제 나무는 뚝 꺾어 다리를 놓고
돌은 집어서 수령을 메우고 한양성내를 당도하여
 삼각산이 뚝 떨어져 인왕산이 되었구나.

산, 물, 능, 문, 다리, 개천 등 공간적 지표의 근원을 따지고, 이어서 늪은이, 아이, 양반, 만신으로 사람의 근원을 따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조종은 특정 인물로 제시하고 만신의 조종만 덕물산이라는 지명으로 제시해 의문인데 조선무속의 연구에 실린 창부무가와 다른 자료를⁹⁹⁾ 보면 만신의 조종은 아황여영으로 되어 있어 비교할 수 있다. 창부 조종의 이름을 아황여영으로 밝힌 자료는 공주 무조기원을 말하며 창부와 광대를 견주 고 있다. 즉 창부무가는 노소(늪은이와 아이)와 귀천(양반과 만신)을 대비시키며 인간 전 반의 근원을 찾는 것으로 시선을 넓혔다. 한편 만신의 조종을 덕물산으로 제시한 것은 서울곳에서 덕물산과 최영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음 구절 에서부터 무가의 서사가 팔도의 산과 강을 열거하며 광대노정기로 이어져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팔도의 명산명천을 돌아 한양으로 돌아오는 광대노정기는 상산 을 돌아 제당을 맞는 서울곳 만신의 순례의 여정과 비슷하다. 서울에 도착한 창부가 나 무를 뚝 꺾어 다리를 놓고, 돌은 집어서 수령을 메웠다는 구절은 산신을 돌아온 창부가 생산신의 면모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광대씨와 청계씨가 모셔지는 덕물산에 청계당이 있듯이, 각종 명산을 참배하면 창부씨(청계씨)가 함께 묻어든다고 여겨 청계배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념 산신도당거리의 하위 제차로 창부거리가 있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중략) 그냥 가기 미미하니 일년 홍수나 막고 갑시다.
 일 년하고는 열두 달이요 삼백하고는 육십일에
 춘하주동은 사시절인데 시시때때로 드는 홍수,
 정월 한 달에 드는 홍수 정월이라 열 나흘날 오곡잡곡에
 갖은 예방 받아다 대홍수막이로 막아내고,
 이월 한 달에 드는 홍수는 이월 개춘에 막아내고,
 삼월 한 달에 드는 홍수는 삼월 삼진날 막아내고,
 사월 한 달에 드는 홍수는 사월 초파일날 연등맞이로 막아내고,
 오월 한 달에 드는 홍수는 오월 단오날 막아내고,
 유월 한 달에 드는 홍수는 유월 유두날 막아내고,

99) 김헌선, 「<창부거리>무가의 성립 과정」, 『고전문학연구』 9권, 한국고전문학회, 1994.

칠월 한 달에 드는 홍수는 칠월칠석날 칠성맛이로 막아내고,
 팔월 한 달에 드는 홍수는 팔월 한가위에 만조상 차례로 막아내고,
 구월 한 달에 드는 홍수는 구월구일로 막아내고,
 시월 한 달에 드는 홍수는 시월이라 상달인데 무시루 고사로 막아내고,
 동짓달 한 달에 드는 홍수는 동짓날에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인데 팔죽 새알심 동지풀이로 막아내고,
 선달 한 달에 드는 홍수는 선달이라 스무 닛셋날 애동쟁이의
 흰 가래떡으로 다 막았으니 소문만복래로 도와주리다.
 산진홍수는 수진홍수요,
 부모자손에 동발홍수요 내외에는 이별홍수,
 거리에는 낙마홍수요 재물에는 손재홍수요 손끝에는 식물홍수.
 물홍수 불홍수 다 젖혔으니 삼재팔난이 없을소냐
 드는 삼재는 엽삼재요 묵은 삼재는 재삼재요,
 나는 삼재는 명삼재라.

삼재팔란을 다 젖혔으니 직성팔괘가 없을소냐
 (대주님) 남자 직성은 열두 직성이요,
 (기주님) 여자 직성은 아홉 직성이요,
 (자손의) 동자의 직성은 일곱 직성이요,
 일직성은 월직성이요, 금직성은 수직성이요,
 목직성은 화직성이요, 토직성은 계도직성이요,
 만장 가운데 수사나운 직성은 제웅직성이요.
수사나운 직성을 다 걷어다 의주월강에 다 소멸했으니
 금산에 가서 금을 뜨고 은산에 가서는 은을 뜨고
 보물산에 천량 뜨고 금바리 은바리 수레바리로
재수나 소망을 생겨주리다.

기능과 근원을 밝히고 팔도명산명천을 순례하고 서울에 자정한 창부는 이제 자신이 획득한 신성으로 홍수막이라 하여 일 년에 드는 재액을 세시풍속으로 막아준다. 가족과 천지만물에 드는 직성을 걷어다 성소를 찾아 소멸시키고 재수소망을 생겨준다. 액운을 걷어주는 것이 소극적 축원이라면 행운을 가져주는 것은 적극적 축원이다. 창부신의 신성이 점차 확장되었다. 또 진적곳에서 청계배웅을 먼저 하고 본격적인 곳을 시작하는 것이 체계 있는 신앙행위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창부신은 일차적으로 광대신이어서 사제이면서 예능인인 만신에게 무조신의 기능을 한다. 또한 덕물산 청계당과 관련하여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로 이어지는 진적곳의 핵심절차와 맞물려 부정을 물려주고 재수를 생겨주는 무조신의 면모도 갖추고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17] 몸주놀이(작두신령)

몸주놀이거리는 당주무당의 몸주신을 노는 거리이다. 이날 곳에서는 이상순 만신의 몸주신 중 하나인 작두신령을 중심으로 연행되었다. 이길수 만신이 연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제차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1. 허튼타령 [작두신령갑옷]
2. 당악 - 작두신령공수1
내용 : 명기발원
3. 휘몰이 [투구 들고 빠르게 돌면서 도무] - 작두신령공수2
내용 : 서운함 표출, 무업번창, 명기발원
4. 당악 - 마무리

대개 몸주놀이거리는 당주만신이 직접 연행한다. 그러나 이상순 만신이 놀지 않고 이길수 만신에게 따로 부탁해서 연행했다. 빠른 휘몰이 장단에 맞춰 빙글빙글 돌고 뛰며 신복을 놀리는 것이 핵심이다. 신복을 올려주는 것이 곧 신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나라 태장수에 이나라 외장수. 어느 작두대신할머니가.

괘씸해! 오늘 상작두를 놀러타고 건너산에 소리치고 일장대를 휘어잡고 놀지 알았더니
나를 안 놀리고. 작두는 어따 갔다뒀어? 칼날위에 춤추기 싫으니까

(이상순: 문화재가 돼서 이제는 안 해요) 미련은스러도 같농맏다고 어쩔은 그렇게.

내가 이거 하나씩마다(갑옷 사슬 쳐들며) 대한글력 소한글력 죄 생겨줬는데
더우니까 안 입고. 이거 안 입고 딱건 죄 입고 (중략)

내가 작두별상님 수위에서 작두대신할머니가

은산되고 금산되고 명산되고 복산되고

장안가득 글에 가득 잘 불리고 애동기자야 걱정마라

위의 인용문은 이 날 연행된 작두신령거리의 공수 중 일부이다. 작두신령은 이상순 만신이 무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모신 몸주신 중 하나이다. 평안도곳 무당이었던 양어머니에게 내림굿을 받고 무업을 시작했던지라 무업 초반에는 평안도 식으로 작두도 타는 곳을 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곳 만신으로 전향한 뒤로는 작두를 타지 않는다. 그러나 몸주신인 작두장군의 의대는 잘 보관했다가 진적굿을 할 때마다 꺼내어 신복을 놀린다. 거리의 연행도 당주무당인 이상순 제외하고 가장 경력이 높은 이길수 만신에게 따로 부탁한 것도 이 같은 몸주신의 특별한 의미 때문이다. 공수 내용은 '나를 외면해서 서운하다'라 하지만 결국은 '작두대신할머니 수위에서 무업을 번창하게 해준다'고 축원해준다. 몸주신을 당주무당의 사정상, 혹은 신격의 갈래가 달라 따로 놀더라도 대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진적곳에서 몸주신을 특별하게 노는 이유도 몸주신이 영력을 강화하여 무업을 번창하게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18] 계면거리

계면거리는 본래 남치마에 은하몽두리를 입고 연행한다. 그러나 대부분 평복 차림의 약식으로 연행된다. 무구로는 방울과 함께 대신떡을 드는 점이 독특하다. 우리 속담에 “굿 구경을 하려면 계면떡이 나오도록”이라는 말이 있다. 본뜻은 무슨 일이든 착수를 하면 참고 견디어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계면굿의 두 가지 특성을 환기시킨다. 하나는 계면이 굿의 끝 순서라는 것이고, 하나는 계면거리에서 떡이 중요한 기명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김헌선은 서울굿의 핵심 제물이 떡임을 밝히고 진적곳의 계면떡이 내림굿의 도래떡을 이은 기명임을 지적했다. 내림굿에서는 아직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애동기자라 떡 모양도 ‘앞뒤 없는 도래떡’이, 진적곳에서는 ‘어스비스 계면떡’이 된다고 하였다. 만신의 신굿에 올리는 떡 모양을 만신의 무업 성장 단계와 연관지어 만신과 떡의 긴밀한 관계를 지적한 의의가 있다.¹⁰⁰⁾

계면거리의 실상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당악
2. 계면공수
3. 계면떡타령
4. 계면노랫가락
5. 당악 - 마무리

공수와 타령, 노랫가락으로 구성되는데, 무구로 방울 외에 계면떡이 사용된다는 점이 특별하다. 일반적으로 타령의 명칭은 거리의 명칭과 같은데 계면거리에서는 특별히 ‘계면떡타령’이라고 부른다. 계면거리의 핵심이 계면떡에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계면떡은 ‘어스어스 계면떡’이라는 타령 구절처럼 어스비스하게 썰어 모판에 담고 쌀가루를 묻혀서 만들어¹⁰¹⁾ 단골들에게 나누어준다.

거리가 짧아 별도의 부속 거리를 갖지 않는다. 특별한 청배 무악을 따로 두지 않고 바로 당악으로 도무하여 공수를 시작한다. 계면거리는 본래 재수굿에서도 연행되지만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진적곳에서도 평복 차림의 약식으로 놀아지기도 한다. 때로는 창부거리의 마무리 당악에 맞추어 도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 거리처럼 묶어 연행하기도 한다. 굿이 너무 길어지면 신격의 특징을 고려하여 생략을 하거나 단축하여 시간을 줄인다. 계면거리와 창부거리를 하나의 거리처럼 축약되어 연행한다는 것은 두 거리의 신격이 유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계면거리의 신격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무가의

100) 김헌선, 「한국의 굿과 떡의 상관성 연구」, 『비교민속학』 31집, 비교민속학회, 2006.

101) 같은 글, 66쪽.

내용을 살핀다.

돌러를 왔소 돌려를 왔소 삼십칠관을 돌아왔소
돌러를 왔소 돌려를 왔소 이십팔수 돌아왔소
상덕 물어 주소서

위는 계면노랫가락이다. 계면거리는 짧은 노랫가락을 부르고 마치는데, 이때 떡그릇에 방울을 올려 그릇째 오른손으로 두 번 돌리고 실제로 만신이 한 바퀴를 돌면서 가창한다. ‘돌러를 왔다’라는 내용의 무가를 구송하면서 동시에 행위로도 ‘돌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또 이상순은 계면거리를 설명하면서 예전에는 계면떡을 어숙 비숙 썰어 쌀가루를 묻혀서 작은 목판에 담아 들고, 제가덥에 공수 주면서 떡산을 주고 떡타령을 했다¹⁰²⁾라고 설명한다. 거리를 끝 제차로 노랫가락을 부르며 산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몇몇 있다. 이때 주는 산의 종류도 신격에 따라 달라져서 일종의 기명으로 기능한다. 불사산과 본향산으로는 조율(棗栗)을 올리듯, 계면거리와 대신거리에서는 떡을 기명으로 쓴다. 이들 신격이 떡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계면거리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계면돌기’를 이해해야 한다. 『조선무속의 연구』에서는 계면돌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새로 신이 내린 새무당이 발작적으로 마을의 집집으로 뛰어 들어가 신언을 외우면서 돈과 곡물을 얻는 소위 <계면돌기>와 같이¹⁰³⁾

허주가 씌인 사람이 신들린 상태에서 계면각시가 이끄는 대로 노래가락을 외치며 읍락의 집집을 돌아다니며 축원 신점을 행할 경우에 약간의 돈과 곡식을 주는 집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서술하였었다. 이 돈과 곡식으로 만든 계면떡을 올려서 신을 맞이하는 행사가 바로 입무의 레이다. 이러한 돈과 곡식은 무(巫)에게 내린 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걸립 유가(遊街)가 실은 단골집을 정하는 행사라는 것은, 이 때의 걸립가에서 나타나는 ‘쌀처럼 굵은 단골, 찹쌀처럼 달라붙는 단골, 좁쌀처럼 많은 단골, 양반단골, 중인단골, 상인단골 정해놓고 아동만신 들어온다’라는 가사로 알 수 있다.¹⁰⁴⁾

계면돌기의 뜻, 원인, 과정과 결과를 위의 인용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계면돌기는 내림굿을 받기 전에 신병을 앓고 있는 무당이 집집을 돌면서 영한 소리를 해주고 대가를 얻는 걸립 행동을 특별히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같은 행동을 이끄는 신격이 계면각시임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가지의 결과가 빚어진다. 하나는 또 계면돌기로 얻은 곡식은 따로 떡을 만들어 계면떡이라 하여 내림굿을 할 때 몸주신에게

102) 이상순, 앞의 책.

103)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 208쪽.

104) 같은 책, 297쪽.

바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맺은 인연으로 단골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무가에서 단골을 곡식에 비유한다.

계면거리의 공수는 '우두계면은 좌두계면 계면말명은 계면아씨'로 시작한다. 서울곳 만신은 굿판에서 '계면할머니를 논다'라고 하여 계면할머니로 신격을 호칭한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본래는 계면각시, 계면아씨가 계면할머니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본래는 계면각시지만 거리가 축소·생략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무당에게는 소중한 거리이지만 가정곳의 재수곳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거리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내림곳에서 무업을 이끌었던 몸주신이라는 신격의 의미와 떡이라는 기명이 전승되면서 같은 계통의 대신할머니와 결합하면서 계면할머니라는 신격으로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분향거리 중 대신말명거리에서 "대신할머니 노시는데 쌀 한 말을 안 놓고…옛 날에는 쌀들을 죄 이고 왔어 쌀 이고 들어오면 벌써 대신할머니가 좋아하는 거야. 네가 갈비 사놓고 쇠머리를 사놨어도 대신할머니가 빼죽한다"라는 공수가 등장했다. 대신이 떡과 근원이 되는 쌀을 받는 신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무복을 노랑몽두리를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신할머니타령과 계면타령에서 떡타령을 부르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창부거리와 계면거리는 일견 하위 신격의 인물신으로만 볼 수 있지만, 실상은 무조신으로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적에서는 일을 생략하지 않고 짧게라도 연행하며 그 의미를 기리는 것이다.

[19] 뒷전거리

진적곳에서는 회정맛이를 하지만, 뒷전은 서울곳에서 마지막에 연행되는 거리이다. 잡귀잡신을 간략하게 대접하고 굿의 종료와 함께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자 행한다. 굿을 연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위계가 높은 신격을 낮은 신격보다 앞서 연행한다는 원칙을 고려한다면 뒷전에 등장하는 신격이 잡귀잡신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영산일랑은 물러가고 수비일랑은 걷어가고'라는 뒷전 무가의 사설과 수비를 '치다'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뒷전에 등장하는 신격이 퇴치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드러난다. 뒷전상은 나물, 떡, 밥, 술 등의 음식을 간단히 준비하여 제장 밖 마당에 준비된다. 굿의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굿상을 허물고 제장을 정돈하는 분주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전악들은 이미 퇴근해 조무의 장구와 제금의 반주로 평복 차림으로 연행한다. 아래는 실제 연행된 모습이다.

1. 뒷전만수받이
2. 당악 : 걸립쳐들기
3. 당악 : 텃대감공수 - 텃대감타령
4. 당악 : 지신쳐들기
5. 당악 : 엽대감공수
6. 당악 : 맹인쳐들기

7. 당약 : 서낭처들기
8. 당약 : 영산처들기
9. 당약 : 상문처들기
10. 당약 : 마무리

뒷전은 만수받이로 청배한다. 걸립, 텃대감, 지신, 맹인, 서낭, 말명, 영산, 수비의 순서로 진행된다.

텃대감은 가신신앙의 일종으로 대감거리에서도 하위 제차로 모셔진다. 위계는 낮지만 재가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대감의 위무형식인 타령을 따로 두었다. 잡귀잡신이랄 할지라도 빼놓지 않고 고루 연행하는 것이 진적곳의 특징이다.

삼당맹인 제당맹인 곽곽선생 흥계관 (중략)
 오늘 이 집 진적덕을 무척 보겼소 (중략)
 안질곱질 다걸어주고 눈병도 다 짓혀주고
 일월이 명랑하게 해주고
 닭으나 방울같고 어루쇠 명경같이 받들어
 진적덕 입혀 도와주마

맹인거리의 공수 중 일부이다. 곽곽선생은 산해경의 저자라고 알려진 곽박의 와음이 다. 흥계관은 점복에 능한 맹인이다. 일반적으로는 안질을 걸어준다는 역할을 주목하나 진적곳에서는 무업과 관련한 축원을 내린다. 판수도 점복을 다룬다는 점에서 무당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무당도 굿을 떼기 전에 점사를 보고, 영한 공수를 내리는 것으로 단골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맹인 공수 중 방울과 명두(어루쇠 명경)와 같은 무구를 언급하는 무당과의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

영산은 각양각색의 사인으로 죽은 영혼을 위로한다. 그런데 진적곳의 영산거리에서는 만신말명 대신영산이라고 해서 생전에 무업과 관련된 인물을 특별히 거명하여 연행했다.

임진강 대동수 한씨만신말명 가던 영산
박씨만신말명 양씨만신말명 가던 영산
 산에 올라 후영산 객사영산
 만경청파에 수살영산
사위삼당에서 국내제당에서 오셨다가
 이따가 가시라고 배웅하니까 오늘 죄 받아가지고
 뒤로 뒷전에 받아서 먹고가고
만신이 내리다가 숨든 말명
보살죽고 처사죽고 중 죽고 박수죽고

서울 장안에 죽은 무당들이 여간 많으우? 죄 왔어
 처량한 말명 불쌍한 말명 한심한 말명
 기옥이도 잠깐 댕겨가야해 또 옥천방도 댕겨가고
 기옥이가 너무도 싫대 또 옥천방도 싫대
 문화재에서 고생을 무척했는데 말 한마디 안 해줘서 싫대
 그러나 이렇게 뒷전에서 놓고 섭섭한 마음을 다 돌려서
 이씨기자님 건강하게 해드리고 그저 자손 창성하게 해드리고(하략)

영산을 이용해서 대신말명 신격을 거듭 연행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신격은 보편적 무조와 개인적 무조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앞부분에 거명된 한씨만신말명, 양씨만신말명, 양씨만신말명이 해당된다. 후자는 뒷부분에 거명된 옥천방, 기옥이 등이 해당된다. 신격과 순서를 달리하는 구성 원리에 따라 신의 위계를 드러난다. 보살 죽고 처사 죽고 중 죽고 박수 죽은 영산을 같이 거명하여 사제자의 길을 걷다 죽은 영혼까지 범위를 넓혀 고루 놀아준다. 무속에서는 조상을 죽은 시기와 천도굿의 유무를 기준으로 조상신과 냇으로 구별한다. 이러한 관념 아래 죽은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천도굿을 받지 않은 무업 관련 인물은 대신말명거리와 조상거리에서 놀지 못한다. 대신 뒷전 영산거리에서 약소하게나마 빼놓지 않고 대접함을 알 수 있다.

진적굿의 뒷전은 수비를 치지 않고 영산까지만 물리고 마무리한다. 아래는 영산을 물리는 내용 중 일부이다.

문영산 떼영산들이 뒤로 뒷전에
 진적 끝에 다 받아가고
 영산일량은 물러가고 이따가 배웅정성에
 수비일량은 다 건너가고 상덕물어 도와주마

수비는 ‘이따 배웅정성에 건너가겠다’라 하여 진적굿 뒷전에서는 수비를 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영산을 물리고 뒷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수로 인한 누락이 아님이 확인된다. 수비를 치지 않는 것은 뒤이어 회정맞이라는 진적굿만의 특별한 제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회정맞이가 진적굿의 최종 마무리라는 점을 거리 구성의 측면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뒷전의 수비를 생략하는 것이다.

[20] 회정맞이

회정맞이는 일반의 가정굿에서는 연행하지 않고 만신의 신굿에서만 연행된다. 제당맞이가 서울굿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각지의 굿당과 성소를 참배하며 상산을 돌아 제당신을 맞이하여 진적굿이 열리는 제장에 좌정을 시키는 목적으로 연행한다. 회정(回程)맞이는 이들을 본래의 장소로 돌려보내는 목적으로 연행한다. 회정맞이는 이렇듯 제당맞이와 대응한다. 무복과 무구로는 흥철력과 흑갓을 쓰고 물고지를 사용한다. 회정맞이상

과 열두쟁반기라는 두 가지의 제상을 차린다는 점에서 제당맞이와 회정맞이는 복색과 무구, 제상, 청배 신격의 구성이 동일하다. 회정맞이 연행의 실제 모습을 살핀다.¹⁰⁵⁾

1. 회정거리 [흑갓, 홍치마, 홍철릭, 물고지]
 - 1.1. 굿거리 - 제당바라기
 - : 물고지를 들어 사방을 쳐들며 제당신을 청배한다.
 - 1.2. 굿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 1.3. 당악 - 회정공수1
 - 신격 : 사외삼당, 국내제당
 - 내용 : 굿 올리는 정성 고하기, 가족의 안녕과 재수발원
 - 1.4. 당악 - 회정공수2
 - 신격 : 그염상산, 윗당, 아랫당, 안산, 박산, 시흥반장, 양화도금성당, 선바위국사당, 경상도태백산, 사해용궁
 - 내용 : 굿 올리는 정성 고하기, 가족의 안녕과 무업 번창 기원
 - 1.5. 당악 - 회정공수3
 - 신격 : 왕십리 수풀당, 동관왕 남관왕,
 - 내용 : 명기발원, 무업축원, 가족 재수발원
 - 1.6. 당악 - 회정맞이노랫가락 - 명잔복잔내리기
2. 제당호구거리
 - 2.1 당악 - 제당호구 공수 [홍치마 벗어 머리에 쓰고, 방울, 부채]
 - 신격 : 사외삼당호구, 국내제당호구, 윗당 미륵호구, 아랫당 부인호구, 한우물 셋우물 물마누라, 용태주 용신호구
 - 내용 : 제당덕 축원, 꿈자리 몽사·요물·하리제사 방지
3. 제당말명거리 [평복, 부채방울]
 - 3.1. 당악 - 제당말명, 제장제장 공수
 - 신격 : 사외삼당말명, 국내제당말명, 사외삼당제장, 국내제당제장
 - 내용 : 명기발원, 무업축원
4. 제당대감거리 [평복, 부채]
 - 4.1. 당악 - 공수 - 제당대감타령
 - 신격 : 사외삼당대감, 상산대감
 - 내용 : 무업 축원

105) 자료8 2009년 4월 5일 강민정 진적굿

5. 제당걸립거리 [평복, 부채]

5.1. 당약 - 제당걸립쳐들기

신격 : 사외삼당걸립, 국내제당걸립, 그염상산걸립, 원당걸립, 신당걸립

내용 : 무업축원 명기발원

6. 제당서낭거리 [평복, 부채]

6.1. 당약 - 제당서낭쳐들기

신격 : 사외삼당서낭, 국내제당서낭, 그염상산서낭, 말오리서낭, 주저리대감, 오수재서낭,
구파발서낭, 팔도명산 산신서낭

내용 : 회정덕 축원

7. 제당영산거리 [평복, 부채]

7.1. 당약 - 제당영산쳐들기

신격 : 영산, 양씨만신말명, 박씨말명, 수살영산,

8. 제당수비치기 [평복, 부채]

8.1. 휘몰이 : 사외삼당수비, 국내제당수비, 아흔아홉째수비

‘아까는(제당맞이는) 오시라고 청배하고 지금은(회정맞이는) 가시라고 배웅하니’라는 제당맞이와 회정맞이 공수 내용처럼 두 거리는 제당신격의 청배와 배웅이라는 쌍을 이룬다.

때문에 모셔지는 신격의 종류와 순서도 같다. 사설도 대구를 이룬다. 제당맞이와 회정맞이의 공수와 축원은 ‘제당덕 입혀주마’, ‘상덕물어 주마로 공통되게 마무리된다.

무복과 무구로는 흥철릭과 흑갓을 쓰고 물고지를 사용한다. 회정맞이상과 열두쟁반기라는 두 가지의 제상을 차린다는 점에서 제당맞이와 회정맞이는 복색과 무구, 제상, 청배 신격의 구성이 동일하다. 때문에 연행하는 거리의 종류와 구성도 거의 같다.

회정맞이의 신격을 모시는 청배의 과정은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두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당바라기와 들어숙배나숙배·거성의 과정이다. 상산을 중심에 둔 거리로 산신신앙과 조상신앙이라는 신격의 특성을 공유한다. 회정맞이 공수는 3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후 거리의 마무리로 노랫가락을 부르고 명잔복잔을 돌렸다. 구체적인 공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신령님 안전 아니시냐 강씨에도 내만신 아니시리

사위삼당에서 오시고 궁미제당에서 오셔서

아침에는 오시라고 청자하고 지금은 가시라고 회정하니

은산되고 금산되게 도와줄게.

이게 어떤 정성이냐 맘먹고 뜻먹고 하늘에 달은 정성.

너희 양우가 맘이 착해서 후분 좋게 좋아주마. 말분 좋게 도와주마.
아들도 잘되게 해줄게. (중략)
신의 제물 생겨주고 신의 벼슬 입혀주고 소원성취하게
상덕 물어주마.

② 그염 상산에서 오늘 오시고 오시던 길로 회정해 가시고
웃당은 아랫당 안산은 밧산이라.
시흥반장에서 오셔서 오시던 길로 회정해 가시고
양화도 금성에서도 오셨구나. 오시던 길로 회정해서
은산되게 도와주고 금산되게 도와주마.
선바위 국사당을 들어서 이 정성을 대우하니
금잔디 들여받고 은잔디 내밧고
선산에 감밭하고 속양숙배 들어다가
경상도 태백산을 들어다가 이 정성을 대우했으니
애 많이 쓰고 힘많이 들였다.
태산같이 받으시고 이담에는 충청도 계룡산부터 먼저가라
사해용궁에서도 오셔서 오시던 길로 회정해 가시고
명산되고 복산되게 도와주마. (하략)

③ 왕십리 수풀당에서도 오시고 오시던길로 회정하시고
물건너 화주당에서도 오시고 오시던 길로 회정해가시고
회정덕 입혀주마.
동관왕 남관왕에서도 오셔서 오시던 길로 회정해가시고
명산되고 복산되게 도와줄게. 내 기자 명기 주고 서기 주고(중략)
삼당덕 입혀주고 제당덕 입혀주마.

①②③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정맞이 공수의 내용이다. 서울곳에서 중요한 신격은 세부 신격과 사설의 차원을 달리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연행된다. 회정맞이에서 모셔지는 신격도 그러하다. ①번 공수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사위삼당과 국내제당이라는 회정맞이의 대표신격을 제시하고, 이어서 곳을 하는 정성을 잘 받았다고 치하한 뒤, 마지막으로 가족의 안녕과 소원 성취를 축원하였다. ②번 공수와 ③번 공수는 신격을 제시와 축원으로 이루어졌다. 신격은 주요 명산과 굿당을 공통적으로 지목하였다. 사위삼당과 국내제당이라는 대표 신격이 ①번에서 불리워지고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그염 상산이다. ②번 공수 높은 신격에서 낮은 신격의 순서로 연행하는 굿법을 고려할 때 상산이 으뜸임이 잘 드러난다. 무속신앙의 성소 중에서도 '굿당'을 중심으로 하는 거리여서 상산과 함께 상산에 위치한 윗당과 아랫당을 구체적으로 호명했다. 뒤이어 상산돌기의 여정을 관용구로 제시하고 만신이 직접 참배

한 여정을 덧붙였다. 축원의 내용은 ②③ 모두 가족의 안녕과 무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명기 주고 서기 주고, 명산되고 복산되게 도와줄게’ 등의 공수를 통해 영력 강화를 통한 무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진적곳의 목적이 잘 드러난다.

회정맞이거리의 공수는 형식면에서 뚜렷한 특징이 보인다. 밑줄 친 부분에서처럼, ‘(장소)에서 오시고, 오시던 길로 회정해 가시고’의 방식으로 공수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세부 신격은 면면은 제당맞이와 같다. 제당맞이는 ‘-에서 오시고’로 공수가 구성되고, 회정맞이는 ‘-에서 오시고, 오시던 길로 회정해 가시고’로 되어 있어 쌍을 이룬다. 제당맞이와 회정맞이거리는 ‘제당덕 입혀주마’, ‘상덕물어 주마로 축원의 마무리 방식도 공통된다. 밑줄 친 ‘아침에는 오시라고 청자하고 지금은 가시라고 회정하니’라는 구절이 제당맞이와 회정맞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제당맞이와 회정맞이는 제당신격을 연행하며 하위 제차로 제당호구, 제당말명, 제당대감, 제당걸립, 제당서낭, 제당영산, 제당수비를 둔다. 걸립, 서낭, 영산, 수비는 뒷전에 묶이는 잡귀잡신이지만 제당맞이와 회정맞이에서는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길게 연행한다. 상산과 제당을 돌아올 때 따라 들어온 잡귀잡신이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임진강 나루터에 만신말명이.

어느 산을 가시다가 돌아가셔서 양씨 만신말명 박씨 만신말명이야.

두 분이 임진강 나루터에서 물에 빠져서 수살영산이 됐어.

제당을 들을 적에는 꼭 그 어른들을 찾아야 현대.

제당영산의 사설 중 일부이다. 제당영산을 연행할 때 이상순은 “임진강 나루터에 양씨 만신말명 박씨 만신말명을 함께 쳐들어야 한다”고 신딸들에게 당부했다. 영산은 험하게 죽은 잡귀잡신으로 사인(死因)으로 신격을 호명한다. 양씨만신말명과 박씨만신말명은 물에 빠져 죽은 수살영산이라는 불특정 집단에 두지 않고 따로 호명을 하여 개별화시킨다. 이들은 생전에 만신이었고 상산돌기를 하던 중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곳을 하는 만신에게는 무업의 선배이고, 그들이 다녀온 여정이 곧 자신의 여정이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고 특별히 기리는 것이다.

회정맞이에 도령돌기를 생략하였다. 제당도령돌기는 상산을 돌고 제당을 맞이하는 여정을 춤으로 표현한 무무임을 서술한 바 있다. 회정맞이에서는 도령돌기를 생략하고 제당바라기와 들어숙배나숙배·거성으로 청배하였다.

제당맞이의거리에서 회정맞이는 곳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진다. 다른 곳은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뒷전으로 마무리되지만, 진적곳에서는 뒷전 후에 회정맞이를 연행하고 끝낸다. 바꾸어 말하면 회정맞이가 끝나야 진적곳이 끝나는 것이다. 때문에 약사들도 퇴근을 미루고 회정맞이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한다. 진적곳의 뒷전거리에서는 수비를 치지 않는다. 회정맞이의 수비치기로 대신하기 때문이다.

수비는 뒷전에서 모셔지는 잡귀잡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여 위계적으로

최하위에 놓인다. 영산이나 상문은 ‘풀이’라는 용어, 수비는 ‘치기’라는 용어로 서술된다. ‘모신다’나 ‘논다’로 표현하지 않고 ‘쳐내는’ 잡귀잡신이기 때문이다. 수비치기는 수비장단이라 하여 당악장단과 유사하지만 좀 더 빠른 속도의 휘몰이 장단을 쳐서 굿이 끝났다는 것을 청각적으로 공지한다. 진적굿에서는 뒷전의 수비를 생략하고 회정맞이에 서만 수비를 친다. 제당에서 모신 신격이 회정해야 진적굿의 끝난다는 관념이 명확하다.

자료3 김유감의 진적굿에서는 회정맞이를 배웅거리라고 표기하고 있다. 제당신을 돌려보내기 위함이라는 제차의 목적을 강조한 용어인 셈이라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정맞이는 순서나 사설에서 드러나듯 제당맞이와 짝을 이룬다는 의식이 명확하고, 이상순 만신이나 김유감 만신 본인도 회정맞이라는 용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회정맞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유래를 살펴도 ‘회정’이라는 용어를 살리는 것이 적합하다. 『조선무속의 연구』에서는 회정과 관련된 두 개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는 노무 김성녀의 굿을 견학한 글을 남겼는데, 가택에 최영장군을 주신으로 한 독립 신당이 세워져 있고, 이 집의 사랑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동안 노무가 행하는 회정굿을 보았다며 주신(主神) 최영장군에게 진작하는 행사라고 설명을 덧붙였다¹⁰⁶. 두 번째는, 강신적 입무의 실제 예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경성에 거주하는 무녀 H가 65세의 고령에도 덕물산에 올라가서 산 위의 장군당에서 밤이 이슬해지도록 굿을 올린 뒤, 다음날 아침 하산하자마자 곧바로 단가(檀家)로 향해서 회정굿 준비를 서둘렀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과거에도 회정굿이라는 이름의 굿이 있었으며, 모두 덕물산 최영장군과 관련한 굿이며, 하나의 굿이 끝난 뒤 한밤중이나 아침에 연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당배웅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정맞이라 하여 ‘맞이’라는 술어를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맞이’는 천궁맞이, 안당사경맞이와 같은 용어와 결합한다. 특히 조선무속의 연구에는 사경굿은 천궁맞이 안당맞이 산바래기의 3부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오늘날 안당사경맞이 혹은 안당사경치기라 불리는 굿을 가리킨다. 안당이 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경(새벽1~3시)에 진행했다는 특징을 갖는데, 이 굿에 해당하는 세부 제차는 서울굿 열두거리를 고루 갖춘 규모가 큰 거리로 구성된다. 따라서 회정맞이의 ‘맞이’라는 술어는 제당맞이의 경우처럼 ‘맞아들이다’, ‘모셔들이다’의 의미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독립된 굿으로 보아도 좋을 정도로 부속 제차를 고루 갖춘 ‘맞이굿’의 하나이며, 최영을 주신으로 늦은 시간에 마무리로 연행되는 회정굿의 연원을 공유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106)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 250쪽.

IV. 서울 진적곳의 의미

1. 진적곳 구성의 날줄과 씨줄

서울곳은 곳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곳의 목적이 다양한 이유는 곳을 의뢰하는 재가집의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만신은 재가집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곳을 조직한다. 곳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곳거리이다. 때문에 만신은 새로운 곳거리를 추가·축소하거나, 기존의 곳거리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의뢰받은 곳 개별의 목적을 구현한다. 그렇다면 서울 진적곳의 목적은 무엇인가. 진적곳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만신이 자신이 모시는 몸주신과 제신신에 대한 감사와 무업 번창의 기원이 그것이다.

먼저 도표를 통해 서울 진적곳의 구조를 제시한다. 앞서 2장에서 제시했던 서울 진적곳의 자료를 거리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정리하여 제시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구분	재수곳 기본제차	진적곳 특수제차	문덕순 1966. 04.16	이지산 1971. 10.27	이영희 2009. 12.09	김유감 2002. 03.10	권육남 2006. 04.01	강민정 2006. 11.07	이상순 2007. 09.22	강민정 2009. 04.05	이상순 2009. 04.12	강민정 2009. 07.15	최금재 2010. 11.25	이상순 2011. 03.24	노○○ 2011. 10.16	이상순 2011. 11.06	권육남 2013. 04.22	이영희 2013. 11.07
준비		상산돌기	?	?	?	상산돌기	△	상산돌기	상산돌기	상산돌기	상산돌기	상산돌기	상산돌기	상산돌기	상산돌기	X	상산돌기	?
부정곳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가망		가망	진적	가망	청계배웅	가망	가망	가망	가망	가망	가망	청계배웅	가망	가망	가망	가망	가망
	청계배웅		진적	가망		진적	청계배웅	청계배웅	청계배웅	청계배웅	청계배웅	청계배웅	대신말명	청계배웅	진적	진적	청계배웅	진적1
	진적			청계배웅		대신말명	대신말명	진적1	진적	진적1	진적1	진적	가망	진적	청계배웅	대신말명	진적1	대신말명
		대신말명			가망	진적	대신말명	대신말명	대신말명	대신말명	대신말명	진적	대신말명	대신말명		대신말명	진적2	진적2
지역신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천궁불사
	제당맞이		산신도당	제당맞이	산신도당	제당맞이	산신도당	제당맞이	산신도당	제당맞이	산신도당	제당맞이	산신도당	제당맞이	산신도당	제당맞이	산신도당	제당맞이
	산신도당		청계배웅	대신말명		본향	산신도당	산신도당	산신도당	본향	산신도당	산신도당	본향	산신도당	산신도당	본향	본향	본향
	본향		대신말명	본향		본향	본향	본향	본향	산신도당	본향	본향		본향				
인물신(대안주-조상)	관성제군		상산	신장	상산	상산	대안주	관성제군	관성제군	관성제군	관성제군	관성제군	관성제군	관성제군	관성제군	관성제군	관성제군	관성제군
	신장		별상	상산	별상	별상	대감	상산	신장	상산	신장	상산	상산	신장	상산	신장	상산	상산
	별상		대감	별상	신장	신장	조상	별상	상산	별상	상산	별상	별상	상산	별상	상산	별상	별상
	별상		무감서기	대감	몸주신	대감		신장	부인	신장	부인	신장	신장	부인	신장	부인	신장	대신말명
	대감		조상		대신말명	조상		대감	별상	대감	별상	대감	대감	대감	별상	대감	별상	대감

		조상			대감			조상	대감	무감서기	대감1	무감서기	몸주놀이	대감1	몸주놀이	대감	몸주놀이	대감
		몸주놀이			본향			조상	조상	대감2	조상	조상	조상	대신말명	조상	무감서기	대신말명	
		애동기자대신말명			조상					조상				대감2		조상		
														대신말명				
가신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성주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성주		대신말명	성주	성주
																성주		본향
																		조상
창부,계면		애동기자대신말명			대신말명		몸주놀이				대신말명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창부
	계면			몸주놀이	계면	계면	계면	계면	계면	몸주놀이	계면		계면	계면	계면	계면	계면	계면
		몸주놀이								대신말명								
	애동기자대신말명								계면									
배웅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뒷전
		회정맞이			회정맞이	회정맞이	회정맞이	회정맞이	회정맞이	회정맞이	회정맞이	회정맞이	회정맞이	회정맞이	조상			

서울 진적굿이 재수굿을 기본 구조로 활용하여 구성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서울 재수굿은 신의 위계와 굿의 진행에 맞추어 처음, 중간, 끝의 완결된 구조를 이룬다. 먼저 부정을 물리며 굿을 시작하여 지역신과 인물신을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잡귀잡신을 물리는 뒷전으로 굿을 마치는 것이다.

여기에 진적굿의 목적을 드러내는 특별한 제차가 추가되었다. 진적굿에만 있는 특수한 제차는 색상을 두어 표시했다. 만신의 굿이므로 감사와 기원의 대상이 되는 신격은 무조신과 몸주신이 중심이 된다. 상산돌기, 청계배웅거리, 대신말명거리, 제당맞이, 몸주놀이,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 회정맞이 등이 그것이다. 상산돌기와 청계배웅은 내림굿의 일부로, 서울 무속의 근원을 순례하고 그 과정에서 깃든 허주를 벗기기 과정을 의미한다. 진적굿은 만신이 무업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어서 내림굿을 요약적으로 재연하므로 상산돌기와 청계배웅을 그대로 유지한다. 내림굿의 결과로 만신은 몸주신과 서울굿 전반의 제신으로 모시게 된다. 몸주신은 진적굿과 내림굿의 핵심 신격이므로 이를 모시는 대신말명거리와 몸주놀이거리는 거듭 반복하여 연행한다. 모시는 신격이 서울굿 전반으로 확장함에 따라 순례의 영역도 확장한다. 그래서 상산에 물고를 받으면서 제당을 돌아오는 제당맞이가 추가되고, 여기에 제당신을 돌려보내는 회정맞이가 추가되어 진적굿의 틀을 이룬다. 기존에 있던 굿거리도 진적굿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한다. 본향거리를 본향거리와 조상거리로 나누어 연행하였다. 조상거리에 혈연으로 맺어

진 가계 외에 무업과 관련하여 맺어진 가계를 새로이 포함시켜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곳의 목적에 맞게 곳거리가 새롭게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존의 서울곳 운영의 원리와 융합하도록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서울곳의 위계와 의미를 고려하여 곳거리를 편성하였다. 부정을 물리고 신을 청배하는 곳의 처음 부분에 상산돌기와 청계배웅, 대신말명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서울곳의 조종이자 핵심 신격인 상산거리를 중심으로 제당맞이와 본향거리는 상산과 영역신의 사이에 배치하고, 조상거리, 몸주놀기와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는 상산과 인물신 사이에 배치하였다. 몸주거리와 대신말명거리는 신격의 유사점을 근거로 광대신과 무조신의 기능을 공유하는 창부거리와 계면거리의 영역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곳의 끝 부분에 청배된 신격을 돌려보내는 회정거리를 배치하였다.

이렇듯 진적곳의 곳거리 구성 과정만을 살펴봐도 곳의 목적에 따라 곳거리를 재조직하는 서울곳의 구성원리를 확인할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

먼저 진적곳의 제차 구조의 세부적인 사항을 먼저 서술한다. 진적곳을 올리기 전 준비 과정으로 상산을 돌아 물고를 받는다. 이는 곳 연행 이전에 행해져서 조사가 어렵고, 곳의 실상을 소개하는 자료에서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자료1과 자료2, 자료3, 자료16은 상산물고받기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어?로 기재하였다. 자료5는 당일 제차의 구성과 자료15의 조사를 통해 상산돌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으로 기재하였다. 자료14는 이상순 만신이 개인 사정으로 상산돌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X로 기재하였다. 상산을 돌지 않아, 자료14에서는 이상순의 다른 진적곳과는 달리 청계배웅과 제당맞이, 회정맞이를 하지 않았다.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가 세트를 구성하여 운영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곳의 초반 가망청배 뒤에 청계배웅거리와 대신말명거리가 삽입되었다. 청계배웅이 없는 자료는 자료3, 자료14, 자료16이다. 자료14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당주무당의 개인 사정으로 상산물고를 생략하면서 청계배웅도 함께 생략된 경우이다. 자료3과 자료16은 모두 이영희 만신의 곳이다. 이영희 만신은 청계배웅, 회정맞이, 제당맞이의 제차를 연행하지 않았으며, 다른 곳거리의 운영에서도 다소 흐트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청계배웅거리는 연행에 있어 당주무당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연행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상산돌기를 하는 과정에서 따라든 청계를 벗기는 것이 제차의 목적이다. 때문에 상산돌기의 주체인 당주무당은 연행에 객체로 참여한다.

대신말명거리는 16개의 모든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실상 진적곳에서 가장 중요한 제차이기도 하다. 여러 번에 거쳐 반복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반부에는 당주무당이 맡고, 후반부에는 애동기자가 맡아 논다. 애동기자가 대신말명거리를 연행할 때에는 여러명이 번갈아가면서 놀아서 다섯 차례나 진행되기도 하였다. 자료2는 예외적으로 대신말명거리가 제당맞이와 본향거리 사이에 위치한다.

천궁불사와 산신도당 사이에 제당맞이가 삽입되었다. 제당맞이거리는 마지막에 회정맞이와 짝을 이루어 연행되었다. 회정맞이는 제당신을 돌려보내는 배웅의 의미를 갖는

다. 자료2는 제당맞이를 연행하였지만 회정맞이는 연행하지 않았다. 이날 굿은 진적굿이 진오기굿을 덧붙여 연행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료1은 삼일치성을 일종의 배웅거리로 설정되었다.

상산물고받기와 대신말명거리는 반드시 당주무당이 연행하였다. 몸주신은 보통 대신말명거리에 포함시켜서 모신다. 그런데 자료3, 자료9, 자료11, 자료13, 자료15에서는 따로 거리를 추가해서 거듭 연행하였다. 자료9을 제외하고는 당주무당이 직접 연행하였다. 자료11, 자료13, 자료15는 모두 당주무당이 문서가 깊지 않아 여러 거리를 맡을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때문에 몸주놀이 제차를 따로 두어 당주무당의 신명을 풀 수 있게 하였다. 자료3은 자료16과 견주어 비교했을 때 연행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보인다. 이영희 만신은 진적굿에서 대신말명거리를 거듭해서 연행하는 특징이 있다. 무업으로 이끈 신어머니가 생전에 만신이었던 친어머니이시고, 친아버지도 전악으로 무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몸주놀이와 대신말명거리를 각별하게 연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8은 몸주신 중 작두신령을 따로 떼어 모셨다. 과거 이북굿으로 무업을 시작하면서 모셨지만, 작두신령은 서울굿에서 모셔지는 신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무당을 통해 모셔졌다.

조상거리도 대부분의 경우 당주무당이 연행하였다. 자료2는 진오귀굿이 덧붙여서 조상거리가 생략되었다. 연행자가 드러난 경우 자료4와 자료13은 예외적이다. 자료4는 이날 당주인 김유감 만신의 노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굿을 한 거리만 맡아서 연행했다. 자료13은 당주가 애동기자라 굿을 진행할 능력도 부족하고, 당일 진오귀굿을 덧붙여야 했기 때문에 굿을 빠르게 진행하다보니 조상거리가 누락되어 뒷전이 끝난 뒤에 간단히 돌아왔다. 조상거리는 모두 당주무당이 맡아서 연행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조상의 내력은 재가집이기도 한 당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조상 중 대신말명도 있어 진적굿에서의 의미가 각별하기 때문으로 추정 가능하다.

천궁불사거리도 당주무당이 직접 연행하는 경향이 짙다. 연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부분에서 당주무당이 직접 연행하였다. 자료2와 자료4, 자료13은 당주무당이 대신말명거리(몸주놀이) 외에는 연행하지 않았고, 자료3은 조사자가 제시하지 않아 연행자를 확인할 수 없다. 이를 제외하고 연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에서 천궁불사거리를 당주가 직접 연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궁불사거리는 다른 서울굿에서도 대개 당주가 맡는 경향이 강하다. 본격적인 굿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주로의 책임감을 갖고 연행하며, 이 과정을 통해 청송만신에게 재가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11, 13, 15는 당주가 신이 내린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굿을 혼자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라 신어머니의 도움으로 굿이 꾸러졌다. 이 경우라 할지라도 상산물고받기, 대신말명, 몸주놀이는 반드시 당주 본인이 연행했다. 또, 청계배웅은 반드시 당주 본인이 연행의 객체로 참여한다. 자료13 노씨기자보다 사정이 조금 나은 자료11과 자료15의 경우 당주가 조상거리와 천궁불사거리를 추가 연행했다. 그 외 기량과 체력을 갖추어 당주무당이 굿을 적극적으로 연행하는 경우 대안주거리를 직접 연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대안주 중에서도 상산거리의 참여가 높다. 서울굿에서 상산이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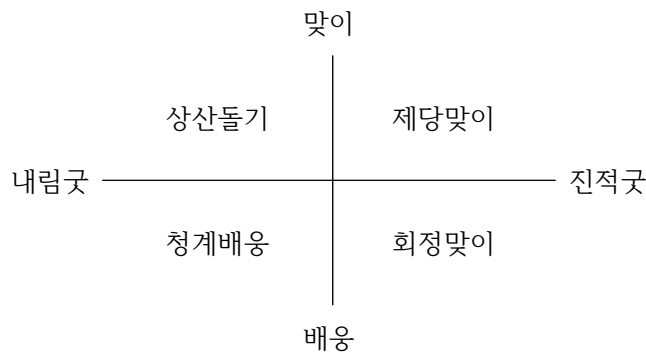
는 위상이 각별하고, 대안주거리를 전안의 수호신을 모시는 거리라 하여 전안거양이라 부른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진적곳을 올리는 당주무당의 제차 참여도는 상산돌기·대신말명·청계배웅 > 몸주놀이 > 조상·천궁불사 > 대안주(상산)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당주무당이 진적곳의 핵심 제차를 직접 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적곳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는 일련의 제차는 날줄과 씨줄을 이루며 구성된다.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와 대신말명거리가 그것이다. 이들 곳거리는 일반 재가집의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만신의 곳에서만 보이는 고유한 구성이다.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는 곳의 처음부터 끝을 관통하는 날줄이 되고, 대신말명거리와 몸주놀기는 곳의 중간에 거둬 삽입되어 씨줄의 역할을 해낸다.

1) 날줄 :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라는 네 개의 곳거리는 진적곳의 날줄이 되어 곳의 처음부터 끝을 관통한다. 이들 곳거리가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내림곳을 하기 전에 만신은 만신의 조종인 상산을 돌아 물고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주이자 광대신인 청계가 따라 든다. 그래서 청계를 돌려보내는 청계배웅거리가 덧붙는다. 따라서 내림곳은 상산돌기-청계배웅의 세트로 구성된다.

그런데 진적곳은 내림곳을 재연하는 한편, 내림곳의 결과를 반영하여 곳거리를 확장한다. 상산을 도는 여정에 무당의 기원이자 성소(聖所)가 되는 제당(祭堂)을 두루 순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산돌기에 제당맞이가 추가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곳판에 모셔진 제당신을 돌려보내는 회정맞이(배웅거리)가 덧붙는다. 따라서 진적곳은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라는 세트로 구성된다.



상산, 청계, 제당, 회정신격은 모두 공간과 관련된 신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대의 산신신앙에 뿌리를 둔 성소에 대한 신앙이다. 상산은 무조신 최영을 의미함과 동시에 개성 덕물산을 의미한다. 상산돌기는 개성 덕물산을 순례하는 행위이다. 제당이 의미하는 당(堂)은 앞서 III장에서 서술했듯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자연신이 거주하

는 작계는 무당이 몸주신을 모시는 전안을 의미한다. 넓게는 서울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서낭당과, 양화도 금성당·왕십리 수풀당·선바위 국사당 등 각지에 위치한 굿당과 그곳의 주신(主神)으로 모셔진 신격을 함께 의미한다. 한편, 산과 바다, 고개와 강처럼 자연의 영역신이 거처하는 성스러운 공간도 제당신에 포함된다. 덕물산 최영장군당은 이 두 개의 관념이 융합된 명확한 예가 된다. 덕물산에 대한 산신신앙과 최영장군당이라는 제당신앙이 일체를 이룬다.

제당맞이와 회정맞이가 상산신앙을 근간으로 확장된 신격이라는 점은 무가의 사설 구성에서도 알 수 있다. 제당맞이와 회정맞이에서 신격을 청배할 때는 개성 덕물산을 필두로 국내의 주요 명산과 굿당을 지목한다. 높은 신격에서 낮은 신격의 순서로 연행하는 굿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당맞이의 으뜸이 되는 신격은 상산임이 잘 드러난다. 무속신앙의 성소 중에서도 ‘굿당’을 중심으로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상산과 함께 상산에 위치한 윗당과 아랫당을 구체적으로 호명했다.

산악은 일찍부터 국가적 숭배의 대상이었다. 일찍이 건국신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왕조의 시조가 산신으로 관념되기도 하였다.¹⁰⁷⁾ 삼국시대부터는 산신신앙을 국가적 의례로 정비하였다. 신라는 국가제사를 중국 고례의 편제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변형하여 삼산오악 및 명산대천을 중심으로 산천에 대한 국가적 신앙을 마련했다. 수도와 주변의 삼산은 대사로 지정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대·중·소사에 잡사라는 항목을 더했다. 특히 산천에 작위와 작호를 수여하는 봉작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봉작을 통해 산신이 차츰 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상산신앙이 최영신앙과 결합한 것도 여기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무당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천에 제사를 올리는 국행의례가 성행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도읍인 개성에 위치한 송악 일대 산천이 놓였다. 유교를 전면으로 표방한 조선 시대에는 무속이 중심이 되는 산천제를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속의 산천제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송악산으로 송악산 총사 중에 하나가 덕물산(덕적산)의 덕적당이다.¹⁰⁸⁾

조선의 거센 탄압에도 불구하고 덕물산을 비롯한 송악 일대의 산천에 의례를 올리는 행위는 성행했다. 무당이라는 표현도 이때 유래되었다. 본래는 무업이 이루어지는 신당을 의미했지만 신당의 주체인 무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다.

진적굿의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 무가에 전하는 장소는 조선말 산기도 받기에 제장으로 등장한다.¹⁰⁹⁾

1866년 병인이월 온산송악별기도 받기 : 장당, 승당, 감악산, 세도령, 동도신사, 월정(月井), 개성(開成), 대국(大國), 박사다, 빛산(德物山), 호녕, 팔당, 봉국사, 중앙신사 송악당, 제성각

1889년 기축오월 산례단(山禮緞)쓰온받기 : 고양(高揚)반장, 임진(臨津), 장단, 감행당, 월정

107) 김열규, 「산신 신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08) 최종성,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일지사, 2002, 94-95쪽.

109) 같은 책, 151쪽.

당, 대행당, 승당, 정당, 한우물(大井), 셋우물, 대국(大國), 비각(碑閣)

1889년 기축오월 송악덕물예단발기 : 임진, 사궁, 장단고개, 송악, 덕물

이들 제장의 위치는 서울과 개성을 오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제장으로 등장하는 명칭은 진적곳의 무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어 주목할 만하다.

안산챙겨 빛산챙겨 그염으로 상산챙겨 윗당챙겨 아랫당챙겨
한우물챙겨 셋우물챙겨 수양반장 전혈챙겨 말오리는 서낭챙겨 놓고나서

위의 인용문은 진적곳의 청계배웅거리 중 만수받이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무가에 등장하는 제장과 발기문에 등장하는 제장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가는 긴 세월을 거친 구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원뜻을 추정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다. 예컨대 서울곳에서 부정거리 등의 거리에서 관용구처럼 등장하는 ‘안산은 여덟이요 빛산(밖산)은 열 셋이라’라는 무가 구절은 고려의 수도 개성을 기준으로 송악은 안산이고, 덕물산은 밖산인데, 이들 중 송악산에 위치했다고 알려져 있는 8개의 제장(팔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적곳 뿐 아니라 부정거리와 산신도당거리 등 서울곳 무가에 익숙하게 등장하는 한우물(大井), 셋우물, 임진 등의 지명도 모두 이들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개성 대정은 고려 태조의 조부 작제건과 혼인한 용녀가 뾰다는 샘이다. 말오리는 상산 덕물산을 오르는 사람이 말에서 타고 내리던 곳에 있는 마을로 한자로는 마월동(馬越洞)이라 한다. 무당에게 상산신앙은 각별한 것이라 덕물산 정상에 최영장군당 뿐 아니라 산 아래 마을의 서낭도 참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궁중 발기에서도 덕물산으로 산기도를 갈 때 중간 중간에 들러 별도의 치성을 올리던 성소로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윗당과 아랫당은 덕물산 장군당의 구조를 반영한 사설이다. 이렇듯 상산돌기의 개념은 고려조에서부터 이루어진 덕물산을 중심으로 무속의 성소(聖所)를 두루 순례하는 행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연우¹¹⁰⁾는 덕물산으로의 순례의 과정이 태초의 시간과 공간으로 회귀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그 상징적인 의미를 서술한 바 있다.

국행의례와 관련한 상산신앙의 연원에 대한 논의를 종합한다. 상산신앙, 즉 상산 덕물산과 최영신앙의 내력을 이들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산신신앙은 고대로부터 비롯된 인류 보편의 신앙이다.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의례로 정비되고 이 과정에서 봉작을 통한 인격화가 이루어졌다. 서울 무속에서 덕물산 신앙이 최영 신앙과 혼용되는 것은 여기서 기인한 부분도 있다. 이후 조선 왕실의 나랏무당을 통해 민간에까지 유행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지금도 나랏무당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서울곳 무당의 흔적을 찾

110) 그의 연구(신연우, 「시조와 서울 곳 노랫가락의 관계」, 『동방학지』 제132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235쪽.)는 비록 상산돌기와 제당맞이 과정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디 노랫가락에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사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진오기곳의 성격과 관련한 논의라 진적곳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순례의 성소를 발기문과 관련하여 비교하였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을 수 있다. 산신신앙이라는 인류 보편의 신앙이 일찍이 신라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의례화되었다면, 진적곳의 상산돌기는 무당의 개인적 차원에서 의례화한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덕물산은 송악과 더불어 고려조 이래 무속의 탄압이 극렬했던 조선조를 거치면서도 명맥을 유지한 산신신앙의 중심지이다. 덕물산과 제당을 돌아오는 진적곳의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 과정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근원 신앙의 현재적 계승이기도 하고, 국가제례를 주도했던 나랏만신의 자부심의 계승이기도 하다

상산신앙은 산신신앙이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다. 최영신앙도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산신신앙만이 핵심이라면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의 제차 구성이 갖는 의미는 산신도당거리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앞서 서술했듯 국가의 주도로 봉작이 진행되면서 호국신앙의 면모를 내세울 수 있는 충신들과 결합되는 양상이 짙다. 이들 중 최영은 역울한 죽음을 당한 상층의 실존 인물을 숭앙하는 서울곳의 신관에 맞물리면서 특히 부각되었다.¹¹¹⁾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만으로 최영 신앙의 근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모든 죽음은 비극적이며, 잡귀잡신으로 여겨지는 말명이나 영산도 죽음의 모습으로 청배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들의 죽음과는 달리 최영의 죽음에는 나라를 위한 충정과 믿었던 사람의 배신 등과 같은 숭고함이 있다. 일차적으로 고려의 충신이자 명장이었던 역사적 인물로서의 최영이 가졌던 비범한 능력이 숭앙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전설적 인물로서의 최영이 갖는 신이한 능력이 그 대상이 된다. 최영에 대한 인식은 전설에서도 드러난다. 최영장군의 역울함을 증명하듯 무덤에 풀이 나지 않는다 라든가, 딸이 재를 뿌려 최영의 목이 붙지 않아 죽었다는 내용이 대표적¹¹²⁾이다. 모두 최영의 비극적 죽음과 신이한 능력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영이 탄생했다는 흥성에서도 최영의 사당이 있고, 생전에 활약했던 삼남 지방에도 사당이 남아 있다. 시신이 묻힌 고양에도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실제 최영의 무덤은 고양이지만 최영 신앙의 성지는 머리가 문혔다고 관념하는 덕물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죽음을 맞이한 육신과 신이한 능력의 집약체로 머리를 대안주에 모셔지는 다른 신격들도 비극적인 죽음의 색채를 공유한다. 관우 역시 참수를 당해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묻어졌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 두 곳과 출생지까지 모두 세 곳에 관묘(관림)를 두고 관우신앙의 성지로 여긴다. 장군거리에서 평산 신장군으로 모셔지는 신승경도 고려를 지키기 위해 참수를 불사하였다. 평산 신씨인 후손 신립장군도 자결을 불사한 호국영웅으로 여

111) 최길성은 최영의 몰락은 믿었던 이의 배신으로 인해 빚어졌고, 그 결과 고려라는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하며 최영의 죽음이 갖는 비극성에 주목하였다.(최길성, 「한의 상징적 의미- 최영장군의 죽음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집, 비교민속학회, 1989. 45-46쪽) 역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인물을 신으로 모셔주지 않으면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혼이기 때문에 신격화하여 모신다는 존재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이용범은 최영은 영웅신으로 같은 인물신이라 할지라도 잡귀잡신으로 대표되는 원혼과의 차별되며, 반대로 김유신처럼 성공한 장군 신도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근거로 비극적이고 역울한 죽음 자체가 신격화의 원인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비극적이고 역울한 죽음으로 판단하는 당시 민중의식을 주목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이용범, 앞의 논문)

112) 『한국구비문학대계』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887쪽.

려 전설에서 신성시되는 인물이다. 영혼과 육신을 나누어 죽음을 이해하고, 사당과 무덤이라는 이묘를 두었던 죽음을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 같은 신앙의 바탕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특별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생몰지를 기린다. 그러나 한편, ‘머리’라는 모티프로 대표되는 비범성은 죽지 않는 신의 영험함으로 남아 신앙의 대상으로 기려지는 셈이다. 모두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비극성을 인간에서 신으로 거듭난 특별한 인물 최영의 더욱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 또한 최영이나, 신승겸에게 공감하는 민중의 고려계승 의식과, 수도인 개성을 호위하는 외산(四山)으로 기능했던 덕물산을 신앙의 중심에 둔 것에서 서울곳의 연원이 최소한 조선 건국 이전의 고려왕조대로 소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범함의 요체로 덕물산과 결합하여 산신신앙으로 굳어진 상산신앙은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로 계승된다. 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장군신으로서의 최영신앙은 대안주 중 상산거리로 계승되어 두 개의 신앙의 구성한다.

청계배웅거리 역시 상산돌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청계의 신격에 대해 자세히 살핀다. 『조선무속의 연구』에서는 이를 다음의 몇 가지 특성으로 설명한다.

1. 무속의 신격 중 생로병사 등에 관한 귀신 : 정신병귀는 청계라고 말하며, 그것도 특별히 안산과 빛산의 청계와 1년 열두 달의 횡수청계 등이 있다. (107쪽)
2. 무속의 신격 중 타계령 : 창부는 남성의 죽은 영혼이지만, 특히 광대의 망령이며, 정신병귀 청계는 이 죽은 영혼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창부에게도 갖가지 다른 종류가 있는데, 덕물산의 장군당에 속하는 광대의 정령은 특히 상산 청계라고 불리며 존경받고 있다. (110쪽)
3. 정신병마는 청계라 칭하고 이것을 쫓는 행사를 청계벗김(경성) 등으로 부르고 있다. 대부분은 보통 곳 도중에 무녀가 신칼 신창으로 환부를 자르거나 찌르는 등의 거동을 하는데 맹렬한 기세로 병마의 퇴산을 명하고 환자를 향해 병마가 두려워하는 조밥을 던지는 일이 필요하다. (중략) 병마에 대한 무녀의 행사는 상당히 푸닥거리적이다. (중략) 이들은 신들을 맞이하고 액을 막고 신을 노닐게 하는 제인데 비해, 병마에 관한 무제는 주로 보내기 쫓기 잡기 쫓아내는 행사이며 그것은 악귀 객귀 잡귀로 칭하는 부정을 쫓아내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173, 175-176쪽)

정리해보면 청계는 두 가지의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다. 광대가 죽은 영혼이며 성별은 주로 남성이고, 정신병과 같은 착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퇴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창부와 유사한 신격이기도 하며, 특히 덕물산에 최영장군당에 있는 청계는 특별히 높은 지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청계 신격의 이 같은 복합성은 진적곳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어야 이해가 가능하다.

일반 재가집 곳에도 ‘청계벗기기’라 하여 청계배웅과 유사한 제차가 있어 비교를 요한다. 곳을 의뢰하는 재가집 가족에게 우환이 있을 때나, 새남곳 안당사경치기 중 신장거리 중간에 연행한다. 신장거리와 청계배웅은 무복이 쾌자이고, 오방신기가 무구로 쓰인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무당내력』의 1권 8번째 거리, 2권 12거리에 나오는 <축귀>거리에는 ‘오방신장이 잡귀잡신과 제반 살격(殺格)을 구축하는데 근일에 병치성에서 많이 행한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 오늘날 개인굿에서 이루어지는 청계벗기기와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홍태한은 비록 청계 신격의 특수성을 간과하기는 하였지만, ‘청귀벗기기’라 하여 무당내력의 축귀를 연관하여 신장거리를 논의한 바 있다¹¹³⁾.

그러나 진적굿과 같은 신굿의 청계배웅과 일반굿에서의 청계벗기기의 성격이 같으면 서로 다르다. 우선 공통점을 먼저 살펴본다. 진적굿의 청계배웅거리에도 청계벗기기라고 할 만한 제차가 존재한다. 청계‘벗기기’라는 명칭은 제차의 목적과 형상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굿에서 ‘벗기다’라는 서술어는 ‘물리다’, ‘제치다’와 함께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목적에서 사용된다. ‘주당을 물린다’, ‘부정을 물리다’ ‘요물을 찢히다’가 그 예이다. 이들은 의례에서 공수 외에 주술적 동작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소지를 태운다거나, 신장기를 두른다거나, 물을 끼얹는 등의 행위가 그것이다.

진적굿의 청계배웅에서도 청계벗기기에 해당하는 소제차가 있어 상세한 비교가 가능하다. A는 이상순 만신의 『서울 새남굿 신가집』에 소개된 청계벗기기의 연행 모습이고, B는 2009년 7월 15일 강민정 진적굿에서 이상순이 연행한 청계배웅거리 중 1.3. 청계벗기기 부분이다.

A. 새남굿 신가집 중 청계벗기기

(신장기 들고 제가덥 문 앞에 앉은 다음 오방기를 두 손에 갈라잡고 신장을 부릅니다.)

오방신장 육갑신장이야
 팔만신장 황금열사 거마신장 의술신장이야
 동에는 청제신장 남에는 홍제신장
 서에는 백제신장 북에는 흑제신장 중앙에는 황제신장이야
 각 절에 백사위 신중신장이야 도당신장 산신신장이야

(신장기를 제가덥 머리에 얹어 놓은 후 상간대 상의런 덮고 복어와 갖은 예방을 엮고 조밥이나 오곡잡곡 볶은 것을 뿌립니다)

챙겨야 챙겨야
 상산챙겨 본향챙겨 산챙겨야 들챙겨야
 조상챙겨 상문챙겨 잡귀잡신 챙겨야
 영산챙겨 따라들고 문어든 챙겨야
해 묵고 철 묵은 상문챙겨야
몸수에 끓이고 재수에 하리 놓던 상문챙겨야
 대수대명이야 인사냥 천식물 다 제치고 사백사병을 다 제쳐 주소사

113) 홍태한, 「사회 문화 변동의 무속의 대응」, 『서울굿의 다층성과 다양성』, 민속원, 2012, 67쪽.

챙겨야 챙겨야

(팔뚝 뜯어서 던지고, 밥 나물 산자 던지고, 술을 뿌리고, 월도창검으로 돌려주고, 갓은 예방을 던지고 북어를 던집니다. 북어머리가 밖으로 향하면 칼 던지고, 칼 끝이 밖으로 나가면 소금 뿌리고, 소지 종이 불 붙여 둘러서 태우고, 찬물을 입에 머금어 뿌립니다. 제가뎡은 먼저 안으로 들어와서 굿상에 절하게 한 다음에, 신장님 뒤를 따라 오방기를 들고 신장기 돌려주고 당으로 춤을 춘 후에 신장기 뽑게 하고 공수 줍니다.)¹¹⁴⁾

[신장공수]

어허허허

오방신장 육갑신장 동갑신장 팔만신장 아니시라(중략)

각 절에는 백 사위 신중신장에서 망재 천도하고

잡귀잡신 다 제쳐 주시고 관재귀설 삼재팔난 손재식물 다 제치고

사백사병을 다 제쳐 주시마

천살 인살 청파살 폐가살 망신살 (중략) 다 제쳐주고

사재진 삼성진 (중략) 잡귀잡신을 다 제쳐 주시고 재수 열어주시마

B. 진적굿 청계배웅 중 청계벗기기

(청괘자 자락을 뒤로 묶고, 강씨기자와 김씨대주를 앉히고 행주치마 씌워놓고 조밭을 양쪽으로 끼엿는다. 떡 밥 나물 술 북어 던지고 소지종이를 불사르고 물을 뿜어 청계를 벗긴다)

어수나 어수나

사외로 삼당챙겨 국내제당챙겨 그염상산챙겨 말오리 서낭챙겨

상짐은 채롱에 마다리 머다리에¹¹⁵⁾

금잔디 들여밧고 은잔디 내밧아서

임진강 대동수에 세월이 분분해서 신산은 못갔지만 반산을 돌아다가

햇밀맞이는 햇밀천신 사과진상을 받으시고

챙겨당에서 재수열어 도와주고 사망챙겨 도와주고

따라온 챙겨야 물어온 챙겨야

상산 챙겨야 말오리 서낭챙겨 그염은 상산챙겨

오늘 인꼬리 징꼬리 삼당을 돌고 국내제당을 돌아다

회정맞이 진적 정성 이렇게 대우하니 즐거라 받으시고 좋아라 받으시고

상덕물고 도와주고 어수나 어수나

사망이야

114) 이상순, 앞의 책, 101쪽.

115) 무구와 제물을 채비하는 모습은 '마다리 머다리 인꼬리 징꼬리 상짐은 채롱에'라는 구절은 무구와 제물을 채비하여 상산도는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다. 최영장군은 성계육이라 하여 돼지를 제물로 받는다 하여 돼지를 걸려서 함께 산에 올랐다는 기록도 전한다.

A와 B 모두 공수와 함께 청계를 ‘벗겨내는 행위’가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키바가 ‘푸닥거리적’이라고 표현한 행위이다. 대개의 경우 공수는 재가집을 마주보고 선 채 이루어진다. 청계벗기기의 공수는 단독으로 내려지지 않고 괄호 안에 표기된 비방을 수행하면서 동시 진행한다. 재가집도 밖을 향해 앉고 연행하는 무당도 밖을 향해 서서 굿을 진행한다. 안으로 들이지 않고 밖으로 내쫓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 청계를 벗기는 내내 당약장단과 휘몰이 장단이 반주로 울린다. 당약장단은 강신의 상태를 청각적으로 알린다. 휘몰이 장단은 수비치기와 같이 부정을 물리거나, 굿을 마무리 지을 때 사용하는 장단이다. 공수는 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청계는 부정의 기운을 가진 낮은 신격이기 때문에 청계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치는 주술적 행위가 더 중요하다. 때문에 공수를 전하는 것보다 무구와 기명을 사용한 의례적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양상은 부정거리나 뒷전 수비치기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삼색나물이나 떡, 밥을 조금씩 떼어서 던지는 것은 하위 신격이라도 약소하게나마 대접해서 보내기 위함이다. 조밥이나 복어는 일반적인 음식의 범주를 넘어서 부정을 물리치는 주술적 기능을 겸한다. 부정거리나 뒷전에서 하위신이자 부정의 존재인 상문을 젖힐 ‘양귀비 조밥에 원산말뚝’이라는 사설이 등장하는데 이때 말뚝이 곧 복어를 일컫는 이복 방언이다. 만신의 조종을 덕물산으로 관념하듯 서울굿과 이복굿의 근원이 일정 부분 달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리의 구성에서 진적굿의 청계배웅과 일반굿의 청계벗기기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 진적굿의 청계배웅은 청계벗기기를 포함한 하나의 독립된 제차로 존재한다. 청계거리를 중심으로 청계대감과 뒷전에 해당하는 청계걸립, 청계서낭, 청계영산, 청계수비 등의 절차를 고루 갖는다. 연행방식도 만수받이와 굿거리장단, 당약, 타령이 고루 쓰였다.

연행 순서도 서로 다르다. 진적굿에서의 청계배웅은 굿의 초반부에 가망청배 후 진적을 올리기 전에 연행된다. 청계벗기기는 굿의 후반부인 신장거리의 일부로 치러진다. 때문에 굿을 주도하는 신격은 신장이다. 청계를 벗길 때도 신장기를 무구로 사용한다. 그러나 진적굿의 청계거리는 청계가 주체가 되어 진행된다.

무엇보다 공수의 내용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밑줄 친 부분은 공수 중 행위를 서술하는 구절이다.

일반굿의 청계벗기기와 진적굿의 청계배웅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표현은 ‘따라들다’, ‘묻어들다’이다. 모두 청계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청계는 뜻하지 않게 동반되어 등장하는 부정적인 신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굿에서는 청계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압도적이다. ‘제쳐주다’라는 술어가 거듭 등장했다. 청계는 휘방을 놓는 존재로 서술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야(제쳐야) 하는 대상이다. 신장기를 머리에 씌우고 청계를 제쳐주는 주체는 신장으로 나타난다. 청계벗기기를 하는 이유도 위의 서술어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무신(武神) 신장의 위세로 청계를 제쳐서, 궁극적으로 망자를 천도하고 재수를 열기 위함이다. 그러나 진적굿의 청계신은 퇴치의 대상이 아니라 모셔지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갖는다. 청계신은 굿을 올리는 ‘정성을 받아’ ‘도와주는’ 존재이다.

절차와 규모의 차이는 일반굿과 진적굿에서의 청계신의 의미가 다른 것에서 연유한다. 재수굿의 청계는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잡신’으로 관념한다. 그러나 진적굿의 청계는 악사의 신격인 창부와 유사하며, 상산신앙과 관련한 신격이기 때문에 선신으로 관념하는 것이다. 청계배웅거리의 공수에는 상산과 제당을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되어 상세히 서술되고 있다. 진적굿의 청계는 상산 신앙과 관련된 신격이므로 하위 신격이지만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관념이 자리한다.

특별히 측당에는 중앙에 신방울을 걸어 놓았고, 정면에 장군의 병졸 화상 여섯 장이 걸려 있으며, 그 사이에 주홍색을 칠한 목조 탈 4개와 곤을 몇 개가 배치되어 있다. 탈은 목광대로 칭해지며, 당은 창부당 혹은 청계당으로 불리고 있다. 광대와 창부도 모두 가무가 뛰어난 사람이며, 무녀의 남편으로 무악을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광의의 무巫에 속하며, 가무歌舞 그 자체는 실제로 청계로 칭하는 정신병마가 달라붙은 자가 행하는 것으로 신앙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들의 명칭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측당側堂이 부정한 귀신의 주가主家이며, 본당이 깨끗한 신령이 있는 것에서 조선 무속의 이면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⁶⁾

덕물산 최영장군당에 위치한 청계당의 묘사이다. 청계당은 창부당으로도 불리고, 광대탈이 신체(神體) 중 하나로 모셔진다. 청계는 따라서 가무에 능한 광대의 낮이기도 하며, 특히 무당이 죽은 영혼인 창부와 무당의 남편의 죽은 영혼과도 관련이 있어 광의의 무(巫)에 속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는 정신병을 유발하는 퇴치의 대상으로만 의미가 있지만, 무당에게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각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계의 정체가 무당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청계가 유발한다는 정신병 또한 무당으로 입문하기 전 겪는 신병, 혹은 허주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아키바는 경성의 입문굿을 부정한 허주를 막고 청정한 신령을 맞아들여 몸주로 삼는 행사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청계배웅은 허주굿의 축소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진적굿에서 청계배웅은 퇴치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인 면모를 갖는다. 청계배웅은 진적굿에서 1차적으로는 굿의 초반에서 부정함을 몰아내고 제장을 거듭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2차적으로는 무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라는 특징을 갖는다. 첫째, 청계신격이 상산돌기라는 순례의 과정에서 파생하며, 죽은 무당의 낮이자 광대신이라 자신과 근원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둘째 내림굿의 핵심인 허주굿을 집약적으로 재연하여 무업의 출발점을 되돌이켜 보게 한다. 때문에 청계배웅은 서울 진적굿에서 각별한 의의를 갖는 제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상산돌기의 전통은 단절된 것일지도 모른다. 어쩔 수 없이 인왕산으로 이전한 국사당을 다녀오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국사당은 본래 목멱산(남산)에 위치했지만, 일제 때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물고를 받는 행위도 이곳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온전한 상산돌기를 할 수 없는 오늘날의 서

116)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하), 205-206쪽.

울긋은 불완전한 의례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는 제차가 제당맞이와 회정맞이이다.

어구짜

①그염은 상산에서 오셨구나 개성은 덕물산에서 오시고

②수영반장에서 오시고 양화도 금성에서도 오셨네.

검은산 둘러치고 백두산 옆에 끼고 임진강 대동수에

세월이 분분해서 신의 신산은 못갔지만

③선바위 국사당에 반산을 들어다가 이 정성을 대우하니

금잔디 들어받고 은잔디 내밧고

④선산(先山)에 감발하여 숙양숙배(肅禳肅拜) 들어다가 경상도 태백산을 들어

이 정성을 대우했으니

위의 인용문은 제당맞이의 공수 중 일부이다. 제당맞이에서 지목하고 있는 제당은 4개의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①은 성소의 중심이 되는 상산이다. ②는 제당맞이의 고유한 여정이 되는 성소이다. ③은 상산을 대신하여 물고를 받을 수 있는 선바위 국사당을 지목하였다. ④는 당주만신의 고향에 있는 명산이다. ①과 ②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상산을 중심으로 한 상산돌기와 제당맞이의 고유의 여정이다. 그러나 이곳들은 분단으로 말미암아 실제 갈 수 없다. 이때 ③과 ④에 제시된 성소가 유의미하다. ③과 ④는 실제 만신이 진적곳을 하기 전에 순례를 다녀온 성소이다. ③은 상산을 대신하는 곳이고, ④는 만신의 개인적인 본향이 되는 공간이어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당위의 여정과 실제의 여정을 합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성소 순례를 통한 영력의 강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일찍이 아카마쓰는 무속의 성소(聖所)를 분류하여 설명한 바 있다.

대체로 무당(巫堂)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무가(巫家) 내에 있는 것이며 신당(神堂)으로 통칭된다. (중략) 그러나 모든 무(巫)가 반드시 이러한 신당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가난한 무와 단골이 적은 무(巫) 혹은 미숙한 선무당과 맹격의 집에는 그것이 없다. 두 번째는 무가(巫家)의 밖에 있고, 항상 굿이 거행되는 특정한 명칭을 지닌 무당(巫堂)이 있으며, 예를 들어 경성부 안팎에 있는 동서남북의 네 서낭당과 칠성당·노인성·성제당·용궁당·아기씨당·할미당·금성당·국사당·일월당·화주당·송신당·두정당·와룡당 등이 그것이다. (중략) 이러한 무당(巫堂)은 물론 현대도 조선의 어느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개성부 부근에 있는 유명한 덕물산 위의 장군당일 것이다.

두 번째로 무(巫)의 의례를 행하는 장소로 자연의 성소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당집과 가실이 아니라, 노천에 있지만 (중략) 그들이 숭배하는 신령이 사는 거주지로서 앞의 무당(巫堂)과 동등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한층 강하게 신성시 되는 장소이다. (중략) 대부분 성스러운 물건을 중심 또는 대상으로 하며 앞의 무당(巫堂)과 함께 무

속의 주요한 성소로 되어 있다. 즉 여러 가지 무제(巫祭)를 행하는 특정한 산천·호수·바다 및 도로·수목 등이 있는 장소가 그곳이다. (중략) 이러한 성소에는 종종 작은 당(堂)이 있는데, 그것이 앞에서 서술한 무당의 제2의 형식과 교체되어 있는 것이다. (중략)¹¹⁷⁾

이상의 인용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무당이라는 호칭은 신당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성소는 신당으로 대표되는데, 때로는 신당이 위치한 자연물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성 덕물산의 최영장군당이 이 같은 신앙의 중심에 있다. 성소의 범주는 신당의 유무와 신성의 범주에 따라 [자연의 성소 - 보편적 신당 - 개인적 신당]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서울 진적곳에서는 이같은 세 가지 범주의 성소를 곳이라는 제의 형태로 고루 신앙한다. 개별적 성소인 신당을 위해 올리는 의례가 진적곳이다. 보편적 신당을 위한 신앙 의례는 제당맞이로, 자연 성소의 신앙 의례는 산신도당거리라 할 수 있다. 또 이들을 곳을 연행하기 전 이들 성소를 사전에 순례하는 행위가 바로 상산돌기이다. 제당맞이는 덕물산을 중심으로 자연의 성소와 무속의 제당(諸堂)을 두루 찾으며 확보한 신성을 개별의 신당과 합치하는 과정인 것이다. 진적곳을 통해 곳당의 신성을 강화하는 것은 곳당의 당주인 무당의 영력 강화와 맞닿는다.

제당을 숭배하는 성소 신앙은 두 개의 층위가 있다. 신성한 곳이라 신이 머무르기도 하지만, 신이 머무는 곳이라 신성하기도 하다. 전자는 입지의 신성이 강조되며, 후자는 인물의 신성이 강조된다. 제당맞이에는 두 개의 신앙이 모두 등장한다. 전자는 주로 제당서낭거리, 후자는 주로 제당호구, 제당말명거리에서 찾을 수 있다. 경성에는 사방에 4개의 서낭이 있고, 이곳을 동남서북 순서로 순례하는 것¹¹⁸⁾을 사서낭돌기라 하며, 그곳에서 행하는 무제를 사서낭 풀이라고 칭한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들 4개의 서낭은 서울의 사방이라는 위치한다는 입지 조건이 강조된다.

구엽고 반가시다 왕십리 수풀당에 애기씨 형제호구
두 도련님 서자호구 열네애기 당자호구
진퍼리 살군당에 당마누라 당애기씨
물건너 화주당에 매당왕신 산활호구
사해용신호구 아니시랴 팔도명산에 산신호구 아니시리

위의 인용문은 제당호구거리의 공수 중 일부이다. 특히 왕십리 수풀당과 진퍼리 살군당은 피난을 나왔다 죽은 공주 형제를 모신 당이다. 마을이 질편한 들에 있다 하여 진퍼리로, 당산나무가 살구나무여서 살군당이라 불리웠다. 오늘날 행당동이란 명칭 역시

117)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무속의 신통(神統)과 성소(聖所)」 앞의 책.

118) “동두길지는 되내미 서낭님 / 남두길지는 우수재 서낭님 / 서두길지 무악재고개 사신서낭 북두길지는 삼청동 서낭님과 /고개고개 넘던 서낭 선바위 국사당 서낭님” 등의 제당서낭무가 가 그 예이다.

살구나무가 심어진 아기씨당의 특징에서 유래하였다. 아기씨는 서울곳의 무조신으로도 모셔지는 신격이라 서울곳 무당에게는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럼 상산과, 사외삼당과 국내제당으로 압축되는 이들 굿당이 곧 제당신격이다. 전국 각지의 무속의 성소에 위치한 신당의 총체가 제당신격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제당맞이의 제당은 제당(祭堂)이면서 제당(諸堂)이다. 무속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굿당을 상산 덕물산을 중심으로 두루 참배하여 지금 진적굿이 열리는 이 굿당에 모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산돌기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상산돌기의 과정을 나타낸다.

삼산을 들어다가 사위삼당을 모시고 국내제당을 매고 삼당을 매서 숙설을 재벌하고 이 정성을 대우하니 내 기자 새로 새 명기 주셔서 내가 장안가득 불러주고 세계 가득 불러주마

위의 인용문은 이상순의 진적굿의 본향거리 공수 중 일부이다. 밑줄 친 ‘삼당을 매서 숙설을 재벌하고’ 부분에서 이 같은 점이 잘 드러난다. 문맥을 고려했을 때 숙설(熟設)은 잔치와 같은 큰일이 있을 때에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재벌은 초벌에 이어 두 번째로 하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삼산과 제당을 돌면서 1차로 치성을 드려서 모시고 난 후 2차로 진적굿 제장에 당을 매어 모셔온 신격을 좌정시켜 합일시킨다. 상산을 돌면서 명산대천에 위치한 무속의 중요한 제당을 둘러 신을 모시는 것이 제당맞이의 핵심 과정임이 드러난다. 굿을 올리는 목적은 진적을 올리는 만신의 무업이 성해서 복록을 받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또 진적굿을 통해 이루어진 제당신의 합일은 회정맞이를 통해 다시 돌려보내는 것으로 완결된다.

서울곳의 성지가 되는 굿당을 두루 둘러 참배하는 이들 여정은 무당에게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 신이 깃들인 곳을 뜻하는 굿당이 신을 모시는 사제자인 무당이라는 말의 기원이 되기 때문이다. 무당에게 이들 굿당은 사제자의 근원이 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확보한다. 서울곳에서 장소와 신격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근원을 뜻하는 ‘조종’이라는 말은 장소와 인물 모두를 아우른다. 장소의 측면에서 조종은, 추상적으로는 본향이 되고 구체적으로는 덕물산을 위시한 제당(祭堂)을 가리킨다. 인물의 차원에서 조종은 무조신을 뜻한다. 무조신은 넓게는 상산 최영과 대신말명이지만 좁게는 신어머니과 선대만신을 뜻한다. 제당도 마찬가지로이다. 제당은 성지에 위치한 굿당(장소)을 뜻하면서 동시에 그곳에 좌정한 신격(인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제당맞이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수풀당은 왕십리에 위치한 수풀당이라는 공간과 동시에 그곳에 모셔진 애기씨라는 신격을 의미한다. 애기씨는 서울곳에서 무조 중 하나로 모셔지는 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산돌기-제당맞이의 여정은 만신에게 있어 두 개의 의미를 갖는다. 우선은 무속의 성지를 순례하여 신을 참배하고 오는 행위와 여정이며 나아가 본향을 순례하여 조상을 참배하고 행위와 여정이다. 인간이 맺는 관계 중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것은 가족이다. 조상신은 가족을 기반으로 한 신격이다. 때문에 가장 긴밀하게 밀착된 신이고 위계를 떠나 가장 각별하게 모셔진다. 무당이 되는 것은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 내림굿을 한다고 모두가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림굿은 고통스러운 신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치유의 장치이다. 그러나 무당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선택이다. 자신이 벗어나고 싶었던 고통을 직접 다루는 사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는 평생의 직업이자, 신에게 약속된 삶 자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고되고 천대받았던 길인만큼 그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무당은 자신을 무당의 길로 이끈 선배 무당을 상사나 선생으로 대접하지 않고 어머니로 대한다. 무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무게가 담긴 관계이다. 새로운 삶과 함께 또 하나의 가족이 탄생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해서 본래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서울굿 만신이 강신무라 하더라도 집안에 '신가물이 있는' 조상을 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상산돌기와 제당맞이는 본관이 되는 본향산과 현재 거주지 인근의 산을 함께 돈다. 고대의 산신신앙과 조상신앙이 상산과 제당이라는 공간으로 제시되며, 이 공간은 추상적인 신앙의 공간이자 직접 순례를 돌아 체현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진적굿이 열리는 전안이라는 공간으로 신성이 집약된다. 고된 여정을 통해 영력을 충전하고 만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2) 씨줄 : 대신말명거리 - 몸주놀이 -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가 진적굿의 처음부터 끝을 잇는 직렬의 축이 된다면, 대신말명거리는 병렬의 축이 되어 진적굿을 구성한다. 대신말명은 만신의 무조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신말명이라고도 불린다. 연원은 『무당내력』으로 짐작할 수 있다.

A. 무당내력 작은 책 중 아홉째 거리 : “무녀는 만신으로 불려지는데(혹은 萬身 또는 滿神이라고도 한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다. 대저 이 춤은 무녀의 연원을 말해주는 것이다.

B. 무당내력 큰 책 중 여덟째 거리 : “무녀의 연원일 뿐이다”¹¹⁹⁾

『무당내력』은 두 권 모두 만신말명을 남치마에 노란색 몽두리를 입고 방울을 든 모습으로 무녀의 연원을 알려주는 무조신으로 서술하고 있다. 의대나 기능으로 미루어 만신말명이 대신 혹은 대신할머니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하몽두리는 서울굿에서 대신거리 외에 바리공주 의대로 사용된다. 은하몽두리의 연원은 가장 이른 시기에 채록된 바리공주 무가인 「바리공주 배경재본」¹²⁰⁾에 이미 적시되어 있다.

소녀부모슬하에,호의호식못하얏사오니
 만신(萬身)의인위왕(人爲王)이되겟나이다
 치여다백재일은산이천도하고

119) 서대석 해제, 『무당내력』, 민속원, 2005.

120)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상), 44쪽.

네려다유재일은죽은이천도하고
치여다원증입증수조고리
입단치마,수당해,은아몽두리
절쇠방울,너부나홍씩
신대한림,만신의 몸주(身主)되다

바리공주가 무당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묘사하는 의대는 바리공주의 의대이자 곧 대신의대로 사용된다. 인용한 무가 구절을 통해 무조신과 몸주신이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신타령의 무가에서도 “은하몽두리에 절쇠 방울 신대 부채를 손에다 들고 명기를 주시고 서기를 주시던 내 대신이요”라는 구절이 있어 대신의 기능이 무조신이자 몸주신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방울은 점사에서부터 굿까지 무당이 종사하는 크고 작은 무업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무구이다. 하나의 자루에 12개의 방울이 달려 있는데 이를 열두대신방울이라고도 한다.¹²¹⁾ 또한 점사나 굿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기능을 한다고 관념된다. 그만큼 대신은 비록 신의 위계는 높지 않지만 무당에게 있어 가장 밀착되어 있고 핵심적인 신격이다.

한편 『조선무속고』에서는 말명의 뜻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 이르기를 “시골 무당이 만명신을 숭상하고 받들어, 백성들에게 질병이 있으면 곧 만명신에게 기도했다. 누가 말하기를 ‘만명은 곧 신라 김유신의 어머니인데, 야합해서 서현에게로 달아난 사람’이라 했다. 이를 받드는 자는 반드시 큰 거울로 걸어놓았으며 거울은 반드시 활처럼 흰 모양인데, 이것은 아마 신라 풍속일 것이다. 그러나 그 달아난 여자 귀신 주체에 어찌 천년 동안 힘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이르기를 “김유신의 어머니가 만명신이 되었다 하고, 주에서 말하기를 『동국패설(東國稗說)』에 ‘김유신은 신라 태대서발한이며, 어머니는 만명 또한 신이 되었다. 지금 무녀가 만명이라 주문을 외우면서, 이를 제사하며, 만명을 모시는 신사에는 반드시 구리로 만든 둥근 거울을 걸어놓고 이름하기를 명도라 했다”한다.¹²²⁾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과 명도(명두)를 그의 신체로 말한다. 그러나 서울굿에서 말명의 실질적인 의미는 조상에 가깝다. 요절했거나 미혼으로 죽는 등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조상의 경우 살아 있는 가족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조상을 ‘말명’으로 모시며, 모시는 방법은 상자에 의복이나 돈을 넣어 말명상자라 이른다.¹²³⁾ 서울굿에서 말명은 조상과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부정거리에서는 말명축원-대신 할머니축원-조상축원으로 이어진다. 본향거리에서도 본향-가망-말명-대신거리로 이어진다. 임집의 굿에서는 본향-가망-말명-대신에 뒤를 이어 조상거리를 연행한다. 만신의

121) 김창호, 「대신방울」,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6.

122) 이능화 저,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 서영대 역, 창비, 2008, 220-221쪽.

123) 이용범, 「말명」,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6.

신긱에서는 조상거리를 따로 연행하는데 이때도 말명과 조상의 순서로 긱이 진행된다. 그래서 말명은 조상신의 일부로 보아도 무방하다. 또 대신과 말명과 함께 조상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신말명거리가 일찍부터 서울긱의 한 제차로 존재했고, 오늘날 거리에서 모셔지는 신긱의 정체나, 신복과 무구가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신말명거리는 연행자에 따라 크게 두 개로 나뉜다. 하나는 진적긱을 올리는 당주무당이 연행하는 거리로, 진적 제차를 올리고 난 뒤에 연행된다. 다른 하나는 진적긱 중간 중간에 삽입되는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¹²⁴)이다.

대신말명거리는 진적거리 뒤에 진행된다. 거리가 바뀌는 것은 모셔지는 신긱이 달라지는 것이다. 신긱의 교체는 연행하는 만신이나 제상, 의복 등의 교체도 따르기 때문에 거리와 거리 사이에는 이를 분절하는 휴지가 생긴다. 그러나 진적에서 대신말명거리로 이어지는 휴지는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달리 짧다. 때로는 자료4 김유감 진적긱에서처럼 대신말명거리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진적에 포함시켜서 서술한 것도 휴지 없이 연이어 긱이 진행되어서일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대신말명거리에서 모셔지는 신긱 중 만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던 인물의 영혼을 보편적인 신긱의 범주에서 함께 모시면서 신긱의 경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독립된 온전한 긱거리로 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신말명거리에서는 무악과 무무로 긱거리장단, 허튼타령, 당악장단이 고루 쓰인다. 타령도 대신타령, 대신떡타령, 대신창부타령 등의 여러 개가 불리어졌다. 서울긱의 거의 모든 장단과 춤이 두루 연행된 셈이다. 대신상 혹은 진적상이라 하여 제물도 따로 차려진다는 점에서 독립된 긱거리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또한 대신말명거리는 반드시 진적긱의 재가집이자 당주무당인 만신 본인이 직접 연행한다. 연행자가 확인되는 모든 자료에서 일관되게 드러난다. 범위가 넓어 타인은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만신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신긱이기 때문이다. 노령(자료4 김유감만신 진적긱)이나 병환(자료14 이상순만신 진적긱)으로 거동이 불편했을 때도 원무당이 직접 연행했다. 자료4 김유감 만신의 진적긱에서 김유감 만신이 직접 놀았던 거리는 대신말명거리가 유일했다. 문서와 기예가 미숙해서 긱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경우(자료11 최금재 만신 진적긱, 자료13 노씨기자 진적긱)도 대신말명거리 만큼은 본인이 직접 연행했다. 이 점에서는 조상거리와도 비교된다. 진적긱에서 조상거리는 대부분 당주무당이 직접 맡았다. 조상거리에 모셔지는 신긱은 당주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자료11 최금재 만신은 조상거리를 대신말명과 혼합하여 연행하기도 하였다. 조상거리를 작두도령, 선녀, 동자·동녀, 도사할아버지 등 몸주신을 노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신말명과 조상거리의 친연성을 알 수 있다. 대신말명거리는 신긱이 분방한 것처럼 위무하는 방식도 분방한 편이다. 자료11 최금재 만신은 황해도에 본을 둔

124) 실제 서울긱에서 통용되는 호칭을 살리고 논의의 혼동을 막기 위해 본고에서는 전자를 대신말명거리라 칭하고, 후자를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라 칭한다.

친가족 영향인지 서울곳 만신으로 활동하면서도 작두를 어르거나 대신칼을 놀리는 등의 모습으로 몸주신을 모셨다. 이러한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대신말명이라는 용어가 본 거리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거리의 핵심 신격이 무조신인 대신할머니 신격이며 조상에 해당하는 말명의 개념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곳이 연행될 때는 자세한 설명 없이 이름만 호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신의 수십 여 년의 무업 이력과 얽힌 다수의 말명이 거리에 모셔져서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이상순 진적곳의 대신말명거리에 등장했던 신격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한다¹²⁵⁾. 대신말명거리에 등장하는 신격은 대신할머니라고도 불리우는 대신의 범주와 생전에 이상순과 무업으로 인연을 맺은 인물인 말명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말명은 생전에 무업사회에서 맺었던 직분과 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신, 약사, 단골로 구분할 수 있다.

A. 대신

: 대신할머니, 작두대신, 몸주대신, 천하대신, 지하대신, 벼락대신, 열두대신, 도당대신, 산신대신, 서오능대신

B. 말명

ㄱ. 만신 : 이복할머니, 명씨할머니, 오도바이할머니(박어진), 영득이네, 도서방할머니, 짱구박수할아버지, 아리랑고개할머니, 분홍저고리할아버지, 종암동 이봉순이, 왕십리 김유감, 신박수할아버지, 노들순자, 상임이네, 지전집

ㄴ. 약사 : 김점석

ㄷ. 단골 : 소천집, 양씨할머니, 상진엄마

먼저 A의 신격은 서울곳 만신이 대신말명거리에서 두루 모시는 보편적인 무조신격이다. 작두대신에 대해 부연하자면, 이복곳으로 무업을 시작한 이상순의 몸주대신이다. 후자인 B의 신격은 생전에 이상순 만신과 무업으로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의 이름 혹은 별호¹²⁶⁾이다. 이를 다시 생전에 무당이었던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대신말명이라 따로 칭한다. 때문에 이 두 영역의 신격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대신거리나, 말명거리보다 대신말명거리라는 호칭이 적절할 것이다.

연행의 순서는 A에서 B의 순서로 진행된다. 전자가 상위신격이고 후자가 하위신격임을 알 수 있다. 또 후자의 경우, 먼저 호명된 신격일수록 이상순 만신의 무업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하다. 연행되는 선후 관계가 신의 위계에 따른다는 서울

125) 자세한 연행 실상은 3장의 대신말명거리에서 제시하였다.

126) 조흥윤은 대신말명이 '첫 무당으로의 조상이 아니고 무당으로서 죽은 이를 총칭한 것(조흥윤, 「말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이라며 대신말명의 성격을 무업 조상으로서의 대신 신격을 주목한 바 있지만, 약사와 단골 등 무업공동체의 조상의 면모는 간과했다.

곳 연행의 원리가 잘 반영되어 있다. 공수로 내리워지는 무가도 전자는 관용구를 사용한 보편적인 내용이 많고, 후자는 개별적인 내용이 많다.

대신의 범주에서 모셔지는 신격이 서울곳에서 보편적으로 통념되는 무조 신격이라면, 말명의 범주에서 모셔지는 신격은 만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셔지는 무조 신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무조 신격은 신어머니(신아버지)와 선배 만신이 대표적이다. 조상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생물학적인 혈연이 전제될 필요는 없다. 사회적으로 인정된 혈통 관계에 놓이고, 이를 의례로 담아낼 수 있다면 조상신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²⁷⁾. 신어머니-신딸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혈통 관계에 준한다. 대신이라는 보편적 무조신과 무업을 이끌어준 개인적인 무조를 결합시켜 연행하는 셈이다. 대신의 범주에서 모셔지는 신격은 은하몽두리를 입고 연행한다. 말명의 범주에서 모셔지는 신격은 만신의 굿이기 때문에 생전에 만신이었는지의 여부가 일차적으로 구별의 기준이 된다. 생전에 만신이었던 말명은 역시 은하몽두리를 기본으로 한다. 선대 만신이 입었던 무복을 그대로 물려받아 신체(神體)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따로 지은 의대를 사용한다. 만신이 아니었던 말명은 조상의대를 활용하여 연행한다. 그 밖에도 만신 외에도 함께 활동했던 전악의 녀이나 단골의 선친까지 범주가 넓고 다양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3가지의 타령을 부르는데 대신타령과 대신떡타령과 대신창부타령이 그것이다. 약사나 박수, 광대의 신격인 창부도 각별하기 때문이다.

진적굿이 연행되는 굿판에는 만신의 단골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 서울곳에서는 ‘단골 갈림은 해골 갈림’이라 하여 단골과 만신과의 인연은 죽을 때까지 지속될 만큼 길고 깊은 것이라는 관념이 존재한다. 때문에 무업공동체를 구성하는 단골과 전악도 모두 조상의 범주에서 모셔진다. 또 실제로 이들의 후손이 진적굿판에 자리하여 조상신격처럼 대우하는 것에 위화감이 없다. 예컨대 이상순의 진적굿판에는 고 김유감(유괘이 할머니)의 신아들인 이○○가 청송무당으로 참여했다. 생전 이름난 서울곳 약사였던 김점석(김점석씨)의 친아들이며 본인도 약사의 길을 걷고 있는 김○○이 전악으로 동석했다. 이들은 본인의 신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강신하여 내리는 공수이니만큼 응당 주의깊고 엄숙하게 경청하였고, 개인적인 인연을 공유한 만큼 공수의 내용도 한결 친밀하고 구체적인 양상을 띤다. 망자의 혼령을 신격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진적굿이 연행되는 굿판에서는 개인적인 영역의 무조신이 보편적인 무조신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비중있고 엄숙하게 모셔질 수 있다.

몸주신으로 선덕여왕을 모시는 자료16 이영희의 진적굿이나, 금성대군을 모시는 자료 2 이지산의 진적굿에서 모두 굿의 초반 대신말명거리에서 연행하였다. 진적굿에서 몸주신은 대개의 경우 대신말명거리를 대표 신격으로 하여 연행되는 것이다. 이는 만신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직능을 가진다는 무속의 기본 전제와도 일치한다. 일반 굿에서도 조상을 놀기 전에 대신을 거치는 것처럼 대신말명은 몸주신과 만신을 만나게 해주는

127) 이는 최길성이 정리한 포티스의 이론으로 다음 논문에서 재인용한다.(최길성, 「한국 조상숭배의 연구-연구사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15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83쪽)

가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몸주놀이, 몸주놀리기 등으로 불리워지는 거리가 따로 연행된 사례가 세 개의 자료에서 등장했다. 권옥남 만신의 진적굿(자료15), 노씨기자의 진적굿(자료13), 이상순 만신의 진적굿(자료9)가 그것이다.

자료15 권옥남 진적굿¹²⁸⁾, 권옥남 연행

1. 굿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은하몽두리, 방울부채]
2. 당악
3. 대신 공수
4. 대신 타령
5. 당악 : 마무리

당주무당 권옥남이 연행했는데 양상은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와 다르지 않았다. 굿 초반에 대신말명거리를 이미 놀았지만, 원무당이 문서가 깊지 못해 신어머니가 먼저 불러주는 문서를 따라서 읊고, 굿판의 사람들에게 덕담을 내리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에도 조상거리, 창부거리만 맡았고 나머지 거리는 청송만신이 전부 진행하였다. 이날 굿을 하느라 정성과 별비를 많이 들인 권옥남 기사를 위해 청송만신들이 몸주를 한 번 더 놀도록 권유해서 이루어졌다. 이어서 재가집 가족에게도 무감을 서도록 해서 굿판의 주인공으로 느끼게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자료13 노씨기자 진적굿¹²⁹⁾, 노씨기자 연행

1. 굿거리 [흑갓,홍철릭,청치마]
2. 당악
3. 장군님 공수 : 오늘 굿에 대한 감사와 단골 축원
4. 당악
5. 허튼타령
6. 신령할아버지, 도사할아버지 공수 : [옥색삽수, 신장기] 장군을 대차게 놀라고 하시지만, 몸이 좋지 못해 못하겠다고 사과
7. 당악 : 마무리

자료13의 몸주신거리는 원무당 노씨기자가 직접 연행하였다. 노씨기자는 본래 황해도 굿 무당으로 무업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서울굿법을 배워 서울굿만신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래저래 굿속이 깊지 못했다. 그래서 이날 진적굿에서 원무당인 본인이 직접 연행한 거리가 대신말명거리뿐이었다. 그나마 대신말명거리도 의대를 입고 당악에 맞춰 도무춤을 추고 절을 하며 간단히 끝냈다. 그래서 대안주 대감거리를 연행

128) 2013년 4월 22일, 선바위 국사당

129) 2013년 4월 22일, 안산 군자봉 경신굿당

후에 따로 몸주를 놀라며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흑갯에 흥철릭을 입었고, 황해도굿 출신이며, 기자 본인도 ‘장군님’이라는 말을 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종의 장군 신격을 높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신령할아버지, 도사할아버지라 하여 옥색섭수를 입고 신장기를 들었다. 당약 후에 허튼타령을 친 것은 노씨기자가 옷을 쉬 고르지 못하고 망설여서 일종의 예비장단으로 이어한 것이다. 허튼타령은 탈춤의 춤장단이라 흥겹고 춤을 추기 좋다. 때문에 이처럼 당약이 길어지거나 흥을 돋기 위한 춤이 이어질 때는 허튼타령으로 전환하여 이어진다. 망설이는 노씨기자에게 굿을 이끌던 청송만신들은 ‘애동기자니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문서나 법식은 몰라도 진적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한다. 그게 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곧 신이 놀아야 되는 법이다’라며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법도를 모르더라도 진적굿이라면 몸주신을 놀려야 한다는 관념이 잘 드러난다. 또 다른 공수는 몰라도 단골들에게 속 시원한 공수 한 마디씩은 해줘야 한다고 일렀다. 그래야 굿판에 온 단골들의 정성이 보람되니 ‘내가 여기 온 단골들 소원 하나씩 이뤄주마’라는 공수를 내리라는 조언을 공수의 형태로 굿 중간중간에 내렸다. 실제로 이 경우처럼 굿이 어설픈 만신이라도 단골들에게는 ‘영한 소리’를 하며 공수를 준다. 진적굿의 목적 중 하나가 단골판을 규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나타낸다.

자료9 이상순 만신의 진적굿에서 몸주놀기는 두 개로 나누어 논 것이 특징이다.¹³⁰⁾ 이상순 만신의 진적굿에서는 자신의 몸주신인 명성황후와 작두신령을 대안주 부인거리 중 명성황후거리와 창부거리 뒤에 연행한 작두신령거리로 두 차례에 걸쳐 연행하였다. 명성황후거리와 작두신령거리 모두 형식적으로는 허튼타령에 맞추어 장엄한 의대를 갖추는 것에서부터 거리를 시작하고, 공수의 내용은 무업의 번창을 빌어주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모두 이상순 만신의 몸주신이지만 서울굿법에 합당한지의 여부가 두 개의 제차를 다르게 연행하는 기준이 되었다. 작두신령은 이북굿으로 무업에 입문할 때부터 모셨던 신격이지만 서울굿으로 전향한 뒤에는 모시지 않는다. 그러나 진적굿에서 몸주신을 위무하는 의식은 핵심이다. 그래서 굿의 후반에, 본인이 아닌 다른 만신을 통해 연행한다. 명성황후는 서울굿의 신관에 부합하며 무속에 특히 관대하였던 궁중 인물이라 대안주거리에 특별히 포함시켜 당주가 직접 연행하는 것이다. 굿거리를 이렇게 예외적으로 진행한 이유는 이상순 만신이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된 점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 나랏굿 무당이라는 자부심이 더해지면서 국모인 명성황후를 성대히 모시는 것이 책무라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두신령을 장군신이나, 대감신의 일환으로 대안주에 편입시키지는 않는다. 공수의 내용도 몸주신으로 따로 모실 때와 대안주에 편입시켜 모실 때에 차이가 있다. 물론 두 거리를 연행한 만신이 달라서 공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성황후거리에서는 상층의 신격을 연행할 때처럼 굿하는 정성을 치하하고 무업 번성과 국태민안을 축원했고, 작두신령거리에서는 무업거리를 연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함께 비치고 있다. 명성황후거리가 일견 기존의 서울굿의 굿법에서 이탈한 예외적 굿거리로 보일 수 있다¹³¹⁾. 그러나 몸주놀기가 진적굿의 제차를 구성하

130) 연행의 실상은 3장의 서술을 대신한다.

고 운영할 때 큰 틀이 되며, 여기에는 만신의 신관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진적곳에서 대신말명거리의 또 다른 형태의 예가 있어 주목을 요한다.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가 그것이다. 애동기자 몸주대신 놀리기라고도 불린다. 이 거리는 진적곳을 올리는 만신의 신딸, 제자들이 대신말명을 위시한 몸주대신을 놀리는 자리이다. 필수적으로 연행되는 거리가 아니라, 특별히 연행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곳 중간에 투입하는데 그 성격이 대신과 관련이 깊다. 대신말명거리를 반복하여 겹곳의 형태로 노는 것은 진적곳의 독특한 특징이다.

몸주놀기와, 이와 견주어 설명할 수 있는 무감서기,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를 연행했던 순서를 살핀다.

- 권옥남 진적곳1 (자료5) : 성주거리 - 애동기자 대신말명 - 뒷전거리
- 권옥남 진적곳2 (자료15) : (대안주)대감거리 - 몸주놀기 - 재가집 무감서기 - 조상거리
- 강민정 진적곳 (자료8,자료10) : (대안주)대감거리 - 대주 무감서기 - 조상거리
- 이상순 진적곳2 (자료9) : 성주거리 - 애동기자 대신말명(1) - 창부거리 - 몸주거리 - 애동기자 대신말명(2~3) - 계면거리
- 이상순 진적곳3 (자료12) : (대안주)대감거리 - 애동기자 대신말명(1~5) - 안당제석
- 이상순 진적곳4 (자료14) : 안당제석 - 애동기자 대신말명(1~5) - 성주
- 최금재 진적곳 (자료11) : (대안주)대감거리 - 몸주거리 - 조상거리
- 노씨기자 진적곳(자료13) : (대안주)대감거리 - 몸주거리 - 애동기자 대신말명 - (조상) - 성주
- 이영희 진적곳2 (자료16) : (대안주)대감거리 - 애동기자 대신말명(1~3) - 안당제석

일견 특별한 원칙이 없어 보이지만 앞뒤에 연행된 거리와 함께 모아보니 특징이 드러난다. 무감서기, 몸주거리,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 세 거리는 등장하는 위치가 비슷해서 같은 층위에서 연행되는 점이 보인다. 세 종류의 거리가 같이 등장할 때는 몸주거리를 먼저 연행하고 뒤이어 무감서기나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를 연행한다. 왜냐하면 무감서기나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는 연행자가 당주무당이 아닌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몸주거리는 진적곳의 주인공인 당주무당이 연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된다. 자료9는 몸주거리가 뒤에 있어 예외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는 상기하였듯이 몸주거리를 원무당이 직접 연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거리는 모두 대안주 이후에 놀아졌다는 점이 공통된다. 특히 대감거리 뒤에 연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대신말명거리를 선거리 처음으로 연행한 뒤 천궁불사-제당맞이-본향-산신도당에 이어 대안주를 연행하게 된다. 대안주 이전에 있는 거리들은 모두

131) 김헌선이 『한국민속신앙대사전』의 「진적곳」 항목을 집필하면서, 명성황후거리를 “민중전마마굿”이라 하여 ‘특별한 곳거리’로, 몸주놀기기를 ‘곳거리 아님’으로 약술한 것이 그 예이다.

지역신을 모시는 거리이고, 대안주부터 인물신을 연행하게 된다. 대안주는 상산을 중심으로 한 거리라는 점이 중요하다. 상산 최영은 만신의 조정이므로 일종의 무조신으로 기능한다. 진적곳의 대감거리는 전안대감과 몸주대감, 직성대감을 따로 논다. 따라서 대안주 뒤에 몸주나 대신말명을 한 번 더 노는 것은 인물신의 위계를 맞추고, 무조신의 줄기를 잇는 의미를 갖는다. 대감거리 뒤 -조상거리 전에 연행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무당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임을 재확인시켜준다. 무당이 신과 재가집을 연결 해주듯, 대신말명은 다른 신과 조상신을 연결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신말명거리와 창부거리의 연결을 주목한다. 가신(家神)인 성주와 제석을 연행한 뒤에 창부를 연행하는데, 그 전후에 이들 거리를 삽입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창부신은 광대신으로 예능을 담당하는 신이라 무당과 연관이 깊다. 서울곳 만신이 말하는 큰무당의 조건 9가지¹³²⁾ 중 굿법에 관련한 것이 2가지이고 장단과 소리, 춤사위, 매무새와 같은 예능적인 면과 관련한 조건이 5개이다. 실력 있는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강신무라 할지라도 주술성과 더불어 예술성을 고루 확보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만신의 진적곳에서는 예능의 신인 창부신이 가진 기예를 중히 여기는 만큼이라도 그들을 각별히 모신다. 상산돌기의 종착점인 개성 덕물산에도 창부씨를 모시는 당이 따로 있어 그 각별함을 알 수 있다.

진적곳은 만신이 벌이는 큰 잔치이다. 그래서 신딸, 동료와 그의 신딸 등 많은 수의 무당이 두루 찾는다. 이들 중에는 애동기자도 많다. 애동기자는 신이 내린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기량이 여물지 못하다. 무당을 대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굿거리를 떼어 말기는 것이다. 가진 재주를 자랑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석배와 인정을 챙길 수 있어 금전적인 보상도 주어진다. 서울곳판에 전해오는 “전물 본 신령에 석배 본 만신”이라는 옛말이 있다. 만신이 눈이 번쩍 뜨이게 좋아하는 것이 석배이고, 석배를 얻는 길은 굿을 한 석이라도 맡아서 연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애동기자는 실력이 미숙하여 단독으로 거리를 연행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없다. 이럴 때 요긴한 거리가 바로 대신말명거리이다. 진적곳을 올리는 당주무당보다 서열이 높거나 비등한 만신은 이 자리에 서지 않는다.¹³³⁾ 이럴 때 요긴한 거리가 바로 대신말명거리이다. 진적곳을 올리는 당주무당보다 서열이 높거나 비등한 만신은 이 자리에 서지 않는다. 당주무당의 권유로 새남굿 발표회를 혼자서 꾸릴 정도로 실력을 갖춘 만신이 대신말명거리를 연행한 적이 있다. 해당

132) 이상순이 말하는 서울곳 큰무당의 조건으로 김헌선이 정리하였다. 세부 조건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곳이 조백이가 있어야 한다. ㉡소리하는 음성이 일청이조이고, 소리의 아루성이 있어야 하고, 소리가 공중에 떠야만 한다. 설깃이 좋아야 한다. ㉢춤사위가 물결 같고, 자태가 이쁘고, 버선 맵시가 오이씨 같아야 한다. ㉣신복 맨드레미가 좋고, 쪽을 잘 찌고, 버선을 신고, 화장을 안해야 한다. ㉤곳의 가지 수를 많이 알아야 한다. ㉥버선 신은 발이 스란치마 속에서 사뿐사뿐 뛰어야 한다. ㉦장단을 툭툭 튀게 쳐야 한다. ㉧전악과 청승만신을 아긴다. ㉨공개적으로 바닥심을 한다.(김헌선(2006), 앞의 책)

133) 예외적으로 자료12에서 애동이 아닌 만신이 대신말명거리를 연행한 적이 있다. 해당 만신은 새남굿 발표회를 혼자서 꾸릴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경력자여서 의아했다. 만신 본인도 애동기자 거리 하나 하고 장구나 치다 간다'며 부끄럽고 섭섭해 해서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가 애동기자에게 한정된 거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만신은 ‘진적굿을 축하해주려 왔는데 굿은 한 자리도 못하고, 애동기자거리 하나 하고 장구나 치다 간다’며 부끄럽고 섭섭해 했다.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가 가진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의 주신은 대신할머니로 연행된다. 무복과 무구로는 대신말명거리와 같은 노랑몽두리와 방울·부채를 사용한다. 당악에 맞춰 도무한 후 천하대신할머니, 지하대신할머니, 벼락대신할머니 등을 호명하고 짧게 몇 마디 축원을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문서나 기예가 부족한 대신 당악에 맞추어 펄쩍펄쩍 뛰는 무무(巫舞)로 중심으로 연행한다.

이 거리는 무감서기와도 견줄 수 있다. 무감서기는 재가집의 가족이나 구경꾼 등 무당이 아닌 다른 참여자를 굿판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거리이다. 이로써 굿판과 화합하고, 개인의 신명을 풀 수 있다. 강신무라 할지라도 무당의 가족 중에 신가물이 있었던 내력이 있던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적굿 중에 재가집이자 당주무당의 가족이 무감을 썼던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자료8·자료10 강민정 진적굿과 자료15 권옥남 진적굿이 그 예이다.

거리의 목적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거리의 운영에는 몇 가지 차이를 갖는다. 무감서기와 달리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 몸주놀기는 무당만 거리에 설 수 있다. 진적굿의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 제차에 일반 청중이 굿판에 서는 경우는 없다. 의대에도 차이가 있다. 무감을 설 때 입는 신복은 다양하지만, 주로 쾌자를 입는다. 이는 소매가 없는 조끼 형태라 입고 벗기 쉬어 여럿이 동시에 참여하는 무감서기 거리 진행에 용이하다. 쾌자는 대감이나 신장과 관련된 의복이다. 이들 신격은 타령이 많아 굿판에 흥을 돋우고, 재복을 담당해서 친숙하다는 것도 이유이다. 강민정의 진적굿에서는 당주무당의 남편인 김씨 대주가 창부의대인 색동소매자주동달이를 입고 무감을 썼다. 당시 대주는 해금을 배우며 악사로 무업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악사의 신이기도 한 창부의대를 입고 무감을 썼다. 그러나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에서는 흥치마에 은하몽두리를 갖춰 입고 무구를 손에 든다. 자료15에서 당주무당의 어머니와 이모가 은하몽두리를 입고 무감을 썼다. 당주무당의 친정 가족으로 가까운 사이기도 하고, 이들 모두 신가물이 있어 이미 내림굿을 받았고 무업에 종사했던 전력이 있어 대신의복을 입은 것으로 수궁할 수 있다.

또한 무감은 여러 명이 굿판에 나서는 경우가 잦다. 여럿이 함께 타령에 맞춰 어깨춤을 추거나, 당악장단에 맞춰 뛰며 춤을 춘다. 진적굿의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는 여러 차례 거듭 연행을 하지만, 한 번에 반드시 한 명의 만신이 굿판에 나선다. 연행 순서도 서울굿의 대신말명거리의 문법을 착실히 따른다. 굿거리 장단에 맞춰서 거성과 들어숙 배나숙배로 청신하고, 당악으로 신을 몸에 싣는다. 신격을 호명하고 공수를 내리고 대신 타령을 부른 후 공수를 내리며 마무리를 한다. 공수의 내용이나 기예는 미숙하지만, 어엿한 무교의 사제자로서 대신말명거리를 연행하는 셈이다.

애동기자가 몇 마디 안 되는 대신 공수조차 내리지 못하면, 옆에서 신어머니가 문서를 읊어주고 그것을 더듬더듬 따라서 연행하는 경우도 있다. 애동기자가 쑥스럽고 자신이 없다며 사양하자(자료16), 신어머니 원무당이 ‘안 그러면 울기(鬱氣)나서 안 된다’며

‘몽두리만 입고 뛰라’고 강권해서 굿판에 세우기도 하였다. ‘나는 옛날에 신아버지 따라 가서 여기에 가래툰이 올라서 고름이 나는데도 다리를 이렇게 뻗치고도 뛰었다’며 무당은 몸을 놀아야 탈이 없다고 조언하였다. 무당은 굿을 하는 사람이다. 이는 반대로 굿을 해야 무당이기도 하다. 굿을 하지 않으면 무당이 내심 아래로 여기는 점바치나 전내와 다를 바가 없다. 애동기자인 신딸들에게 대신말명거리는 경험과 학습의 장이며 무당으로의 소명을 깨우치는 자리이다. 그리고 진적굿을 하는 당주무당이 대신말명거리로 이은 무업의 신줄을 거둬서 잇는 계승 작업이기도 하다.

2. 보편적 제차의 재구성

서울 진적굿의 기본 구조는 재수굿을 근간으로 한다. 앞서 4장 1절에서는 진적굿의 특수한 제차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진적굿의 기본 구조를 다룬다. 재수굿과 같은 구조를 취하지만, 진적굿만의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굿의 운영방식은 제차의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진적굿에서 보편적 제차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장 독특한 점은 재수굿의 본향거리를 본향거리와 조상거리로 나누어 두 개의 거리로 연행한다는 점이다.

본향은 근본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신격이다. 본향 신격은 두 개의 갈래에서 갖는다. “성 주신 본향 씨 주신 본향”이라 하여 조상신앙과 연결되고, “양위양산 본향”이라 하여 산신신앙과 연결된다. 재수굿에서 본향거리는 본향-가망-말명-대신-조상의 제차로 구성된다. 본향과 가망은 모두 조상신과 관련된 신격이다.

본향거리는 상산에 물고를 받아온 종이로 만든 본향지를 무구로 쓰고, 사방을 청배하는 본향바라기로 청배한다. 무구의 성격과 청배의 방식이 산신신앙과의 연결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본향거리가 서울굿에서 영역신인 산신도당거리 뒤에, 인물신인 대안주거리 앞에 위치한다는 굿의 구성은 본향신이 산신이자 조상신이라는 복합적인 신격임을 확인시켜준다.

산바라기는 산신, 본향, 제당맞이, 회정맞이거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청배 방식이다. 모두 산신신앙, 특히 덕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상산신앙과 관련이 있는 제차이다. 그런데 산바라기를 감응청배, 곧 가망과 연결 짓고 있는 기록이 있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당내력』에 산바라기 항목이 그것이다. 『무당내력』의 산바라기는 솟대 2개, 향로 1개, 술잔이 3개가 차려진 상을 두었다. 무복은 큰머리에 쓰고, 청치마에 초록색 접수를 착용하고, 흰 종이를 무구로 갈라 쥐고 있다. 제차의 명칭, 무복과 상차림, 무구가 오늘날 본향거리와 같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작은 책에는 감응청배를 부정거리에 이은 두 번째 거리로 소개한다. ‘속칭 산바라기’라고 병기하며 아래의 설명을 덧붙였다.

치성할 때 무녀는 태백산을 바라보고 성령 감응을 세 번 부른다. 근일에는 풍덕 덕물산을 바

라보고 최장군을 청배한다고 하는데 진실을 크게 잃은 것이다¹³⁴⁾

『무당내력』의 큰 책은 감응청배를 여섯 번째 거리로 소개하고

치성할 때 무녀는 손에 백지를 쥐고 태백산을 바라보고 성령 감응을 세 번 부르는데 이를 단군청배라고 한다. 근일에는 최장군 청배라고 하는데 진실을 크게 잃은 것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산바라기를 하며 가망을 찾는다는 점에서 오늘날 본향거리와 신격이 유사하다. 태백산은 단군신앙의 성지이다. 이 점을 큰 책에서는 단군청배라 하여 성격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근래 들어 이를 최장군 청배로 여긴다라는 서술이 덧붙었다. 단군은 건국신화의 주인공이며 민족의 시조라는 점이다. 태백산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단군신앙의 성지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군 - 인물(호국신,시조신) : 태백산 - 공간(산신) : 백지 - 호명
최영 - 인물(호국신,시조신) : 덕물산 - 공간(산신) : 백지 - 호명

시조신에 대한 신앙을 신격의 거주지이자 그 자체로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영산(靈山)이라는 상징으로 모시는 것이 산바라기의 핵심이다. 이러한 신격과 공간의 유사함으로 인해 단군은 최영으로, 태백산은 덕물산으로 교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숭앙되던 건국신화의 주인공이자 민족의 시조라는 자격이 무속신앙의 범주로 축소되면서 그 신성의 범위도 호국충신이자 만신의 조종으로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무구와 무복, 백지를 들고 호명하며 청배하는 등의 의례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산바라기라는 청배 의례의 핵심이 본향거리에 있으며, 이는 산신과 시조신의 합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일반 재수굿이나 진오귀굿에서는 본향거리 뒤에 조상거리를 붙여서 연행한다. 본향을 찾는 이유는 응당 조상과 만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본향노랫가락을 부르고 본향산을 내리는 과정도 조상거리가 끝난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신의 진적굿에서는 본향과 대안주를 연행한 뒤에 조상거리를 따로 논다. 진적굿의 조상거리는 말명과 조상으로 이루어진다. 조상거리는 보편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말명과 개인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조상의 제차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신격의 차이는 의대에도 반영되어 전자는 청치마 평복에 방울과 부채를 무구로 들고, 후자는 조상 의대를 입는다.

조상거리에 등장하는 조상 신격은 일반적으로 윗대인 증조부에서 시작하여 아랫대로 내려오면서 연행된다. 유교적 계촌법(系寸法)은 조상거리를 연행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오히려 먼 친척이라도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따로 쳐들어 놓아준다. 이용범¹³⁵⁾이 논의했듯 유교식 제의인 제사로 모셔지는 조상의 개념은 남자

134) 무당내력의 본문은 서대석의 해제를 인용한다.

후손을 전제로, ‘정상적으로 죽음을 맞은’ 직계 가족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무속신앙에서 굿으로 모셔지는 조상은 이를 훨씬 뛰어넘은 포괄적인 개념의 것이다. 오히려 유교적 의미의 직계와 방계, 남녀의 구분, 비정상적인 죽음과 정상적인 죽음을 아우른다.

그런데 진적굿의 조상거리는 다른 서울굿의 조상거리에 몇 차원의 확장이 더해져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굿은 연행예술이라 일회적이다. 때문에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연행의 실체가 드러난다. 3장에서 기본적인 자료로 설정했던 자료13 외에 이상순의 진적굿 자료12¹³⁶⁾와 자료14¹³⁷⁾를 참고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자료14, 2011년 11월 6일 이상순 진적굿

1. 말명만수받이 [청치마, 방울, 부채]
2. 굿거리 - 들어숙배나숙배 거성
3. 당악 - 대신말명공수1 [은하몽두리] : 술잔 및 대신떡돌리기
 신격 : 의정부할아버지, 송인동대신할머니, 왕십리할머니, 오도바이할머니
4. 당악 - 대신말명공수2 [조상의대]
 신격 : 한씨아버지, 명씨어머니, 이복할머니, 도서방할머니, 아리랑고개할머니, 의정부대신할아버지, 종암동할머니, 성북동 빨래 엄마, 수유리어머니
5. 당악 - 시가조상영실
 신격 :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남편, 큰시누이내외, 둘째시누 등
6. 당악 - 마무리

자료14에서는 말명만수받이를 한 뒤 대신말명거리를 연행하였다. 대신말명은 보편적 무조신과 개인적 무조신을 따로 나누어 놀았다. 전자는 은하몽두리를 착용하였고, 후자는 조상의대를 착용하여 신격의 차이를 드러난다. 모두 앞서 진적 뒤에 연행한 대신말명거리를 다시 반복해서 연행한 셈이다. 개인적 무조신을 놀린 대신말명공수2에서 친정양가조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뒤이은 조상거리는 시가조상 위주로 연행하고 마무리하였다.

자료12, 2011년 3월 24일 이상순 진적굿

대감거리1

1. 당악(우쪽으로 복일어주기)-허튼타령-당악-대감공수-대감타령 [전립,흑괘자,빨간소매노란삽수]
 신격 : 사외삼당대감, 국내제당대감, 상산대감, 전안대감, 재장대감, 천신대감

 조상거리

1. 당악-허튼타령-당악-대신말명공수 [은하몽두리, 색동소매초록삽수¹³⁸⁾]

135) 이용범, 앞의 논문.

136) 2011년 3월 24일, 구산동 자택 전안.

137) 2011년 11월 6일, 구산동 자택 전안

- 신격 : 이복명씨할머니, 짱구박수할아버지, 퇴계원박수할아버지
2. 당악-시가조상영실 [조상의대]
신격 :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3. 당악-친정양가영실 [조상의대]
 4. 당악-친정생가영실 [조상의대]
 5. 조상의대 놀리기 : 큰시누내외, 둘째시누, 이씨형부, 최씨형부, 언니, 조카, 생가할아버지 할머니, 생가어머니, 생가할아버지
 6. 단골집 말명 공수
 7. 당악-말명공수 [평복, 방울, 부채] (술을 바깥에 뿌리며)
 8. 당악-마무리
 9. 산주는노래 부르며 분향산 주기¹³⁹⁾

자료12의 독특한 점은 대안주 중 대감거리를 연행하다가 조상거리로 바로 이행한 것이다. 대감타령을 부르다가 명씨할머니가 오셨다며 의대를 갈아입고 만수받이 없이 바로 조상거리로 넘어갔다. 이때 대감거리에서 모셔진 신격은 사외삼당대감, 국내제당대감, 상산대감/전안대감, 재장대감, 천신대감이다. 상산돌기-제당맞이로 찾은 신들이 전 안에서 대신말명-조상과 결합한다는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명씨할머니는 이상순의 양어머니이자 최초의 신어머니이다. 대신말명이라는 신격이 무조신과 조상신이 결합되어 이루어졌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왕십리할머니는 몇 년 전 타계한 김유감 만신이다. 김유감 만신은 이상순의 동료 만신으로 신어머니는 아니다. 그러나 만신이 죽으면 대신말명이 되어 넓은 의미에서 조상이자 무조신처럼 여기게 됨을 알 수 있다.

대신말명거리에 이어서 조상을 시댁-친정양가-친정생가의 순서로 놀았다. 워낙 긴박하게 제차가 전환되고, 이름만 지으며 빠르게 연행했기 때문에 5번 제차가 덧붙었다. 공수만으로 놀았던 조상거리를 의대를 놀리며 다시 정리한 것이다. 서울곳에서 의복이 신체(神體)이며 소중한기 때문이다. 이런 모양새를 “처삼촌의 별초하듯 의붓딸의 새남하듯” 곳을 했다고 표현했다. 거리를 꼼꼼히 놀지 못하고 이름만 짓고 빠르게 마무리 했다는 뜻의 관용구이다.

6번도 눈여겨보아야 할 제차이다. 단골집의 말명도 만신의 조상거리에 포함시켜 연행했기 때문이다.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만신’으로 확장하면서 조상의 범주도 확장한다. 혈연으로 맺어진 조상에 무업으로 맺어진 조상, 즉 신어머니를 대표로 만신이 죽은 녀가 조상으로 추가된다. 여기에 뒤이어 2차 확장이 이루어진다. 조상의 개념이 만신 개인에서 만신이 소속된 무업사회라는 공동체의 범주로 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만신 외에도 무업사회를 이루는 약사와 단골, 시봉자의 죽은 녀까지 조상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¹⁴⁰⁾. 조상의 확장은 최종적으로 신격으로까지 그 숭배의 의미가 확

138) 부인의대로 명씨할머니만을 위해 만들어진 신복이다.

139) 10번 제차는 이날 분향거리를 연행하고 마지막에 분향산을 주는 절차를 잊고 생략해서 덧붙은 것으로 조상거리와는 관련이 없다.

장한다. 이렇게 완성된 신격이 곧 무조신, 즉 대신말명이다. 만신은 작게는 직업의 하나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 만신이 된다는 것은 만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진배없다. 때문에 만신으로 꾸리는 공동체는 가족의 범주로 여겨지면서 그들의 죽은 낮은 조상의 범주에서, 그리고 나아가 신격의 범주에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관념이 만신의 진적곳에서 의례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진적곳의 본향거리와 재수거리는 아래와 같은 제차로 구성되었다.

재수곳 : [본향거리: 본향-가망-말명-대신-조상] - [대안주]

진적곳1 : [본향거리(이상순): 본향-가망-대신] - [대안주] - [조상거리(이상순): 말명-조상-대신말명-말명]¹⁴¹⁾

진적곳2 : [본향거리: 본향-가망-대신] - [대안주] - [조상거리(이상순): 말명-대신말명-조상]¹⁴²⁾

진적곳3 : [본향거리: 본향-가망-대신] - [대안주1] - [조상거리(이상순): 말명-대신말명-조상] - [대안주2]¹⁴³⁾

서울 진적곳이 대안주를 중심으로 조상거리와 본향거리가 배치되며, 재수곳과 달리 조상거리가 덧붙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진적곳에서 조상거리를 따로 추가하여 연행할 때 확장의 중심이 되는 제차는 대신말명거리라는 점이다.¹⁴⁴⁾ 조상거리의 일부로 대신말명거리를 연행할 때에도 조상의대와 더불어 은하몽두리를 의대로 착용하여 대신말명의 신격을 명확히 드러낸다. 또 대신말명거리는 앞서 논의했듯 반드시 당주무당이 연행하기 때문에 대신말명이 확장된 조상거리 역시 당주무당이 직접 연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보편적 제차를 재구성하는 두 번째 특징은 대감거리의 확장이다. 대감신은 서울 무속에서 재수와 복록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관념하여 신격이 미치는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 이중 진적곳에서 특별하게 모셔지는 대감은 몸주대감, 전안대감, 상산대감 등이 있다.

대개 재복은 생업을 통해 일군다. 따라서 생업과 관련된 대감은 업대감으로 따로 두고, 재가집이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정육점대감, 의술대감 등으로 세분한다. 만신의 진

140) 이렇게 조상의 범주가 확장하는 것은 무당, 전악, 단골 등 무속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무속신앙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관계를 맺으면서 실제로 혼인과 혈연을 통한 가계를 구성하기도 한다는 점도 이유가 될 것이다. 서울곳의 무속신앙에 있어 조상신의 개념은 이용범이 다수의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특히 이와 같이 강신과 세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강신무·세습무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용범, 『한국무속학』 제7집, 한국무속학회, 2003.)에서 지적한 바 있다.

141) 자료9, 이상순 만신 진적곳1, 2009년 4월 12일, 자택 전안.

142) 자료14, 이상순 만신 진적곳4, 2011년 11월 6일, 자택 전안.

143) 자료12, 이상순 만신 진적곳3, 2011년 3월 24일, 자택 전안.

144) 대신과 대신말명을 구별하여 서술하는 것은 앞서 3장에서도 서술했다시피 대신은 일반적인 몸주신이자 무조신이며, 대신말명은 만신의 개인적인 무업 조상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적곳에서 무업과 관련한 대감이 몸주대감과 전안대감이다. 몸주대감은 뜻 그대로 사람의 몸에 깃든 주된 신을 일컫는다. 남자는 열두 혼백, 여자는 아홉 혼백으로 성별에 따라 깃들여진 혼백의 수가 다르고, 그것을 맡은 대감도 남자는 몸주대감, 여자는 직성대감으로 구별된다고 서울곳 만신들은 여긴다. 몸주대감과 직성대감은 기주와 대주의 성별을 구별하는 것 이외에 신격의 위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굿을 할 때 만신들도 여자에게도 몸주대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몸주대감은 일반 재수굿에서도 모셔지지만, 만신의 진적곳에서는 더욱 각별하게 연행된다. 강신무에게 몸주신은 영력의 주체가 되는 신으로, 굿을 할 때 잠깐씩 실려서 공수를 주는 신과는 달리 무당이 평소에도 자신의 개인 신당에 모시는 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산대감은 이상순의 진적곳 외에도 1970년대의 초기 진적곳 자료인 문덕순 만신의 진적곳과, 이지산 만신의 진적곳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거리명을 대감거리가 아니라 상산대감거리로 기록하고 있어 진적곳의 대감거리의 중심이 되는 신격이 상산대감임이 나타난다.

대감거리에서 이들을 연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이름을 지어 호명만을 하는 것이고, 다음은 세부 제차로 따로 두어 연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리를 추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거듭 연행하는 것이다. 앞서 두 가지의 방식은 다른 서울곳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마지막 방식이 특별하다. 진적곳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연행된 것은 자료9와 자료12로 모두 이상순 만신의 진적곳 사례이다. 두 자료 모두 대감거리 중간에 연행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제차를 구성하였다. 자료9¹⁴⁵⁾에서는 [대감거리1] - [대감거리2] - [조상거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자료12¹⁴⁶⁾는 [대감거리1] - [조상거리] - [대감거리2]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모두 대감거리1은 당주인 이상순 만신이 맡았고, 나머지 대감거리2는 다른 만신이 맡아 연행했다. 거리 도중 연행자를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일견 체력적인 문제 등으로 연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만신에게 넘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¹⁴⁷⁾, 실제 연행된 전체 제차의 규모나 확대되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거리를 나누는 기준은 제차를 구성하는 신격에 있다. 몸주대감, 전안대감, 대신대감, 상산대감 등 만신의 무업과 관련된 제차는 당주가 직접 연행하고, 다른 영역의 대감은 다른 만신이 연행하였다. 자료9에서 두 번째 대감거리를 연행하게 된 강민정 만신이 거리의 구성을 묻자, 이상순 만신이 ‘만신말명 대신대감 이 씨기자 몸주대감 아들 몸주대감 며느리 몸주대감을 따로 놀라’고 지시하여 두 차례 거듭 연행되기도 하였다.

서울 진적곳에서 제차 운영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만신의 굿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무속신앙에서 ‘나’와 가장 가깝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격은 조상이다. 그리고 ‘나’와 조상을 연결하는 것은 무당이다. 또 무당을 신과 연결하는 고리는 몸주신과 대신이다. 그런데 무당의 신국은 굿을 의뢰하는 ‘나’와 굿을 연행하는 ‘무당’이 같다. 때문에 조상과 더불어 몸주신과 대신을 각별히 모셔야만 하는 것이다. 무당에게 있어 조상은

145) 이상순 만신 진적곳, 2009년 4월 12일, 자택 전안.

146) 이상순 만신 진적곳, 2011년 3월 24일, 자택 전안.

147) 자료 12는 실제 이상순 만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 굿이 전반적으로 축소 운영되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조상과 무업으로 맺어진 조상 두 개의 영역에서 존재한다. 대신말명거리를 진적을 올리고 곳의 초두에 연행한 것도 같은 이치이다. 조상거리 이전에 모셔지는 대안주 역시 몸주신과 조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산 최영은 만신의 조종으로 여겨지는 신격이기 때문이다. 서울곳 무당에게 있어 덕물산은 본향의 또 다른 공간이고, 최영은 조상의 또 다른 인물이다. 대감거리에서도 몸주대감, 전안대감, 상산대감 등 무업과 관련한 신격을 각별히 놓아 뒤이어 진행되는 조상거리와의 연결 사슬을 하나 더 추가한다. 김현선이 서울곳 구성의 원리를 ‘거리 거리 열두 거리’라는 관용구에 주목하여 요연하게 밝힌 바 있다.¹⁴⁸⁾ 그가 정립한 바와 같이 서울곳은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구성된다. 본향-대안주-조상, 대감1-대감2 등으로 반복되어 이어지는 진적 곳의 거리 구성 원리는 이 같은 서울곳의 복합적인 면모를 잘 드러낸다.

3. 내림곳 재연을 통한 만신의 재탄생

서울 진적곳의 성격을 곳을 올리는 목적과 기능을 만신의 개인적 측면과, 무업 공동체의 사회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진적곳을 올리는 이유이자 목적을 살핀다. 서울 진적곳은 자신이 무당으로 재탄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연행한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시작된 생일이 중요한 기념일이다. 평생을 통해 크고 작게 생일을 기린다. 생일을 기념하는 가장 일반적인 의식은 미역국을 먹는 것이다. 아이를 낳은 산모가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이 미역국이다. 미역국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탄생을 기리는 동시에 나를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를 기리는 행위이다. 만신의 진적곳도 마찬가지이다. 입무한 날, 즉 내림곳을 한 날은 만신에게 태어난 생일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무업을 유지하며 사는 동안에는 내내 그 날을 기념한다. 이 같은 기념 의식이 바로 진적곳에 해당한다. 기념을 하는 방식도 유사하다. 만신으로의 생일인 내림곳을 요약적으로 재연하고 만신인 나를 있게 한 무조신을 기리기 때문이다.

서울 내림곳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드물기 때문에 다소 번다하지만, 먼저 내림곳의 과정과 의미를 약술한다. 서울곳은 강신무권에 속한다. 때문에 서울곳 무당은 신병을 앓다가 내림곳을 통해 무업에 입문을 한다. 그러나 내림곳은 사회적으로 무업을 꺼려하는 경향이 남아있고, 개인적으로는 신병의 고통을 겪는 와중에 치러진다. 때문에 내림곳 현장을 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의례 운영의 측면에서는 일회적이며, 예비 무당이 곳의 객체가 된다는 점도 내림곳의 사례를 조사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김현선이 서울 내림곳의 실상을 소개한 바¹⁴⁹⁾가 있어 의의가 크다. 몇 개의 조사 사례를 더하고, 1930년대의 과거의 경우를 비교하여 먼저 서울의 내림곳에 대해 논의한다.

148) 김현선, 앞의 책(2011).

149) 김현선, 앞의 책(2006), 「국사당 서울 내림곳의 현지 조사 보고와 연구 과제 - 임경식 내림곳(2007년 6월 26일)을 예증으로 삼아서-」, 미발표 논문

서울 내림굿의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2007년6월26일 임경식 내림굿	B. 2007년10월4일 안윤서 가리굿	C. 2011년3월28일 김승미 가리굿
0. 상산돌기(임경식)	0. 상산돌기(안윤서)	0. 상산돌기(김승미)
1. 주당물림(이상순)	1. 주당물림(강민정)	1. 주당물림(이길수)
2. 부정(이상순)	2. 부정(강민정)	2. 부정(이길수)
3. 가망(이상순)	3. 가망(강민정)	3. 가망(이길수)
4. 청계배웅(이상순)	4. 청계배웅(이상순)	4. 청계배웅(이상순)
5. 진적	5. 진적	5. 진적
6. 대신말명거리(임경식)	6. 종지집기(안윤서)	6. 대신말명거리(김승미)
7. 종지집기(임경식)	7. 신불림(안윤서)	7. 천궁불사맛이(김승미)
8. 천궁불사맛이(임경식)	8. 천궁불사맛이(안윤서)	8. 천궁불사맛이(김연희)
9. 산신도당거리(임경식)	9. 산신도당거리(안윤서)	9. 산신도당거리(김미애)
10. 신장거리·신장기뽐기(임경식)	10. 대신말명거리(안윤서)	10. 분향거리(김미애)
11. 천궁불사맛이(강민정)	12. 천궁불사맛이(이상순)	11. 대안주(이길수)
12. 산신도당거리(마두선)	13. 산신도당거리(이상순)	12. 산신도당거리(김승미)
13. 분향거리(이상순)	14. 분향거리(이상순)	13. 대안주(김승미)
14. 대안주·술레불림·신레불림 신불림·자불림(임경식)	15. 대안주·관성제군·상산·별상 (강민정)	14. 신장기뽐기(김승미)
15. 대안주(강민정)	16. 대안주(안윤서)	15. 몸주놀이(김승미)
16. 조상거리(이상순)	17. 몸주놀이(안윤서)	16. 조상거리(이상순)
17. 안당제석(마두선)	18. 신장기뽐기(안윤서)	17. 안당제석(최기자)
18. 성주거리(마두선)	20. 대안주·신장,대감(강민정)	18. 성주거리(김연희)
19. 창부-계면(마두선)	21. 조상거리(원옥희)	19. 창부-계면거리(김미애)
20. 뒷전(강민정)	22. 안당제석거리(원옥희)	20. 뒷전(김미애)
	23. 성주거리(원옥희)	
	24. 몸주놀이(안윤서)	
	25. 창부-계면거리(강민정)	
	26. 뒷전(원옥희)	

세 개의 내림굿이 모두 인왕산 국사당에서 진행됐다. 국사당은 최영과 여러 신이 모셔진 곳으로 남산의 국사당을 고스란히 옮겨 지은 곳이다. 굿이 많을 때는 동시에 여러 개의 굿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최영장군의 무신도가 있는 쪽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덕물산 최영장군당의 기능을 대신하는 곳으로 관념되는 곳이며, 서울굿의 성지 중 하나로 여겨진다. 때문에 내림굿을 국사당에서 진행하는 것은 굿에 특별한 정성을 들였음을 의미한다.

사례 A에서 굿을 의뢰한 무업 후보자 임경식은 생전에 유명한 서울굿 만신이었던 고 임기욱의 누나이다. 본인이 신가물이 있었고, 남동생의 뒤를 따라 시봉을 섰던 경력이 길어 이미 서울굿 문화에 익숙하였다. 음력 생일을 맞아 서울굿 무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평소 인연이 있던 마두선에게 내림굿을 의뢰하였다.

사례 B와 C의 무업 후보자는 모두 이미 내림굿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례 B의 안

윤서는 3년 전부터 신병을 앓다가 5월에 내림굿을 올렸다. 꿈에 신에게 문서 두루마기를 받고 이상순 만신의 이름이 보여서 같은 해 10월에 이상순을 신어머니로 모시고 내림굿을 받게 되었다. 사례 C의 김승미도 이미 내림굿을 하고 신당을 차렸지만, 본격적으로 무업에 매진하기 위해 이상순을 신어머니로 모시고 내림굿을 올린다 하였다. 당주는 이상순의 신딸인 김미애 만신이였다. 이렇게 이미 내림굿을 했지만 무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신이 두서없이 들어섰거나 하는 등의 사정으로 내림굿을 다시 하는 경우를 가리굿이라고 한다. 어긋난 것을 바로잡다는 의미를 갖는다. 크게 불리기 위해 굿을 한다 해서 솟을굿이라고도 부른다. 많은 신딸을 두고 있는 이상순 만신도 내림굿을 많이 해줬지만 ‘생짜’로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여 가리굿과 솟을굿이 서울굿의 무업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가리굿과 솟을굿의 형식이나 내용이 내림굿과 다르지 않아 모두 하나의 갈래에 속한다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있어 흥미롭다.

아키바가 기록한 강신무의 입무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한다. 무녀 C는 덕물산 무가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도 덕물산에서 유명한 무당으로 활약하고 있다. 9세에 신병이 들어 13세에 계면을 돌고 장군당 앞에서 춤을 추다가 졸도한 이래 무병이 잦아들었지만, 경성으로 혼인을 하여 온 뒤 또 한 차례 무병이 왔다. 두 번째 계면을 돌아 돈과 곡식을 마련하여 입무굿을 하였지만 말문이 열리지 않아 무당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다시 신병이 들어 세 번째 걸립을 돌고 입무굿을 행하였으나 나라의 금지가 심해 무업을 행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다 후일 마지막 한강 연안 금성당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입무굿을 하고 진짜 무녀가 되었다는 사례이다.¹⁵⁰⁾ 이 기록을 통해 과거에도 신병이 반복되거나 무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내림굿을 반복하여 행하였고, 입무굿 장소로 무속의 주요 성지를 선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림굿의 과정을 주요 굿거리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입무 후보자는 내림굿을 하기 전에 상산돌기를 수행했다. 사례 C 김승미는 상산에 물고를 받으면서 본인의 거주지가 있는 안산과 관악산을 순례하고 왔다. 부정과 가망 뒤에 상산돌기 동행자와 함께 필요한 물품을 싣던 보자기를 뒤집어쓰고 청계배웅에 임했다. 신어머니 이상순이 앞서 III장에서 논의했듯 청계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퇴치의 대상이자 한편으로는 죽은 무당과 광대의 낯으로 특히 상산 장군당 내 청계당에 모셔져 송양의 대상이 되는 신격이다. 내림굿에서 청계배웅은 신어머니가 입무 후보자를 앉히고 조밥과 오색천을 찢고 복어를 던지고, 소지를 사르는 등의 행위와 함께 열두거리로 연행한다. 입무굿 중 허주를 벗기는 허주굿에 해당하며 내림굿의 핵심 절차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청계 배웅을 통해 허주를 벗겨낸 뒤에 청배한 제신들에게 진적을 행한다.

이후 입무 후보자의 거리가 이어진다. 진적을 올리는 도중 당악에 맞춰 도무하여 바로 대신말명거리로 이어진다. 은하몽두리를 입고 방울과 부채를 든 채 도무하여 공수를 내린다. 입무 후보자이기 때문에 유창한 공수를 전하기보다 대신말명을 통해 강신한 신

150)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하), 57-58쪽.

의 정체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절차는 종지집기이다. 입무 후보자 모르게 돈, 콩, 여물(짚), 쌀, 물, 팥, 잣물 등을 종지에 넣고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종지로 봉해 둔다. 입무 후보자가 이 중 세 개의 종지를 집는데, 각각의 내용물이 장차 무당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분야로 잘 풀리게 되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신어머니가 종지를 개봉하고 각각의 의미를 짚어준다. 따라서 종지집기는 입무 후보자의 무업의 향방을 점치는 내림굿의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임경식은 돈, 콩, 여물(짚)을 집었다. 돈을 집은 것은 앞으로 잘 불리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콩은 콩같이 굵은 단골을 많이 잡겠다는 뜻이며, 여물은 진오귀 대신할머니라며 진오귀 굿으로 잘 불리겠다는 의미를 두었다. 안운서는 물, 쌀, 짚을 집었다. 물은 사해용궁신, 쌀은 대신할머니가 도와주겠다는 의미라 하였다. 만약 입무 후보자가 잣물이 든 종지를 집게 되면 무당이 될 수 없다 하여 내림굿을 중지하게 된다.

이후의 굿은 두 겹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천궁불사거리, 산신도당거리, 대안주거리와 같은 중요한 거리를 입무 후보자가 한 번 연행하고, 다시 신어머니나 선배 만신이 제대로 연행을 하는 것이다. 입무 후보자가 무업의 첫발을 딛는 굿이기 때문에 주요 거리를 연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서울굿의 주요 신격을 두루 강신하게끔 하는 요약적 체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후 신어머니와 선배 만신이 굿법에 맞게 거리를 연행하여 굿을 진행한다. 입무 후보자에게는 이를 견학하고 학습의 기회도 되기도 한다.

입무 후보자가 굿을 연행할 때는 굿법에 서툴기 때문에 의대를 갖추고 당약춤을 추는 것으로 내용이 이루어진다. 내림굿이기 때문에 입무 후보자에게 어떤 신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대신말명거리처럼 입무 후보자가 의대를 갖출 때마다 신어머니가 해당하는 신이 들어왔는지를 질문으로 확인하며 굿거리를 진행하였다. 안운서의 내림굿에서는 천궁불사거리 중 옥수동이를 타자, “누구셔?” “어디서 오셨어요?” “말하세요” 등으로 도무한 신격을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자, 불리지도 못할(호명) 신령이 오시면 뭐하냐며 그럴 신령이라면 천도해버리겠다고 으박지르기도 했다. 불사 의대를 벗기고 산신을 모셔오라며 흥철력을 입히고 다시 도무하도록 했다. 내림굿에서는 강신한 신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신격의 확인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다. 신어머니의 질문하고, 입무 후보자가 어디에서 온 누구라는 형식으로 신격을 호명하는 것이다. 강신한 모든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다. 허주라면 벗겨버리고 몸주로 모실 신격을 선별하는 것이 내림굿의 목적이자 핵심이다. 때문에 이를 위한 과정이 내림굿을 하는 내내 거듭해서 진행된다. 입무 후보자는 ‘말문이 트이지’ 못한 상태이다. 때문에 내림굿은 말로 진행이 되는 무가보다는 동작언어라 할 수 있는 무무, 무복, 무구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대를 갈아 입거나 겹쳐 입고, 천으로 이루어진 ‘다리’를 두르고나 찢고, 옥수동이를 타는 등의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진다.

입무 후보자가 연행하는 거리 중 특히 대안주거리를 주목해야 한다. 신례불림, 혹은 술례불림이라는 독특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과정은 임경식의 내림굿에서 잘 드러났다. 이경식이 상산거리를 마친 뒤, 신어머니가 언월도와 창을 신장기로 싸

서 이것으로 임경식의 팔을 등 뒤로 돌려 포박했다. 밖으로 나가 임경식의 몸을 앞뒤로 흔들며 오색천과 복어, 조밥 등으로 청계를 벗긴다. 결박한 상태로 굿당으로 돌아와 대안주상에 절을 시키고 이후 악사와 선배만신들에게 절을 시켰다. 입무 후보자를 군신의 위엄을 상징하는 무구(武具)로 결박하여 신법의 지엄함을 알리는 것이다. 내림굿은 개인적으로는 무업을 시작하는 관문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입무 후보자가 무업 사회의 신규 구성원으로 편입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위로는 신에게 순종하고, 아래로는 신어머니와 악사, 동료 만신 등 기존의 구성원들을 따를 것을 약속하는 의식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 입무 후보자는 약식으로 대안주거리를 연행하면서, 몸에 들어온 다양한 몸주신을 호명하고 논다. 임경식은 칠성, 불사, 용궁부인, 임씨대신, 백마신장, 지리산산신할아버지, 오대산도당할아버지 최영장군, 동자, 선녀, 별상 등의 몸주신이 강신하였다. 안운서는 작두장군과 창부신이 들어와서 작두를 타고, 창부거리를 연행했다. 김승미도 상산, 별상, 신장을 모시고, 이후 동자동녀신을 놀았다. 작두장군과 동자동녀, 선녀신 등과 같이 서울굿에서 따로 모시지 않는 신들을 대안주거리에서 함께 연행하는 이유는 내림굿의 성격에 기인한다. 입무 후보자가 주인공인 굿이기 때문에 입무 후보자의 몸에 실린 몸주신을 중심으로 굿이 구성된다. 또 입무 후보자가 기존의 무업 사회 구성원에게 절을 하며 인사를 올렸듯, 자신이 모시는 몸주신과 기존의 서울굿의 신격을 융합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입무 후보자가 연행하는 대안주거리 전후에 신장기 뽑기를 진행한다. 본래 신장거리를 연행하는 방식 중 하나이지만, 이를 특별히 길게 노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과 무당, 단골, 구경꾼 등 굿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방신장기를 뽑게 하며 공수를 내린다. 내림굿은 굿거리를 마치고 내리는 명잔복잔이나 조율산, 떡산 등도 나눌수록 좋다며 두루 돌렸다. 영험한 공수를 내리고 축원을 해주는 것은 무속 신앙에서 사제자와 단골 관계를 묶어주는 의식 행위이다. 내림굿을 통해 무업 사회의 또 하나의 구성원인 단골에게도 새로운 사제자가 탄생했음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단골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홍보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셈이다.

대안주거리를 마치고 조상거리를 연행한다. 여염집의 굿은 본향과 조상을 붙여서 한 번에 연행한다. 그러나 만신의 굿에서는 본향과 조상을 나누고 대안주거리 뒤에 조상거리를 따로 연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특징은 진적굿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내림굿의 모습이 온전한가를 점검하기 위해 아키바가 기록한 1930년대 경성의 입무굿 실상을 인용한다.

㉠결립으로 얻은 돈과 곡식으로 구비한 공양물을 신전에 바치고, ㉡먼저 신어머니가 보통의 굿에 의한 부정·가망·진작의 세 거리를 행하고 또한 허주가망의 한 구절을 덧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입무 후보자 즉 무병에 걸린 자가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면, 신어머니는 그에게 조밥을 던지고 또한 삼베와 흰 목면을 찢는 일이 덕물산의 햇푸림과 같다. 더구나 이 경우 천을 찢는 행사는 '순둔다리를 찢는다'라고 하고 허주를 쫓고 몸을 가볍게 하려는 주술이라고 한다. 또한 ㉣미리 신어머니가 무병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메벼·찰벼·자른 짚·소두·대두·녹두·기

장·밥·소금·물·소똥의 열두 가지를 각각 열두 개의 종으로 포장하여 신단 앞에 나란히 놓고, 그 중 한 가지를 집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 쌀 또는 물을 집는 자는 소위 큰무당이 된다고 하는 신복(神卜)이 있다. 그로부터 ㉠그 사람이 산마누라를 행하고, 다음으로 점반에 쌀을 수복이 놓고 이것을 양손에 쥐고 곳을 보러 모인 사람들 앞으로 가서 일일이 쌀점을 치며 사람들의 운수를 알려주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몸주의 신령을 얻고 그 영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 후 신어머니는 열두 거리곳 중 마지막 곳거리 뒷전까지를 행한 후 행사를 마친다.

1930년대 경성의 입무곳의 모습이 오늘날 서울의 내림곳과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확인된다. ㉠은 걸립과 내림곳의 상관성을 전한다. 신병을 앓는다고 바로 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립이라는 예비 단계를 거친 후에 내림곳을 받고 무당이 되는 것이다. 입무곳에 앞서 걸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 마련의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다. 걸립은 강신을 통해 신과 소통하게 된 입무 후보자가 무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신의 도움이 필요한 인간, 즉 단골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배우는 수련의 과정이 된다. 이렇듯 신의 말을 전해 받은 대가로 비용을 마련해 내림곳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당의 본질이 신과 인간의 매개가 되어야 함을 일러준다. 지금도 만신을 찾을 때 돈과 함께 쌀을 올리는 단골이 없지 않다. 이 곡식은 마지(밥)와 떡으로 형태를 전환해 신을 위한 제물로 올려진다. 그리고 곳을 통해 다시 단골들에게 나누어진다. 내림곳의 걸립은 단골의 공양이 입무 후보자를 무당으로 만들고, 그 공양이 축원과 함께 다시 단골에게 돌아간다. 내림곳의 걸립은 단골과 무당의 관계가 상호 수혜의 관계라는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행위라는데 의의가 크다.

오늘날 무업 후보자들도 점사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내림곳을 준비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걸립을 하던 과거에 비하면 행위도 축소되고, 내림곳의 비용에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걸립이 가진 의미는 경제적 가치보다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 가치가 더 중요할 것이다. 내림곳과 진적곳에서 단골들에게 호가와 제물을 나누어주고, 공수를 통해 신의 축원을 전하는 행위는 걸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같다. 지금도 여전히 걸립의 본질은 만신의 곳을 통해 살아 있는 것이다.

㉠은 허주곳의 순서와 실상이다. 만신의 곳에서 부정-가망-진작 뒤에 이루어지는 청계배웅이 그 내용과 형식이 허주곳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앞서 Ⅲ장에서 밝힌 바 있다. ㉡은 종지집기를 실상과 기능이다. 1930년대에는 12개를 준비하고, 오늘날 내림곳에서는 7개를 준비해서 내용물의 종류와 수가 달라졌다. 그 의미는 여전히 같다. 첫째, 입무 후보자가 스스로 종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신과 응감한다. 또 이것이 장차 무업의 향방을 예언하는 주술적인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 과거와 같다. 둘째, 종류는 축소되었지만 종지의 내용물은 여전히 각종 곡물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단골이 무당을 통해 신에게 곡식을 공양한다. 신은 곡식을 매개로 무당에게 뜻을 알린다. 때문에 입무 후보자의 종지집기는 넓게는 ㉠쌀점과도 연결된다. 곡식은 인간이 자연에서 얻은 수확물이다. 인간의 노력과 자연의 은총이 응감하여 얻은 결과물이다. 곡물의 공양이나 종지집기, 쌀점과 같은 무속신앙행위는 이 같은 이치를 상징한다. 때문에 종지집기의 기능과

방식,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㊸은 내림굿의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하였다. 내림굿을 통해 확보한 영적 능력을 무업 사회에 입증하는 시기와 방법이다. 이는 각각 예비 입무자가 산마누라거리를 연행한 뒤, 쌀점을 통해서라고 지목되었다. 이후 ㊸처럼 다른 만신이 뒷전까지의 과정을 연행하고 굿을 마친다. 산마누라거리는 산신거리가 아니라 대안주 중 상산거리를 뜻한다. 때문에 현재의 내림굿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내림굿에서 몸주신을 확인하는 과정은 굿의 초반과 중반에 거듭 행해진다. 초반은 대신말명거리와, 천궁불사거리, 산신도당거리 등을 연행하면서 한 번 이루어지고, 중반에 대안주거리를 연행하면서 다시 이루어진다. 특히 입무 후보자가 대안주거리를 연행할 때 상산마누라거리 뒤에 신례불림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 작두신령이나 동자·동녀를 놀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설혹 서울굿의 신격체계와 다소 거리가 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몸주신이라는 자격으로 대안주거리에 제차를 할애하여 모시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주거리의 핵심은 상산거리 즉, 최영거리이다. 만신의 조종으로 숭배하는 상산거리를 중심에 두고 몸주신을 하위 제차로 설정하여 굿을 구성한 것은 내림굿이 갖는 집신굿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몸주신과 서울굿의 주요 신격을 상산마누라를 중심으로 융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무굿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절차라 할 수 있는 내림굿과 집신굿의 마친 결과를 영험한 공수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단골을 잡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본질은 같지만 방법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과거에는 대신반에 쌀을 놓고 점을 쳤지만, 현재는 신장기 뽑기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하다. 첫째는 강력한 무력을 가진 장군신이라는 신격의 유사성에 근거한 변화일 수 있다. 대안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장군신의 위계를 가진 신장의 무구를 이용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 신장기는 술례불림의 전 단계에서 입무 후보자를 결박하는 용도와 허주를 벗겨내는 청계 배웅에서도 주요 무구로 사용된다. 강력한 힘으로 샷된 기운을 제압할 수 있는 무구(武具)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수의 용이함을 들 수 있다. 신장기 뽑기는 뽑는 색상별로 점괘가 색상별로 뜻하는 점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점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점사를 받는 단골에 무구로도 사용되고 있어. 신장기는 오방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뽑는 색깔을 보고 공수를 준다. 빨간색은 재수, 노란색은 조상 등으로 색상에 따라 점괘의 운곽이 정해져 있다. 때문에 공수를 내리는 입무 후보자나 공수를 받는 단골 모두 점괘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키바는 경성의 정식 입무굿은 처음에 허주를 쫓는 허주굿, 다음으로 몸주의 신령을 부르는 내림굿, 마지막으로 몸주의 신령과 다른 여러신과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집신굿이라는 3개의 거리로 구성된다고, 입무굿의 구성과 목적을 기록한다. 오늘날 서울의 입무굿은 내림굿으로 통칭되어 허주굿, 집신굿이라는 명칭을 굿을 하지는 않는다. 이미 1930년대에 이미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내림굿이 용어나 형태의 변화는 있더라도 서울의 입무굿이 갖고 있던 목적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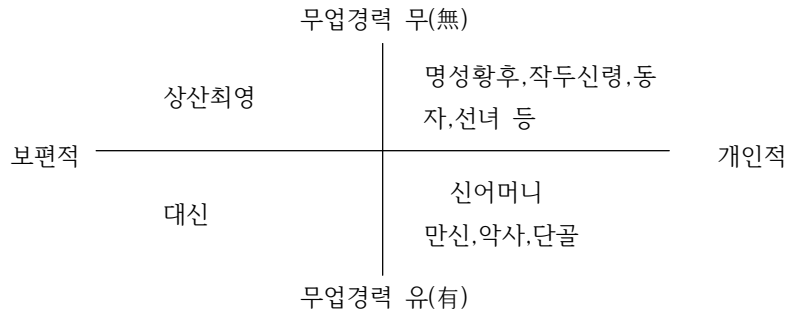
능은 고루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계배웅거리를 통해 허주곳을 대신하고 대신말명거리와 신례불림를 통해 몸주를 모신다. 이어 대안주거리와 조상거리를 통해 기존의 신격과 본인의 몸주신을 융화시키는 집신을 이루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내림곳과 진적곳의 긴밀한 연관성이다. 만신으로 탄생한 내림곳의 구성과 목적을 진적곳으로 재연함으로써 이를 기념하는 것이다. 첫째, 진적곳은 내림곳의 허주곳에 해당하는 청계배웅을 내림곳과 같은 순서와 목적으로 연행한다. 곳의 초반에 부정과 가망을 청배한 뒤, 신어머니나 그와 유사한 만신이 연행하는 청계배웅의 객체가 되어 제차를 진행한다. 둘째, 진적곳은 몸주신을 청하는 내림곳에 해당하는 과정을 대신말명거리로 재연한다.

흔히 서울곳에서는 신병을 앓다가 강신이 겪는 과정을 ‘손뺨을 치고’ ‘말문이 트이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 같은 과정을 대신말명거리의 도입부로 집약적으로 재연한다. 셋째, 진적곳은 몸주신과 서울곳의 제신(諸神)을 무조신의 개념으로 융합한다. 만신은 내림곳을 계기로 모시게 되는 몸주신을 평생 각별하게 대우한다. 무업의 근원이 되는 신격이고 가장 가까운 신격이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신도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신앙의 대상은 조상이다. 무속신앙의 신도이자 사제자라는 만신의 특수한 위치에서 몸주신은 조상신의 범주와 결합한다. 이와 같은 관념은 내림곳 이끄는 선배 만신과 입무 후보자를 신어머니-신딸이라는 관계로 설정하는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들의 일부는 무업으로 입문하게 한 조상이라는 의미에서 무조신이라는 범주로 재편성된다.

서울 진적곳에서 무조신이라는 개념은 대신말명과 상산 최영으로 대표된다. 이들은 각각 진적곳을 올리는 만신의 개별적 무조신과 서울곳의 보편적 무조신으로 기능을 한다. 신격의 융화는 1차적으로 세상을 떠난 무업 공동체 구성원의 넋을 조상신앙과 무조신앙의 범주에 편입시킨다. 이러한 원리는 조상거리와 대신말명거리를 통해 구현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들의 신격을 보편적 무조신인 상산 최영을 통해 다시 한번 융합시킨다. 상산 최영을 통한 융합은 두 개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1차적으로 구축된 무조신격을 융합하는 방식이다. 일반 재수곳에서는 하나로 연행하는 본향거리를 조상과 따로 갈라서 상산거리를 중심으로 신격의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본향 - 상산 - 조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그것이다. 추상적인 근원이 되는 본향을 놓고, 보편적 무조신인 상산을 연행한다. 그리고 그 뒤에 개인적 무조신인 대신말명을 놓고 난 뒤에, 혈연적인 조상을 배치한다. 무조를 조상의 개념으로 두고 혈연으로 맺어진 조상보다 무업, 즉 내림곳을 통해 맺어진 조상을 우위에 두는 관념이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잘 드러난다. ‘만신말명 대신몸주’라 하여 무조신과 몸주신은 그 중요성과 만신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종종 같은 범주의 관념으로 통용된다. 한편 서울 진적곳에서는 몸주신과 무조신은 보편적인가 개인적인가, 무업의 경력의 유무 라는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만신으로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니만큼, 무업 경력의 유무도 중요하다. 그날을 기리는 내림곳과 진적곳에서 서울 진적곳에서 드러나는 몸주신과 무조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둘째는 내림굿에서 맞아들인 몸주신을 상산 최영을 중심으로 한 무조신앙으로 융합한다. 내림굿에서 상산을 모시는 대안주거리를 중심으로 집신굿의 목적과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순서와 원리가 같다고 하겠다. 대신말명거리에도 대신할머니로 대표되는 보편적 무조신과 신어머니와 선대 무업공동체 구성원으로 대표되는 개인적 무조신이 있는 것처럼, 몸주신에도 보편적 무조신이라 할 수 있는 최영과 개인적 몸주신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신격이 존재한다. 이상순 만신의 경우 작두신령과 명성황후가 대표적인 몸주신인데, 서울굿 만신이라는 정체성과 신격의 위계를 고려하여 명성황후는 대안주중 부인거리로 통합하였고, 작두신령은 굿의 별도 거리로 분리하였다. 다른 만신의 진적굿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내림굿과 진적굿 자료에서 만신에 따라 작두장군·동자·동녀·선관할아버지 등 다양한 위계의 몸주신을 모시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별한 점은 대부분의 자료에서 연행 주체가 내림굿은 무업 후보자가, 진적굿은 당주무당이 직접 연행하고, 그 순서는 상산 최영을 모시는 대안주거리 중간이나 뒤에 붙여서 연행하였다는 점이다. 만신의 조종이라는 상산 최영을 중심으로 몸주신의 영역을 구축하는 위함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서울 진적굿은 만신으로 태어난 내림굿을 재연함으로서 만신으로 태어난 것을 기념한다. 그리고 갓 몸주가 내린 청정한 상태를 되돌려 영력을 강화하여 무업의 번창을 기원한다. 내림굿의 순서와 원리가 진적굿과 같아서 만신의 굿을 구성하는 특별한 원리가 있고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만신의 굿의 실상은 1930년대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굿법의 전통을 계승하고 유지하려는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오늘날 굿은 신앙보다는 편의를 우선에 두고 이루어진다. 본래 굿은 신앙의 체계로 묶여진 사제와 신도의 의례이다. 그러나 경제성의 원리가 굿판에도 통용되면서, 단골은 고객이 되어 굿을 소비한다. 생산자인 무당은 소비자인 단골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맞춤형 굿을 제안한다. 단골이 지루할 수 있는 제차는 생략·축소하고, 단골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제차를 중심으로 굿을 간략하게 구성한다. 이러한 파행이 거듭되면서 굿의 온전한 실체는 깨져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만신의 굿은 전통의 굿법 아래 온전한 모습을 보존하려는 건강한 보수성의 원리가 반영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4. 무업 공동체의식 구현

서울 진적곳은 만신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이를 넘어 만신의 사회적 관계를 환기시키고 무업공동체 전반의 유대감을 다지는데 기여한다. 진적곳은 정기의례로 연행되어 이미 공동체문화로의 성격을 담보한다. 이용범이 지적했듯 정기의례는 세시의례의 하나로 자연과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고 조화하는 공동체적 생활방식에 토대로 하며, 수요자와 연행자 사이의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기의례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진적곳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¹⁵¹⁾

만신이 된다는 것은 무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기리는 진적곳은 만신 개인의 잔치이자, 무업 사회의 잔치이다. 내림곳이나 진적곳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단골판에 걸립을 돌아 마련한다. 단골들의 도움으로 곳의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진적곳이 갖는 공동체의식을 짐작케 하는 근거가 된다. 무업사회는 무당 외에도, 전악, 단골, 시봉자 등의 구성원이 존재한다. 이들 외에도 곳판에는 사 진작가, 학자, 기자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인다. 진적곳은 만신이 의뢰하고 주관 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아우르며 연행된다.

곳은 연행 의례이다. 때문에 연행의 주체와 객체로 구성된다. 연행 주체는 무당을 중심으로 악사와 시봉자 등이 있고, 연행 객체는 단골을 중심으로 곳판에 온 참관자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성원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맺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속 신앙의 사제자인 무당과 신도인 단골의 관계다. 사제자-신도의 관계는 일견 사제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우열 관계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단골의 의뢰가 없이는 곳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골의 필요가 곳의 성립과 성격을 좌우한다.

진적곳은 곳의 연행 주체였던 만신이 스스로 곳을 떼서 연행의 객체로 전환한다. 주객 관계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은 진적곳 전체에서 뿐 아니라, 세부적인 곳거리에서도 드러난다. 청계배웅이 바로 그 예가 된다. 청계배웅은 내림곳과 진적곳과 같은 만신의 곳에서 등장하는 특징적인 곳거리이다. 또 반드시 내림곳의 주인공인 입무 후보자와, 진적곳의 주인공인 당주 무당이 연행에 참여한다. 그런데 입무나 상산돌기를 하는 과정에서 따라 붙은 청계를 벗겨내는 거리이므로 연행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참여한다.

또한, 만신이 단골의 입장이 되어 정기적인 감사제(感謝祭)를 개최하는 것은 신도에게 신앙을 출산하는 모범이 된다. 임집의 천신곳은 특별한 용무가 있을 때 열기도 하지만, 자연의 순환을 주기로 신에게 감사드리는 계절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서울의 무속신앙 체계에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계절이 바뀔때나 일 년에 한 번 곳을 모시기 어려우면, 적어도 곳의 효험이 미치는 기간으로 여겨지는 '이태말미 삼년시력'은 지켜야 한다고 여긴다. 비단 일반 신도인 임집에서도 이 같은 관념이 통용되는데, 사제자인 만신의 곳이 이

151) 이용범, 「근대화 과정에서의 무속과 공동체 문화」, 『구비문학연구』 제21집,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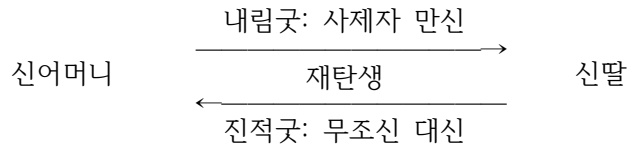
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적곳은 감사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개인적으로는 무업의 번창과 영력을 강화하는 굿덕을 입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도들에게 모범적 선례를 남겨 신앙을 독려하는 계기가 된다.

주체에서 객체로의 역전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를 되짚어주는 계기가 된다. 마치 무게중심이 뒤틀린 저울의 원점을 조정하는 것과 같다. 무당-단골의 관계를 되짚는데 그치지 않는다. 평소에는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꺼려지는 참관자나 구경꾼도 굿판의 주인공으로 끌어들인다. 관계의 재설정엔 연행 주체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조연자와 엑스트라 쪽으로 여겨지기 쉬운 악사와 시봉자도 굿판의 주인공으로 격상한다.

당주무당은 진적곳에서 동료·선배·후배 만신, 악사와 단골, 시봉자와 기타 무업의 인연을 진 참관자에게 개별적으로 영험한 공수와 덕담을 내린다. 대신말명거리를 중심으로 그 외 다른 거리에서도 다양한 세부 신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신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무업과 관련이 있거나 무조신의 범주에 속하는 신격으로 대신말명, 상산, 창부, 말명, 조상, 걸립이다. 천궁불사는 조상불사의 신격을 빌어서 이 같은 공수를 내렸기 때문에 넓게는 무조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신장과 대감이다. 이들은 재복을 담당하는 신격이라 다른 서울곳에서도 단골들에게 두루 덕담을 건내고 기예를 선보이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진적곳에서는 몸주대감(신장)·전안대감(신장)·제당대감(신장) 등처럼 무업과 관련한 세부 신격을 활용하여 단골과 악사, 신딸에게 공수를 내렸다. 또 신장거리는 신장기 뽑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수를 내리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 오색의 신장기는 뽑게 하여 즉석에서 일종의 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신장기 뽑기는 내림곳에서 단골에게 걸립을 도는 행위를 재연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 그 의미가 각별하다. 진적곳에서만 모셔지는 특수한 신격은 물론이다. 그리고 서울곳 일반의 보편적 신격이라도 무업을 기준으로 세부 신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진적곳의 특수한 목적과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굿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특별한 원리가 확인되어 의미가 있다.

공수를 통해 현재 굿판에 참여한 무업사회의 구성원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죽은 낋과, 선대 조상의 범주의 격상이 거듭 이루어진다. 대신말명거리는¹⁵²⁾ 신어머니를 통해 만신으로 태어난 신딸이, 신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대신말명의 신격으로 다시 살려냄으로써 출산-탄생의 관계를 역전하여 재현한다. 죽음과도 같이 고통스러운 신병을 앓고 있던 신딸은 내림곳을 통해 사제자의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무업을 익히고 성장한 신딸은 진적곳을 통해 세상을 떠난 신어머니를 무조신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전환의 결과물은 사제자 만신에서 무조신 대신말명으로 그 가치의 깊이가 한층 강화되었다.

152) 이은우는 대신말명거리의 이러한 화합의 원리를 서울곳의 무조 바리공주 신화와 관련하여 규명한 바 있다.(이은우, 앞의 논문, 270쪽)



관계 전환을 통한 재탄생은 신어머니-신딸이라는 부모-자식의 인연에서만 이루어는 것이 아니다. 그 범위는 무업사회 전반으로 확장하여 생전에 무업을 함께 했던 동료 만신과 전악, 단골, 시봉자 등 무업의 모든 참여주체를 아우른다. 이들은 진적굿판의 주인공이 되어 신의 축원과 제물을 받는다. 작고한 가족의 낮은 당주만신의 조상거리에 모셔져서 가족과의 값진 만남을 이룬다. 사후에는 대신말명거리를 통해 신격으로 모셔진다. 설혹 생전에 인연이 깊지 않은 사이라도 말명의 자격으로 굿판에 등장시킨다. 대신말명거리를 통해 신격으로 모셔지고 대우받는다. 진적굿은 관계의 재탄생을 이끌어 각각의 구성원들이 무업을 기반으로 묶여진 소중한 인연임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가족 이상의 깊은 인연으로 묶여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체험하는 장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편 굿의 목적은 공수를 통하여 성취된다. 신의 말을 만신의 입을 빌어 굿을 의뢰한 단골에게 전하는 것으로 단골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다. 만신은 그 대가로 단골에게 현물을 받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무업이라는 것은 직업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직업의 차원으로 보자면 만신은 굿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단골이 소비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업은 직업이라는 단어로는 규정할 수 없다. 만신과 단골이 주고받는 교환은 경제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신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사제와 신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기 때문이다.

마르셀 모스는 『증여론』¹⁵³⁾에서 원시 사회에서의 거래와 계약은 선물의 형식을 취하며, 이는 선물하기, 선물받기, 답례하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힌바 있다. 선물은 물질에 한정되지 않는다. 음식물, 제물, 봉사, 노동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특히 통과례나 종교의식에서의 주최자는 참여자들에게 후하게 선물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참여자들은 선물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거절을 하지 않고 받아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또 일정 기간 안에 이에 대한 답례를 해야하는 의무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치있는 재화가 끊임 없이 순환한다. 남들보다 앞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경제활동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신앙적인 교환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이를 통해 결연과 유대를 공고히 다짐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진적굿은 바로 이와 같은 가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무업으로 입문하여 무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몸주신과 무조신 등 서울굿 제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에 대한 답례의

153) 마르셀 모스 저, 『증여론』, 이상률 역, 한길사, 2011.

차원에서 진적굿이라는 감사의 의례를 올려 신을 위무하는 것이다. 이태말미 삼년시력이라는 관용구는 굿덕이 미치는 일종의 유통 기한이면서 동시에 신의 선물을 받은 수혜자가 인간이 답례를 해야 하는 마감 기한이다.

선물하기-선물받기-답례하기의 순환은 신에 대한 감사에서 공동체에 대한 감사로 대상이 확장한다. 단골이 만신에게 ‘선물했던’ 돈과 곡물이라는 유형의 재화와 신앙과 존경이라는 무형의 재화를 진적굿이라는 자리를 통해 ‘답례’하는 것이다. 진적굿에서는 굿판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공수와 축원이라는 무형의 물질을 선물하고, 호가와 떡·술 등의 유형의 물질을 선물한다. 만신이 진적을 가려느냐 천금 새남을 가려느냐 라는 무당들의 관용구처럼 진적굿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롭다. 본래 굿상에 올려지는 제물 외에도 국수나 갈비찜 같은 다양한 잔치 음식이 상에 올려진다. 그리고 이들은 겨느리새참이라 하여 굿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제공된다. 거리가 끝나고 바로 제물을 허물어서 굿판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절차는 마치 제사 후 행하는 음복과도 같은 의미가 있다. 조상신앙의 의례는 선대의 조상과 오늘의 후손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¹⁵⁴⁾이다. 특히 제의에 있어 떡과 술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오늘날은 화폐의 형태로 공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래 애동만신이 걸립을 돌거나, 만신이 굿을 땔 때는 쌀 등의 곡물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도 초하루나 길일에 만신의 전안을 찾으며 기원을 할 때는 쌀을 올린다. 이렇게 선물받은 곡식을 술이나 떡으로 상태를 변환하여 다시 단골들에게 답례한다.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재화의 선한 순환의 이치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른 서울굿에서도 떡은 중요한 제물이 된다. 그런데 무조신의 하나인 대신과 계면을 모시는 거리에서는 떡으로 산을 주고, 떡타령을 따로 불러 떡이 갖는 의미가 더욱 극명하다.

끈침이라는 특별한 기명을 활용하는 점도 진적굿의 순환의 의미를 살리는 예가 된다. 『조선무속의 연구』에 소개된 서울굿 무가 상산거리의 공수¹⁵⁵⁾ 중 “삼색예단에 흥독기 통비단에 양목예단의 끈침담침에 만만이 대령하였는야”라 하여 끈침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의 끈침은 석배와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석배(혹은 석배)는 굿거리를 이르는 다른 말인 석과 천을 통칭하는 의미로 배를 합친 말이다. 석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의 일종이다. 석배는 의례 중 기명의 하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에 따라 천의 색과 재질을 달리 한다. 예컨대 불사거리, 조상거리에는 흰색의 목면을 한 필 올리고 각기 불사석배, 조상석배라 이름한다. 또 최영과 별성을 위해서는 삼색예단으로 칭하는 5척 정도의 견직물을 헌납품으로 준비한다¹⁵⁶⁾. 다른 하나는 굿의 한 석을 맡아 연행한 만신에게 보상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임금이다. “전물 본 신령에 석배 본 만신”이라는 말이 이것의 근원이다.

154) 최길성, 「한국 조상숭배의 연구 -연구사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1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84쪽.

155)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상), 60쪽.

156)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위의 책(하), 134쪽.

김헌선·지연화¹⁵⁷⁾는 석베의 의미를 별비와 견주어 “무당이 단골과 약속을 하고 굿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힌바 있어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 석베 중 끈침의 의미를 따로 살펴야 한다. 끈침은 석베와 같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식물로 대안주상에 올려두었다가 별상거리가 끝나고 사슬을 세운 뒤 굿판에 있던 사람들에게 고루 끊어서 나누어 준다. 아키바는 경성의 천신굿을 소개하면서 별상거리 뒤에 “대감상 앞에 올려놓은 흰 목면[끈침이라 한다]을 주무가 한 발[팔을 벌려 오른손 가운데손가락 끝에서 왼손 가운데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남짓 잘라서, 굿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서술하여 그 연원이 적어도 1930년대로 소급함을 알 수 있다.¹⁵⁸⁾ 또한 끈침은 상산거리를 연행한 만신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굿판에 있는 모든 참여주체에게 분배되는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서울굿의 주인이자 무조신인 상산을 통해 거리를 연행한 만신 외에도 굿에 참여했던 모든 무업공동체의 일원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배려한 것이다. 단골에게 굿을 연행주고 댓가로 받은 석베를 만신이 진적굿을 통해 끈침으로 환원하여 답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만신의 진적굿 외에 임집의 천신굿의 자리에서도 통용되던 과정이었으나 현재는 실전되었다. 식물이 가진 경제적 의미가 퇴색하고, 일반 재수굿의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전통의 계승 의식이 강한 진적굿에서만 남아 있는 것은 그 역시 진적굿이 갖고 있는 주제의식과 달아 있기 때문이다.

진적굿을 통해 무업공동체에 환원되는 특별한 가치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굿 그 자체이다. 진적굿에서는 무당 사회의 총집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무당이 두루 초청된다. 이들 중에는 이제 막 무업에 입문한 애동기자나, 무업 경력은 오래 되었어도 기량이 미숙한 기자들도 다수이다. 당주무당 혹은 누군가의 신딸이라는 자격으로 동석한 이들은 일반 임집의 굿이라면 굿의 진행을 곁에서 돕는 조무의 역할이나 시봉자를 돕는 단역에 그친다. 무당에게 굿은 무당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리이다. “전물 본 신령에 석배 본 만신”이라는 서울굿의 관용구처럼 무당은 굿거리 하나라도 연행할 때 무당으로의 존재 의미가 살아난다. 진적굿에서는 이들에게 대신말명거리를 맡김으로 굿판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진적굿의 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를 통해 자신의 신명을 풀고, 무업사회에 미숙하나마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 신어머니가 주관하는 내림굿을 통해 입무한다. 그후 신어머니와 선배 만신의 뒤를 따라다니며 굿법을 배우고 청송을 다니며 어엿한 만신으로 성장하였음을 진적굿을 통해 증명한다. 그리고 진적굿의 굿거리를 신딸과 애동기자에게 맡김으로써 무당 사회에서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거듭났음을 보여준다.

157) 김헌선·지연화, 「굿의 치유 과정 연구 -재수굿에서 만신과 단골의 굿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무속학』 제32집, 2016.

158)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앞의 책(하), 138쪽.

V. 결론

논자는 서울 진적곳의 실상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서울 진적곳의 제차 구성 과정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해명한 바와 해명하지 못한 것을 제시하면서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그간 서울 진적곳 전반을 논의하거나 개별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진적곳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거나 서울곳의 한 분야로 소개한 경우는 있었지만 곳의 순서와 의미를 연구한 것은 드문 형편이다. 서울곳의 하위 갈래의 일부로 소개하거나, 진적곳의 한 부분만을 주목하는 데 그쳤거나 소략하게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 성과의 수가 많지 않고 논의의 폭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진적곳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첫 성과로 일정 부분의 의의를 확보한다. 서울곳의 한 분야를 적출하고 현장에서 충실하게 관찰함으로써 이 곳의 절차와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풀려고 하면서 이 논문은 진행되었다.

2장은 우선 서울 진적곳을 연행 주제, 연행 시기, 연행 목적을 중심으로 개괄적 이해를 제시하기 위한 수순으로 검토하였다. 논의에 불필요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용어를 정리하고, 서울곳에서 진적곳이 놓인 위치를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서울 진적곳은 만신이 연행 주제와 의뢰 주체를 겸하는 신곳의 성격을 지니는 곳 중 하나이며, 다른 신곳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제의이며, 천신(薦新)의 목적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 문헌에 보고된 사례를 찾고, 본 연구자가 직접 참관하여 조사한 사례를 종합하여 서울 진적곳의 자료를 소개하였다. 대략 근대시기 100여년에 걸쳐서 전승된 90여 년간의 7명의 만신이 연행한 16개의 서울 진적곳 사례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진적곳은 무속신앙의 사제자인 무당이 갖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보수성을 확보하여 뚜렷한 전형을 이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앞장에서 도출한 서울 진적곳의 전형에 부합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곳의 실제 연행 양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소상히 살폈다. 진적곳의 실상을 곳의 제차 구성과 무가 사설을 중심으로 밝혔다. 또한 연행예술로의 곳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복·무악·무구 등도 종합적으로 개괄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적곳 연행 전반에는 곳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진적곳은 제차를 임의나 편의에 의해 축소·생략하지 않아 서울곳 대부분의 신격과 연행 방식이 총망라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적곳은 서울 만신이 관습적으로 거론하는 '거리 거리 열두거리'라는 서울곳의 구성 원리가 충실하게 반영되었다.

4장은 서울 진적곳의 의미를 구성과 성격의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서울 진적곳의 고유한 제차는 두 개의 세트에 구성된다. 경기도 개성과 한양의 신기한 명소로 간주되는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와 대신말명거리-몸주놀이-애동기자대신말명거리가 그것이다. 전자는 서울 진적곳의 준비에서부터 마무리 과정을 관통하는 날실로 기능한다. 후자는 진적곳의 연행 중간 중간에 병렬적으로 반복되어 씨줄로 기능한다. 진적곳

의 날줄은 서울곳에서 만신의 조종이 숭앙하는 상산신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덕물산은 일찍이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행의례의 제장으로 무속신앙의 대표적인 성소이다. 상산을 돌아오는 여정에 위치한 여러 성소(聖所)와 만신의 개인적인 성소를 순례하고 신격을 모셔오는 과정이 제당맞이이다. 그리고 상산을 다녀오면서 따라들었다고 관념하는 청계를 배웅하고, 전안에 모셔진 제당신을 돌려보내는 절차가 회정맞이이다. 상산과 관련된 신격을 맞아들이고 배웅한다는 점에서 4개의 거리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적곳의 씨줄은 무조신앙·몸주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신신격과 선대의 무업 조상을 하나의 거리에서 연행하여, 무업 조상을 무조신의 위치로 격상시킨다. 몸주놀기는 만신의 몸주신을 따로 연행하는 거리이다. 반복적으로 연행하는 거리이기도 하고, 혹시 몸주신이 서울곳법에 어긋나더라도 이 거리를 통해 모시고 있어 만신에게 있어 몸주신의 각별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상이한 질서를 연계시켜서 이를 중심으로 진적곳이 짜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것을 통해서 만신은 자신의 영력을 보강하고, 공간적인 체험과 이동을 하면서 신령을 만나는 특별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공간적 판도를 통해서 무속적 지리지를 구현하고, 동시에 일정한 신격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무속적 신앙체계를 도모하고 공유하는 의례적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자신의 신맛이를 연결하면서 단골들을 주도하고 자신의 신격을 개별화하면서 곳을 주도하는 특별한 의미를 환기하는 것이 바로 후자의 면모이다.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곳을 일정하게 의례화하고 동시에 곳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특성을 갖추게 된다.

한편 진적곳에서는 서울곳에 존재하는 보편적 제차도 진적곳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본향거리의 운영방식이 그 예이다. 본향거리를 본향거리와 조상거리로 나누어 두 개의 제차로 확장하여 운영한다. 신격의 성격과 위계를 고려하여 대안주거리 전후로 배치한다. 본향거리는 대안주 전 지역신의 범주에서 연행하고, 조상거리는 대안주 후 인물신의 범주에서 연행한다. 보편적 제차를 재구성하는 핵심이 상산(대안주)거리와 대신말명거리에 있다. 그래서 제차의 확장과 변형에도 불구하고 서울 진적곳의 제차 구성방식은 산만하지 않다. 진적곳의 고유한 제차를 구성하는 원리와 보편적 제차를 구성하는 원리가 상산신앙과 조상신앙(무조신앙)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신에게 있어 내림곳이 사제자로 태어난 생일의 의미를 갖는다면, 진적곳은 생일을 반복적으로 기념하는 의례이다. 기념의 방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먼저 탄생의 의례인 내림곳을 집약적으로 재연한다. 내림곳의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진적곳과 견주어 그 구성과 의미를 확인하였다. 무업과 긴밀하게 연관된 몸주신과 무조신을 중심으로 서울곳의 주요 신격을 고루 청하여 감사를 표한다. 이를 통해 만신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업의 자산인 영력을 보충할 수 있다.

무업사회는 만신, 전악, 단골, 시봉자 등 크고 작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만신의 본질은 신과 인간을 소통하게끔 도와주는 사제자라는 점에 있다. 만신은 이러한 직능을 발휘하면서 신에게는 영험함이라는 정신적 자산을 받고, 인간에게는 곡물과 석

베라는 물질적 자산을 대가로 받으며 생활한다. 그런데 진적굿에서는 이러한 수혜의 관계를 역전하여 진적굿에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자산을 답례하기의 방식으로 증여한다. 단적인 예로 단골이 선물한 곡물과 석배를 진적굿을 통해 만신이 떡과 끈침으로 답례한다. 진적굿을 통해 일어나는 선물하기와 답례하기의 순환을 통해 만신과 단골은 유대감을 다진다. 또 만신은 진적굿을 통해 굿판에 참여한 모든 무업 구성원들에게 영험한 공수를 내려주고, 이들의 선대 조상을 만신 본인의 조상거리를 통해 위무해주고, 때로는 대신말명거리를 통해 무조신으로 승격시킨다. 진적굿을 통해 구성원을 조상-가족이라는 각별한 관계로 여긴다는 것을 의례로 증명함으로써 무업 공동체의식을 공고히 다지는 장이 된다.

서울 진적굿의 제차 구성을 살핀 결과 진적굿만의 고유한 제차 구성의 원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진적굿은 재수굿을 기본 구조로 취한다. 재수굿이 서울굿의 전형이 되는 구성을 이루며, 굿의 목적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굿에서는 찾기 힘든 특별한 제차가 추가되었다. 상산돌기-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 대신말명거리-몸주놀이-애동기자 대신말명거리가 그것이다. 전자는 진적굿의 순서를 사전 준비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직렬로 관통한다. 후자는 진적굿의 중간 중간에 병렬적으로 반복된다. 이들 제차는 각각 진적굿의 날줄과 씨줄이 되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진적굿의 날줄은 서울굿에서 만신의 조종으로 송양하는 덕물산을 근간으로 한 상산신앙이 핵심이다. 진적굿의 씨줄은 대신말명으로 대표되는 무조신앙이 중심에 놓인다.

한편 기존의 서울굿에 존재하는 보편적 제차도 진적굿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분향거리의 분할이다. 분향거리를 분향과 조상으로 나누어 두 개의 제차로 확장하고, 신격의 성격과 위계를 고려하여 대안주 전후로 재구성하였다. 분향거리는 대안주 전 지역신의 범주에서 연행하고, 조상거리는 대안주 후 인물신의 범주에서 연행한다. 보편적 제차를 재구성하는 핵심이 상산(대안주)거리와 대신말명거리에 있어 제차의 확장과 변형에도 불구하고 서울 진적굿은 산만하지 않고 뜻하는 바가 명확함이 확인된다. 1절에서 살핀 진적굿의 고유한 제차를 구성하는 원리와 2절에서 살핀 보편적 제차를 구성하는 원리가 상산신앙과 조상신앙(무조신앙)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신에게 있어 내림굿이 사제자로 태어난 생일의 의미를 갖는다면, 진적굿은 생일을 반복적으로 기념하는 의례이다. 기념의 방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먼저 탄생의 의례인 내림굿을 집약적으로 재연한다. 또한 무업과 긴밀하게 연관된 몸주신과 무조신을 중심으로 서울굿의 주요 신격을 고루 청하여 감사를 표한다. 이를 통해 만신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업의 자산인 영력을 보충할 수 있다. 한편 만신은 무업사회의 구성원이다. 무업사회는 만신, 전악, 단골, 시봉자 등 다양한 주체로 이루어진다. 진적굿은 구성원들간의 관계를 환기시켜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키고 유대를 다지는 계기로 기능한다.

이렇듯 본 논문은 서울 진적굿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 진적굿의 제차 구성과 의미를 밝혔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진적굿과 신굿의 상관성을 논의하지 않은 것을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만신들의 다양한 사례를 집적하여 살피지 못

한 것은 이 논문의 논점에 일정한 제한성을 갖게 한다. 다양한 사례를 과거 위주의 용례를 살피게 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의 제약 때문이다.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진적곳은 다른 강신무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의례이다. 때문에 다른 지역권의 경우와 비교가 이루어졌다면 진적곳의 의의가 보다 선명하게 규명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진적곳은 강신무권의 핵심적인 곳이고 신맞이의 절차이다. 경기도 개성 덕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왕조의 신앙체계와 의례가 유풍으로 전하는 임을 깊게 인식하면서 향후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해명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무·굿과 음식 1 -김유감 진적굿·오수복 진적굿·서울새남굿』,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 , 『서울새남굿』,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2010.
- 김현선, 『한국고전문학전집18 -일반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 이상순, 『서울새남굿 신가집 -삶의 노래, 죽음의 노래』, 민속원, 201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비문학대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항성신문』
- 『대한매일신보』

2. 단행본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 , 『한국무속총서 I 한국무가집 1』,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집문당, 1971.
- 김현선, 『서울굿, 거리 거리 열두거리 연구』, 민속원, 2011.
- , 『서울 진오기굿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2011.
- , 『한국무조신화연구 -비교신화학의 자료적 가치와 의의』, 민속원, 2015.
- 서대석, 『무당내력』, 민속원, 2005.
- 신연우, 『서울굿 노랫가락과 시조문학』, 보고서, 2013.
- 이능화 저, 서영대 역, 『조선무속고 -역사로 본 한국 무속』, 창비, 2008.
- 조흥윤, 『한국의 무(巫)』, 정음사, 1983.
- ,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최길성, 『한국의 무당』, 열화당, 1985.
- 최종성,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일지사, 2002.
- 하효길 외, 『한국의 굿』, 민속원, 2002.
- 한국무속학회, 『서울굿의 이해』, 민속원, 2007.
- 홍태한,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 민속원, 2007.
- , 『서울굿의 다층성과 다양성』, 민속원, 2012.
- 황루시, 『우리무당이야기』, 풀빛, 2000.
- 마르셀 모스 저, 『증여론』, 이상률 역, 한길사, 2011.
- 무라야마 지준 저, 『조선의 무격』, 최길성·박호원 역, 민속원, 2014.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공저, 『조선무속의 연구』 상·하,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아키바 다카시 저, 『조선민속지』,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 『춤추는 무당과 춤추지 않는 무당』, 심우성·박해순 역, 한울, 2000.

3. 논문

- 고영희, 「서울지역 당신화 연구 -행당동 아끼씨당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 김기형, 「무굿 연구의 현황과 과제」,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3.
- 김은정, 「강신무복의 포에 관한 연구 -서울굿 무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2003.
- 김철웅, 『고려시대 「잡사」 연구 -초사, 산천·성황제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현선, 「‘맞이’로 다시 보는 우리 신화」, 『경기어문학』 제10집, 경기어문학회, 2005.
- , 「무속과 정치 -쇠걸립, 쇠내림, 사제계승권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민속학』 26집, 비교민속학회, 2004.
- , 「서울굿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무속학』 제12집, 한국무속학회, 2006.
- , 「서울굿 열두달 치성의례와 경제적 상관성 연구」, 『비교민속학』 27집, 비교민속학회, 2004.
- , 「<장부거리>무가의 성립 과정」, 『고전문학연구』 9권, 한국고전문학회, 1994.
- , 「한국의 굿과 떡의 상관성 연구」, 『비교민속학』 31집, 비교민속학회, 2006.
- 김현선·김형근, 「서울굿 <대안주거리>의 문화사적 의의 연구 -신의 복합화와 가무악화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7권, 한국민속학회, 2008.
- 김현선·지연화, 「굿의 치유 과정 연구 -재수굿에서 만신과 단골의 굿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무속학』 제32집, 2016.
- 김형근, 「서울 새남굿 도령돌기의 의미와 위상」, 『한국무속학』 제24집, 한국무속학회, 2012.
- 반혜성, 「서울굿의 거리 구성과 음악」, 『국악원논문집』 제34집, 국립국악원, 2016.
- 백은영, 「문헌설화와 구비전승에 나타난 고려의 기억 -문화적 기억 속의 최영장군」, 『한국중세사연구』 제23집, 한국중세사학회, 2007.
- 변지선, 「서울진오기굿 ‘도령돌기’의 성격과 의미」, 『남도민속연구』 제14집, 2007.
- , 『서울진오기굿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7.
- 신연우, 「서울굿 노래가락의 구성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28호, 한국고전문학회, 2005.
- , 「서울굿의 타령·만수만이·노랫가락의 관계」,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 , 「서울굿 무가 노랫가락의 양상과 기능」, 『구비문학연구』 제21호, 한국구비문학회, 2005.

- 신연우, 「시조와 서울 굿 노랫가락의 관계」, 『동방학지』 제132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 염원희, 『서울굿 <불사거리>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1.
- 유효순, 『한국의 무속 복식 연구 -서울굿 무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4.
- 이명숙, 「서울 재수굿의 부정거리 연구」,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 이용범, 「강신무·세습무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무속학』 제7집, 한국무속학회, 2003.
- , 「굿, 소통을 통한 관계맺음의 의례」, 『한국무속학』 제32집, 한국무속학회, 2016.
- , 「근대화 과정에서의 무속과 공동체 문화」, 『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 「서울굿 12거리 치성의례와 경제적 상관성 연구」, 『비교민속학』 27집, 2004.
- , 「한국무속에 있어서 조상의 위치」, 『민족과 문화』 10호,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2001.
- ,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 -서울 지역 재수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 , 「한국 무속에 나타난 신의 유형과 성격 -서울지역 무속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13호, 국립민속박물관, 2003.
- 이은우, 「서울 진적굿과 바리공주의 상관성 -대신말명거리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2호, 2014년.
- 장순범, 「허주굿과 삼산돌기를 통한 입무과정 재인식」, 『한국무속학』 제16집, 한국무속학회, 2008.
- 장정태,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간신앙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5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 최길성, 「궁중무속자료」, 『한국민속학』 2권, 한국민속학회, 1970.
- , 「한국 조상숭배의 연구 -연구사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15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 , 「한말의 궁중무속 -궁중 “발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권, 한국민속학회, 1970.
- , 「한의 상징적 의미 -최영장군의 죽음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집, 비교민속학회, 1989.
- 최진아, 「서울굿의 무구 연구」, 『한국무속학』 제12집, 한국무속학회, 2006.
- 홍태한, 「서울굿 ‘굿거리 장단’ 연구」, 『비교민속학』 37집, 비교민속학회, 2008.
- , 「서울굿 장단과 굿거리의 관련성」, 『남도민속연구』 16호, 남도민속학회,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the Meaning of Seoul Jinjeok Gut

Lee, Eun-Woo

Majored in Classical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

Jinjeok Gut is a kind of a gut that Manshin prays for Momjushin and thanks for all gods of Seoul Gut, performing the prosperity of gut. The anniversary or the auspicious day related to the shaman's work is selected by Manshin, who is the agent of the gut and the client. Manshin is a priest and a particular believer of shamanism. So the gut of the Manshin has little room to be damaged by temporal and material convenience. Shin Gut reflects the cyclical aspect, and Jinjeok Gut is the only gut that is periodically executed. Therefore, it is easy to approach and high degree of completion compared to other Shin Gut, so we can grasp the unique principle and meaning of Shin Gut that embodies the identity of Manshin.

In the past,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the whole Seoul Gut. In this paper, I present the data of 16 Seoul Jinjeok Gut composed of 7 Manshins, paralleling the collected literature which has been reported. It secures conservatism derived from the consciousness of vocation that Manshin, the priest, has.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all the orders are carried out thoroughly without decreasing or omitting the others according to convenience. Therefore, the composition principle of Seoulgut is faithfully reflected.

The Seoul Jinjeok Gut consists of 21 chapters from the preparation process, Sansandolgi, to the completion ceremony, Hoejeongmajji. These orders are made up of Jaesu Gut as the base of the ritual gut, added by the unique orders of Jinjeok Gut. Jaesu Gut is a gut that is regarded as the basic form of Seoul Gut, putting together most of the divinities of Seoulgut, and has the same purpose as Jinjeok Gut.

The unique orders of Seoul Jinjeok Gut consist of two sets. One is Sansandolgi-Cheonggyeobaeung-Jedangmajji-Hojeongmajji, and the other is Daeshinmalmyeonggeori-Momjunolgi-Aedonggijadaeshinmalmyeonggeori. The former pierces the order of Jinjeok Gut in series from the preparation process to the finishing such as the warp threads. The latter is repeated in the middle of Jinjeok Gut like the weft. Each of the rituals is combined organically. The main line of Jinjeok Gut is the Sangsan faith based on Mt. Deokmul which is worshiped as the progenitor of Manshin in Seoul Gut. The weft of the Jinjeokgut is centered on Mujo faith represented by Deashinmalmyeong.

On the other hand, it is confirmed that the universal orders existing in Seoul Gut is reconstructed in a way that conforms to the purpose of Jinjeok Gut. A typical example of this is the division of Bonhyangeori. It was divided into Bonhyeong and Josang, extended to two orders, and reconstructed, considering the characters and the hierarchy of divinity. Bonhyangeori is performed in the category of the gods of the whole region, and Josanguri is performed in the categories of the personificated gods. In terms of the main point, restructuring the universal order in the Sansangeori and Daeshinmalmyeonggeori, in spite of being expanded and transformed, it is confirmed that the Seoul Jinjeok Gut is not distracted and clear-cut.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constituting the inherent order of Jinheok Gut in Section1 and the universal ritual in Section2 have the same point of view as that of Sangshan faith and Mujo, ancestor faith.

If there is a meaning of the birthday of Naerim Gut as a priest, the Jinjeok Gut is a ritual that repeatedly commemorates the birthday. There are two ways to celebrate them. It reenacts Naerim Gut as a ritual of birth, and expresses gratitude, evenly summoning the main gods of Seoul Gut, centered on Momjushin and Mujoshin connected closely with shaman's work. Through this, Manshins can return to their first intention and supply the spiritual power of shaman's work. Manshins are members of the shaman's society. This society consists of various subjects such as Manshin, Jeonak, Dangol, and Shibongja. Jinjeok Gut reconnects the members of the shaman's society and binds them together as one community, strengthening the bonds.